장춘동수창록

본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한국학 저술・국역 출판지원을 받아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한 것임.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1

장춘동수창록

長春洞酬唱錄

박종훈 譯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옥산서실 소장《장춘동수창록(長春洞酬唱錄)》으로 하였다.
2. 간단한 설명은 풀어서 번역하고, 역주(譯註)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인명과 지명, 고유 용어 등은 한자를 병기(倂記)하였다.
4.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은 원문을 함께 적었다.
5.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번역문과 뜻은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재인용 혹은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책명 및 각주의 출처를 묶는다.
   〈 〉 : 책의 편명 및 운문·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 소주(小注)를 본문과 구별하는 데 쓴다.
   □ : 원문의 빠진 글자를 표시한다.
   ▨ : 원문의 불분명한 글자를 표시한다.

차례

일러두기 | 4

해제 | 9

국역 | 원문

용성창수집

용성창수집 龍城唱酬集 31 | 331

대둔산수창록

대둔산수창시 서문을 덧붙이다 大芚山酬唱詩 幷序 45 | 339

두륜사에서 읊조려 백윤과 숙도 두 학사에게 드리다
頭輪寺吟呈伯胤叔度兩學士 50 | 340

선명 세형에게 읊조려 주면서 더불어 백윤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하다 吟贈善鳴世兄 兼要伯胤行敎 52 | 340

다시 두 형에게 드리면서 화답을 구하다
再呈兩兄求和 54 | 341

만력 기원 갑진년 10월 상순에 청음거사가 최락재에서 쓰다
萬曆紀元甲辰十月上澣 淸陰居士書于最樂齋 55 | 341

대둔산 송담에서 노닌 것을 기록하다
大芚松潭記遊 59 | 342

대둔산에서 옛일에 감회가 일어 大芚山感舊 63 | 344

차운하다 次 64 | 344

삼가 선조께서 수창했던 작품의 운자에 차운하다
伏次先祖酬唱韻 65 | 344

송담에서 써서 주인 이군에게 보내다
松潭書贈主人李君 68 | 345

차운하다 次 70 | 346

삼가 선조가 다른 사람의 운자에 차운한 작품에 차운하다
伏次先祖次人韻 72 | 346

대둔산에서 차운하다 大芚山次韻 75 | 347

송담에서 차운하다 松潭次韻 77 | 348

만사

옥봉선조시 임오년 玉峯先祖時 壬午年 87 | 353

송호선조시 기미년 松湖先祖時 己未年 107 | 357

송호선조부인 장시 신해년 松湖先祖夫人葬時 辛亥年 180 | 372

옥봉선조부인 후위개장시 정묘년
玉峯先祖夫人後位改葬時 丁卯年 217 | 381

옥천고조시 병술년 玉川高祖時 丙戌年 235 | 385

고조모 전주 이씨 장시 을묘년
高祖母全州李氏葬時 乙卯年 252 | 391

조부시 계해년 祖父時 癸亥年 267 | 395
증조부시 을축년 曾祖父時 乙丑年 296 | 403
선고시 계축년 先考時 癸丑年 324 | 412

당대 문인들의 교유의 장《장춘동수창록(長春洞酬唱錄)》

박 종 훈

1.《장춘동수창록(長春洞酬唱錄)》

'수창(酬唱)'이란 당대 문인들이 시가(詩歌)를 서로 주고받은 것인데, 이를 책으로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수창록(酬唱錄)'이다. 수창은 동일한 시대의 문인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시문을 주고받거나 학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당대 문인들의 교유 양상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장춘동수창록》은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의 옥산서실에 소장되어 있다.《장춘동수창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용성창수집(龍城唱酬集)》 관련 시문과《대둔산수창록(大芚山酬唱錄)》 관련 시문이 차례대로 실려 있으며, 백광훈(白光勳)을 필두로 수원 백씨(水原白氏) 집안 총 9인 관련 만사(輓詞)와 제문(祭文) 262편이 실려 있다.

《용성창수집》 관련 시문은 1578년 남원(南原) 광한루(廣寒樓)에서 수창한 작품을 기록한 것으로 이달(李達), 백광훈, 임제(林悌), 손여성(孫汝誠), 양대박(梁大樸) 다섯 사람의 시 작품 11수와 임제의 기문(記文)이 실려 있다. 앞부분이 일실되어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어 《대둔산수창록》 관련 시 작품과 기문이 실려 있다. 김상헌(金尙憲)과 백진남(白振南)이 1601년 해남의 대둔산에 모여 수창한 작품을 필두로, 그들의 후손인 김창집(金昌集) 형제와 백몽삼(白夢參)이 수창한 작품, 또한 이들의 6대손이 쓴 제발 등 총 40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두 집안의 6대에 걸친 세교(世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백광훈을 필두로 백광훈의 처, 백진남, 백진남의 처, 백상빈(白尙賓), 백상빈의 처, 백명헌(白明憲), 백몽삼, 백수형(白受珩) 총 6대에 걸친 9인과 관련된 190인의 만사와 제문 262편이 실려 있는데, 백수형의 만사 뒷부분은 일실되었다.

《장춘동수창록》에는 백광훈과 그의 아들 백진남이 당대 저명한 인사들과 수창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대 문인들의 교유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게다가 만사나 제문 작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부자, 형제, 사돈 등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으며, 사승관계 또한 목격된다. 이를 통해 백씨 집안을 중심으로 한 세교의 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작가들의 면면을 통해 한 집안의 변천사 역시 통람할 수 있다. 또한 《장춘동수창록》 속의 개인 작품 중 개인 문집에 누락된 것이 산견되어, 개인 문집의 온전한 재구에도 도움이 된다. 《용성창수집》, 《대둔산수창록》, 만사와 제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2. 《용성창수집(龍城唱酬集)》

《용성창수집》은 전라북도 남원의 광한루(廣寒樓)에서 열렸던 시회

(詩會)의 작품을 묶어 놓은 것이다. 임제(林悌)는 1577년 9월 문과에 급제하고 부친을 뵈러 11월에 제주로 근친(覲親)을 떠났다. 1578년 2월 부친을 하직하고 제주도를 떠나 3월 상경하는 길에 남원에 들러 광한루에서 손여성, 백광훈, 이달, 양대박, 백진남과 시회를 가졌는데, 이때의 작품을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용성창수집》이다.

이때 주고받은 작품을 《용성창수집》으로 엮었는데, 서울에서 이 수창집이 유행하여 종이 값이 올랐다는 풍문이 들릴 정도의 성대한 시회였다. 그러나 양경우(梁慶遇)의 《제호시화(霽湖詩話)》와 양대박의 《청계유고(淸溪遺稿)》 서(序), 임제의 〈용성창수(龍城唱酬)〉(《백호속집(白湖續集)》), 백광훈의 〈연보(年譜)〉(《옥봉집(玉峯集)》), 허균(許筠)의 《성소복부고(醒所覆瓿藁)》, 홍만종(洪萬宗)의 《소화시평(小華詩評)》, 이달의 〈용성창수집(龍城唱酬集)〉(《손곡집(蓀谷集)》), 백진남의 〈사실(事實)〉(《송호집(松湖集)》) 등에 관련 기록과 작품의 일부가 보일 뿐이다.

《용성창수집》에 수록된 작품을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작가	형식	개인 문집 수록 여부
1	貞海後人(白光勳)	詩(오언율시)	〈廣寒樓, 次白湖林子順〉(《玉峯集》)
2	松巖(梁大樸)	詩(칠언율시)	《淸溪集》 不載
3	碧山(林悌)	詩(칠언율시)	〈龍城廣寒樓酒席酬唱〉(《林白湖集》)
4	村老(孫汝誠)	詩(칠언율시)	
5	李逵	詩(칠언율시)	〈龍城, 次玉峯韻〉(《蓀谷詩集》)
6	玉峯(白光勳)	詩(칠언율시)	〈次松巖梁士眞〉(《玉峯集》)
7	梁大樸	詩(칠언율시)	〈龍城廣寒樓酒席酬唱〉(《淸溪集》)
8	碧洞(林悌)	詩(칠언율시)	〈龍城廣寒樓酒席酬唱〉(《林白湖集》)
9	蓀谷山人(李逵)	詩(칠언율시)	〈龍城, 次玉峯韻〉(《蓀谷詩集》)
10	村老(孫汝誠)	詩(칠언율시)	

11	玉峯(白光勳)	詩(칠언율시)	〈廣寒樓孫明府席上〉(《玉峯集》)
12	碧山林子順(林悌)	記文	《林白湖集》 不載

시 11수와 기문 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백광훈의 1번 작품은 앞부분이 일실된 채 뒷부분만 수록되어 있다. 이로 보건대, 《용성창수집》의 온전한 형태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앞부분이 일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대둔산수창록(大芚山酬唱錄)》

'장춘동(長春洞)'은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군 대둔산 일대를 말한다. 장춘동에서 수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상헌(金尙憲)의 글에 자세하다.

> 신축년(辛丑年, 1601) 9월 나는 왕명을 받들고 탐라(眈羅)로 가는 길에, 해남(海南)의 공관(公館)에서 순풍(順風)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명(善鳴) 백진남(白振南)이 내가 온 것을 듣고서는 곧바로 와서 만나 보았다. 이때에 백윤(伯胤) 이홍주(李弘胄) 또한 체부 종사관(體府從事官)으로 영남(嶺南)에서 바닷가를 따라 순찰하다가 이 고을에 이르렀다. 하루는 망원루(望遠樓)에서 세 사람이 모였는데, 선명 백진남이 갑자기 대둔산(大屯山)의 장춘동(長春洞)을 유람하자고 제의했다.
>
> 다음 날 나와 백윤 이홍주는 선명 백진남을 데리고 각기 따라다

니면서 모시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가서는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읊조리면서 하루 종일 정회(情懷)를 풀었다. 이에 선명 백진남에게 팔분체(八分體)로 이때 지은 시편(詩篇)을 적어 둘 것을 부탁했다. 그 작품들은 훌륭한 재주의 아정(雅正)으로, 비록 누구의 것이 더 나은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영화(永和) 연간에 여러 현인(賢人)들이 모여 무성한 숲과 긴 대나무의 승경(勝景)을 즐겼다는 왕희지(王羲之)의 난정(蘭亭)보다 못하지는 않았으니, 이 또한 한때의 즐거운 일이었다.

4년이 지난 갑진년(甲辰年, 1604) 가을에, 선명(善鳴) 백진남(白振南)이 바닷가를 따라 서울에 와서 나와 몇 달을 함께 자면서 지냈다. 산재(山齋)에서 고요하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지난날 노닐던 생각이 나서 상자 속에 담아 보관했던 옛 시구(詩句)를 찾아 꺼내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읊조리니, 어제의 일인 양 기억이 또렷했다. 선명 백진남이 또한 나에게 그 시구를 손수 쓰고 더불어 노닐었던 일의 전말(顚末)을 써서 수창록(酬唱錄) 앞에 얹기를 요청했다.

아, 지난 신축년에 나는 서울에서 벼슬살이하고 있었고, 백윤(伯胤) 이홍주(李弘胄)는 영남(嶺南)에서 좌막(佐幕)으로 있었으며, 선명 백진남은 멀리 바닷가 남쪽 한 모퉁이에 있었다. 한곳에서 세 사람이 서로 만난 것은 마치 새벽별이 희미하여 쉽게 볼 수 없는 것과 같았을 뿐만 아니라, 하룻밤에 만나 마침내 멋진 모임을 이룬 것은 마치 오래전에 약속하여 그 약속을 지킨 것과 같았으니, 이때에 조물주(造物主)가 무슨 마음으로 세 사람을 모이게 했는지 모르겠다.

얼마 후, 나는 탐라로 들어갔고 백윤 이홍주는 영남의 막사로 돌아갔다. 저 장춘동에서의 노닒은 비록 전후(前後)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선명 백진남만이 헤어진 근심을 홀로 안고 서글피 꿈속에서 날아가고픈 생각이 있었지만, 푸른 물 계곡 사이를 오가며 옛 노닐던 자취에 다가서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때에 조물주는 무슨 마음으로 세 사람을 헤어지게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선명 백진남은 비록 나와 함께 한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백윤 이홍주는 서관(西關) 천 리 밖에서 벼슬살이 하고 있다. 대둔산과의 거리는 아득하여 마치 봉래산(蓬萊山)과 영주산(瀛洲山) 그리고 신선이 사는 현포(玄圃)에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비록 대둔산에서 거듭 세 사람이 모이고자 하지만, 또한 어떻게 그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 두 사람은 마음이 서글프고 옛일에 느꺼움이 있어 잊을 수가 없었다. 비록 그렇지만 뜬 인생 백 년이란 것이 마치 가벼운 물거품 같아, 물도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고 흩어지면 반드시 모이는 법이며, 슬픔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과 근심을 번갈아 겪으면서 늙음에 이르기 마련이다. 이 또한 인간사의 상도(常道)이니, 진실로 슬퍼할 것이 못된다. 이로써 선명 백진남을 위로하고 또한 스스로를 달랜다.

김상헌은 1601년 안무어사(安撫御史)가 되어 제주에 파견된 일이 있는데, 제주도 가는 길에 해남에서 이홍주와 백진남을 만나 함께 장춘동을 유람했다. 이때의 작품을 엮어 두었다가 김상헌이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고 백진남이 서울에 올라와 함께 지내면서 백진남의

부탁으로 1604년 10월 상순에 서문를 쓰게 된 것인데, 김상헌의 《청음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어 수창했던 세 사람의 작품 9수가 수록되어 있으며(2번~10번 작품), 이후 이들 작품에 차운한 시 작품과 제발(題跋)이 실려 있다. 《장춘동수창록》에 수록된 《대둔산수창록》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작가	작품 제목(창작 연도)	비고	
1	金尙憲	〈大芚山酬唱詩〔幷序〕〉(1601년)	《淸陰集》 不載	
2	白振南	〈頭輪寺吟呈伯胤叔度兩學士〉(1601년)		《松湖集》 수록
3	金尙憲	〈頭輪寺吟呈伯胤叔度兩學士〉(1601년)	《淸陰集》 不載	
4	李弘胄	〈頭輪寺吟呈伯胤叔度兩學士〉(1601년)		
5	金尙憲	〈吟贈善鳴世兄兼要伯胤行敎〉(1601년)	《淸陰集》 不載	
6	李弘胄	〈吟贈善鳴世兄兼要伯胤行敎〉(1601년)		
7	白振南	〈吟贈善鳴世兄兼要伯胤行敎〉(1601년)		《松湖集》 수록
8	白振南	〈再呈兩兄求和〉(1601년)	《松湖集》 수록	
9	李弘胄	〈再呈兩兄求和〉(1601년)		
10	金尙憲	〈再呈兩兄求和〉(1601년)	《淸陰集》 不載	
11	金壽恒	題跋(1676년)	〈書大芚酬唱詩序後〉 (《文谷集》)	
12	金昌集	〈大芚松潭記遊〉(1678년)	《夢窩集》 不載	
13	金昌集	〈大芚山感舊〉(1678년)	《夢窩集》 不載	
14	金昌翕	〈次〉(1678년)	〈大芚山感舊〉(《三淵集》)	
15	金昌翕	〈伏次先祖酬唱韻〉(1678년)	《三淵集》 수록	
16	金昌翕	〈伏次先祖酬唱韻〉(1678년)	《三淵集》 수록	
17	金昌翕	〈伏次先祖酬唱韻〉(1678년)	《三淵集》 수록	
18	金昌集	〈伏次先祖酬唱韻〉(1678년)	《夢窩集》 不載	

19	金昌集	〈伏次先祖酬唱韻〉(1678년)	《夢窩集》 不載
20	金昌集	〈伏次先祖酬唱韻〉(1678년)	《夢窩集》 不載
21	金昌翕	〈松潭書贈主人李君〉(1678년)	《三淵集》 수록
22	金昌翕	〈松潭書贈主人李君〉(16788년)	《三淵集》 수록
23	金昌集	〈次〉(1678년)	《夢窩集》 不載
24	金昌緝	〈次〉(1678년)	《圃陰集》 不載
25	金昌集	〈伏次先祖次人韻〉(1678년)	《夢窩集》 不載
26	金昌集	〈伏次先祖次人韻〉(1678년)	《夢窩集》 不載
27	金昌翕	〈伏次先祖次人韻〉(1678년)	〈松湖亭伏次先祖次人韻〉(《三淵集》)
28	金昌緝	〈伏次先祖次人韻〉(1678년)	《圃陰集》 不載
29	白夢參	〈大芚山次韻〉(1678년)	
30	白夢參	〈大芚山次韻〉(1678년)	
31	白夢參	〈大芚山次韻〉(1678년)	
32	白夢參	〈大芚山次韻〉(1678년)	
33	金昌集	〈松潭次韻〉(1678년)	《夢窩集》 不載
34	金昌集	〈松潭次韻〉(1678년)	《夢窩集》 不載
35	金昌集	〈次〉(1678년)	《夢窩集》 不載
36	金昌集	편지(1678년)	《夢窩集》 不載
37	趙正萬	次韻詩(1678년)	《寤齋集》 不載
38	金元行	題跋(1762년)	〈題白徹源所藏大芚酬唱詩〉(《渼湖集》)
39	金履安	題跋(1788년)	〈書大芚酬唱錄後〉(《三山齋》)
40	金履度	題跋(1788년)	

이후 김상헌(金尙憲)의 손자인 김수항(金壽恒)이 1676년 전라남도 영암에 유배 와서 지은 제발이 실려 있다.(11번 작품) 이 글에서는

백광훈(白光勳)과 자신의 증조부인 김대효(金大孝)의 교유로 세교(世交)가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해남의 대둔산 두륜사(頭輪寺)에서 자신의 조부인 김상헌과 백진남, 이홍주가 수창하게 된 정황을 언급했다. 이때 수창한 작품을 백진남의 요청으로 김상헌이 손수 병서와 시 작품을 썼으며 모본을 만들어 두륜사 스님에게 주어 절의 벽에 새기게 한 정황과 그 진적을 백씨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상세하게 언급했다. 또한 김수항이 영암으로 유배 오자 백진남의 손자인 백명헌(白明憲)이 이 시첩을 가지고 와 보게 되어 이처럼 서문을 쓰게 되었다고 자술했다. 이 글은 김수항의 《문곡집(文谷集)》에 〈서대둔수창시서후(書大芚酬唱詩序後)〉라는 제명으로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대둔산수창록》과 관련된 상세한 정황은 물론 두 집안의 세교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수항의 아들인 김창집(金昌集)의 〈대둔송담기유(大芚松潭記遊)〉가 실려 있다.(12번 작품) 1675년 김수항이 영암에 유배되자 모시고 갔다가 이듬해 소쇄원(瀟灑園) 등을 유람하고 1677년 서울로 돌아왔다. 1678년 다시 영암으로 내려가 그 일대를 유람했는데, 이때에 해남에 있는 백진남의 증손 백몽삼을 만나 대둔산과 백진남이 거처했던 송담(松潭)을 유람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양 집안의 선조(先祖) 때부터 지속된 세교에 깊은 우의의 정을 담아낸 글인데, 김창집(金昌集)의 《몽와집(夢窩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이어 이때에 김창집(金昌集), 김창흡, 김창집(金昌緝), 백몽삼이 조상이 노닐던 곳을 찾아본 감회를 서술한 시 작품 23수가 차례대로 실려 있는데,(13번~35번 작품) 김창집(金昌集)이 1678년 5월 상순에 기록한 것이다.

다음은 김창집(金昌集)이 서울로 돌아온 후 1678년 11월 7일에 해남

의 백진남에게 보낸 편지글이 실려 있다.(36번 작품) 서울로 돌아와서야 대둔산을 유람하며 수창한 작품을 써서 보낸다는 내용인데, 이 편지글 역시 《몽와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대둔산수창록》에는 김씨와 백씨 두 집안 외에 김창협·김창흡과 교유했던 조정만(趙正萬)이 1678년 11월 하순에 쓴 작품이 있어 눈에 띈다.(37번 작품) 함께 노닐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한 작품인데, 자신의 문집인 《오재집(寤齋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1762년 5월 김상헌의 5대손인 김원행(金元行)이 쓴 제발이다.(38번 작품) 김원행은 백진남의 5대 손인 백철원(白徹源)의 방문을 받고 대둔산에서 백진남과 김상헌이 유람하며 수창한 이래, 그 후손들인 백몽삼과 김창집 형제들의 대둔산에서의 교유 사실을 기록하면서 160여 년간 지속된 두 집안의 우의를 칭송했다. 이 작품은 김원행의 《미호집(渼湖集)》 권13에 〈제백철원소장대둔수창시(題白徹源所藏大芚酬唱詩)〉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김리안(金履安)은 김원행의 아들로, 1788년 백진남의 후손인 백사건(白師健)이 양 집안 선조들이 대둔산에서 수창한 시집을 보여 주자 그 감회를 쓴 것으로(39번 작품), 김리안의 《삼산재집(三山齋集)》 권9에 〈서대둔수창록후(書大芚酬唱錄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어 김수항의 고손(高孫)인 김리도(金履度)의 제발이 실려 있다.(40번 작품) 이 작품은 1778년 6월에 지은 것으로, 백사건이 안동에 있는 자신의 거처를 방문하여 선조들의 유묵이 담긴 《대둔산수창록》을 보여 준 정황과 두 집안의 지속적인 세교를 기원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대둔산수창록》에는 서(序), 제발(題跋), 시, 편지 등 40편의 글이 실려 있다. 안동 김씨(安東 金氏) 김상헌과 수원 백씨(水原 白氏) 백진

남에서 시작된 세교는 김창집 형제와 백몽삼을 비롯 이후 이들의 6대손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초창기처럼 후대에도 세교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6대에 걸친 세교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가치 있는 자료라 하겠다. 또한 개인 문집에 누락된 작품이 산견되어, 개인 문집을 온전히 재구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백광훈 이하 6대의 만사와 제문

《장춘동수창록》 끝부분에는 옥봉 백광훈, 송호 백진남, 송호부인 윤씨, 옥봉부인 정씨, 옥천 백상빈, 옥천부인 이씨, 백몽삼, 백명헌, 백수형과 관련된 만사 및 제문이 순차적으로 실려 있다. 이들 만사와 제문의 작가들을 《장춘동수창록》에 실린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작품 수이다.

해당 인물	형식	작가	비고
1. 白光勳/ 壬午年(1582)	輓詞	李珥, 宋寅, 鄭澈, 丁景達, 朴淳, 李義健, 崔慶昌, 林悌, 尹箕, 梁山逈, 李忠元, 李一元.	12人 12首
	祭文	李好閔, 安敏學, 鄭澈, 金千鎰.	4人 4篇
2. 白振南/ 己未年(1619)	輓詞	沈喜壽(2), 李好閔, 柳根, 李廷龜, 申欽, 崔瓘, 張晩, 申翊聖, 金存敬, 辛景行, 金玄成(4), 宋英耉, 尹暄, 曺倬, 金堉, 李春元(2), 李安訥(2), 李弘胄, 尹惟幾, 朴東說, 洪瑞鳳, 全有亨, 韓懷, 趙纘韓(2), 高用厚, 南以雄(2), 車雲輅, 尹光啓(2), 玄德升, 趙希逸, 趙緯韓(2), 李敏求, 洪千璟, 任叔英, 高傅川, 李明漢, 李敬元, 嚴惺, 鄭弘溟, 陳景文	47人 60首

		(2), 李榮元, 鄭蘚, 金光爀(2), 李元胄, 李碩基, 梁亨遇, 梁禮容(3).	
	祭文	尹光啓, 權啓, 李敬元.	3人 3篇
3. 松湖夫人 尹氏/ 辛亥年(1611)	輓詞	柳根, 李廷龜, 申欽, 金玄成, 尹唯幾, 朴東說, 尹暉, 李安訥, 金尙憲, 金止男, 尹唯深, 趙希逸, 車天輅, 尹煌(2), 尹光啓(2), 洪雰, 林㦤, 崔蕕, 趙緯韓, 尹燧(2), 趙維韓, 朴鼎吉, 趙纘韓, 姜沆, 洪千璟, 金克寧, 權韠, 林檜, 尹頊, 陳景文(3), 金安邦, 金安宇, 吳挺男, 尹綽.	34人 39首
	祭文	尹光啓.	1人 1篇
4. 玉峯夫人 鄭氏/ 丁卯年(1627)	輓詞	申欽(2), 李明漢, 趙希逸, 李春元(2), 申翊聖, 張維, 李廷龜(2), 金存敬, 柳根(2), 李景奭, 金尙容, 李景義, 李弘胄, 鄭弘溟, 尹唯幾, 李安訥(2).	16人 21首
5. 白尙賓/ 丙戌年(1646)	輓詞	李景奭, 金光炫(2), 洪霙, 許啓, 南斗瞻, 林埬(3), 呂爾載, 愼天翊, 尹善道, 曺行立, 南翧, 郭聖龜(2), 李克誠(2), 呂爾弘, 朴忠廉(2), 梁致南(2), 尹善繼(2), 尹仁美(2), 沈廷敏, 尹績(2).	20人 30首
	祭文	白尙賢.	1人 1篇
6. 玉川夫人 李氏/ 乙卯年(1615)	輓詞	李好閔, 柳根, 金尙容, 金玄成, 金墍, 失名, 尹唯幾, 李安訥, 洪瑞鳳, 金尙憲, 林惰, 許禴, 趙希逸, 趙緯韓, 楊時晉, 梁慶遇, 任叔英, 閔與顔, 高傅川, 羅茂松.	20人 20首
7. 白夢參/ 癸亥年(1683)	輓詞	吳君錫, 曺一會, 李漢龜, 徐鳳翎, 李弘命, 梁禹疇, 尹天厚, 李弘基, 朴寏, 金震羽, 尹爾錫, 吳永錫, 曺一遵(2), 高世大, 玄徵, 閔	23人 28首

		孝祉, 尹徵龜, 崔宣錫, 吳壽錫, 吳禎錫, 愼聖矩, 白良憲, 白夢柳(4).	
8. 白明憲/ 乙丑年(1685)	輓詞	吳永錫, 高世亨, 尹善五, 吳亨錫, 柳櫋, 吳玄錫, 尹致美, 高斗春, 林炯, 崔宣錫, 李嘉徵, 愼廷翊, 玄徵, 尹天厚, 曺一會(2), 梁禹疇, 李弘命, 安衡相, 尹徵龜(2), 閔孝祉, 朴寔, 白良憲, 愼弘翊(2), 金鍊長(2), 金胄翰, 宋演(2), 李聃老.	27人 32首
	祭文	宋演.	1人 1篇
9. 白受珩/ 癸丑年(1733)	輓詞	李徵奎(2), 尹琯(2), 梁瑩中(5), 失名, 以後 逸失	4人 10首

백수형의 만사 뒷부분이 일실되었지만, 총 6대에 걸친 9인과 관련된 190인의 만사와 제문 262편이 실려 있다. 각 인물과 만사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1)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자는 창경(彰卿), 호는 옥봉(玉峯)이다. 박순(朴淳)의 문인으로 이후백(李後白)·양응정(梁應鼎)·노수신(盧守愼)에게 배웠다. 1564년 진사가 되었으나 관직에 뜻이 없었고 1572년 명(明)나라 사신에게 시와 글을 지어 준 바 있다. 송시(宋詩)의 풍조를 버리고 당시(唐詩)의 풍조를 쓰려고 노력하여 최경창(崔慶昌)·이달(李達)과 함께 삼당파(三唐派) 시인으로 불렸으며, 문장에도 능하여 팔문장(八文章)으로 칭송받았다.

《장춘동수창록》에 실린 만사는 백광훈이 죽은 해인 임오년(壬午年, 1582)의 작품을 묶은 것이다. 최경창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의 만사가 종요(鍾繇)와 왕희지(王羲之)의 묘를 얻은 필법과 당시(唐詩)에 핍진했던 시풍을 칭송하고 있다. 이들 만사는 대부분《옥봉집(玉峯集)》별집(別集)에 수록된 것과 동일하다. 최경창, 이이, 송인, 정철, 안민학, 김천일, 박순의 만사는 각 개인 문집에서도 확인되지만, 임제의 만사는《임백호집(林白湖集)》에 보이지 않는다.

2) 송호(松湖) 백진남(白振南)

자는 선명(善鳴), 호는 송호(松湖)로, 백광훈의 아들이다. 15세에 이이(李珥)가 그의 시부(詩賦)를 칭송했고 정유재란 때에는 이순신(李舜臣)의 진중에 피란했는데, 당시 명나라 장수 계금피(季金皮)·승덕(承德)이 그의 시초(詩草)를 보고 크게 칭찬한 바 있다. 1606년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왔을 때 유근(柳根)의 천거로 백의종사(白衣從事)했다. 백진남은 김상헌·조희일(趙希逸)과 서로 교유하며, 서울 집을 그 이웃인 백악(白嶽) 아래 두었다. 저서로는《송호집(松湖集)》이 있다.

《장춘동수창록》에 수록된 만사는 백진남이 죽은 이듬해인 기미년(己未年, 1619)의 작품을 엮은 것이다. 왕희지의 필법이 그의 아들 왕헌지에게 전해졌듯이, 백광훈의 필법을 그의 아들 백진남이 이어받았다는 칭송과 아버지의 시풍을 이어받아 시재(詩才) 역시 뛰어났다는 칭송이 주된 내용이다.

백진남 관련 만사는 대부분《송호집》권5에 실려 있지만, 이호민, 장만, 윤유기, 한회, 홍천경, 임숙영, 고부천, 이석기, 양예용의 작품은《송호집》에 실려 있지 않다. 또한 이호민, 신흠, 이안눌, 조찬한, 조희일, 조위한, 이명한 등의 작품은 개인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만, 심희수,

장만, 김류, 홍서봉, 전유형, 고용후, 현덕승, 이민구, 임숙영, 고부천, 정홍명의 경우 개인 문집에 보이지 않는다.

3) 송호부인(松湖夫人) 윤씨(尹氏)

백진남의 아내인 해남 윤씨(海南尹氏) 관련 만사로 윤씨의 아버지는 윤관중(尹寬中), 할아버지는 윤항(尹沆)이며, 외할아버지는 유희춘(柳希春)이다. 《장춘동수창록》에 실린 만사의 작가 중 윤광계, 윤선도, 윤유기, 윤유심, 윤이석, 윤인미 등은 모두 해남 윤씨 문중인으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두 문중 사이의 세교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장춘동수창록》에 수록된 만사는 윤씨가 죽은 해인 신해년(辛亥年, 1611)의 작품을 엮은 것이다. 만사는 백광훈의 며느리임을 강조하면서 윤씨의 효행 칭송이 주된 내용이다. 만사 작가들의 개인 문집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정귀, 조찬한의 작품은 개인 문집에 수록되어 있고 유근, 김현성, 신흠, 이안눌, 김상헌, 김지남, 조희일, 차천로, 윤광계, 조위한, 강항, 권필의 작품은 개인 문집에 보이지 않는다.

4) 옥봉부인(玉峯夫人) 정씨(鄭氏)

백광훈의 두 번째 아내인 하동 정씨(河東鄭氏) 관련 만사로, 정씨의 아버지는 정응서(鄭應瑞), 외할아버지는 김세걸(金世傑)이다. 여기에는 하동 정씨가 죽은 두 해 후인 정묘년(丁卯年, 1627)에 지은 만사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명한, 이정귀, 이안눌의 작품은 개인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안눌의 경우 2수의 작품을 지었다. 한 수는 백진남의 어머니를 추모한 것이며, 다른 한 수는 백광훈의 손자인 백

상빈을 위해 지어 준 것으로, 주(註)에서 개장(改葬)의 과정까지 상세히 언급했다. 신흠, 조희일, 이춘원, 신익성, 장유, 유근, 이경석, 김상용, 정홍명 등의 작품은 개인 문집에 보이지 않는다.

5) 옥천(玉川) 백상빈(白尙賓)

자는 경양(景揚), 호는 옥천(玉川)으로, 백광훈의 손자이다. 시필(詩筆)로 명성을 떨쳐 백광훈과 백진남의 가승(家乘)을 이어받았다고 이안눌, 신천익이 칭송했으며, 김류가 천거하여 백의제술관(白衣製述官)이 되었다. 《장춘동수창록》에 실린 만사는 백상빈이 죽은 이듬해인 병술년(丙戌年, 1646)의 작품을 엮은 것으로, 백광훈·백진남의 필법과 시재(詩才)가 후손인 백상빈에게 이어졌다는 칭송이 주된 내용이다. 신천익의 작품만 그의 《소은유고(素隱遺稿)》에 수록되어 있고, 이경석, 윤선도의 작품은 개인 문집에 보이지 않으며, 김광현, 홍립, 허계, 남두첨 등 대부분의 작가들은 개인 문집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옥천부인(玉川夫人) 이씨(李氏)

백상빈의 아내인 전주 이씨(全州李氏) 관련 만사로, 이씨의 아버지는 이경우(李敬佑)이다. 《장춘동수창록》에 수록된 만사는 죽은 다음 해인 을묘년(乙卯年, 1615)의 작품을 엮어 놓은 것이다. 백광훈의 손녀며느리임을 강조한 내용의 만사가 보인다. 이안눌의 작품만 개인 문집에 수록되어 있고 이호민, 유근, 김상용, 김류, 홍서봉, 김상헌, 양경우 등의 작품은 개인 문집에 보이지 않는다.

7) 백몽삼(白夢參)

자는 천서(天瑞)로 선교랑(宣敎郞)을 지냈다. 성리학(性理學)과 천문(天文)에 밝았으며, 일찍이 과거를 그만두었다. 《장춘동수창록》에 수록된 만사는 백몽삼이 죽은 해인 계해년(癸亥年, 1683)의 작품을 엮은 것이다. 백광훈의 시명(詩名)을 이은 후손임을 강조한 내용의 만사가 보인다. 백몽삼 만사 작가들의 개인 문집은 확인되지 않는다.

8) 백명헌(白明憲)

자는 사을(士乙)이며, 승정원우승지(承政院左承旨)·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역임했다. 《장춘동수창록》에 수록된 만사는 백명헌이 죽은 다음 해인 을축년(乙丑年, 1685)의 작품을 엮은 것이다. 여전히 선조인 백광훈과 백진남을 예찬하면서, 그들의 후손임을 강조한 내용이 많다. 백명헌 만사 작가들의 개인 문집은 확인되지 않는다.

9) 백수형(白受珩)

자는 중온(仲溫), 호는 태암(泰庵)이다.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청검(淸儉)한 행실로 송기(宋琦), 이희조(李喜朝), 이재(李縡), 이징규(李徵奎)에게 칭송받았다. 《장춘동수창록》에 수록된 만사는 백수형이 죽은 해인 계축년(癸丑年, 1733)의 작품을 엮은 것이다. 이징규, 윤창, 양형중 세 사람의 작품만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고 뒷부분은 일실되었다.

백광훈을 필두로, 백광훈의 처 정씨, 백진남, 백진남의 처 윤씨, 백상빈, 백상빈의 처 이씨, 백명헌, 백몽삼, 백수형 총 6대에 걸친 9인과 관련된 190인의 만사와 제문 262편이 《장춘동수창록》에 수록되어 있다. 만사나 제문은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정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 만사는 후대에 와서도 여전히 백광훈과 백진남의 후손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만사나 제문의 내용을 차치하고 그 작가들의 일면을 살피는 일은 수원 백씨와 여타 문중과의 세교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고, 그들의 사승(師承)관계는 물론 한 문중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우선 백광훈을 필두로 한 수원 백씨와 여타 문중과의 세교의 흐름을 살펴보겠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군은 단연 해남 윤씨(海南尹氏)이다. 백진남이 해남 윤씨인 윤관중의 딸을 아내로 삼은 이후, 두 집안의 세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윤유기(2,3,4,6)・윤유심(3)・윤광계(2,3)・윤적(5)・윤작(3) → 윤선도(5)・윤선계(5) → 윤인미(5) → 윤이석(7)・윤천후(7,8) 등이 지속적으로 만사를 지은 것으로 보아 해남 윤씨와의 세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악후인(棠岳後人)이라 밝힌 윤선오(尹善五)(8) 역시 해남 윤씨 후손이다.

양형우(2)와 양경우(6)는 양대박의 아들이다. 양대박은 남원의 광한루에서 백광훈과 함께 시회(詩會)에 참석했던 인물로, 그의 아들 대까지 세교가 유지된 것이다. 양우주(7,8)는 양형중(9)의 아버지이며, 양치남(5)은 양우주의 아버지인 양치남과 같은 항렬이다. 정홍명(2,4)은 정철(1)의 아들이고, 임회(3)는 정철의 사위이며, 김천일(1)의 사위가 정철의 아들 정진명이다. 이명한(2,4)은 이정귀(2,3,4)의

아들이고, 신익성(2,4)은 신흠(2,3,4)의 아들이다. 윤훤(2)은 윤휘(3)와 형제이며, 윤훤과 이민구(2), 윤훤과 박동열(2)은 사돈 간이다. 이 밖에도 오군석(7)과 오수석(7)・오정석(7)・오영석(8)・오형석(8)・오현석(8) 역시 형제로 보인다.

김상용(4,6)은 김광현(5)의 아버지고, 김상헌(3,6)은 김상용과 형제이며, 장유(4)는 김상용의 사위이고, 조희일(2,3,4,6)과 김광현은 사돈 간이다. 또한 김존경(2,4)은 김광현의 장인이다. 고용후(2)는 고경명의 아들이며, 고부천(2,6)은 고용후의 조카이고, 고세대(7)・고세형(8)・고두춘(8)은 모두 이들의 후손으로 보인다. 이충원(1)・이춘원(2,4)・이경원(2), 조찬한(2,3)과 조위한(2,3,6)・조유한(3), 차운로(2)와 차천로(3)는 모두 형제다. 홍방(3)과 홍립(5) 역시 형제이며, 이들의 남동생인 홍영이 이정귀의 딸과 결혼 했으며, 여동생은 허계(5)와 결혼했다. 김류(2,6)는 유근(2,3,4)의 사위이다.

이민구(2)와 이경석(4,5)은 장만(2)의 종사관으로, 이명한, 신익성, 장유, 정홍명, 김상헌과 교유했으며, 윤광계는 백진남, 박동열, 정봉(2)과, 박동열은 이안눌, 이정귀, 김현성(2,3,6), 권필(3), 차천로, 이춘원, 조찬한, 윤황(3), 홍서봉(2) 등과 교유했다. 또한 이경석은 조찬한의 문인이며, 신천익은 이경석의 문인이었다.

총 6대에 걸친 9인과 관련된 190인의 만사와 제문 262편을 통해 수원 백씨와 여타 문중과의 지속적인 세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교유가 개인과 개인과의 교유를 넘어 집안과 집안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또한 만사 작가들은 부자나 형제, 혹은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는데, 당시 문단의 교유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교유는 문중과 문중 사이에서만 유지된 것이

아니라, 사승관계에 있는 인물들에 의해 지속된 것임을 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사 작가들을 수식하고 있는 관사명이나 관직명의 변화에 주목하면, 수원 백씨(水原白氏) 문중의 변천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白光勳：吏曹判書李珥, 全羅觀察使鄭澈, 領議政朴淳, 海南縣監林悌, 淳昌郡守金千鎰……

白光勳 妻：右議政申欽, 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趙希逸, 資憲大夫知中樞府事金存敬, 中訓大夫行司諫院獻納兼春秋館記注官李景奭, 嘉善大夫行副司直李春元

白振南：資憲大夫知中樞府事金存敬, 嘉善大夫兵曹參判李弘胄, 嘉善大夫江華府尹李安訥, 通政大夫分承政院承旨知製敎趙纘韓, 通訓大夫軍資監正知製敎南以雄……

白振南 妻：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兼弘文館大提學藝文官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同知經筵事李廷龜, 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知春秋館事同知經筵成均館事藝文官提學申欽, 通政大夫行廣州牧使金尙憲, 通訓大夫行禮曹正郎知製敎趙緯韓……

白尙賓：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李景奭, 嘉善大夫兵曹參判許啓, 通訓大夫前行司諫院司諫愼天翊, 折衝將軍行忠武衛副司直南斗瞻……

白尙賓 妻：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輔國崇祿大夫晉原府院君兼戶曹判書柳根, 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李安訥……

白明憲：棠岳後人尹善五, 錦城後人林炯, 居昌後人愼廷翊. 光州後人金

鍊長……

白夢參：錦城後人吳君錫，友人昌寧曹一會，廣陵後人李漢龜，完山後人李弘基，友人吳永錫，長澤高世大，全州後人崔宣錫，友人星山玄徵……

白受珩：三從弟生員李徵奎，棠岳後人尹琩，戚瀛洲後人梁瑩中……

백광훈, 백진남, 백상빈 관련 만사의 작가들은 당대 저명한 인물들이 적지 않은데 반해, 백명헌 이하 백몽삼, 백수형 관련 만사의 작가들은 저명한 관료보다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교유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백광훈을 필두로 한 옥봉공파(玉峯公派)의 변천사와 다르지 않다. 6대에 걸친 만사의 작가를 통해 한 문중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

만사 작가들의 개인 문집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개인 문집이 보이는 경우에도 각 개인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 다소 발견된다. 이 또한 적지 않은 성과라 생각된다.

용성창수집
龍城唱酬集

청춘이 얼마나 남아 있던가 青春餘幾日
약속이나 한 듯 밝은 달 떴구려 明月似相期
초색[1]으로 사람 장차 가려 하노니 楚塞人將發
진산[2] 지나갈 줄 절로 알았다오 秦山去自知
풍신은 본래 초일(超逸)하고 밝았지만 風神元散朗
기격은 한미하고 낮은 것 부끄러워했네 氣格愧[3]寒卑
술이 있지만 누가 날 풍요롭게 할까 有酒誰饒我
해마다 이렇게 이별만 하는데 年年此別離[4]

정해후인(貞海後人)[5]

---

1 초색(楚塞) : 초(楚)나라 변방을 말한다. 두보의 〈사제관귀남전영신부 송시이수(舍弟觀歸藍田迎新婦 送示二首)〉라는 작품의 두 번째 수에서 "초의 변방에는 길을 가기 어렵지만, 남전에서 오래 머물지 말게나.〔楚塞難爲路, 藍田莫滯留.〕"라는 구절에도 보인다. 여기에서 '초색'은 백광훈(白光勳)의 고향인 전라남도 장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임제를 만났고 이후 고향인 장흥으로 떠나가면서 지은 작품이다.

2 진산(秦山) : 중국 섬서성(陝西省) 남쪽에 있는 산으로, 주봉(主峯)은 장안현(長安縣)의 남쪽에 있는데, 주(周)나라의 옛터이며 진(秦)나라의 발상지(發祥地)이다. 두보의 〈수(愁)〉에서 "위수와 진산을 다시 볼 수 있을는지, 백성은 병들어 지치고 범이 멋대로 날뛰는 때.〔渭水秦山得見否, 人今罷病虎縱橫.〕"라는 구절에도 보인다. 여기에서의 '진산'은 남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광훈이 장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당연히 진산인 남원을 지나갈 줄 알았다는 의미이다.

3 靑春……格愧 : 이 부분이 《장춘동수창록(長春洞酬唱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의 앞쪽은 낙질(落帙)이다. 백광훈의 《옥봉집(玉峯集)》에 실린 〈廣寒樓, 次白湖林子順.【名悌】〉이라는 작품을 보충하여 번역했다.

4 이 작품은 백광훈의 《옥봉집》에 〈廣寒樓, 次白湖林子順.【名悌】〉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5 정해후인(貞海後人) : 백광훈(1537~1582)이다. 본관은 해미(海美), 자는 창경(彰卿), 호는 옥봉(玉峰)으로, 조선 중기 삼당시인(三唐詩人) 중의 한 사람이다. '정해후인'이라고 한 것은 수원 백씨(水原白氏)로 장흥에서 태어나 정해군(貞海君)에 봉

선루[6]의 이번 모임 세상에 응당 드문 일　仙樓此會世應稀
좋은 계절 청담과 멋진 시로 함께 하네　佳節淸談與好詩
은 촛불의 난간 옆에 꽃 그림자 드리웠고　銀燭欄邊花影前
옥난간 높은 곳에는 달이 차츰 옮겨 가네　玉欄高處月輪移
한평생 살면서 맘껏 마시고 노래하던 곳　平生痛飮狂歌地
오늘 밤 그대 만나니 헤어지기 아쉽구려　今夜逢君惜別時
장정[7]에서의 긴 한이 아득히 생각나니　遙憶長亭有長恨
자리 주변 늘어진 버들이 그리움 일으키네　席邊垂柳慝相思[8]

송암(松巖)[9]

손님 주인 서로 기뻐하니 세상에는 드문 일　賓主交懽俗物稀
한 누대에서 날 제외하곤 모두 시 잘 짓네　一樓除我摠能詩
저물녘 산 마주한 난간엔 구름 막 걷히고　晩山當檻雲初斂
맑은 경치가 마음 흔들어 자리 자주 옮기네　淸景撩人席屢移
깊은 밤에 반쯤 취하고 반쯤은 술 깨었으며　半醉半醒深夜後
꽃 지는 시절에 서로 만나 서로 헤어지네　相逢相別落花時
다리 주변 버들은 안개와 어울려 초록빛이니　橋邊楊柳和煙綠

해졌던 백수장(白壽長, 1469~1543)의 후손이라는 말이다.

6 선루(仙樓) :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광한루(廣寒樓)를 말한다.

7 장정(長亭) : 노정(路程)을 표시하는 정(亭)이 있는데 5리에 있는 것을 단정(短亭), 10리에 있는 것을 장정이라 한다.

8 이 작품은 양대박(梁大樸)의 《청계집(靑溪集)》에 실려 있지 않다.

9 송암(松巖) : 양대박(1544~1592)의 호이다. 자는 사진(士眞), 호는 송암·청계도인(靑溪道人),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긴 가지 꺾어 그리운 마음 전해 주고파　　欲折長條贈所思[10]

벽산(碧山)[11]

남쪽 와서 옛 벗 없어 오래도록 한했는데　　長恨南來故舊稀
서로 만나 웃으며 함께 시 읊조리네　　相逢一笑共吟詩
계곡 구름 갓 모여 하늘 어두워지려는데　　溪雲初合天將暝
봄밤은 깊어만 가고 달도 옮겨 가누나　　春夜方闌月欲移
천 이랑 밖에서 그대 만나 좋으니　　憐子得全千頃外
술잔 들고 아득히 십 년 전 생각하네　　杷杯遙憶十年時
내일 아침 동문 버들 붙잡아 꺾으리니[12]　　明朝攀折東門柳
이슬비 내리는 석양녘엔 먼 그리움 있겠지　　細雨斜陽有遠思

촌로(村老)[13]

여러 달 집을 떠나 집안 소식 드물고　　數月離家音信稀
봄 아쉬워 다시금 봄 보내는 시를 짓네　　惜春還賦送春詩
술잔 들고 오래 앉으니 남루[14] 멋지고　　杯尊坐久南樓好

---

10 이 작품은 임제(林悌)의 《임백호집(林白湖集)》에 〈龍城廣寒樓酒席酬唱〉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1 벽산(碧山) : 임제(1549~1587)의 호이다. 자는 자순(子順), 호는 백호(白湖)·풍강(楓江)·소치(嘯癡)·벽산·겸재(謙齋)이다.

12 버들 붙잡아 꺾으리니 : 옛날 한인(漢人)들이 손님을 송별할 때 장안(長安) 동쪽의 패교(灞橋)에 이르러 버들가지를 꺾어 주었던 데서 온 말로, 버들가지를 꺾는다는 것은 곧 송별을 의미한다. 《삼보황도(三輔黃圖)》

13 촌로(村老) : 당시 남원 부사(南原府司)로 있었던 손여성(孫汝誠, ?~?)을 가리킨다.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극일(克一), 호는 용담(龍潭)이다.

14 남루(南樓) : 남원의 광한루(廣寒樓)를 가리킨다.

은하수 더욱 깊어지고 북두성은 옮겨 가네　河漢更深北斗移
날리는 버들개지 지는 꽃은 정처가 없지만　飛絮落花無定處
힘든 유람에 좋은 모임 또한 함께 했다네　倦遊良會亦同時
서로 만났다가 각각 동서로 떠나가노니　相逢各自東西去
무성한 방초에 그리움은 끝이 없으리　芳草萋萋無限思[15]

이달(李達)[16]

몇 년이나 남북 돌아다니며 소식 드물었나　幾年南北信音稀
춘성[17]에서 술잔 잡고 또 시를 짓네　把酒春城又此詩
베갯머리 물소리 바람은 어둠 속에 돌고　欹枕水聲風暗轉
주렴 거두니 꽃 그림자 달이 막 옮겨 가네　捲簾花影月初移
술 취하니 구름처럼 모든 일 꿈같노니　醉來雲物渾如夢
늙어 가매 정회는 시절 아까운 줄 알겠어라　老去情懷解惜時
깊은 밤 다시 일어나 앉음을 괴이타 마소　莫怪夜深重起坐
이별은 어찌 되었건 서로 그립지 않으랴　別離何事不相思[18]

옥봉(玉峯)[19]

---

15 이 작품은 이달(李達)의 《손곡시집(蓀谷詩集)》에 〈龍城次玉峯韻〉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6 이달(李達) : 1539~1618. 자는 익지(益之), 호는 손곡(蓀谷)·동리(東里)이다.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光勳)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 불렸으며, 글씨에도 조예가 깊었다. 허균(許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허균은 그의 전기 〈손곡산인전(蓀谷山人傳)〉을 지었다.

17 춘성(春城) : 전라북도 남원을 가리킨다.

18 이 작품은 백광훈의 《옥봉집(玉峰集)》에 〈次松巖梁士眞〉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9 옥봉(玉峰) : 백광훈의 호이다.

오작교 주변에 봄물은 일렁이고　　烏鵲橋頭春水波
광한루 밖에는 버들이 늘어져 있네　　廣寒樓外柳絲斜
좋은 경치 천고의 명승지에 남아 있고　　風煙千古勝區在
시와 술의 자리에 흥겨움이 넘쳐나누나　　詩酒一場歡意多
누가 이별 자리에서 방초를 원망하랴[20]　　誰向離筵怨芳草
말굽 아래 밟힌 꽃잎 가는 길에 보리니　　行看歸騎踏殘花
하늘 끝 오고 가니 근심은 베인 듯　　天涯去住愁如織
애써 호방한 말로 호탕한 노래[21] 대신하네　　强把狂言替浩歌[22]

양대박(梁大樸)

남포[23]의 미풍에 저물녘 물결 일고　　南浦微風生晩波

---

20 누가……원망하랴 : 당(唐)나라 이백(李白)의 〈남양송객(南陽送客)〉이란 작품에 "헤어지는 얼굴로 방초를 원망하고 봄날 그리움은 늘어진 버들에 맺혀 있네.〔離顔怨芳草, 春思結垂楊.〕"라는 구절을 활용한 대목이다.

21 호탕한 노래 : '호가(浩歌)'는 큰 소리로 맘껏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초사(楚辭)·소사명(少司命)》에 "미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소리 높여 노래하노라.〔望美人兮未來, 臨風怳兮浩歌.〕"라는 구절이 보인다.

22 이 작품은 양대박(梁大樸)의 《청계집(靑溪集)》에 〈龍城廣寒樓酒席酬唱〉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3 남포(南浦) : 글자 그대로 남쪽의 물가라는 말인데, 흔히 이별하는 장소나 현장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전국 시대 초(楚)나라의 굴원(屈原)이 지은 〈구가(九歌)·동군(東君)〉에서 "그대 악수하고 동으로 감이여, 남포에서 미인을 보내도다. 물결은 도도히 와서 맞이함이여, 고기들도 떼 지어 나를 전송하도다.〔子交手兮東行, 送美人兮南浦. 波滔滔兮來迎, 魚鄰鄰兮媵予.〕"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양(梁)의 강엄(江淹)의 〈별부(別賦)〉에서도 "봄풀은 푸른빛이요, 봄물은 파란 물결 출렁이는데,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려니, 이 아픈 마음을 어찌할거나.〔春草碧色, 春水綠波, 送君南浦, 傷如之何.〕"라고 한 바 있다. 또 고려 때의 시인인 정지상(鄭知常)의 〈송인(送人)〉에서도 "비 갠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르른데, 남포로 님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거나,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에 더하는 것을.〔雨歇長堤草

이내 개이자 늘어진 버들은 푸르게 휘날리네　晴煙低柳碧斜斜
산 나뉜 신선 고을에 자리한 누대 아름답고　山分仙府樓居好
평평한 들판으로 길 접어드니 들판 색 곱구나　路入平蕪野色多
천 리 밖에서 다시 경국의 꿈을 꾸노니　千里更成京國夢
한 봄날 부질없이 고향의 꽃을 저버렸구나　一春空負故園花
맑은 술잔 들고 이별하며 새로운 시 짓노니　淸尊話別新篇在
도리어 여구의 몇 곡조[24]보다 낫구려　却勝驪駒數曲歌[25]

벽동(碧洞)[26]

맑은 개울 비 온 뒤 잔물결 일어나고　淸溪雨後起微波
버들은 물가 언덕에 늘어져 그늘지었네　楊柳陰陰水岸斜
남쪽에서 한잔 술에 온통 취하노니　南陌一樽須盡醉
동풍 부는 삼월도 이미 얼마 남지 않았어라　東風三月已無多
떠나는 길 곳곳마다 왕손초[27] 있고　離程處處王孫草

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이라고 한 바 있다.

24 여구(驪駒)의 몇 곡조 : '여구'는 《시경(詩經)》 일시(逸詩)의 편명(篇名)으로, 손님이 떠나려 하면서 이별의 정을 표시하는 노래이다. '여구곡'의 가사는 《한서(漢書)·왕식전(王式傳)》에 "검정 망아지 문밖에 있고 마부 모두 대기하네. 검정 망아지 길 위에 있고 마부 멍에 올리었네.〔驪駒在門, 僕夫具存. 驪駒在路, 僕夫整駕.〕"라고 보인다.

25 이 작품은 임제(林悌)의 《임백호집(林白湖集)》에 〈龍城廣寒樓酒席酬唱〉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6 벽동(碧洞) : 임제(1549~1587)의 호이다. 자는 자순(子順), 호는 백호(白湖)·풍강(楓江)·소치(嘯癡)·벽산(碧山)·겸재(謙齋)이다.

27 왕손초(王孫草) : 왕손(王孫)의 풀이라는 뜻으로, 먼 곳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사모하는 고사로 사용되는 말이다. 한(漢)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초은사(招隱士)〉에서 "왕손은 출유(出遊)하여 돌아오지 않건만, 봄풀은 돋아나서 무성하구나.〔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꽃 피어 있구나　門巷家家枳殼花
하늘 끝에서 방황하며 오랜 길손 되었으니　流落天涯爲客久
한밤중 오가[28] 노래 차마 못 듣겠네　不堪中夜聽吳歌[29]

손곡산인(蓀谷山人)[30]

구름 낀 하늘 서쪽으로 보니 찬 물결 일렁이고　雲天西望眼寒波
지는 해는 희미하게 이미 석양에 들었구나　殘日依依已夕斜
들쭉날쭉 나무 그림자 난간에 닿아 어지럽고　樹影參差當檻亂
산 빛이 갈마들며 누대에 오르니 아름답구나　山光迢遞上樓多
봄날의 이별 한에 쇠한 머리만 늘어나고　一春離恨粘衰鬢
천 리 돌아갈 마음에 지는 꽃 원망스럽네　千里歸心怨落花
완녀[31]는 시절이 다른 줄도 알지 못하고　浣女不知時事異
개울 너머에서 오히려 몇 가락 노래하누나　隔溪猶唱數聲歌

촌로(村老)

그림 난간 서쪽 두둑에 푸른 마름 일렁이고　畫欄西畔綠蘋波

---

28 오가(吳歌) : 오 지방, 즉 강남 지방의 노래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남쪽 지방의 노래라는 의미이다.

29 이 작품은 이달의 《손곡시집(蓀谷詩集)》에 〈龍城次玉峯韻〉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0 손곡산인(蓀谷山人) : 이달이다.

31 완녀(浣女) : 빨래하는 아낙네를 말한다. 춘추 시대 월(越)나라의 미녀 서시(西施)가 약야계(若耶溪)에서 빨래를 했는데, 보통 서시를 완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서시는 비단을 빨던 시골 처녀였는데, 후에 월나라의 왕 구천(句踐)의 눈에 들어 궁궐로 들어갔다가 구천의 계책에 의해 적국인 오(吳)나라 부차(夫差)에게 바쳐져 부차의 총희(寵姬)가 되었는데, 부차가 서시에게 빠져서 국정을 피폐케 하여 오나라는 월나라에게 멸망당했다. 《오월춘추(吳越春秋)·구천음모외전(句踐陰謀外傳)》

끝없는 이별의 정에 해도 기우려 하누나　無限離情日欲斜
방초의 가는 길 어느 때나 끝이 나려나　芳草幾時行路盡
청산은 어느 곳이나 흰 구름이 많다네　青山何處白雲多
외로운 배에서 꿈꾸니 창명[32]의 일이요　孤舟夢裡滄溟事
삼월 안개 속에 상원[33]의 꽃이어라　三月煙中上苑花
술잔 쉬 비고 사람도 쉬 흩어지니　樽酒易空人易散
들새는 원망하는 듯 노래 부르는 듯　野禽如怨又如歌[34]

옥봉(玉峯)

대방(帶方)[35]은 옛 나라로, 누대가 호남에서 으뜸이다. 무인년(1578, 선조11) 봄, 내가 탐라(耽羅)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손여성(孫汝誠)이 있는 관아(官衙)를 방문했을 때 옥봉(玉峯) 창경(彰卿) 백광훈(白光勳), 손곡(蓀谷) 익지(益之) 이달(李達)이 손님이 되어 그 자리

---

32 창명(滄溟) : 창해(滄海)와 같은 말로, 창해상전(滄海桑田)의 준말이다. 큰 바다가 농토로 변하고 농토가 큰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사의 변화가 매우 큰 것을 비유한 것이다. 선녀인 마고(麻姑)가 왕방평(王方平)에게 이르기를 "만나 뵌 이래로 벌써 동해가 세 차례 상전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접때 봉래산에 이르러 보니, 물이 또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대략 절반쯤 얕아졌으니, 어찌 장차 다시 육지로 변하지 않겠는가.〔接侍以來, 已見東海三爲桑田, 向到蓬萊 水又淺于往者會時略半也, 豈將復還爲陵陸乎.〕"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열선전(神仙傳)》

33 상원(上苑) : 상림원(上林苑)의 준말로, 진(秦)나라 때 세워진 궁궐의 정원인데, 진나라가 패망한 뒤 한나라 무제(武帝)가 증축했다. 상림원에는 천하의 진금기수(珍禽奇獸)와 백훼이초(百卉異草)가 모여 있었다고 한다. 후대에는 궁궐의 동산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34 이 작품은 백광훈(白光勳)의 《옥봉집(玉峯集)》에 〈廣寒樓孫明府席上〉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5 대방(帶方) : 전라북도 남원의 옛 이름이다.

에 있었다. 서로 안부인사를 나누고서 이에 광한루(廣寒樓)로 자리를 옮겼는데, 송암(松巖) 양대박(梁大樸)이 서촌(西村)에서 왔다. 네 가지 좋은 일과 만나기 어려운 인물 두 부류[36]가 기약하지 않았는데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어떤 이는 시를 읊조리고 어떤 이는 술잔을 기울이며 진솔한 모임이 되었다. 며칠을 머물러 있다가 아쉽게 헤어졌는데, 누대에서의 맑은 운치는 모두 시편(詩篇) 속에 남겨져 있다. 옥봉 백광훈의 아들 백진남(白振南)[37]에게도 아버지 백광훈 같은 풍모(風貌)가 있어 지금 백진남의 절구(絶句) 또한 이 속에 있으니, 아매(阿買)[38]에게 견주어도 또한 더 낫다고 하겠다.

벽산(碧山) 임자순(林子順)[39] 쓰다.[40]

---

36 네 가지……부류 : '사미이난(四美二難)'은 네 가지 좋은 일과 만나기 어려운 인물 두 부류를 말한다. '사미'는 좋은 때〔良辰〕, 아름다운 경치〔美景〕, 완상하는 마음〔賞心〕, 즐거운 일〔樂事〕을 말한다. 남조(南朝) 송(宋)나라 사령운(謝靈運)의 〈의위태자업중집시서(擬魏太子鄴中集詩序)〉에서 "천하의 좋은 때, 아름다운 경치, 완상하는 마음, 즐거운 일, 이 네 가지를 아울러 갖기가 어렵다.〔天下良辰美景賞心樂事, 四者難竝.〕"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이난'은 어진 주인〔賢主〕과 아름다운 손님〔嘉賓〕을 말한다. 당(唐)나라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서 "네 가지 아름다움이 갖추어지고 두 가지 어려운 것도 함께하였다.〔四美具, 二難幷.〕"라고 한 바 있다.

37 백진남(白振南) : 1564~1618. 본관은 해미(海美), 자는 선명(善鳴), 호는 송호(松湖)이다. 백광훈의 아들이다. 문장과 필체가 매우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씨와 시를 사서 모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38 아매(阿買)에……하겠다 : '아매'는 당(唐)나라 한유(韓愈) 조카의 어릴 적 이름이다. 한유의 〈취증장비서(醉贈張秘書)〉에 "아매는 글을 잘 모르지만 팔분서는 제법 알기에, 시를 지어 그에게 쓰도록 하니 나의 군대 자랑할 만하여라.〔阿買不識字, 頗知書八分, 詩成寫之寫, 亦足張吾軍.〕"라는 구절이 보인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의 아들 백진남을 아매에 견주면서, 백진남이 아매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말한 것이다.

39 임자순(林子順) : 임제(林悌, 1549~1587)의 자가 자순이다. 호는 백호(白湖)·풍강(楓江)·소치(嘯癡)·벽산·겸재(謙齋)이다.

40 이 작품이 임제(林悌)의 《임백호집(林白湖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대둔산수창록
大芚山酬唱錄

대둔산수창시 서문을 덧붙이다[1]

大芚山酬唱詩 幷序

신축년(1601, 선조34) 9월 나는 왕명을 받들고 탐라(眈羅)로 가는 길에,[2] 해남(海南)의 공관(公館)에서 순풍(順風)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명(善鳴) 백진남(白振南)[3]이 내가 온 것을 듣고서는 곧바로 와서 만나 보았다. 이때에 백윤(伯胤) 이홍주(李弘胄)[4] 또한 체부 종사관(體府從事官)[5]으로 영남(嶺南)에서 바닷가를 따라 순찰하다가 이 고을에 이르렀다. 하루는 망원루(望遠樓)[6]에서 세 사람이 모였는데,[7] 선명 백진남이 갑자기 대둔산(大屯山)[8]의 장춘동(長春洞)[9]을 유람하

---

1 이 작품에 대해 《장춘동수창록》에서는 작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이 김상헌의 《청음집(淸陰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2 신축년……길에 : 한국고전종합DB에 있는 김상헌의 《청음집》 행력에 따르면, 신축년(1601, 선조34) 8월 가을에 안무어사(安撫御史)가 되어 제주(濟州)에 갔다는 언급이 보인다. 김상헌이 제주 안무어사로 가게 된 정황과 이때의 시문에 대해서는 성범중의 〈청음 김상헌의 삶과 시〉(《한국한시작가연구》 권9, 한국한시학회, 2005) 참조.

3 백진남(白振南) : 1564~1618. 본관은 해미(海美), 자는 선명(善鳴), 호는 송호(松湖)이다. 백광훈의 아들이다.

4 이홍주(李弘胄) : 1562~163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윤(伯胤), 호는 이천(梨川),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5 체부 종사관(體府從事官) : 이홍주는 당시 도체찰사(都體察使)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의 종사관으로 수행하였다. 《선조실록(宣祖實錄)》 34년 10월 19일조에 보인다.

6 망원루(望遠樓) : 전라남도 해남읍성 남문의 누정(樓亭)으로, 1469년(예종1) 해남현감(海南縣監) 성중성(成重性)이 세웠다.

7 세 사람이 모였는데 : '정족지회(鼎足之會)'는 솥의 다리가 3개인데서 연유한 것으로, 세 사람이 모였다는 말이다.

자고 제의했다.

다음 날 나와 백윤 이홍주는 선명 백진남을 데리고 각기 따라다니면서 모시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가서는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읊조리면서 하루 종일 정회(情懷)를 풀었다. 이에 선명 백진남에게 팔분체(八分體)[10]로 이때 지은 시편(詩篇)을 적어 둘 것을 부탁했다. 그 작품들은 훌륭한 재주의 아정(雅正)으로, 비록 누구의 것이 더 나은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영화(永和) 연간에 여러 현인(賢人)들이 모여 무성한 숲과 긴 대나무의 승경(勝景)을 즐겼다는 왕희지(王羲之)의 난정(蘭亭)[11]보다 못하지는 않았으니, 이 또한 한때의 즐거운 일이었다.

4년이 지난 갑진년(1604, 선조37) 가을에, 선명 백진남이 바닷가를 따라 서울에 와서 나와 몇 달을 함께 자면서 지냈다. 산재(山齋)에서

---

8 대둔산(大屯山) :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삼산면・현산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9 장춘동(長春洞) :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대둔산에 대흥사(大興寺)가 있는데, 그 입구의 계곡을 '장춘동'이라고 부른다.

10 팔분체(八分體) : 서체(書體)의 하나로, 예서(隸書)와 전서(篆書)를 절충하여 만든 서체인데, 진(秦)나라 때 왕차중(王次仲)이 만들었다고 한다.

11 영화(永和)……난정(蘭亭) : 진 목제(晉穆帝) 영화(永和) 9년 늦은 봄에, 회계(會稽) 산음(山陰)의 난정에서 왕희지, 사안(謝安) 등 42인의 명사들이 모여 계사(禊事)를 행하고 이어 곡수(曲水)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으며 성대한 풍류놀이를 한 바 있다. 이를 왕희지는 〈난정기(蘭亭記)〉로 기록했는데, 〈난정기〉에서 "영화 구년 계축 늦은 봄 초순에 회계 산음의 난정에 모였으니, 계사를 행하기 위해서이다. 뭇 현재들이 다 오고, 젊은이와 나이 많은 이가 다 모였다. 이곳에는 높은 산과 험준한 봉우리와 무성한 숲과 긴 대나무가 있고, 또 맑은 시냇물과 거센 여울이 좌우에 서로 비쳐 띠처럼 둘러 있는지라, 시냇물을 끌어다 술잔 띄울 곡수를 만들고, 차례로 벌여 앉으니, 비록 관현악의 성대함은 없으나, 술 한 잔을 마시고 시 한 수를 읊는 것이 또한 그윽한 정을 펴기에 충분하였다.……〔永和九年歲在癸丑暮春之初, 會于會稽山陰之蘭亭, 修禊事也. 群賢畢至, 少長咸集. 此地, 有崇山峻嶺, 茂林脩竹, 又有清流激湍, 映帶左右, 引以爲流觴曲水, 列坐其次, 雖無絲竹管絃之盛, 一觴一詠, 亦足以暢敍幽情.……〕"라고 한 바 있다. 《고문진보(古文眞寶)》 후집(後集)

고요하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지난날 노닐던 생각이 나서 상자 속에 담아 보관했던 옛 시구(詩句)를 찾아 꺼내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읊조리니 어제의 일인 양 기억이 또렷했다. 선명 백진남이 또한 나에게 그 시구를 손수 쓰고 더불어 노닐었던 일의 전말(顚末)을 써서 수창록(酬唱錄) 앞에 얹기를 요청했다.

아, 지난 신축년에 나는 서울에서 벼슬살이하고 있었고, 백윤 이홍주는 영남(嶺南)에서 좌막(佐幕)으로 있었으며, 선명 백진남은 멀리 바닷가 남쪽 한 모퉁이에 있었다. 한곳에서 세 사람이 서로 만난 것은 마치 새벽별이 희미하여 쉽게 볼 수 없는 것과 같았을 뿐만 아니라, 하룻밤 만나 마침내 멋진 모임을 이룬 것은 마치 오래전에 약속하여 그 약속을 지킨 것과 같았으니, 이때에 조물주(造物主)가 무슨 마음으로 세 사람을 모이게 했는지 모르겠다.

얼마 후에 나는 탐라로 들어갔고, 백윤 이홍주는 영남의 막사로 돌아갔다. 저 장춘동에서의 노닒은 비록 전후(前後)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선명 백진남만이 헤어진[12] 근심을 홀로 안고 서글피 꿈속에서 날아가고픈 생각이 있었으나, 푸른 물 계곡 사이를 오가며 옛 노닐던 자취에 다가서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때에 조물주는 무슨 마음으로 세 사람을 헤어지게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선명 백진남은 비록 나와 함께 한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백윤

---

12 헤어진 : 원문의 '이삭(離索)'은 이군삭거(離群索居)의 준말이다. 친지나 벗들과 헤어져서 혼자 외로이 사는 생활을 가리킨다. 《예기·단궁 상(檀弓上)》의 "자하(子夏)가 '내가 벗을 떠나 쓸쓸히 홀로 산 지가 오래이다.〔吾離群而索居, 亦已久矣.〕' 했다."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이에 대해 정현(鄭玄)은 주(注)에서 "'군(群)'은 동문(同門)의 벗을 말한다. '삭(索)'은 '산(散)'과 같다."라고 했다.

이홍주는 서관(西關)[13] 천 리 밖에서 벼슬살이하고 있다. 대둔산과의 거리는 아득하여 마치 봉래산(蓬萊山)과 영주산(瀛洲山)[14] 그리고 신선이 사는 현포(玄圃)[15]에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비록 대둔산에서 거듭 세 사람이 모이고자 하지만, 또한 어떻게 그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 두 사람은 마음이 슬프고 옛일에 느꺼움이 있어 잊을 수가 없었다. 비록 그렇지만 뜬 인생 백 년이란 것이 마치 가벼운 물거품 같아, 물도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고 흩어지면 반드시 모이는 법이며, 슬픔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과 근심[16]을 번갈아 겪으면서 늙음에 이르기 마련이

---

13 서관(西關) : 서도(西道)로, 황해도와 평안도를 말한다. 이때 이홍주가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있었기에 한 말이다.

14 봉래산(蓬萊山)과 영주산(瀛洲山) : 발해(渤海) 바다 가운데에 삼신산(三神山)이 있는데 그 산에는 신선이 살고 불사약(不死藥)이 있고 산은 영주산・봉래산・방장산(方丈山)이라고 한다. 또한 새와 짐승이 모두 희고 궁궐이 황금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습유기(拾遺記)・고신(高辛)》에 "삼호(三壺)는 바로 바닷속에 있는 세 산으로, 첫 번째는 방호(方壺)인데 이는 방장산(方丈山)이고, 두 번째는 봉호인데 이는 봉래산이고, 세 번째는 영호(瀛壺)인데 이는 영주산으로, 모양이 마치 술병과 같이 생겼다."라고 했다.

15 현포(玄圃) : 위로 천계(天界)와 통한다고 일컬어지는 곤륜산(崑崙山)의 정상에 있다는 신선의 거처를 말한다. 그 위에는 금대(金臺), 옥루(玉樓)와 기화요초(琪花瑤草)가 만발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선경(仙境)의 뜻으로 쓰인다. 현포(懸圃) 혹은 현포(縣圃)라고도 한다.

16 즐거움과 근심 : '서참(舒慘)'은 음양(陰陽)・고락(苦樂) 등 대립 개념을 총괄하여 표현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즐거움과 근심을 의미한다. 양(梁)나라 소명태자(昭明太子)의 《문선(文選)》에 실린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서 "대저 사람은 양기가 우세할 때에는 마음이 화창해졌다가, 음기가 우세할 때에는 참담해지게 마련이다.〔夫人在陽時則舒, 在陰時則慘.〕"라고 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에 대해 설종(薛綜)은 주(注)에서 "양(陽)은 봄 여름이고, 음(陰)은 가을 겨울이다."라고 했으며, 이선(李善)의 주(注)에서는 《춘추번로(春秋繁露)》를 인용하면서 "봄은 '준(僔)'과 같다는 말이니 희락(喜樂)의 모습이다. 가을은 '추(湫)'와 같다는 말이니 우비(憂悲)의 상태이다."라고 했다.

다. 이 또한 인간사의 상도(常道)이니, 진실로 슬퍼할 것이 못된다. 이로써 선명 백진남을 위로하고 또한 스스로를 달랜다.

두륜사에서 읊조려 백윤[17]과 숙도[18] 두 학사에게 드리다

頭輪寺吟呈伯胤叔度兩學士

온 산의 가을빛이 금성[19]에 쌓였는데　　一山秋色錦城堆
잠시 신선 같은 학사들과 교유 맺었네　　暫許仙曺學士來
노승(老僧)[20] 또한 함께 즐길 줄을 알아서　　殘衲亦知供好事
석양에 물 동쪽 누대로 자리를 옮기누나　　夕陽移席水東臺[21]

선명(善鳴) 백진남(白振南)

어지런 산굴에 구름 이내 축축이 쌓이려는 듯　　亂峀雲嵐濕欲堆
바닷바람에 비 오려는데 시를 보내왔구려　　海風將雨送詩來
길 가는 사람 머물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行人不作留連意
해질녘 옷깃 당기며 또 누대를 내려오네　　日暮摳衣又下臺[22]

숙도(叔度) 김상헌(金尙憲)

---

17 백윤(伯胤) : 이홍주이다.

18 숙도(叔度) :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서간노인(西磵老人),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19 금성(錦城) : 전라남도 해남을 가리키는 말인 듯하다.

20 노승(老僧) : '해진(殘衲)'은 해진 장삼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두륜사에 있는 스님을 가리킨다.

21 이 작품은 백진남(白振南)의 《송호집(松湖集)》에도 실려 있다.

22 이 작품은 김상헌의 《청음집(淸陰集)》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백진남의 《송호집》에는 실려 있다.

듣자니 구름 낀 산에 붉은 잎 쌓였다는데　　聞說雲山紅葉堆
우연히 그윽한 흥취에 이끌려 이곳에 왔네　　偶牽幽興此中來
계곡 오르며 종일토록 돌아갈 것 잊노니　　沿溪盡日忘歸去
찬 물소리 돌 누대 휘감는 것 너무 좋아라　　爲愛寒聲繞石臺.[23]

백윤(伯胤) 이홍주(李弘胄)

23 이 작품은 백진남(白振南)의 《송호집(松湖集)》에도 실려 있다.

선명 세형[24]에게 읊조려 주면서 더불어 백윤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하다

吟贈善鳴世兄 兼要伯胤行敎

함께 하길 약속하며 가는 곳 어디인가	約伴向何處
대둔산으로 놀러간다오	大芚山裏遊
가벼운 서리가 가을 담박하게 꾸몄고	霜輕秋餙薄
늙은 나무 개울 입구에 그윽하여라	樹老洞門幽
먼 산은 들쭉날쭉 가지런하지 않고	遠勢參無等
높은 봉우리에선 제주도가 보이누나	危峯眺濟州
오히려 숨어 사는 군자와도 같노니	還同隱君子
해남의 한 구석에 묻혀 사는구나	埋沒海南陬[25]

숙도(叔度) 김상헌(金尙憲)

한가한 날 몸을 빼 외출하여	暇日抽身出
이에 세상 밖에서 노닌다네	仍成物外遊
가을 깊어지자 산은 저물려 하는 듯	秋深山意晩
비 지나자 물소리는 그윽하여라	雨過水聲幽
벼랑 지나 천 장의 꼭대기에 올라	絶過登千丈
돌아다보니 구주[26]도 좁기만 해라[27]	回頭隘九州

---

24 세형(世兄) : 대대로 집안끼리 교유하는 집안의 형이라는 말이다.

25 이 작품은 김상헌의 《청음집》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백진남의 《송호집》에는 실려 있다.

내일 아침이면 각각 헤어지리니　明朝各分手
서로 바닷가 한 모퉁이를 바라보겠지　相望海天陬

백윤(伯胤) 이홍주(李弘胄)

하늘 밖에서 서로 만나서는　天外相逢處
산속에서 우연히 이렇게 노닐었네　山中偶此遊
수천의 바위는 붉은 잎에 저물녘　千巖紅葉晩
길에는 온통 흰 구름이 그윽하여라　一路白雲幽
탐라국에서 오는 한 척의 배　孤櫂耽羅國
옛 금주[28]로 깃발 돌아오는구나　歸旌古錦州
헤어질 때 수많은 생각 일어나노니　臨分多少意
작은 개울 모퉁이에 해가 지누나　落日小溪陬[29]

선명(善鳴) 백진남(白振南)

---

26 구주(九州) : 옛날 중국을 아홉 주〔九州〕로 나눈 것에서 연유한 말로, 보통 천하를 의미한다. 《서경(書經)·우공(禹貢)》에 중국을 기주(冀州), 곤주(袞州), 청주(靑州), 서주(徐州), 양주(揚州), 형주(荊州), 예주(豫州), 양주(梁州), 옹주(雍州) 아홉으로 나눈 바 있다.

27 구주도 좁기만 해라 : '애구주(隘九州)'는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니, 세상이 참으로 좁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소식(蘇軾)의 〈서단원자소시이태백진(書丹元子所示李太白眞)〉이라는 작품에서 "세상이 좁다는 듯 땅끝까지 돌아보면서, 두 마리 새로 변하여 서로 수창했네.〔麾斥八極隘九州, 化爲兩鳥鳴相酬.〕"라고 한 바 있다.

28 금주(錦州) : 전라남도 해남(海南)을 가리키는 말인 듯하다.

29 이 작품은 백진남의 《송호집》에도 실려 있다.

다시 두 형에게 드리면서 화답을 구하다

再呈兩兄求和

한 번 장춘동으로 들어가노니 一入長春洞
개울 누대에는 이미 석양이 들었구나 溪樓已夕暉
송담이 여기서 멀지 않노니 松潭路非遠
달빛 받으며 또한 함께 돌아오네 乘月且同歸[30]

선명(善鳴) 백진남(白振南)

해 지는데 날아오는 기러기 없고 日下無來雁
하늘 끝에서 지는 석양 원망하네 天涯怨落暉
가을바람에 많은 생각이 이노니 秋風多少思
돌아가는 친구에게 전해 주리라 寄與故人歸

백윤(伯胤) 이홍주(李弘胄)

바다 비는 산죽을 울리고 海雨鳴山竹
짙은 구름은 지는 석양 가리었네 重雲掩薄暉
스님도 애써 서로 붙잡으며 居僧苦相挽
길 축축하니 돌아갈 필요 없다 하네 路濕不須歸[31]

숙도(叔度) 김상헌(金尙憲)

---

30 이 작품은 백진남의 《송호집》에도 실려 있다.

31 이 작품은 김상헌의 《청음집》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백진남의 《송호집》에는 실려 있다.

만력 기원 갑진년(1604, 선조37) 10월 상순에 청음거사가 최락재에서 쓰다

萬曆紀元甲辰十月上澣 淸陰居士書于最樂齋

송호(松湖) 백진남(白振南) 공은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의 큰아들이다. 옥봉 공의 시는 맑고 필법은 오묘하여 예원(藝苑)에서 이름을 날렸는데, 송호 또한 부친의 아름다운 재주를 이어받아 부친의 명성을 이었다. 그의 시와 글씨는 고황(顧況)에게 아들 비웅(非熊)이 있고 왕희지(王羲之)에게 아들 자경(子敬)이 있는 것과 같다.[32]

우리 증조부(曾祖父)[33] 때부터 벌써 옥봉과 교호(交好)가 있었는데, 할아버지[34]와 송호 때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우호(友好)를 강구(講究)하여 더욱 친밀해졌다. 증조부와 옥봉은 이미 같은 해에 함께 진사(進士)[35]가 되었고 송호가 서울에 집을 구입함에 미쳐서는 또 우리 할아버

---

32 고황(顧況)에게……같다 : '고황'은 당 덕종(唐德宗) 때의 시인으로, 자는 포옹(逋翁), 호는 화양진일(華陽眞逸)이다. 시서화(詩書畵)에 모두 능했다. '비웅(非熊)'은 고황의 아들인데, 시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우군(右軍)'은 진(晉)나라의 명필 왕희지(王羲之)를 가리키는데, 그는 원제(元帝) 때 우군장군(右軍將軍)을 지냈기에 우군이라고 한다. '자경(子敬)'은 왕희지(王羲之)의 막내아들 왕헌지(王獻之)의 자인데, 또한 명필로 이름이 높았다. 여기에서는 아버지인 백광훈을 고황과 왕희지에, 그의 아들인 백진남을 비웅과 왕헌지에 견주어 아버지인 백광훈의 시와 글씨의 명망을 아들인 백진남이 이었다고 칭송한 것이다.

33 증조부(曾祖父) : 김수항(金壽恒)의 증조부인 김극효(金克孝, 1542~1618)를 가리킨다.

34 할아버지 : 원문의 '왕부(王父)'는 김수항의 할아버지인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을 가리킨다.

35 진사(進士) : '상상(上庠)'은 태학(太學)으로, 곧 성균관(成均館)을 말하는데, 여

지와 이웃하며 살았다. 늘 송호가 남쪽 고향에서 서울로 들어오면 할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책상을 함께 하며 지내고 베개를 나란히 해서 주무셨다. 그러고는 경치가 좋은 곳으로 초대하여 글을 짓고 술 마시는 모임을 함께 했으니, 시편(詩篇)이나 편지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고해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할아버지께서 일찍이 왕명을 받들어 탐라(耽羅)로 가실 적에[36] 해남(海南)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송호의 옛집이 그곳에 있었다. 이때 이천(梨川) 이홍주(李弘胄) 공이 체부(體府)의 막료(幕僚)로 마침 그곳에 들렀으니, 이홍주 공이 송호에게도 오랜 벗[37]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때때로 두 공(公)을 이끌고 대둔산(大芚山)의 두륜사(頭輪寺)를 방문하여, 수석(水石)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시를 지었고 두 공도 각각 시를 지어 그 일을 읊조렸다. 뒷날 송호는 할아버지께 그 시들을 손수 써 달라고 청했고 아울러 그 일의 본말을 기록하여 한 통으로 만들어 뒷날의 볼거리에 대비했다. 또한 모사본(模寫本)을 산승(山僧)에게 주어 절간의 벽에 새기도록 했다. 그 진적(眞蹟)은 오늘에 이르도록 백씨(白氏)가 보관하였고 부본(副本)은 우리 집에 있었으나 병란 속에 잃어버렸다. 일찍이 절간의 승려에게 모사본을 구해 보았지만, 탑본(榻本)한 종이만 한 번 볼 수 있을 따름이었다.

기에서는 진사시(進士試)를 가리킨다. 백광훈과 김극효는 1564년(명종19) 같은 해에 진사시에 합격했다.

36 할아버지께서……적에 : 자세한 내용은 45쪽 주2 참조.

37 오랜 벗 : 원문의 '구요(久要)'는 옛 친구를 말한다. 《문선(文選)》에 실린 조식(曺植)의 〈공후인(箜篌引)〉에서 "오래 교유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끝이 야박하면 의리에 허물이 된다는 것.〔久要不可忘, 薄終義所尤.〕"이라고 했는데, 유량(劉良)의 주(注)에서 "'구요'는 오래 교유한 것이다."라고 했다.

지난해 나는 임금님께 버림받아[38] 남쪽으로 쫓겨났는데, 송호의 손자 백명헌(白明憲) 씨가 자주 찾아와 이 첩을 보여 주었다. 받들어 펼쳐 보자 손때가 완연했으니, 종이를 다 훑어보기도 전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 이 서첩(書帖)이 만들어진 지 지금으로부터 73년 되었고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뜨신 지 또한 벌써 24년을 넘겼도다. 목소리와 모습을 더듬어 그려 보지만, 날이 멀어질수록 날로 아득해만 간다. 그 사이에 세도(世道)의 변화가 또한 백 가지뿐이랴. 이미 슬퍼하고 한탄할 만하다. 하물며 나 같은 불초 손자는 변변치 못하여 넘어지고 자빠져 이 지경에 이르렀다. 대둔산은 뚝 떨어진 황량한 곳이라서 장춘동 속으로 한번 찾아가 할아버지께서 노니시던 옛 자취를 밟아 볼 도리가 없으니, 어찌 거듭 슬프지 않겠는가.

옥봉 및 송호가 교유한 분들은 모두가 당세의 현인(賢人) 호걸(豪傑)이었다. 그래서 오고 간 서찰(書札)은 모두 수습되어 질(帙)을 이루었고 비록 종이쪽지[39]라도 버려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의 필적이 그 중 열에 여섯, 일곱을 차지한다. 이 첩은 단지 그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무릇 4대를 전해 백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잘 보존하고

---

38 임금님께 버림받아 : 원문의 '수결(受玦)'은 임금의 신임을 잃고 배척을 받았다는 뜻이다. 결(玦)은 옥의 한 종류로,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이 때문에 절연(絶緣)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례주소(儀禮注疏)·상복(喪服)》에 "세 번을 간언해도 따르지 않으면 국경에서 쫓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임금으로부터 환옥을 받으면 돌아오고 결옥을 받으면 그 나라를 떠나야 한다.〔三諫不從, 在境待放, 得環則還, 得玦則去.〕"라고 했다. 김수항(金壽恒)은 1675년 7월, 응지(應旨)에 진언(進言)했다가 전라남도 영암(靈巖)으로 원찬(遠竄)된 바 있는데, 이 일을 말한다.

39 종이쪽지 : 원문의 '혁제(赫蹄)'는 옛날 글씨 쓸 때 썼던 폭이 좁은 비단을 가리키는데, 전하여 작은 글씨로 쓴 종이쪽지를 의미한다.

잃지 않았으니, 백씨 자손들의 경우 조상의 가업을 잘 이어받고 지켰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것을 보아도 우리 두 집안이 서로 세교(世交)의 우호가 힘쓰지는 않았을망정 게으름은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 이후로 해가 더욱 오래될수록 세교(世交)가 더욱 멀어진다면 후손들이 혹 나태해질까 두렵기에, 마침내 선대의 일을 대략이나마 서술하고 또한 내가 느낀 점을 담아 아래쪽에 쓴다.[40]

숭정(崇禎) 기원(紀元) 후(後) 병진년(1676, 숙종2) 11월 불초 손자 수항(壽恒)이 삼가 낭주(朗州)[41]의 유배지에서 쓰다.

---

40 이 작품이 김수항의 《문곡집(文谷集)》에 〈書大芚酬唱詩序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41 낭주(朗州) : 전라남도 영암의 옛 이름으로, 김수항은 7월에 영암으로 유배 온 적이 있다.

대둔산 송담에서 노닌 것을 기록하다

大芚松潭記遊

대둔산(大芚山)은 해남(海南)의 이름난 산이고 그 가운데에는 볼만한 사찰이 많고 수석(水石)이 아름다운 곳도 있다. 또한 기이한 꽃과 특이한 나무도 많아, 비록 한겨울에 큰 눈이 내려도 붉은 꽃과 푸른 잎이 온 산에 두루 비쳐, 마치 봄날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계곡의 이름을 장춘(長春)이라고 했는데, 대개 이 때문이다.

장춘으로부터 큰 냇물을 따라 아래로 십여 리쯤 내려오면 이른바 송담(松潭)이라는 곳이 있다. 이 송담은 송호(松湖) 백진남(白振南)이 은거했던 곳[42]으로 지금은 그의 외손(外孫)이 소유하고 있다. 송담의 좋은 경치는 호해(湖海)와 계산(溪山)의 모임에 의거하면, 못을 비탈이 빙 둘러 있으며 수죽(水竹)의 풍요로움이나 귤과 유자의 열매 및 순채와 농어[43]의 맛이 또한 이곳에 모두 갖추어져 있기에, 확실히 오(吳)나라와 월(越)나라의 풍기(風氣)가 있다고들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대둔산의 송담은 더욱 남쪽 지방의 승경(勝景) 중에 으뜸이 되었고

---

42 은거했던 곳 : 원문의 '토구(菟裘)'는 본래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지명인데, 벼슬을 내놓고 은거하는 곳이나 노후에 여생을 보내는 곳을 말한다. 춘추시대 노(魯)나라 은공(隱公)이 환공(桓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서 토구 땅으로 돌아가 살고 싶다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11년조에 보인다.

43 순채와 농어 : 보통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뜻한다. 후한(後漢) 오군(吳郡) 사람인 장한(張翰)이 낙양(洛陽)에서 벼슬하다가 천하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고향의 순챗국과 농어회가 그립다며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오주(吳洲)로 돌아갔다고 한다. 《진서(晉書)·문원전(文苑傳)》

이곳에서 노니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다. 그러하니 그 사이에 오갔던 시인 묵객들을 전후로 어찌 다 한정할 수 있겠느냐만은 모두 사라져 들을 수가 없었다.

다만 우리 선조이신 증조(曾祖) 문정공(文正公)[44]이 일찍이 안무어사(安撫御史)가 되어 탐라(耽羅)로 들어갈 때에 해남(海南)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송호 백진남·이천(梨川) 이홍주(李弘胄)와 더불어 옷깃을 나란히 하고 대둔산과 송담 사이를 오가며 노닐었다. 해산(海山)의 승경을 다 돌아보고 한 잔 술에 한 번 시 읊조리는[45] 즐거움을 다했는데 지금까지도 멋진 일로 전해져 오고 있다. 그때 수창했던 작품들도 여전히 대대로 전해지고 있으니, 아 성대하도다.

내가 늘 선조의 문집을 보면서 그 시들을 읽을 때마다 그때의 일을 상상하면서 그곳에 한 번 가 보고자 했었다. 그러나 해산은 천 리 밖에 있기에 그곳에 갈 인연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46] 임금님께 버림받아 낭주(朗州)로 유배된 적이 있다. 낭주에서 대둔산과 송담까지는 한 번 나들이하기에 충분한 거리였다.[47] 이에 송호 백진남의 증손

---

44 문정공(文正公) : 김상헌의 시호(諡號)이다. 자세한 내용은 50쪽 주18 참조.

45 한 잔……읊조리는 : 원문의 '상영(觴詠)'은 일상일영(一觴一詠)의 준말로, 한 잔 술을 마시고 한 번 시를 읊조린다는 말이다. 왕희지(王羲之)의 〈난정기(蘭亭記)〉에 "비록 관현악기의 훌륭한 음악은 없지만, 술 한 잔 마시고 시 한 수 읊는 것도 또한 그윽한 정서를 펴기에 충분하다.〔雖無絲竹管絃之盛, 一觴一詠, 亦足以暢敍幽情也.〕"라고 한 데서 연유한 표현이다.

46 우리 아버지께서 :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을 말한다. 자는 구지(久之), 호는 문곡(文谷),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김상헌(金尙憲)의 손자이며, 김창집(金昌集)·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김창업(金昌業)·김창즙(金昌楫)·김창립(金昌立)의 아버지이다.

47 한 번……거리였다 : 원문의 '망창(莽蒼)'은 멀지 않는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 《장자

(曾孫)인 백몽삼(白夢參) 군이 늘 나를 찾아와서 만나 보고는 문뜩 나를 위해 송담의 승경을 끊임없이 말해 주었기에, 나는 더욱 그곳에 가서 한 번 구경하면서 원했던 바를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었고 조물주(造物主)의 마귀 장난도 있어서 약속만 한 채 가 보지 못한 것이 벌써 4년이 지났으니, 일찍이 구슬픈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금년 5월에 나는 동생인 김창흡(金昌翕) 및 김창즙(金昌緝)과 더불어 한둘의 동지(同志)들을 데리고 비로소 가서 노닐었다. 가는 길에 옥천(玉川)에 사는 백몽삼을 만나 함께 가기를 요청하자, 백몽삼의 형제들도 흔쾌히 함께하여, 마침내 이른바 대둔산이란 곳에 도착했다. 그 사찰의 성대함과 수석(水石)의 아름다움 및 꽃과 나무의 기이하고 특이한 것이 한눈에 모두 들어왔다. 또한 대둔산을 나와 송담에 이르니, 송담 가에는 정자가 있었다. 그 정자는 매화와 대나무 및 귤과 유자나무 사이에서 날듯이 솟아 있었다. 한 번 그 정자에 올라가니, 계산(溪山)과 호해(湖海)의 멋진 풍경을 모두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이에 여러 동생들과 함께 이리저리 구경하며 즐기다가, 한숨 쉬며 "이곳은 모두 우리 선조와 송호가 함께 노닐던 곳이다. 예전에 내가 일찍이 이곳을 한 번 오려고 했지만 오지 못했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남쪽으로 유배 온 것은 진실로 불행이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유배 때문에 우리 선조가 지팡이 짚고 걸었던 흔적을 만나게 되었다.

(莊子)·소요유(逍遙遊)》에 "가까운 교외에 가는 자는 세 끼 밥만 가지고 갔다가 돌아와도 배가 여전히 부르고, 백 리를 가는 자는 전날 밤에 양식을 찧어서 준비해야 하고, 천 리를 가는 자는 삼 개월 전부터 양식을 모아야 한다.〔適莽蒼者, 三飡而反, 腹猶果然, 適百里者, 宿舂糧, 適千里者, 三月聚糧.〕"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해산(海山)의 천 리 밖에서 비로소 평생의 소원을 풀었으니, 어찌 불행 중 다행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우리 선조와 송호가 놀던 일은 이미 78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세상의 도(道)와 사람의 일이 끊임없이 변한 것은 진실로 백 가지도 넘는다. 그러나 유독 해산의 멋진 풍경은 그 옛날처럼 그대로 남아 있고 우리 두 집안의 자손들이 또한 함께 이곳에서 노닐면서 선조들이 남긴 일을 잇고 있으니, 어찌 더욱 얻기 어려운 모임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을 했다.

아, 나와 백몽삼 군은 여러 대 동안 두 집안이 교유하여, 세교(世交)의 우호(友好)가 진실로 오늘의 노닒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미 깊다고 하겠다. 그러나 두 집안의 자손들이 다시 두 집안의 선조들이 함께 노닐던 곳에서 만나니, 선조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추모하는 마음이 평소보다도 몇 배나 되었다. 그러니 나와 백몽산 군은 더욱 세교(世交)를 돈독히 하는 데 힘써야 하니, 이것은 다만 오늘의 노닒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에 진실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애오라지 이를 써서 기록하고 동생들에게 주어 각각 시 몇 편을 짓도록 했다. 또한 선조들이 수창했던 작품의 운자(韻字)를 따르는 것이 대단히 참람된 것인 줄은 알지만, 한때의 자취를 기록하고 소자(小子)들의 감흥을 붙이고자 한 것이니, 풍류와 문아(文雅)가 성대했던 선조들의 만분의 일이나마 따르고자 했다고 감히 말하지는 않겠다.

안동(安東) 김창집(金昌集)[48] 쓰다.[49]

---

48 김창집(金昌集) : 1648~172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이다.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이자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다.

49 이 작품이 김창집의 《몽와집(夢窩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대둔산에서 옛일에 감회가 일어

大芚山感舊

우리들 뗏목 타고 바닷가에 이르러 吾曹乘槎到海濱
잠시 호남 노인 따라 장춘동에 들어갔네 暫從湖老入長春
비단 두른 벽에는 시 여전히 남아 있는데 紗籠壁上詩猶在
산속 나막신[50] 신고 다니던 흔적 이미 옛 자취네 蠟屐山中迹已陳
멋진 경치 보니 그 옛날과 똑같지만 勝景卽看同昔日
전인의 풍류 이었다 감히 말 말게 風流敢道繼前人
예전처럼 고목(古木)은 석양에 잠겨 있어 依然古樹斜陽裏
서글피 그대들 데리고 옛 자취 밟노라 怊悵携君躡舊塵[51]

김창집(金昌集)

---

50 나막신 : '납기(蠟屐)'는 꿀을 발라서 광택이 나는 나막신을 말한다. 《진서(晉書)·완부전(阮孚傳)》의 "완부는 납기를 너무 좋아했다.……완부를 찾아가니 마침 납기를 챙겨 신고는 '나의 일생에 몇 켤레나 더 신게 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혼자서 탄식했다."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또한 남조(南朝) 송(宋)나라의 사영운(謝靈運)이 임천 내사(臨川內史)로 있을 때 밀랍을 칠한 나막신을 신고 산에 오르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51 이 작품은 김창집(金昌集)의 《몽와집(夢窩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차운하다
次

강남 계곡 주변의 기이한 나무　　江南奇樹澗之濱
푸르른 산다[52]는 봄 속의 봄이네　　蒼翠山茶春復春
다만 구름 이내 자욱한 것만이 보이나니　　但見雲霞長窈窕
바위 계곡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라　　不知巖谷變新陳
단청의 사찰 벽에 누가 시를 적었나　　丹靑寶殿誰題壁
옛날에도 산수를 맑게 읊조린 이 있었지　　山水淸音古有人
그대들과 멀리 와 구경하면서　　携子遠來登望意
함께 이곳에 와서 남긴 자취 찾아보누나　　並從此地訪遺塵[53]

김창흡(金昌翕)[54]

---

52 산다(山茶) : 동백나무를 말한다.

53 이 작품은 김창흡(金昌翕)의 《삼연집(三淵集)》에 〈大芚山感舊〉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54 김창흡(金昌翕) : 1653~172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이다.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며 김창집(金昌集), 김창협(金昌協)의 동생이다.

삼가 선조께서 수창했던 작품의 운자에 차운하다
伏次先祖酬唱韻

절문의 소나무 잣나무엔 흰 구름 쌓여 있어　寺門松柏白雲堆
선조들이 이 나무 사이에 있던 일 상상해 보네　想見前人樹裏來
이 시냇물이 아홉 구비인 것이 좋아서　愛是川流猶九曲
서성이며 또한 향대[55]에 앉고 싶구나　徘徊且欲坐香臺[56]

나란히 장춘동 계곡을 나와서　齊出長春谷
고기잡이 마을에서 지는 해 바라보네　漁城眺夕輝
호남의 바다 접한 산에서 노니노니　山遊接湖海
다시 연밥 따고 돌아갈 수 있으려나　可復採蓮歸[57]

송호와 내 선조께서　松湖及我祖
대둔산에서 노닐며 시 읊조렸지　歌有大芚遊
그 옛날에는 매화꽃 보내주었고[58]　宿昔梅花贈

---

55 향대(香臺) : 향을 사르는 대(臺)라는 말로, 보통 사찰의 별칭으로 쓰인다. 여기에서는 대둔산(大芚山)의 사찰을 가리킨다.

56 이 작품은 김창흡(金昌翕)의 《삼연집(三淵集)》에 〈伏次先祖酬唱韻.【淸陰先祖以湖南御史遊大芚寺, 與白松湖振南酬唱.】〉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57 이 작품은 김창흡의 《삼연집》에 〈伏次先祖酬唱韻.【淸陰先祖以湖南御史遊大芚寺, 與白松湖振南酬唱.】〉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58 그 옛날에는……보내주었고 : 남조(南朝) 송(宋)의 육개(陸凱)가 강남의 매화 한 가지를 역사(驛使)를 통해서 장안(長安)에 있는 친구 범엽(范曄)에게 부치며 시를

계수나무 그윽한 곳[59]에서 멋진 약속했지　佳期桂樹幽
예전 북악산에서 이웃했다 들었는데　古隣聞北嶽
기이한 자취 남쪽 고을에서 보노라　奇迹見南州
곧바로 절간[60]에서 서로 모였는데　卽事招提會
그대들 데리고 또 바다 모퉁이　携君又海陬[61]

김창흡(金昌翕)

계곡엔 소나무 노송나무 푸르게 싸였고　洞天松檜翠成堆
맑은 계곡 다 건너 구곡으로 갔네　度盡淸溪九曲來
잠시 높은 누대에서 쉬는데　暫向高樓爲少憩
석양의 산 빛이 앞 누대에 가득하네　夕陽山色滿前臺[62]

늙은 중이 나그네 만류하며 말하길　老僧挽客道
산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려 하고　山日欲西暉
이미 계곡 주변 걸상을 닦아 놓았으니　已掃溪邊榻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무방하리　何妨一宿歸[63]

지어 안부를 전한 고사가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태평어람(太平御覽)·형주기(荊州記)》

59 계수나무 그윽한 곳 : 《초사(楚辭)·초은사(招隱士)》에 "계수나무 우거진 그윽한 산속.〔桂樹叢生兮山之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은자들의 거처를 말한다.

60 절간 : '초제(招提)'는 범어(梵語) caturdeśa의 음역(音譯)으로, 사원(寺院)의 별칭이다.

61 이 작품은 김창흡의 《삼연집》에 〈伏次先祖酬唱韻.【淸陰先祖以湖南御史遊大芚寺, 與白松湖振南酬唱.】〉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62 이 작품은 김창집(金昌集)의 《몽와집(夢窩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63 이 작품은 김창집의 《몽와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오월 장춘동은 五月長春洞
녹음이 아름다워 노닐 만하다오 綠陰佳可遊
산 돌면 구곡(九曲)의 계곡 있고 山回溪有曲
나무 무성해 샛길은 그윽한 곳으로 통하네 樹密徑通幽
스님은 두륜사에서 나오고 僧出頭輪寺
사람은 옛 낭주[64]에서 왔다네 人從古朗州
높은 누대에서 멋진 풍경 맘껏 즐기면서 高樓飽淸賞
돌아갈 줄 모르고 먼 모퉁이에 있다네 忘却在遐陬[65]

김창집(金昌集)

---

64 낭주(朗州) : 전라남도 영암의 옛 이름이다.

65 이 작품은 김창집의 《몽와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송담에서 써서 주인 이군에게 보내다

松潭書贈主人李君

평호의 동쪽으로 대둔산 물길 흘러가는데	平湖東納大芚川
냇물 낀 큰 소나무는 십 리 이어졌네	川夾長松十里連
이제야 먼 바닷가의 팔창[66]에 이르러	始至八窓浮遠海
수많은 대나무 즐비한 남쪽 지방에 앉았네	忽排千竹坐南天
주인이 내온 밥상에는 오중의 순채[67] 있고	主人飯有吳中蒓
나그네 노래 지으니 물고기는 연꽃 희롱하네	遊子歌成魚戲蓮
북쪽 길손 구경하러 이곳 온 이 드문데	北客徘徊稀到此
오히려 우리 선조[68] 시 짓던 해 생각나누나	尙思吾祖賦詩年[69]

다리 아래 어촌에는 절로 냇물이 흐르고	橋下漁城自有川
푸른 물결 너머 섬들이 멀리 이어졌네	碧波島嶼迥相連
장삿배는 포구로 들어와 천 리 유통하고	商帆入浦通千里

---

66 팔창(八窓) : 여덟 개의 창문이라는 말이다. 당(唐)나라 노륜(盧綸)의 〈부득팽조루송양덕종귀서주막(賦得彭祖樓送楊德宗歸徐州幕)〉에서 "네 개의 문에 설치한 여덟 개의 창이 어찌나 밝은지, 하늘 기운이 영롱하게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네.〔四戶八窓明, 玲瓏逼上淸.〕"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송담에 있는 누대를 가리킨다.

67 오중(吳中)의 순채 : 자세한 내용은 59쪽 주43 참조.

68 우리 선조 : '오조(吾祖)'는 송담에 와서 백진남과 시를 지었던 김수항(金壽恒)을 말한다.

69 이 작품은 김창흡의 《삼연집》에 〈松潭書贈主人李君【碩臣】〉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바다 비는 바람 따라 사방으로 흩뿌리네　　海雨隨風散四天
이씨 늙은이의 평천에는 돌 그대로요[70]　　李老平泉無改石
백옹의 여악에는 지금도 연꽃 자라네[71]　　白翁廬嶽尙生蓮
호남의 좋은 거처에서 전인이 즐겼으니　　湖居好是前人樂[72]
그대도 맘껏 노닐면서 나이 잊을 만하리　　君但優遊可忘年[73]

김창흡(金昌翕)

---

70 평천(平泉)에는 돌 그대로요 : '평천'은 본래 평천별장(平泉別莊)으로, 당(唐)나라 때의 명재상 이덕유(李德裕)의 별장 이름이다. 하남성(河南省) 낙양현(洛陽縣)의 남쪽에 있었는데, 수석의 아름다움이 천하제일이며 기화이초(奇花異草)와 진송괴석(珍松怪石)이 그 사이에 늘어 있어 유명해졌다. 이덕유(李德裕)는 〈평천수석기(平泉樹石記)〉를 지을 정도로 이곳의 수석(樹石)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평천산거계자손기(平泉山居戒子孫記)〉에서 "후대에 이 평천을 파는 자는 내 자손이 아니며, 평천의 나무 하나 돌 하나를 남에게 주는 자는 훌륭한 자제가 아니다.〔後代鬻平泉者, 非吾子孫也. 以平泉一樹一石與人者, 非佳子弟也.〕"라며 자손을 경계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 자손의 심한 사치로 말미암아 마침내 패망하고 말았다. 《극담록(劇談錄)·이덕유》 여기에서는 송담에 있는 누대가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였다.

71 여악(廬嶽)에는……자라네 : '여악'은 여산(廬山)과 같은 말이다. 중국 강서성 강남부(江南府)에 있는 여산에는 백련사(白蓮寺)가 있다. 동진(東晉)의 효무제(孝武帝) 때에 고승 혜원(慧遠)이 맨 처음 이 산에 들어가 백련사를 결성하고 염불을 수행했는데 그의 문도(門徒)가 수천 명이나 되었고, 그 후부터 그곳이 강남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송담 주변에 여전히 연꽃이 자라고 있다는 의미이다.

72 樂 : 김창흡의 《삼연집》에는 '業'으로 되어 있다.

73 이 작품은 김창흡의 《삼연집》에 〈松潭書贈主人李君【碩臣】〉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차운하다
次

장춘동 가운데서 긴 냇물 흘러내려　長春洞裡出長川
어촌까지 흘러가 바다와 이어졌네　流到漁城與海連
산이 들판 빙 둘러 마치 그림처럼 보이고　山繞野頭看似畵
나무 끝에 있는 누대는 마치 하늘에 앉은 듯　樓臨樹杪坐如天
거센 바람에 천 그루 대나무는 기우뚱하고　驚風盡亞千竿竹
소낙비에 만 그루 연꽃은 일제히 울어대네　急雨齊鳴萬柄蓮
우리 선조가 예전 일찍이 왔던 곳　吾祖昔曾來此地
멋진 노닒으로 지금 다시 그 옛날 잇네　勝遊今復續當年[74]

김창집(金昌集)

나무 사이 높은 누대 솟아 긴 냇물 마주했고　危樓出樹對長川
냇물은 유유히 흘러 푸른 바다로 이어졌네　川水悠悠滄海連
포구 서쪽으로 돌면 남은 땅도 없으며　漁浦西廻無外地
두륜산은 동쪽으로 하늘 높이 솟아 있네　頭輪東起極天高
암벽 한쪽에는 모두 대나무가 자라고　巖開一面皆生竹
천 길이나 깊은 못에는 연꽃이 둥 떠 있네　池俯千尋盡泛蓮
멋진 풍경의 강남을 두루 보고자 하노니　形勝江南看欲遍

---

74 이 작품은 김창집의 《몽와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장대한 유람에 오히려 자장보다 어리네[75] 壯遊還少子長年[76]

김창집(金昌緝)[77]

---

75 자장(子長)보다 어리네 : '자장'은 사마천(司馬遷)의 자이다. 젊은 시절 전국을 유람하며 고적을 살폈다. 《한서(漢書)·사마천전(司馬遷傳)》에 "20세에 장강(長江)과 회수(淮水)를 남쪽으로 유람하고, 회계산(會稽山)에 올랐고 우혈(禹穴)을 탐색하고 구의산(九疑山)을 살피고, 원수(沅水)와 상수(湘水)를 떠다녔다.〔二十而南游江淮, 上會稽, 探禹穴, 窺九疑, 浮沅湘.〕"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김창집(金昌緝)의 나이가 사마천보다 어려서, 맘껏 유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작품은 1676년(숙종2)에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김창집의 나이는 15살이었다.

76 이 작품은 김창집의 《포음집(圃陰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77 김창집(金昌緝) : 1662~1713.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명(敬明), 호는 포음(圃陰)이다. 아버지는 김수항(金壽恒)이다. 형들인 창집(昌集)·창협(昌協)·창흡(昌翕)·창업(昌業) 등과 함께 문장의 대가로 명성이 높았으니, 당시 육창(六昌)으로 불렸다.

삼가 선조가 다른 사람의 운자에 차운한 작품에 차운하다
伏次先祖次人韻

어촌은 호남의 바다와 접해 있고 漁城接湖海
시원한 누대에선 계곡 산 내려다보이네 快閣俯溪山
순채 캐니 향기 대바구니에 가득하고 菜茆香盈筥
잡은 물고기 회 뜨니 쟁반에 가득해라 綸魚膾滿盤
인간 세상에 이같이 멋진 풍경 없으리니 人間無此勝
세상 밖에서 높은 벼슬아치 비웃노라 物外笑高官
유람하는 길손 때때로 서로 방문하며 游客時相訪
술통 열고 한밤중까지 얘기 나누네 開樽語夜闌[78]

말 채찍질하며 장춘동을 나오니 策馬出春洞
송담이 저 멀리 바라다보이네 松潭入望來
누대는 우거진 나무 사이로 솟아 있고 樓從深樹起
조수는 석양빛을 띠고 밀려드네 潮帶夕陽回
대나무 헤치며 좁은 길을 가니 曲逕行穿竹
높은 암벽의 좌불에는 이끼 끼었네 危巖坐佛苔
모래톱 갈매기도 가까이 날아오려 하니 沙鷗欲相近
사람 보고서 비웃을까 걱정된다오 却恐見人咍[79]

김창집(金昌集)

---

78 이 작품은 김창집(金昌緝)의 《포음집(圃陰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79 이 작품은 김창집(金昌集)의 《몽와집(夢窩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백옹[80]이 옛날 맘껏 누웠던 곳　　白翁昔高臥
열고 뚫어 놓으니 구산[81]이로구나　　開鑿是丘山
먼 곳 보고 싶으면 애오라지 바다 바라보고　　遠意聊觀海
취해 노래하며 이곳에서 서성였으리[82]　　酣歌或考槃
못 연꽃으로 옷 만들어 입을까[83] 생각했고　　池荷思製服
농어회[84]에 관직 그만둔 일도 좋아했겠지　　鱸膾愛休官
정원에 심어 놓은 나무는　　所植園中木
아직도 푸르고도 멋지다네　　猶看靑且闌[85]

김창흡(金昌翕)

강남의 예전 그곳 방문할 만하니　　江南可訪舊
가는 길옆에 대둔산이 있어라　　行傍大芚山

---

80 백옹(白翁) : 송호(松湖) 백진남(白振南)을 말한다.

81 구산(丘山) : 산수자연을 말한다. 도잠(陶潛)의 〈귀전원거(歸田園居)〉에서 "젊어서부터 세속 정취에 맞지 않으니, 천성이 본디 산림을 좋아한다오.〔少無適俗韻, 性本愛丘山.〕"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은거지(隱居地)라는 의미로 쓰였다.

82 서성였으리 : '고반(考槃)'은 《시경(詩經)》의 편명이다. 〈고반〉에서 "숨어 살 집이 언덕에 있으니, 큰 선비의 마음이 넉넉하도다.〔考槃在阿, 碩人之邁.〕"라고 했다. 이로 인해, 산림에 은거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은사(隱士)의 생활을 비유하기도 한다.

83 못 연꽃으로……입을까 : 연잎으로 만든 옷이란 은자의 옷을 가리킨다. 《초사(楚辭)·이소(離騷)》에 "기하(芰荷)를 마름질하여 저고리를 짓고, 부용을 모아서 치마를 짓네.〔製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속세를 떠나 은거하고 싶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84 농어회 : 자세한 내용은 59쪽 주43 참조.

85 이 작품은 김창흡의 《삼연집》에 〈松湖亭伏次先祖次人韻〉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깊은 못엔 연꽃이 천 잎이나 되고　　深澤蓮千葉
긴 다리엔 물이 아홉 번 굽어 도네　　長橋水九盤
오히려 문정공 선조[86] 지나던 일 생각나니　　尙思文祖過
안무어사(安撫御史)로 왔다고 하네[87]　　云自繡衣冠
자취 어루니 자못 감흥이 많고　　撫迹偏多感
난간에 기대니 생각이 끝이 없어라　　憑軒意未闌[88]

김창집(金昌緝)

---

86 문정공 선조 : 김상헌의 시호가 문정(文正)이다.

87 안무어사(安撫御史)로 왔다고 하네 : 자세한 내용은 45쪽 주2 참조.

88 이 작품은 김창집(金昌緝)의 《포음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대둔산에서 차운하다
大芚山次韻

두륜산은 해남의 물가에 우뚝 솟아 있고　頭輪秀出海南濱
옥 같은 나무와 꽃으로 사시사철 봄이로세　琪樹瓊花四節春
세상 밖의 풍경은 오히려 그대로인데　物外雲煙猶未改
벽 사이 시필은 모두 옛 자취 되었네　壁間詩筆摠成陳
함께 물가 찾아 산 나그네 찾으면서　同來訪水尋山客
모두 시절 상심하며 옛사람 그리워하네　俱是傷時感舊人
손수 붓[89] 들고 몇 편의 시구를 지으면서　手把兎毫題數句
백 년 전 맑은 자취를 오늘 잇는다오　百年今日續淸塵

천 년 동안 산악은 허공에 솟아 있고　千年山岳半空堆
아홉 구비 계곡에 물 한 줄기 흐르네　九曲溪流一派來
지난 일 아득히 구름 물과 함께 흰데[90]　往事蒼茫雲水白
석양녘 시름 속에 옛 사찰에 기대이네　夕陽愁倚古禪臺

돌은 오래되었고 길에는 이끼 자랐으며　石古苔生逕

---

89 붓 : '토호(兎毫)'는 토끼털로 만든 붓을 말한다.

90 구름……흰데 : '운수백(雲水白)'은 흰 구름과 물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전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두보(杜甫)의 〈팔애시(八哀詩)〉라는 작품 가운데, 태원 윤(太原尹)으로 재직 시에 죽은 왕사례(王思禮)를 슬퍼한 시에서 "천추만세토록 분진(汾晉)의 사이에서 세운 공은, 사적(事蹟)이 운수(雲水)와 함께 희리로다.〔千秋汾晉間, 事與雲水白.〕"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숲이 깊어 해도 보이지 않누나　林深不見暉
계곡 누대에서 옛 자취를 찾으며　溪樓尋舊蹟
해질녘 맘껏 읊조리고 돌아오누나　日夕浪吟歸

시 짓고 술 마시며 두륜산 얘기하면서　詩酒頭輪話
정답게 옛 노닒을 이어 가네　慇懃繼昔遊
산봉우리는 옛날 그때처럼 빼어나고　峰巒依舊秀
계곡은 지금도 여전히 그윽하여라　洞壑至今幽
동북쪽은 금릉현[91]이요　東北金陵縣
서남쪽은 옛 옥주[92]라네　西南古沃州
훗날 서울로 떠나가거든　他年京洛去
산모퉁이에서 만난 일 기억해 주오　須憶會山陬

백몽삼(白夢參)

---

91 금릉현(金陵縣) : 전라남도 강진의 옛 이름이다.

92 옥주(沃州) : 전라남도 진도의 옛 이름이다.

송담에서 차운하다

松潭次韻

들판 가로질러 흐르는 한 줄기 냇물	劃野橫流一帶川
넘실넘실 천 년 동안 바다로 흘러가누나	滔滔千古海門連
못 주변 소나무와 대나무는 땅을 뒤덮었고	池邊松竹圍平地
난간 밖의 산봉우리는 허공 중에 솟았어라	檻外峰巒聳半天
시 짓고 술 마신 생애는 초가집에 전해 오고	詩酒生涯傳白屋
문장의 가업은 절로 청련[93]이네	文章家世自靑蓮
동남의 손님과 주인이 오늘 밤 모여	東南賓主今宵會
아득히 황명 만력의 때 잇노라[94]	遠續皇明萬曆年[95]

문은 고기 잡는 포구의 물과 인접했고	門臨漁浦水
처마는 대둔산과 이어져 있어라	簷接大芚山
술잔 부르니 얼굴에 봄빛 생겨나고	喚枸春生面
생선 자르니 바다가 쟁반으로 들어오네	割鮮海入盤
강호에도 즐거움 있다는 걸 알았으니	江湖知有樂
세상에서 관직 구하지 않으려네	時世不求官

---

93 청련(靑蓮) : 청련거사(靑蓮居士)의 약칭으로, 이백(李白)의 별호(別號)이다.

94 아득히……잇노라 : '황명만력(皇明萬曆)'은 명(明)나라 때를 말한다. 김상헌이 해남의 장춘동을 방문했을 때는 아직 명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시기이다. 여기에서는 김상헌과 백광훈이 만났던 것을 지금 잇고 있다는 의미이다.

95 이 작품은 김창집(金昌集)의 《몽와집(夢窩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다행히 우리 그대가 오신다면　　幸得吾君至
한밤중까지 등불 돋우리라　　挑燈到夜闌[96]

그대들과 멋진 경치 찾으려　　多君探勝概
옷깃 맞대고 이곳으로 왔다네　　連袂此中來
들 나무는 아득히 멀리 보이고　　野樹蒼蒼遠
가는 배는 하나하나 돌아가누나　　行舟歷歷回
냇물 맑으니 모두 흰빛 물이요　　川明皆白水
돌 늙어 절반은 이끼가 끼었구나　　石老半有苔
옛 별장에 지금은 나그네가 되었으니　　舊墅今爲客
인간사 한번 웃을 만해라　　人間事可咍[97]

무오년(1678, 숙종4) 5월 상순에 김창집(金昌集) 쓰다.

북쪽으로 돌아온 이후에 소식을 받지 못하여 그리운 마음만이 날로 깊어 갑니다. 삼가 추운 날 모시고 계시는 부모님은 편안하신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산골짜기에서 돌아온 후에 겨우 아픈 것을 면했으며, 저희 부모님들도 또한 편안하시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한번 서울로 올라오고 보니 바닷가 산은 아득히 멀어, 이전 노닐던 일을 돌아보면 마치 다른 세상의 일과도 같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들고 남쪽을 바라보게 하니, 그리운 마음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대둔산에서 수창했던 그대의 작품을 이제야 비로소 써서 드

96 이 작품은 김창집(金昌集)의 《몽와집(夢窩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97 이 작품은 김창집의 《몽와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럽니다. 그러나 제가 본래 졸필(拙筆)인 데다 또한 좋지 못한 붓을 써서 겨우 글자만 만들어 놓았으니,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하고픈 말은 수없이 많지만 멀리 보내는 편지에 다 쓰지 못합니다. 다만 모두 더욱 아끼시길 바랄 뿐입니다. 삼가 함께 살펴보시고 어르신께 올려 주십시오. 바빠서 인사말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 죄송하고 한스럽습니다. 수창시 중에 이후에 쓴 것과 이전에 보낸 것을 함께 보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무오년(1678, 숙종4) 11월 초7일 세교(世交)하는 집안의 동생 김창집(金昌集) 드리다.[98]

나는 김군(金君)과 백군(白君)이 함께 대둔산과 송담 사이에서 노닐었다고 들었는데, 내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지금 백군이 멀리 궁벽진 산골짜기에 있는 나를 방문하여, 이에 그들이 노닐면서 지은 작품들을 내게 보여 주었다. 나는 그들의 멋진 풍경을 상상해 보고 그 훌륭한 작품들을 읊조려 보니 더욱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날아 그곳으로 가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 운자(韻字)에 차운하여 비루한 내 정회를 펼친다. 그러나 속초(續貂)[99]한다는 놀림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남쪽 지방 명승지로 옥천을 말하는데　　南國名區說玉川

---

98 이 작품이 김창집의 《몽와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99 속초(續貂) : 담비 꼬리를 잇는다는 말로, 좋지 못한 시문으로 좋은 시문을 이어 짓는 것을 뜻한다. 고대에 임금을 가까이서 보필하는 고급 관리들은 관 장식으로 담비 꼬리를 썼는데, 진(晉)나라 때 조왕(趙王) 사마륜(司馬倫)이 조정의 정사를 전단하면서 봉작(封爵)이 너무 많은 나머지 담비 꼬리가 부족하여 개 꼬리로 보충했다.〔狗尾續貂〕는 데서 유래했다. 《진서(晉書)·조왕륜열전(趙王倫列傳)》

대둔산 흐르는 물은 바다로 이어졌구나　　大芚流水海門連
지금까지 송담의 달을 꿈꾸어 왔는데　　邇來魂夢松潭月
세모에 적벽에 머물며 쉬고 있네　　歲暮棲遲赤壁天
왕교와 짝이 되어 학 타지 못한 채[100]　　未伴王喬雙跨鶴
부질없이 태을과 연잎 배[101] 생각하누나　　空思太乙竝浮蓮
그대 만나 호산의 멋진 풍경을 듣느라　　逢君聽得湖山勝
하룻밤이 일 년 같은 타향살이 잊었네　　忘却殊方夜抵年[102]

무오년(1678, 숙종4) 11월 하순에 세교(世交)하는
집안 동생 가림(嘉林) 정이(定而) 조정만(趙正萬)[103]이
복천서재(福川書齋)에서 쓰다.

---

100 왕교(王喬)와……채 : '왕교'는 왕자교(王子喬)를 말하는데,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 진(晉)이다. 왕자교는 태자 시절에 왕에게 직간하다가 폐해져 서인이 되었다. 젓대를 잘 불어 봉황새 소리를 내었으며, 선인(仙人) 부구공(浮丘公)을 따라 숭산(嵩山)에 올라가서 선도(仙道)를 닦은 뒤, 30년이 지난 칠월 칠석에 구지산(緱氏山) 정상에 백학(白鶴)을 타고 내려와서 산 아래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는 며칠 뒤에 떠나갔다는 전설이 있다. 《열선전(列仙傳)》 여기에서는 왕자교처럼 신선 되어 학을 타지 못했다는 말로, 백군과 함께 대둔산과 송담을 유람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101 태을(太乙)과 연잎 배 : 태일(太一), 태일진군(太一眞君), 태일진인(太一眞人)이라고도 한다. 태을성(太乙星)에 살며, 천신(天神)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한 신이다. 송대(宋代)의 명화가(名畫家)인 이공린(李公麟)이 《태을진인연엽도(太乙眞人蓮葉圖)》를 그렸는데, 태을진인이 하나의 큰 연잎 위에 누운 채로 서책을 펴서 쳐다보고 읽는 모습이다. 송(宋)나라 한구(韓駒)가 이 그림에 제(題)한 시에서 "태을진인이 연잎 배를 탔는데, 두건 벗고 머리털 내놓아 찬 바람에 날리네. 가벼운 바람을 돛으로 삼고 물결을 노로 삼아, 누워서 옥자를 보며 중류에 둥둥 떠 있구나.〔太乙眞人蓮葉舟, 脫巾露髮寒颼颼. 輕風爲帆浪爲楫, 臥看玉字浮中流.〕"라고 한 바 있다.

102 이 작품은 조정만(趙正萬)의 《오재집(寤齋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103 조정만(趙正萬) : 1656~1739.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정이(定而), 호는 오재(寤齋),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내가 강변의 누대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호남(湖南)의 계심(季深) 백철원(白徹源)이 《대둔수창(大芚酬唱)》 한 권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보여 주었다. 내가 삼가 이 책을 열람해 보니, 백생의 선조인 송호(松湖) 백진남(白振南) 공과 나의 선조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께서 각각 시 몇 수를 지었고 나의 선조께서 손수 한 통을 베꼈는데, 증조부인 문충공(文忠公) 김수항(金壽恒)께서 뒤에 자신이 쓴 발어(跋語)[104]를 붙이셨다. 그리고 송호 백진남 공의 손자와 나의 백조부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 형제에 이르러서, 다시 당일의 노닒을 잇고 이어 거기서 창화(唱和)한 작품과 또한 백조부 충헌공이 문정공의 옛일을 더불어 손수 써서 백공(白公)에게 준 것이었다.

아, 두 집안의 조손(祖孫)이 전후로 천리 먼 강산에서 만나 명승지를 맘껏 유람하고서 함께 시를 읊으며 즐겼으니, 고상한 풍류가 당대에 빛남이 성대했다고 이를 만하다. 지금까지 160여 년 동안 몇 차례나 세상이 뒤바뀌었는데도 책은 멀쩡하고 먹빛도 새로 쓴 것 같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있는 이 몸으로 하여금 어루만지며 탄식하게 하니, 백씨(白氏) 제현(諸賢)이 대대로 지성껏 지켜 오지 않았다면 또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두 집안의 우호(友好)가 독실한 것을 여기에서도 또한 볼 수가 있다. 앞으로 비록 백대가 지난다 하더라도 서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늙어 직접 장춘동에 가서 선조들이 남긴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으리라 생각되어 단지 이 글만 써서 주니, 슬프도다.[105]

---

104 발어(跋語) : 이때 쓴 발어가 〈書大芚酬唱詩序後〉라는 제목으로 《문곡집(文谷集)》 권26에 실려 있다.

105 한국고전종합DB에 실린 번역을 참고하여 보충 수정했다. 이 작품이 김원행(金元

숭정(崇禎) 135년 임오년(1762, 영조38) 5월 초길일(初吉日)에
문정공(文正公) 5세손 김원행(金元行)[106]이 삼가 미호(渼湖)의
추수헌(秋水軒)에서 쓰다.

앞에 실려 있는 《대둔수창록(大芚酬唱錄)》은 전라북도 순창(淳昌)에 사는 백사건(白師健)의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백사건 군의 선조이신 송호(松湖) 백진남(白振南)과 우리 선조이신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께서는 서로 교우(交友)가 좋으셨는데, 일찍이 해남(海南)의 대둔산(大芚山)에서 노니면서 이러한 작품을 지으셨다. 우리 백증조(伯曾祖)인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 형제 때에 이르러서는 또한 송호 백진남의 손자들과 이곳에서 노닐었다. 이들이 지은 두 세대의 시문(詩文)을 합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필체(筆體)는 문정공 김상헌과 충헌공 김창집이 손수 쓴 것이다. 《대둔수창록》 가운데에는 또한 우리 고조(高祖)이신 문충공(文忠公) 김수항(金壽恒) 및 선군인 김원행(金元行)께서 쓰신 제발(題跋)이 있다.

백사건 군이 소매 속에서 꺼내 나에게 이것을 보여 주었는데, 나는 손을 깨끗이 씻고 공손하게 살펴보니 황홀하기가 마치 장춘동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는 것만 같아, 선배들의 풍류와 고아한 글의 성대함을 우러러보았다. 그러니 우리 두 집안이 대대로 돈독하게 교유했다는 것을 또한 여기에서도 징험할 수가 있었다.

세월이 아득히 흘러가고 사람의 일이 자주 변하여, 나만이 외롭게

行)의 《미호집(渼湖集)》에 〈題白徹源所藏大芚酬唱詩〉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106 김원행(金元行) : 1702~177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백춘(伯春), 호는 미호(渼湖)·운루(雲樓),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김상헌(金尙憲)의 5대손이다.

겨우 살아가고 있기에 우러르고 굽어보며 서글픔을 절로 이겨낼 수 없었다. 백사건 군 또한 이미 필연(筆硯)을 버린 채, 의기롭게 부주(跗注)[107]의 군자가 되었다.

아, 한 번 성대해졌다가 한 번 쇠망하는 것이 또한 당연한 이치이다. 오직 백대가 지난다 하더라도 서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리가 선군이신 김원행(金元行)의 발문(跋文)에 남아 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후손들이 함께 힘써야 할 바이다. 이를 이미 백사건 군에게 고하고 이에 《대둔수창록》 끝에 써서 후손에게 전한다.

숭정(崇禎) 삼주(三周) 무신년(1788, 정조12) 3월 하순에,
문정공(文正公) 후손 김이안(金履安)[108] 삼가 쓰다.[109]

백사건(白師健) 군이 내가 살고 있는 안동(安洞)의 처소를 방문하고서는 소매에서 하나의 시첩(詩帖)을 꺼내어 보여 주면서 "그대와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유했으니, 이 시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고는 내게 시첩의 끝에 글을 써 주기를 요청했다.

---

107 부주(跗注) : 융복(戎服)으로 장수들의 군복을 가리킨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장수 극지(郤至)에게 초(楚)나라 임금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격전 중에 붉은색 가죽 바지를 입은 군자를 만났는데, 나를 보고는 경의를 표하여 다른 곳으로 피해 가곤 하였는바, 혹시 부상은 당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소.〔方事之殷也, 有靺韋之跗注君子也, 識見不穀而趨, 無乃傷乎.〕"라고 말한 데에서 유래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16년조에 보인다.

108 김이안(金履安) : 1722~1791.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원례(元禮), 호는 삼산재(三山齋)이다. 김상헌(金尙憲)의 후손으로 김창협(金昌協)의 증손자, 김원행(金元行)의 아들이다.

109 이 작품이 김이안의 《삼산재(三山齋)》에 〈書大芚酬唱錄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대개 우리 선조이신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선생이 백사건 군의 선조이신 송호(松湖) 백진남(白振南) 공과 함께 대둔산에서 서로 시를 주고받은 것이 수록되어 있었고 이어 우리 집안 4대의 필적(筆蹟)으로 그 사실을 기록해 둔 것이었다. 당시 우아한 모임의 돈독함과 풍류의 성대함이 담겨 있었기에, 한 번 책을 펼쳐 보는 사이에도 마치 몸소 모시고 있는 듯했다.

이에 백사건 군과 더불어 우러러 탄복하면서 "그대와 나는 그 우의(友誼)를 잊어서는 안 되네. 그러니 이 시첩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러한 우호(友好)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가. 그대와 우호를 저버린다면 이것은 선조들의 우호를 버리는 것이 되네. 선조들의 우호를 저버려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이 시첩을 오늘에서야 보았으니 너무 늦은 것이 한스러웠다. 백사건 군이 수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 유묵(遺墨)을 잘 보관했고 천리 먼 곳으로 옛 우의(友誼)를 찾아왔으니, 또한 백사건 군의 집안에 대대로 전해지는 충후(忠厚)한 풍모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백사건 군이 몸소 와서 또한 어기지 않고 선조들의 뜻을 이은 것이 이와 같았다. 그러니 장차 이것으로 두 사람의 집안 자손에게 경계를 내리는 것도 또한 마땅하다 하겠다. 백사건 군이 돌아가려 할 때에 마침내 이를 써서 서로를 권면한다.

무신년(1788, 정조12) 6월 김이도(金履度)[110] 쓰다.

---

110 김이도(金履度) : 1750~1813.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계근(季謹), 호는 송원(松園)이다. 김창집(金昌集)의 증손이다.

만사
輓詞

옥봉[1]선조시 임오년(1582, 선조15)

玉峯先祖時 壬午年

아정한 법도는 병 속 달처럼[2] 맑았고	雅度澄壺月
맑은 시는 고삐와 재갈에서 벗어났다오[3]	淸詩脫轡銜
운명 곤궁해 처음 뜻 저버렸으며	命窮違素志
관직 낮아 푸른 적삼[4]에 괴로워했다네	官薄困靑衫
객관에서 세상 떠나시어 놀랐노니	旅舍驚辭世
가을바람에 돛을 걸지도 못하셨네[5]	秋風未掛帆

---

1 옥봉(玉峯) : 백광훈(白光勳, 1537~1582)으로, 자는 창경(彰卿), 호는 옥봉이다. 박순(朴淳)의 문인이다. 송시(宋詩)의 풍조를 버리고 당시(唐詩)의 풍조를 쓰려고 노력하여 최경창(崔慶昌)·이달(李達)과 함께 삼당파(三唐派) 시인으로 불렸으며 문장에도 능하여 팔문장(八文章)으로 칭송받았다.

2 병 속 달처럼 : '호월(壺月)'은 빙호추월(氷壺秋月)의 준말이다. 얼음으로 된 호로병에 맑은 가을 달이 담긴 것으로, 고결한 인품을 형용한 말이다. 등적(鄧迪)이 주희(朱熹)의 스승 연평(延平) 이통(李侗)의 인품을 말하면서 "마치 빙호추월과 같아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如氷壺秋月, 瑩徹無瑕.〕"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연유한 표현이다. 《주자대전(朱子大全)·제연평이선생문(祭延平李先生文)》

3 고삐와 재갈에서 벗어났다오 : 풍진세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4 푸른 적삼 : '청삼(靑衫)'은 푸른 적삼으로, 품계가 낮은 관원의 복장을 가리킨다. 보통 실의에 빠진 하급 관리의 심정을 비유할 때 많이 쓰는데,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고사에서 연유한 것이다. 백거이가 강주(江州)의 사마(司馬)로 좌천되었을 때 지은 〈비파인(琵琶引)〉에서 "좌석에서 제일 많이 운 사람이 누구인고, 강주 사마 푸른 적삼 눈물 젖어 축축하네.〔座中泣下誰最多, 江州司馬靑衫濕.〕"라고 한 구절이 나온다.

영혼 실은 상여 내일이면 떠나가노니 靈輀明日發
늙은이 남쪽 하늘 보며 눈물 흘리누나 老淚灑天南[6]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이(李珥)[7]

-본래 만사에 쓰인 관작(官爵)을 줄여서 썼다.-

붉은 영지의 얼굴[8] 보지 못했어도 不見紫芝面
먼저 백옥봉은 알았다네[9] 先知白玉峯
서법(書法)은 진나라 법을 따랐었고[10] 筆蹤追晉法
시의 격조는 당나라 기풍을 이었었지[11] 詩律襲唐風
고아하고 깨끗해 본래 세속 떠났었고 雅潔元離俗

---

5 객관에서……못하셨네 :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의미이다.

6 이 작품은 이이(李珥)의 《율곡전서(栗谷全集)》에 〈挽白彰卿光勳〉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7 이이(李珥) : 1536~1584. 자는 숙헌(叔獻), 호는 율곡(栗谷)·석담(石潭)·우재(愚齋),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8 붉은 영지의 얼굴 : 군자의 미목(眉目)이 청수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이다. 당(唐)나라 때의 고사(高士)로서 평소에 명리(名利)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산수(山水)를 사랑하고 거문고나 타며 스스로 즐겼던 원덕수(元德秀)의 아름다운 미목을 두고 사람들이 "저 보랏빛 영지같이 미목을 대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명리에 관한 마음이 싹 가시게 만든다네.〔見紫芝眉宇, 使人名利之心都盡.〕"라고 했던 고사에서 유래했다. 《신당서(新唐書)·원덕수열전(元德秀列傳)》 원덕수의 자가 바로 '자지(紫芝)'이다.

9 붉은……알았다네 : 여기에서는 백옥봉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때에도 이미 그 명성만은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10 서법(書法)은……따랐었고 : '진법(晉法)'은 진(晉)나라의 명필이었던 왕희지(王羲之), 왕헌지(王獻之) 등의 서법을 말한다.

11 시의……이었었지 : '당풍(唐風)'은 송풍(宋風)과 대비되는 말로, 보통 중국 당(唐)나라 때에 유행했던 시풍(詩風)을 말한다.

바보처럼 살며 가난도 꺼리지 않았네　　迂疏不諱窮
누가 천명은 알 수 없다고 했던가　　誰言欠知命
한 번 병에 걸려 갑자기 돌아가셨다네　　一疾遽云終[12]

여성군(礪城君) 송인(宋寅)[13]

세상 속에 아득히 지기 드물었는데　　海內悠悠知己少
오직 그대와 나만이 일찍부터 마음으로 친했네　　惟君與我夙心親
자연 속에서 담장 잇대고 살자던 약속 못 이룬 채　　湖山未遂連墻約
죽고 살아[14] 갑자기 다른 세상 사람 되었네　　幽顯飜成隔路人
한양[15]의 바람 먼지 속에 세찬 노래 불렀고　　紫陌風埃歌激烈
금성[16]의 안개비에 고달파 눈물 흘렸지　　錦城煙雨淚酸辛
남긴 자식[17]을 부탁한 일이 있노니　　遺孤受托非無事[18]
어찌 유가[19] 덕의 새로움에 못 미치랴　　奈乏劉家德義新[20]

---

12 이 작품은 송인(宋寅)의 《이암집(頤庵集)》에 〈白玉峯光勳挽〉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3 송인(宋寅) : 1516~1584.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명중(明仲), 호는 이암(頤庵)이다.

14 죽고 살아 : '유현(幽顯)'은 본래 어두운 저승과 밝은 이승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은 죽었고 정철은 살아 있다는 의미이다.

15 한양 : '자맥(紫陌)'은 화려한 거리라는 말인데, 보통 번화한 도읍의 거리를 말할 때 쓰인다. 여기에서는 한양을 가리킨다.

16 금성(錦城) : 전라남도 나주의 옛 이름이다.

17 남긴 자식 : '유고(遺孤)'는 부모를 잃은 외로운 아이로, 여기에서는 백광훈의 자식들을 가리킨다.

18 事 : 정철(鄭澈)의 《송강집(松江集)》 〈挽玉峯白彰卿〉에는 '意'로 되어 있다.

19 유가(劉家) : 촉한(蜀漢)의 왕인 유비(劉備)의 집안을 말한다. 유비의 아들은 유선(劉禪)인데, 유비가 죽으면서 제갈량(諸葛亮)에게 열과 성을 다해 유선을 보필하고

전라 관찰사(全羅觀察使) 정철(鄭澈)[21]

반평생 긴 꿈에 수운[22]처럼 한가롭다가　　半生長夢水雲閑
귀심은 관(棺)에 들어 옥산[23]에 이르렀네　　櫬却歸心到玉山
맑고 깨끗한 정신은 본래 죽지 않는 법　　灑落精神元不死
시 명성과 필적은 인간 세상에 가득하다오　　詩聲筆跡滿人間

형조 좌랑(刑曹佐郎) 정경달(丁景達)[24]

남긴 글씨 깨진 벼루 외론 관(棺)을 따르고　　殘書破硯隨孤櫬
저 멀리 길손의 영혼이 한강을 건너가누나　　迢遞羈魂渡漢津
예로부터 재주 있으면 운명 박한 경우 많노니　　從古有才多命薄
부질없이 기이한 보석 황폐한 곳에 버려졌구나　　謾教奇寶委荒塵[25]

영의정(領議政) 박순(朴淳)[26]

목숨을 바쳐 촉한(蜀漢)의 부흥을 꾀하라고 한 바 있다. 《삼국지(三國志)·제갈량전(諸葛亮傳)》 여기에서는 정철(鄭澈)이 백광훈의 자식들을 열과 성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20 이 작품은 정철의 《송강집(松江集)》에 〈挽玉峯白彰卿〉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1 정철(鄭澈) : 1536~1593.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이다.

22 수운(水雲) : 행운유수(行雲流水)의 준말로, 정처 없이 사방을 떠돌아다닌다는 의미이다.

23 옥산(玉山)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산을 말한다.

24 정경달(丁景達) : 1542~1602. 자는 이회(而晦), 호는 반곡(盤谷)이다.

25 이 작품은 박순(朴淳)의 《사암집(思菴集)》에 〈挽白玉峯挽〉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6 박순(朴淳) : 1523~1589.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庵)이다.

뛰어난 솜씨와 텅 빈 마음 세상 사람 모두 알았는데　絶藝沖襟世共知
길손으로 떠돌다 늘그막[27]에 미관말직 얻었다네　旅游潦倒一官縻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은 막혀 버린 채　關心阻隔鄕園日
죽어[28] 처량하게 고향집으로 돌아가누나　復魄淒涼邸舍時
남긴 글씨 조용히 마주하니 마치 만난 듯　遺墨靜看疑邂逅
외론 자식[29] 차마 대하니 그 모습 선명하네　孤蘭忍對宛容儀
20년 동안 교유했던 일에 마음만 아프고　偏傷廿載論交地
강남으로 곡하며 보내니 머리털 온통 새는구나　哭送江南白盡髭

돈녕 직장(敦寧直長) 이의건(李義健)[30]

---

27 늘그막 : '요도(潦倒)'는 장맛비에 넘어진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늙었다는 의미이다.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기부서회(夔府書懷)〉에서 "초라하게 늙어 버린 모습으로, 나라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는구나.〔形容眞潦倒, 答效莫支持.〕"라고 했다.

28 죽어 : '복백(復魄)'은 고대의 상례(喪禮)에 사람이 죽었을 때 첫 번째로 행하는 의식으로, 죽은 자의 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북쪽으로 세 번 불러서 혼이 돌아와 소생하기를 바라던 초혼(招魂) 의식이다.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의 '부르는 이 한 사람〔復者一人〕'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注)에서 "부르는 자는 유사로, 혼을 부르고 백을 부르는 사람이다.〔復者有司, 招魂復魄也.〕"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이 죽었다는 의미이다.

29 외론 자식 : '고란(孤蘭)'은 부모를 잃은 외로운 자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통 난초는 남의 훌륭한 자식을 비유할 때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아버지인 백광훈을 잃은 자식이라는 의미이다. 진(晉)나라 사현(謝玄)이 숙부인 사안(謝安)에게 "비유하자면 지란 옥수가 집안 섬돌에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게 하겠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庭階耳.〕"라고 자신의 소망을 밝힌 고사에서 유래했다. 《진서(晉書)·사안열전(謝安列傳)》

30 이의건(李義健) : 1533~1621. 자는 의중(宜中), 호는 동은(峒隱), 세종의 6대손이다.

필법(筆法)은 종왕[31]의 오묘함 얻었고 筆得鍾王妙
시는 위진[32]보다 낮은 것 부끄럽게 여겼지 詩羞魏晉卑
집 가난해 벼슬살이 일삼았지만 家貧事遊宦
몸 늙자 아내 자식 생각이 났다오 身老憶妻兒
타향에서 죽어 남쪽으로 돌아가려고 旅櫬南歸日
상여 깃발은 북쪽에서 떠나간다오 戎旌北去時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이별하게 되니 人間便永訣
저승에서 만나기를 기약할 수밖에 泉下是交期[33]

종성부사(鍾城府使) 최경창(崔慶昌)[34]

요즈음 재주 있는 인물 논할 때면 近代論才子
그대가[35] 홀로 무리 중에 으뜸이었네 徵君獨出羣
그 누가 옛 곡조를 따랐던가 有誰追古調
다시 남긴 글 구할 수가 없다오 無復覓遺文

---

31 종왕(鍾王) : 위(魏)나라 종요(鍾繇)와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모두 명필(名筆)이었다.

32 위진(魏晉) : 위진 시대를 풍미했던 청담(淸談) 일색의 시풍(詩風)을 말한다.

33 이 작품은 최경창(崔慶昌)의 《고죽유고(孤竹遺稿)》에 〈挽玉峯〉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4 최경창(崔慶昌) : 1539~1583.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가운(嘉運), 호는 고죽(孤竹)이다.

35 그대가 : '징군(徵君)'은 학문과 덕행(德行)이 있어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나, 벼슬하지 않은 선비의 존칭이다. 징사(徵士)라고도 한다. 후한(後漢) 말의 황헌(黃憲)은 성품이 고결한 명사였다. 황헌은 집이 가난했으나 본분을 지키고 계속되는 조정의 초빙에 응하지 않아 당시 사람들이 '징군'이라 부르며 존경했었다고 한다. 《후한서(後漢書)·황헌열전(黃憲列傳)》

옥수[36]가 끝내 땅에 묻히니 玉樹終黃土
청산에는 다만 흰 구름 흘러가네[37] 靑山但白雲
그저 맑은 술로 제사 지내면서 惟餘祭淸酒
쓸쓸히 외로운 무덤에 붓노라 寂莫瀉孤墳[38]

해남 현감(海南縣監) 임제(林悌)[39]

그대 열네 살일 때 난 열여섯 살 子年十四我十六
남쪽 바닷가에서 잘 지내자고 맹세했었지 誓言相好南海濱
책 들고 스승 찾아[40] 그대와 함께 하면서 負笈尋師與子同
박산[41]의 안개 달 속에 세 번 봄 보냈네 博山煙月經三春

---

36 옥수(玉樹) : 풍채가 준수한 사람, 옥으로 빚은 듯 준수한 풍모를 형용한 말이다. 두보(杜甫)의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에서 "종지는 씻은 듯 맑은 풍모의 미소년이라, 환하기가 마치 옥으로 된 나무가 바람 앞에 선 듯해라.〔宗之瀟洒美少年, 皎如玉樹臨風前.〕"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을 옥수에 표현하여, 백광훈이 뛰어난 재주를 지녔다고 칭송한 것이다.

37 청산에는……흘러가네 : 여기에서의 청산은 백광훈이 묻힌 곳을 말한다. 백광훈이 묻힌 청산에는 흰 구름만이 한가롭게 흘러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38 이 작품은 임제(林悌)의 《임백호집(林白湖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39 임제(林悌) : 1549~1587. 자는 자순(子順), 호는 백호(白湖)·풍강(楓江)·소치(嘯癡)·벽산(碧山)·겸재(謙齋)이다.

40 책 들고 스승 찾아 : '부급(負笈)'은 책을 짊어진다는 것으로, 외지(外地)에서 유학(游學)하는 것을 말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에 "반고(班固)는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여 일찍이 성명(姓名)을 바꾸고는 채찍을 잡고 나귀를 몰아 책 상자를 지고 스승을 따라서 천 리 길도 멀다고 여기지 않고 서적을 두루 보아 세상의 큰 학자가 되었다.〔少好學, 常改易姓名, 杖策驅驢, 負笈從師, 不遠千里, 究覽墳籍, 爲世大儒.〕"라는 구절이 보인다.

41 박산(博山) :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박산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을 모신 박산서원(博山書院)이 있다. 백광훈이 이후백의 제자이기에 한 말이다.

필법(筆法)[42]은 대단하여 얼음에 서리 비추는 듯　骨法逈然氷照霜
뛰어난 재주 기린(麒麟)[43]을 뛰어넘었다네　逸才超騰猘與獜
필적(筆跡)은 우군[44]에 대적했고 시는 맹교[45]로　筆敵右軍詩孟郊
문단(文壇)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　詞壇高步第一人
부귀를 뜬구름처럼 여기고[46] 마음껏 노닐면서[47]　浮雲富貴樂天放
약초밭에서 한가롭게 정신 수양[48] 달게 여기셨네　藥田閑日甘頤神
호산 풍경의 맑고 깨끗함 독점하시며　湖山風景領瀟灑
숲 아래에서 기뻐하니 희황[49] 때의 백성이었지　怡怡林下羲皇民

---

42 필법(筆法) : '골법(骨法)'은 서화(書畫)의 필력(筆力)과 법칙(法則)을 말한다. 제(齊)나라 사혁(謝赫)이 《고화품록(古畫品錄)》에서 그림과 관련해 여섯 가지 기법을 창안(創案)했는데, 그 두 번째가 '골법용필(骨法用筆)'이다.

43 기린(麒麟) : '기린(猘獜)'은 기린(麒麟)과 같은 말로, 재주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을 뜻한다.

44 우군(右軍) : 진(晉)나라의 명필인 왕희지(王羲之)의 별칭이다. 왕희지가 우군 장군(右軍將軍)을 지냈기에 '왕우군(王右軍)'이라고 불린 것이다.

45 맹교(孟郊) : 당(唐)나라 시인으로, 자는 동야(東野)이다. 일찍이 숭산(崇山)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나이 50에 진사(進士)에 등제(登第)했는데, 한유(韓愈)와 망년(忘年)의 교우관계를 맺었다.

46 부귀를 뜬구름처럼 여기고 :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생활을 말한다. 《논어·술이(述而)》의 "나물밥에 물을 마시고 팔 베고 눕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속에 있나니, 떳떳하지 못한 부귀는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라는 공자(孔子)의 말에서 연유했다.

47 마음껏 노닐면서 : '천방(天放)'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유자재로 즐겁게 노니는 자유방임(自由放任)을 말한다. 《장자(莊子)·마제(馬蹄)》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을 천방이라고 한다.〔一而不黨, 命曰天放.〕"라고 했다.

48 정신 수양 : '이신(頤神)'은 이신양성(頤神養性)의 준말로,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을 수양함이다.

49 희황(羲皇) : 복희씨(伏羲氏)의 존칭인데, 풍속이 순박하고 안온했던 태고(太古)의 태평시절을 의미한다. 진(晉)나라 도잠(陶潛)의 〈여자엄등소(與子儼等疏)〉에

옥과 구슬을 숨기듯[50] 스스로 감추기 어렵고　玉韞珠藏自難掩
관직 생활은 명성과 이로움 때문은 아니었네　一官非是名利身
높은 벼슬아치 집[51]을 팔 흔들며 지나갔고[52]　朱門高戶掉臂過
야성[53]과 맞지 않아 풍진 세상 초월했네　野性不合超風塵
빼어나고 기이한 정회를 긴 읊조림에 부치면서　落落奇懷付長嘯
낮은 벼슬 10년에 부질없이 고달파 했네[54]　靑衫十載空輪囷
한창려처럼 대황을 빌려 머물렀으니[55]　大荒借留韓昌黎

"오뉴월 중에 북창 아래에 누워 있으면 서늘한 바람이 이따금씩 스쳐 지나가곤 하는데, 그럴 때면 내가 태곳적 희황(羲皇) 시대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五六月中, 北窓下臥, 遇凉風暫至, 自謂是羲皇上人.〕"라는 말이 나온다.

50 옥과 구슬을 숨기듯 : '옥온주장(玉韞珠藏)'은 옥을 감추고 구슬을 품는다는 말로, 훌륭한 재덕(才德)을 품고 있음을 비유한다. 육기(陸機)의 〈문부(文賦)〉에서 "돌이 옥을 싸고 있으매 산은 빛나고, 물이 구슬을 품고 있으매 냇물은 아름답도다.〔石韞玉而山輝, 水懷珠而川媚.〕"라고 한 데서 연유했다.

51 높은 벼슬아치 집 : '주문(朱門)'은 붉은색으로 치장한 대문으로, 귀족이 사는 고대광실(高臺廣室)을 말한다.

52 팔 흔들며 지나갔고 : '도비과(掉臂過)'는 팔을 마음대로 흔들면서 지나간다는 것으로,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을 말한다. 《사기(史記)·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에 "그대는 홀로 아침에 시장에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가. 아침에는 어깨를 옆으로 하고 다투어 들어가고, 해가 진 이후에는 시장을 지나가는 사람이 팔을 흔들며 돌아보지도 않는 것을.〔君獨不見, 夫朝趣市者乎. 明旦, 側肩爭門而入, 日暮之後, 過市朝者, 掉臂而不顧.〕"이라고 했다.

53 야성(野性) : 길들여지지 않은 타고난 본성으로, 보통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전원에서 한적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당(唐)나라 도광(韜光)의 〈사백락천초(謝白樂天招)〉에서 "산승의 타고난 본성은 자연을 좋아하여, 늘 산비탈에서 바위에 기대 자네.〔山僧野性好林泉, 每向巖阿倚石眠.〕"라고 한 바 있다.

54 고달파 했네 : '윤균(輪囷)'은 굽어 있는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선(文選)》에 실린 추양(鄒陽)의 〈옥중상서자명(獄中上書自明)〉에서 "얽히고 설킨 나무뿌리가 꼬불꼬불 얽혔는데도 만승 천자의 기물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蟠木根柢, 輪囷離奇, 而爲萬乘器者, 何則.〕"라고 했다.

천상에서도 응당 왕자진[56] 생각하리라　　上界應思王子晉[57]
외론 혼령 하룻밤에 바람 타고 올라가시니　　孤魂一夕駕風昇
붙잡고 싶지만 그리할 수 없어 탄식하네　　爲欲挽之嗟無因
다만 벗이기에 사사롭게 아파함 아니니　　不但朋儕慟私情
조정에는 이젠 어진 신하가 없을 것이네　　朝端從此無良臣
천 리 고향 길은 아득히 어디쯤인가　　鄕關千里杳何許
쓸쓸한 초가집에 삼경[58]도 옛 자취 되었네　　寂莫草廬三逕陳
슬픈 만사 지어 그대 관(棺)을 보내면서　　爲作悲歌送子柩
하늘 끝에 홀로 서니 아픔만 더하누나　　獨立天末增酸辛

철원 현감(鐵原縣監) 윤기(尹箕)[59]

---

55 한창려(韓昌黎)처럼……머물렀으니 : '대황(大荒)'은 큰 벌판을 말한다. '한창려'는 한유(韓愈)로 그가 창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구절은 한유의 〈잡시(雜詩)〉에 "너울너울 큰 벌판으로 내려와서, 머리를 풀고 기린을 타리라.〔翩然下大荒, 被髮騎麒麟.〕"라고 한 것을 의식한 상태에서의 언급이다. 세상을 떠난 영혼의 자유로움을 표현한 말이다.

56 왕자진(王子晉) : 왕자교(王子喬)로 더 많이 알려진 주 영왕(周靈王)의 태자 진(晉)이 피리 불기를 좋아하여 곧잘 봉황의 울음소리를 내곤 했는데, 선인(仙人) 부구공(浮丘公)을 따라 숭산(嵩山)에 올라가서 선도(仙道)를 닦은 뒤, 30년이 지난 칠월 칠석에 구지산(緱氏山) 정상에 백학(白鶴)을 타고 내려와서 산 아래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는 며칠 뒤에 떠나갔다는 전설이 있다. 《열선전(神仙傳)》

57 晉 : 《옥봉별집(玉峯別集)》의 부록(附錄)에도 이 작품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는 '眞'이라 되어 있다. '眞'은 '晉'의 오자이다.

58 삼경(三逕) : 은사(隱士)의 뜨락을 가리킨다. 서한(西漢) 말에 장후(蔣詡)가 은거한 뒤 집 안 뜨락에 '오솔길 세 개〔三逕〕'를 만들어 놓고는 오직 양중(羊仲)과 구중(求仲) 두 사람과 교유하며 두문불출(杜門不出)했던 고사가 있다. 《삼보결록(三輔決錄)·도명(逃名)》

59 윤기(尹箕) : 1535~1607.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백열(伯說), 호는 간보(艮輔)이다. 초명은 윤기(尹箕)로 이후 윤기(尹祈)로 고쳤다.

늘 자여(子輿)와 자상(子桑)[60]의 사귐에 견주면서 每擬輿桑契
서로 몇 편의 시를 주고받았었나 相傳幾首詩
가난 때문에 비록 벼슬길에 나갔지만 爲貧雖或仕
천명 알아 시속 따르지 않았다오 知命不隨時
통곡한들 끝내 어찌 미치리오 慟哭終何及
아픈 마음 자못 기댈 곳이 없구나 傷心殊未持
부질없이 남은 옥봉 위로 뜬 달 空餘玉峯月
오히려 옛 소나무 가지 비추누나 猶照舊松枝

양산형(梁山逈)[61]

부침 속에 말속을 상심하며 浮沈傷末俗
그대 홀로 맑고 순수함 가졌었지 君獨任淸眞
말 엮어 시 지으면 세상이 놀랐었고 屬語詩驚世
붓 휘두르면 오묘함 신의 경지 들었지 揮毫妙入神
임금 명으로 난계의 글[62] 새겼는데 命刊蘭稧事

---

60 자여(子輿)와 자상(子桑) : 지음(知音)을 말한다. 《장자(莊子) · 대종사(大宗師)》에 "자여가 자상과 벗으로 사귀었는데, 장맛비가 열흘 동안 내리자, 자여가 '자상이 아마도 배가 고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터이니 밥을 싸 가지고 가서 먹여 주어야겠다.'라고 하고는 자상의 집 문 앞에 이르렀는데, 집 안에서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 곡하는 듯 거문고를 타고 있었다.〔子輿與子桑友, 而霖雨十日, 子輿曰, 子桑, 殆病矣, 裹飯而往食之. 至子桑之門, 則若歌若哭. 鼓琴.〕"라고 한 바 있다.

61 양산형(梁山逈) : ?~?. 호는 천유(天維)이다. 양팽손(梁彭孫)의 손자인데, 중조조의 기묘사화로 양팽손이 능주(綾州)로 내려왔을 때, 해남(海南)의 옥천으로 이거(移居)한 바 있다.

62 난계(蘭稧)의 글 : 왕희지(王羲之)의 〈난정기(蘭亭記)〉를 가리킨다. 진 목제(晉穆帝) 영화(永和) 9년 늦은 봄에, 회계(會稽) 산음(山陰)의 난정에서 왕희지, 사안(謝安) 등 42인의 명사들이 모여 계사(禊事)를 행하고 이어 곡수(曲水)에 술잔을

하늘이 새로운 옥루로 재촉했구려[63] 天促玉樓新
서글프다 날 알아줄 이[64] 드물게 되었으니 惆悵知音少
글 논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는가 論文有幾人

연서 찰방(延曙察訪) 이충원(李忠元)[65]

옥봉의 품격은 어찌나 맑고 깨끗하던지 玉峯標格何瀟灑
비각에서 글 논하며 내 흉금 씻어 주었지 祕閣論文滌我襟
무슨 일로 훌쩍 세상 근심 버리셨나 底事飄然遺世慮
가장 슬픈 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마음 最憐湖外未歸心

홍문관 저작(弘文館著作) 이일원(李一元)

띄우고 시를 지으며 성대한 풍류놀이를 한 바 있다. 이를 왕희지가 〈난정기〉라는 기록으로 남긴 바 있는데, 이 글씨는 서법(書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63 하늘이……재촉했구려 : 당(唐)나라 이상은(李商隱)의 〈이장길소전(李長吉小傳)〉에서 "이하(李賀)가 대낮에 붉은 용을 타고 내려온 붉은 옷 입은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상제의 백옥루(白玉樓)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대를 불러 기문(記文)을 짓게 하려 한다.'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이하가 바로 죽었다."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을 이하에 견주어, 뛰어난 인물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다.

64 날 알아줄 이 : '지음(知音)'은 음악 속에 담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벗을 의미한다. 춘추시대 백아(伯牙)와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백아가 거문고를 잘 탔는데 종자기는 이것을 잘 알아들었다. 그리하여 백아가 마음속에 '높은 산〔高山〕'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이를 알아듣고 "아, 훌륭하다. 험준하기가 태산과 같다.〔善哉, 峨峨兮若泰山.〕"라고 했으며, 백아가 마음속에 '흐르는 물〔流水〕'을 두고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이를 알아듣고 "아, 훌륭하다. 광대히 흐름이 강하와 같다.〔善哉, 洋洋兮若江河.〕"라고 했다. 《열자(列子)·탕문(湯問)》

65 이충원(李忠元) : 1537~1605.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원포(元浦), 호는 송암(松菴),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제문 祭文

호남의 바닷가에서 서로 만났는데	湖海相聞
하늘의 달은 휘영청 가득 찼었네	天月盈盈
세상 속에 살다 서로 만나니	塵中邂逅
채란[66]의 향기 있었다오	茝蘭之馨
연옹[67]의 문하에서	蓮翁門下
한 해 저물도록 마음 나누었지	歲暮交情
낮은 벼슬에 힘들어 했노니	薄宦消沈
꽃다운 명성 가련했었지	可憐芳名
신선 되어 어찌 갑자기 떠나셨나	仙遊何遽
천 리 먼 길 외로운 만장(輓章) 깃발	千里孤旌
시 고심하느라 몸은 야위었고	形緣詩瘦
운명은 재주의 미워함 입었다네	命被才憎
맹교(孟郊) 파리했지만 벼슬 못 했고	郊寒未尉
가도(賈島) 궁핍했지만 스님 되지 않았지[68]	島窮非僧

---

66 채란(茝蘭) : 향기로운 난초를 말한다. 초(楚)의 굴원(屈原)이 상강(湘江)에 빠져 죽었는데, 그의 의상(衣裳)이 채란처럼 향기롭다는 말로, 굴원의 충절과 고고(高孤)한 의취를 찬미하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을 굴원에 견준 것이다.

67 연옹(蓮翁) : 이후백(李後白, 1520~1578)을 가리킨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계진(季眞), 호는 청련(靑蓮)이다.

68 맹교(孟郊)……않았지 : 맹교는 당(唐)나라 때의 시인으로, 그의 시어(詩語)가 청산한수(淸峭寒瘦)하기에 이렇게 부른다. 가도(賈島)는 당(唐)나라 때의 시승(詩僧)으로 뒤에 환속(還俗)했으나 평생 그지없이 곤궁했고 또는 곤궁한 사상의 시를 짓기로도 유명했다. 소식(蘇軾)이 당나라 시인을 평하면서 〈제유자옥문(祭柳子玉文)〉에서 "원진(元稹)은 가볍고 백거이(白居易)는 속되며, 맹교의 시는 한산(寒酸)하고

진나라와 초나라[69] 사이를 방황하며 彷徨秦楚
황벽(黃蘗) 차가운 샘물[70] 넘쳐났다오 蘗泉漫漫
냉이[71]만 먹느라 육신은 고달파 食薺腸苦
힘써 노래하나 기쁨도 없었다오 强歌無懽
창망히 한 번 애도를 하니 一哀蒼茫
강수와 한수 어찌 다 마르리오 江漢何極
와서 초려[72]를 진설하며 來陳蕉荔
정성스런 마음 흠향하길 바라네 庶歆衷曲
오호라 슬프구나 嗚呼哀哉[73]

연안(延安) 이호민(李好閔)[74]

가도(賈島)는 앙상하다.〔元輕白俗, 郊寒島瘦.〕"라고 한 바 있다.

69 진나라와 초나라 : '진초(秦楚)'는 중국의 진나라와 초나라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진'은 한양을 말하고 '초'는 남쪽 지방으로 고향을 말한다.

70 황벽(黃蘗) 차가운 샘물 : '벽천(蘗泉)'은 황벽나무와 샘물이라는 의미로,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굳게 절조를 지키며 청백하게 사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백거이(白居易)의 〈삼년위자사(三年爲刺史)〉에서 "삼 년 세월 자사로 있으면서, 맑은 얼음물을 마시고 쓰디쓴 소태를 씹었노라.〔三年爲刺史, 飮氷復食蘗.〕"라고 한 바 있다.

71 냉이 : '제(薺)'는 냉이를 말한다. 《시경(詩經)·곡풍(谷風)》에 "씀바귀가 쓰다는 사람이 누구요, 냉이처럼 달기만 한데.〔誰謂荼苦, 其甘如薺.〕"라고 했다.

72 초려(蕉荔) : 본래 초려는 바나나와 여지(荔枝)의 합칭이다. 한유(韓愈)의 〈유주나지묘비(柳州羅池廟碑)〉에서 "여지는 빨갛고 바나나는 노란데, 고기와 채소 곁들여 자사의 사당에 올리네.〔荔子丹兮蕉黃, 雜肴蔬兮進侯堂.〕"라고 한 데서 연유하여, 흔히 제수(祭需)의 뜻으로 쓰인다.

73 이 작품은 이호민(李好閔)의 《오봉집(五峯集)》에 〈祭玉峯白光勳文〉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74 이호민(李好閔) : 1553~1634.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효언(孝彦), 호는 오봉(五峯)·남곽(南郭)·수와(睡窩)이다.

영령(英靈)이여 惟靈
연하를 좋아하는 성품이요[75] 煙霞性癖
호해를 읊조리는 시정 湖海詩情
가을 물[76]과 같은 정신에 秋水精神
들판 학[77]과 같은 여윈 모습 野鶴癯形
겉으론 수려하고 맑고 온화하며 外秀淸溫
안으론 정직하고 충성스러우며 곧았네 內植忠貞
말 토해 내면 난초처럼 향기롭고 吐詞蘭芬
옥을 흔들고 쇠가 소리를 내는 듯[78] 玉振金聲
남쪽 지방으로 방문했을 때 聘于南服

---

75 연하(煙霞)를 좋아하는 성품이요 : '연하'는 이내와 노을인데, 자연을 뜻한다. 연하고질(煙霞痼疾)이란 표현이 있는데, 마치 고질병 환자처럼 산수(山水)에 중독되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자연의 승경(勝景)에 대한 혹독한 애착심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전유암(田游巖)이 당 고종(唐高宗)에게 "신은 물과 바위에 대한 병이 이미 고황에 들고 연무(煙霧)와 노을에 고질병이 들었는데, 성상의 시대를 만나 다행히 소요하고 있습니다.〔臣泉石膏肓煙霞痼疾, 旣逢聖代, 幸得逍遙.〕"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다. 《구당서(舊唐書)·전유암열전(田游巖列傳)》

76 가을 물 : '추수(秋水)'는 맑은 가을 물로, 맑고 깨끗한 기질을 의미한다.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서경이자가(徐卿二子歌)〉에서 "큰아들은 아홉 살로 얼굴빛이 맑고도 깨끗하며, 가을 물은 정신이 되고 옥은 뼈가 되었네.〔大兒九齡色淸徹, 秋水爲神玉爲骨.〕"라고 한 바 있다.

77 들판 학 : '야학(野鶴)'은 들판에 사는 학으로, 성품이 고고(孤高)하기에 항상 은사(隱士)에 비견된다.

78 옥을……듯 : 맹자(孟子)가 공자를 두고 집대성했다고 말하면서 "집대성이란 것은 금성(金聲)으로 시작하여 옥성(玉聲)으로 마치는 것이니, 금성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시작의 조리이고 옥성으로 마친다는 것은 마침의 조리이다. 시작의 조리는 지혜의 일이고, 마침의 조리는 성인의 일이다.〔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 金聲也者, 始條理也. 玉振之也者, 終條理也. 始條理者, 智之事也. 終條理者, 聖之事也.〕"라고 한 바 있다. 《맹자·만장 하(萬章下)》

그 명성 대단히 뛰어났다오 卓爾其名
크게 세상에 이름나고 庶幾大鳴
구름길 맘껏 활보하길 바랐었지 闊步雲程
시가 궁핍함의 빌미가 되었지만 詩窮爲祟
흰머리 되도록 서로 따랐었지 白首相隨
풍진세상 속에서 늙어 가면서 末路風埃
평소 마음 어긴 것도 많았다네 素心多違
그 어려움을 어찌 다 말하랴 酸寒何說
한 말의 녹봉에 속임을 당했네 斗祿爲欺
십 년 동안 벼슬길에 있으면서 十年爲郎
양 갈래 머리 실처럼 새었다네 兩鬢如絲
세든 집에서 추위에 누워 凍臥賃屋
밤을 읊조렸으니 어떠했겠는가 詠夜何其
어찌 그대 평소의 뜻을 豈子素志
가난이 진실로 이렇게 만들었나 貧實爲之
반평생 서로 알고 지내면서 半世相知
그 마음을 훤히 알고 있었지 肝膽炯炯
함께 티끌세상[79] 속에 빠져 있어 共沒塵臼
돌아갈 마음은 구름 밖으로 아득했지 歸思雲迥
서로 본 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相見無幾
한양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네 城市多營
열흘 동안 보지를 못했는데 一旬不見

79 티끌세상 : '진구(塵臼)'는 먼지 구덩이라는 뜻으로, 속세를 말한다.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네 遽隔幽明
병으로 누운 지 열흘이 지나 臥病經旬
늦게서야 달려가 곡을 한다오 久稽奔哭
황오[80] 한 잔을 바치지만 黃汚一勺
어찌 내 간곡한 마음을 다하랴 詎盡心曲
오호라 슬프구나 嗚呼哀哉[81]

감찰(監察) 안민학(安敏學)[82]

기산[83]은 빼어나고 예수[84] 맑으니 岐山秀汭水明
이것이 그대의 기상이요 惟子之氣
시가는 청아했고 필법은 오묘했으니 詩歌淸筆法妙
이것이 그대의 재주였네 惟子之才
술잔 들고 글을 논하니 樽酒論文
그 마음은 옛 검이었다네[85] 肝膽古劍
이십 년 동안 흉금을 함께하면서 廿載同襟
남쪽으로 금성[86]에 이르렀네 南到錦城

---

80 황오(黃汚) : 누렇고 탁한 술을 말한다. 보통 제물(祭物)로 바치는 술에 대한 겸칭(謙稱)으로 쓰인다.

81 이 작품은 안민학(安敏學)의 《풍애집(楓崖集)》에 〈祭白玉峯文〉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82 안민학(安敏學) : 1542~1601.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습지(習之)·이습(而習), 호는 풍애(楓崖)이다.

83 기산(岐山) : 백광훈의 고향인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산 이름이다.

84 예수(汭水) : 백광훈의 고향인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예양(汭陽)으로 물 이름이다.

85 그 마음은 옛 검이었다네 : '고검(古劍)'은 옛날의 보검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이 옛 법도와 문물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쓰였다.

혼령 실은 상여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 靈輔不發
거경[87]이 늦게 왔기 때문인가 神遲巨卿耶否
오호라 슬프구나 嗚呼哀哉[88]

전라 관찰사(全羅觀察使) 정철(鄭澈)

맑고 깨끗한 기상과 淸淑之氣
영롱하고 맑은 재주로 英澈之材
뭇 닭 속의 한 마리 학이요 羣鷄一鶴
풍진세상에서 멀리 벗어났다오 逈出塵埃
글씨는 종왕을 본받았고 書法鍾王
시는 두백[89]을 따랐었지 詩追甫白

---

86 금성(錦城) : 전라남도 나주의 옛 이름이다. 정철이 이때 전라 관찰사로 있었기에 한 말이다.

87 거경(巨卿) : 후한(後漢) 때의 사람 범식(范式)의 자이다. 범식은 장소(張劭)와 절친한 사이였고 서로 신의가 돈독하였다. 장소가 병이 들었을 때에 친한 친구 두 사람이 밤낮으로 곁에서 간호하였는데, 장소가 죽을 때에 탄식하기를, "내가 나의 사우(死友)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게 한스럽다."라고 했다.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대 곁에 있는데 우리가 사우가 아니겠는가. 다시 누구를 찾는가."라고 하니, 장소가 답하기를, "그대들은 나의 생우(生友)일 뿐이다. 범거경(范巨卿)이 나의 사우이다."라고 했다. 장소가 죽은 뒤 범식의 꿈에 장소가 나타나서, 아무 날에 죽어서 아무 날에 저승으로 간다고 일러 주었다. 범식은 상복을 입고 장례 날짜에 늦지 않으려고 경황없이 달려갔다. 그 즈음에 장소의 상여가 묘소에 이르렀는데 하관(下棺)을 하려 하자 상여가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 뒤 범식이 흰 수레에 흰 말을 몰고 달려와서 장소의 영구 앞에서 조문하기를, "장소여, 이제 떠나시게나. 죽음과 삶의 길은 다르니, 이것으로 영영 이별이구나."라고 하면서 상여 끈을 잡고 이끄니 그제서야 비로소 상여가 움직였다. 《후한서(後漢書)·독행열전(獨行列傳)》 여기에서는 정철을 범식에, 백광훈을 장소에 비견한 것이다.

88 이 작품은 정철(鄭澈)의 《송강집(松江集)》에 〈祭玉峯白彰卿文〉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한마디 말과 한 글자도 片言隻字
금이요 옥이었지 惟金惟玉
태평시절 뛰어나 挺出淸時
명성이 일찍부터 드러났다네 聲譽夙彰
관직 제수받아 조정에서 命官登朝
은총의 영광 하사받았네 錫以寵光
한양에서 노닐면서 婆娑都下
길손 잠자리 처량했다오 客枕凄涼
품은 생각과 뜻 노래로 읊조리며 嘯懷歌志
고향 꿈에 자주 꿈에서 깨었지 鄕夢屢驚
새장 속에 비록 갇혀 있었지만 樊籠雖縶
산과 들판에 그 마음 있었다네 山野其情
마음을 스스로 너무도 태워[90] 膏火自煎
이 때문에 질병에 걸리었다네 疾病是嬰
어찌하여 하룻밤 사이에 如何一夕
난초 꺾이고 옥 깨졌는가[91] 蘭摧玉折

---

89 두백(甫白) : 당(唐)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인 두보(杜甫)와 이백(李白)을 말한다.

90 마음을……태워 : '고화자전(膏火自煎)'은 재주 때문에 화(禍)를 자초한다는 의미이다. 《장자(莊子)·인간세(人間世)》에 "산의 나무는 유용하기 때문에 벌목을 자초하고, 유지(油脂)는 불을 밝힐 수 있어서 자기 몸을 태우게 만든다.〔山木自寇也, 膏火自煎也.〕"라고 했다.

91 난초……깨졌는가 : '난최옥절(蘭摧玉折)'은 현재(賢才)가 요절(夭折)한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언어(言語)》에 "모백성(毛伯成)이 자신의 재기(才氣)를 자부하면서 항상 '차라리 난초로 꺾이고 옥으로 부서질지언정, 쑥부쟁이처럼 더부룩하게 우거지지는 않겠다.〔寧爲蘭摧玉折, 不作蕭敷艾榮.〕' 했다."라는 말이 보인다.

가파른 길을 가는 관(棺)은 崎嶇旅櫬
천 리 먼 남쪽으로 가는구나 千里南國
생각건대 나는 보잘것없는데 顧余菲質
일찍부터 따라서 노닐었네 早自從遊
금수의 맑은 가을날에 錦水秋淸
그대와 함께 노닐었지 與共逍遙
이전에 헤어지던 일 생각하니 追惟舊別
완연히 봄꿈만 같다오 宛然春夢
혼령 실은 수레가 오늘 지나가니 車過此日
나를 서글픔에 몸부림치게 하네 激我傷慟
영전에 임해 남은 자식 어루는데 臨奠撫孤
비통하게 울부짖으니 속이 타누나 悲號熱中
그대와는 비록 떨어졌지만 儀形雖隔
정신과 기운은 통하리로다 神氣則通
영령이 사라지지 않고 계신다면 不亡者存
이 미천한 정성 흠향하옵소서 歆此微衷[92]

순창 군수(淳昌郡守) 김천일(金千鎰)[93]

---

92 이 작품은 김천일(金千鎰)의 《건재집(健齋集)》에 〈祭白玉峯文〉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93 김천일(金千鎰) : 1537~1593. 본관은 언양(彦陽), 자는 사중(士重), 호는 건재(健齋)이다. 전라남도 나주 출신이다.

송호[1]선조시 기미년(1619, 광해군11)

松湖先祖時 己未年

강해에서 살았던 40여 년	江海棲遲四十秋
외론 구름 학과 함께 여유로웠지	孤雲獨鶴共悠悠
집안 학문 이어받아 시문에 공교로워	源流家學工詞翰
중국 사신 맞이하여 역참에서 수고했지[2]	迎送皇華困置郵
들어 효하고 나가 공경하니[3] 모두 칭송했고[4]	入孝出恭人不間
재주 있지만 목숨 짧은 것 이치 구하기 어렵네	有才無命理難求

---

1 송호(松湖) : 백진남(白振南, 1564~1618)으로, 본관은 해미(海美), 자는 선명(善鳴), 호는 송호이다. 백광훈의 아들이다. 문장과 필체가 매우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씨와 시를 사서 모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2 중국……수고했지 : 백진남은 1606년(선조39) 명(明)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왔을 때, 유근(柳根, 1549~1627)의 천거로 제술관(製述官)이 되어 활동했는데, 주지번은 백진남의 글씨를 보고 절세의 기보(奇寶)라고 절찬(絶讚)했다.

3 들어……공경하니 : '입효출공(入孝出恭)'은 《논어 · 학이(學而)》의 "공자가 '자제들은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행동은 신중하게 하고 말은 믿음직스럽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한 사람과 친해야 한다.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거든 글을 배운다.'라고 했다.〔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라는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4 모두 칭송했고 : '인불간(人不間)'은 사람들이 이간질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논어 · 선진(先進)》에서 공자가 자제인 민자건(閔子騫)을 평가하면서 "효성스럽구나, 민자건이여. 사람들이 그의 부모와 형제들의 말에 대해 달리 말하지 못하는구나.〔孝哉, 閔子騫. 人不間於其父母昆弟之言.〕"라고 했다. 여기서는 백진남에 대해 부모 형제가 칭찬하는 것을 민자건처럼 남들이 그대로 믿었다는 의미이다.

늙은 부모 봉양했고 자손들에게 자애로웠으니　耋親將養慈孫代
저승에서도 한 서려 통곡 그치지 않으리라　冤結重泉慟未休[5]

낙천이 죽은 후 어진 인재 있어[6]　樂天亡後有賢才
두 세대 교유한 마음 노래에 기대었네[7]　兩世交情倚老萊
위수의 강 구름[8]을 늘 멀리서 바라보면서　渭水江雲常望遠
봄 얼음[9] 겨울 눈[10]처럼 오랫동안 애통함 품었지　春氷臘雪永含哀
삼 년 동안의 묵은 자취는 맑은 시에 남아 있고　三年陳跡淸詩在

---

5 이 작품은 심희수(沈喜壽)의 《일송집(一松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6 낙천(樂天)이……있어 : '낙천'은 당(唐)나라 시인이었던 백거이(白居易)의 자이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을 백거이에 비견했는데, 성씨가 '백(白)'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한 '현재(賢才)'는 백광훈의 아들인 백진남을 가리킨다.

7 노래(老萊)에 기대었네 : '노래'는 춘추(春秋) 시대 초(楚)나라의 은사(隱士)인 노래자(老萊子)를 말한다.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70세가 된 노래자가 일부러 색동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떨었다는 고사가 있다. 《초학기(初學記)·효자전(孝子傳)》 여기에서는 두 집안이 서로 교유했던 것이 모두 자신들의 부모님 뜻을 받든 것이라는 의미이다.

8 위수(渭水)의 강 구름 : '위수강운(渭樹江雲)'은 위수(渭水)에 있는 나무와 위수를 지나와 강수(江水) 위에 떠 있는 구름이다. 떨어져 있는 두 곳의 거리가 먼 것을 이르는 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벗이 서로 그리워하는 말로 쓰인다.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에 "봄날 위수 북쪽 나무 아래 나, 강동 해 저무는 구름 속의 그대.〔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라고 한 구절에서 연유했다.

9 봄 얼음 : '춘빙(春氷)'은 봄날의 얼음으로, 얇아 쉽게 깨지기에 걱정하는 마음을 비유하기도 한다. 《서경(書經)·군아(君牙)》의 "내 마음의 근심되고 위태로운 것이 마치 범의 꼬리를 밟은 듯, 봄날의 얼음 위를 걷는 듯하다.〔心之憂危, 若蹈虎尾, 涉于春氷.〕"라고 한 구절에서 연유했다. 여기에서는 상대방을 걱정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10 겨울 눈 : '납설(臘雪)'은 겨울에 내리는 눈으로, 동지(冬至)가 지난 뒤 세 번째 술일(戌日)을 납일(臘日)이라고 하는데, 동지에서 입춘(立春) 사이에 내리는 눈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이 겨울눈처럼 쌓였다는 의미이다.

열 폭의 새로운 종이에 멋진 글씨 담겨 있네　十幅新牋絶筆來
쇠처럼 정미하고 굳건했는데 어찌 갑자기 가시었나　金鐵精剛何遽損
응당 알리라 월녀(越女)[11]가 재앙 만든 것을　應知越女禍成胎[12]

7구의 '금철정강하거손(金鐵精剛何遽損)'이 다른 판본에는 '개제평생신소노(豈弟平生神所勞)'로 되어 있다. 8구의 '응(應)'이 다른 판본에는 '수(誰)'로 되어 있다.

대대로 교유했던 청송(靑松) 늙은이-심희수(沈喜壽)[13]-
통곡하다.-멀리서 애도한다.-

연옹[14]의 문하에서 최백[15]과 어울렸는데　蓮翁門下聯崔白
최백이 연이어 죽어 옛 뜻도 황량해졌지　崔白連亡古意荒
오늘 하늘 끝에서 그대 또 떠나가노니　今日天涯君又去
새봄의 교외에서 나는 온통 슬프기만 하네　新春郊外我偏傷
종왕[16]의 필법 가장 잘 이어받았으며　典刑最想鍾王法

---

11 월녀(越女) : 춘추 시대 월(越)나라에는 특히 미인이 많았기 때문에 월녀는 곧 서시(西施)를 비롯한 모든 월나라의 미인을 범칭한 말로, 한유(韓愈)의 〈유생시(劉生詩)〉에서 "월녀의 웃음 한 번 보려고 삼 년을 머물렀고, 남으로 횡령을 넘어 염주에도 들어갔었네.〔越女一笑三年留, 南逾橫嶺入炎州.〕"라고 한 데서 연유했다.

12 이 작품은 심희수(沈喜壽)의 《일송집(一松集)》에 〈挽白進士【振南】〉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3 심희수(沈喜壽) : 1548~1622. 본관은 청송(請誦), 자는 백구(伯懼), 호는 일송(一松)이다.

14 연옹(蓮翁) : 이후백(李後白, 1520~1578)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계진(季眞), 호는 청련(靑蓮)이다.

15 최백(崔白) : 최경창(崔慶昌)과 백광훈(白光勳)을 말한다. 이후백의 문인이다.

16 종왕(鍾王) : 위(魏)나라 종요(鍾繇)와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모두 명필(名筆)이었다.

기업을 귤 유자의 고향[17]에서 보존했었지　　基業能存橘柚鄕
남겨 둔 글 얻으니 기쁘기도 두렵기도 하노니　　向得留書多喜懼
이 마음 어찌 차마 훤당[18]을 등지랴　　此心何忍背萱堂[19]

남곽노인(南郭老人)[20]–이호민(李好閔)– **곡하다.**

옥봉이 아들에게 기업[21]을 전하여　　玉峯之子傳箕業
이절[22]이 모두 해동에서 으뜸이었네　　二絶皆言冠海東
지금 세상에 필법 요체 아는 이가 드물고　　今世鮮能知筆訣
옛날 사람도 때에 얽매여 곤궁해짐 많았다오　　昔人多是坐時窮
안개 꽃 속에서 옷깃 나란히 서쪽 다녔었고　　西行袂接煙花裏
남쪽에서 기개 속에 편지를 보내왔었지　　南極書來氣槩中
흰머리 어머니 계신데 난초 문득 꺾였으니[23]　　鶴髮在堂蘭奄折

---

17 귤 유자의 고향 : 남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향인 전라남도 장흥을 말한다.

18 훤당(萱堂) : 남의 어머니를 부르는 존칭이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어머니를 의미한다.

19 이 작품은 이호민(李好閔)의 《오봉집(五峯集)》에 〈白進士振南挽〉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0 남곽노인(南郭老人) : 이호민(李好閔, 1553~1634)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효언(孝彦), 호는 오봉(五峯)이다.

21 기업(箕業) : 가업을 계승한다는 말이다. 《예기(禮記)·학기(學記)》의 "풀무를 잘하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갖옷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되고, 활을 잘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키를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된다.〔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箕.〕"라고 한 데서 연유했다. 그 주(注)에서는 "풀무를 잘하는 집에서는 그 아들들이 항상 그 아비가 쇠붙이를 주워 모아 부어서 완전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물을 주워 모아 완전한 갖옷을 만들게 되고, 활을 잘 만드는 집안에서는 그 아들들이 항상 그 아버지가 근각(筋角)을 조화하여 휘어서 활을 만들었기 때문에 버드나무를 휘어서 키를 만들게 된다."라고 했다.

22 이절(二絶) : 시(詩)와 글씨〔書〕로, 백진남의 시와 글씨를 말한다.

홀로 노쇠한 눈물 봄바람에 뿌리노라　　獨將衰淚洒春風[24]

6구의 '기개(氣槩)'는 마땅히 '장우(瘴雨)'가 되어야 한다. 7구의 '학발재당란엄절(鶴髮在堂蘭奄折)'은 마땅히 '학발당전수희채(鶴髮堂前誰戱綵)'가 되어야 하고, 8구의 '독장쇠루쇄춘풍(獨將衰淚洒春風)'은 마땅히 '천변노루쇄춘풍(天邊老淚洒春風)'이 되어야 한다.

진원(晉原) 유근(柳根)[25]-절하며 애도하다.-

진필[26]과 당시를 부자가 서로 전해　　晉筆唐詩父子專
경겨[27] 한 번 나오자 만 사람이 전하누나　　瓊琚一出萬人傳
청운의 길은 막혀 벼슬하기 어려웠는데[28]　　靑雲路隔難通籍
백옥루 완성되어 신선세계 오길 재촉했네[29]　　白玉樓成促上仙

---

23 난초 문득 꺾였으니 : '난절(蘭折)'은 난최옥절(蘭摧玉折)의 준말로, 현재(賢才)가 요절(夭折)한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언어(言語)》에 "모백성(毛伯成)이 자신의 재기(才氣)를 자부하면서 항상 '차라리 난초로 꺾이고 옥으로 부서질지언정, 쑥부쟁이처럼 더부룩하게 우거지지는 않겠다.〔寧爲蘭摧玉折, 不作蕭敷艾榮.〕' 했다."라는 말이 보인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이 죽은 것을 가리킨다.

24 이 작품은 유근(柳根)의 《서경집(西坰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25 유근(柳根) : 1549~1627.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회부(晦夫), 호는 서경(西坰)이다.

26 진필(晉筆) : 중국 진(晉)나라의 필체라는 말로, 보통 왕희지의 필체를 가리킨다.

27 경겨(瓊琚) : 보배로운 구슬로 상대방의 시문에 대한 존칭이다. 《시경(詩經)·목과(木瓜)》의 "나에게 목과를 주거늘 경거로써 갚는다.〔投我以木瓜, 報之以瓊琚.〕"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28 청운(靑雲)의……어려웠는데 : '청운로(靑雲路)'는 출중한 인재가 벼슬길에 올라 전도(前途)가 트인 것을 말한다. '통적(通籍)'은 조관(朝官)의 명단을 말한다. 백진남이 선조(宣祖) 23년(1590)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후 대과(大科)에 오르지 못하고 포의로 일생을 마쳤기에 한 말이다.

29 백옥루(白玉樓)……재촉했네 : 당(唐)나라 이상은(李商隱)의 〈이장길소전(李長吉小傳)〉에서 "이하(李賀)가 대낮에 붉은 용을 타고 내려온 붉은 옷 입은 사람을

붓은 부질없이 왕씨[30]의 무덤에 남았지만　　毫管謾留王氏塚
별 무지개는 응당 미가선[31]을 비추리라　　星虹應炤米家船
해마다 귤과 유자 가을 서리 맞은 후에　　年年橘柚秋霜後
다시 맑은 향에 편지 부쳐 오는 사람 없으리　　無復淸香帶錦牋[32]

남교(南郊)에서 대죄(待罪)하고 있는 병든 벗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33]**-곡하다.-**

우군은 본디 맑고도 깨끗했었고　　右軍本瀟洒
대령은 남긴 풍치(風致)가 있었다네[34]　　大令有遺致

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상제의 백옥루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대를 불러 기문(記文)을 짓게 하려 한다.'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이하가 바로 죽었다."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을 이하에 견주어, 뛰어난 인물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다.

30 왕씨(王氏) : 진(晉)나라의 명필이었던 왕희지(王羲之)를 가리킨다.

31 미가선(米家船) : 송(宋)나라 미불(米芾)의 자는 원장(元章), 호는 해악외사(海嶽外史) 또는 녹문거사(鹿門居士)이며, 서화(書畫)에 뛰어나 남화(南畫)의 조종(祖宗)으로 일컬어진다. 그는 서화를 좋아하여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강회발운사(江淮發運使)로 있을 때엔 자기 배 위에 패(牌) 하나를 세우고 그 깃발에 '미가서화선(米家書畫船)'이라 썼다 한다. 참고로 황정견(黃庭堅)이 미불에게 준 〈희증미원장(戲贈米元章)〉이라는 작품에서 "창강에 밤새도록 무지개가 해를 꿰뚫으니, 이는 필시 미가의 서화 실은 배이리라.〔滄江盡夜虹貫日, 定是米家書畫船.〕"라고 한 바 있다. 백진남을 미불에 견주어 칭송했다.

32 이 작품은 이정귀(李廷龜)의 《월사집(月沙集)》에 〈挽白善鳴〉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3 이정귀(李廷龜) : 1564~1635.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보만당(保晩堂)·치암(癡菴)·추애(秋崖)·습정(習靜),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34 우군(右軍)은……있었다네 : '우군'은 우군 벼슬을 지낸 진(晉)나라 명필 왕희지를 말한다. '대령(大令)'은 왕희지의 아들인 왕헌지(王獻之)를 말한다. 《진서(晉書)·완민전(王玟傳)》에 의하면, 왕헌지가 중서령(中書令)을 맡았다가 물러난 뒤 왕민(王

눈으로 보는 사이에도 도(道)가 보존하여　　道存目擊間
천 리 멀리서도 마음을 서로 맡기었지　　千里心相委[35]
오히려 노량진 강가에서 헤어진 일 기억하니　　尙憶鷺江別
위험한 길에서도 높은 의리를 보였었지　　危途見高義
깊은 골짝에서 세상과 떨어졌기에　　窮峽與世隔
소식 막혀 서글피 바라만 보았다네　　悵望徽音閟
뜬 인생엔 뿌리 꼭지도 없다지만　　浮生無根蔕
이 부음(訃音)을 내 어찌 차마 들으랴　　幽問吾何忍
강해에서는 은사(隱士)[36]를 잃었으며　　江[37]海失嘉遯
소미성(少微星)의 밝은 빛도 사라졌구나[38]　　少微精光隕

珉)이 그 후임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평소 명망이 나란했기에 당시 사람들이 왕헌지를 '대령'이라 부르고 왕민을 '소령(小令)'이라 불렀다 한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을 왕희지에, 백광훈의 아들인 백진남을 왕희지의 아들인 왕헌지에 견준 것이다.

35 委 : 신흠(申欽)의 《상촌집(象村集)》에는 '寄'로 되어 있다.

36 은사(隱士) : '가돈(嘉遯)'은 가둔(嘉遁)으로 쓰기도 하는데, 정도(正道)에 따라 물러나 은거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周易)·둔괘(遯卦)》 구오(九五)에 "아름다운 은둔이니 정(貞)하여 길하다.〔嘉遯貞吉〕"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전(傳)에서 "구오는 중정이니, 은둔하기를 아름답게 한 자이다. 처함이 중정의 도를 얻어서 때에 맞게 멈추고 행함이 이른바 아름다움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정정하여 길함이 된다.〔九五, 中正, 遯之嘉美者也. 處得中正之道, 時止時行, 乃所謂嘉美也. 故爲貞正而吉.〕"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이 중정의 도를 얻어 은둔했다는 말이다.

37 江 : 신흠(申欽)의 《상촌집(象村集)》에는 '湖'로 되어 있다.

38 소미성(少微星)의……사라졌구나 : '소미(少微)'는 소미성으로 처사성(處士星)이라고도 한다. 소미성이 희미하거나 떨어지면 인간 세상의 처사(處士)가 죽는다 한다. 진(晉)나라 사부(謝敷)는 성품이 맑고 욕심이 없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태평산(太平山)에 10여 년 동안 은거했다. 하루는 달이 소미성을 범하자 점치는 사람이 "처사가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시 명망이 높았던 대규(戴逵)가 죽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부가 죽었다고 한다. 《진서(晉書)·사부열전(謝敷列傳)》 여기에서는 백진남이 죽었다는 말이다.

헛되이 수죽의 거처만이 남아 있어　　空餘水竹居
이 징군[39]의 자취를 드러낸다오　　表此徵君迹
눈물 훔치어 남쪽 구름에 뿌리노니[40]　　雪涕洒南雲[41]
모든 일 이제는 저승에 붙인다네[42]　　萬事付冥漠[43]

동양(東陽) 신흠(申欽)[44]-곡하며 애도하다.-

남쪽 지방 이름난 집안의 후예로　　南國名家裔
훌륭한 명성이 한양에 진동했다오　　英聲動洛師
시 읊는 풍류를 아비가 자식에게 전했고　　風流傳父子
한묵의 가업(家業)[45]을 이어받았지　　翰墨繼箕裘
까마귀의 봉양[46] 바람은 이루지 못하여　　未遂烏哺願

---

39 징군(徵君) : 임금의 부름을 받은 덕행과 학문이 겸비된 선비를 가리키는 말인데, 징사(徵士)라고도 한다. 후한(後漢) 때 황헌(黃憲)의 집이 아주 가난했으나 본분을 지키고 계속되는 조정의 초빙에 응하지 않자, 당시 사람들이 그 풍모를 존숭하여 '징군'이라 부르며 존경한 데서 유래했다. 《후한서(後漢書)·황헌열전(黃憲列傳)》 여기에서는 백진남을 말한다.

40 눈물……뿌리노니 : '설체(雪涕)'는 눈물을 닦는다는 것이다. 《열자(列子)·역명(力命)》에 "안자(晏子)만이 홀로 그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래서 경공(景公)이 눈물을 닦고 안자를 돌아보았다.〔晏子獨笑於旁, 公雪涕而顧晏子.〕"라고 한 바 있다. '남운(南雲)'은 남쪽으로 날아가는 구름을 말하는데, 보통 부모님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의탁한 표현이다. 참고로 진(晉)나라 육기(陸機)의 〈사친부(思親賦)〉에 "남쪽 구름 가리켜 정을 붙이고, 돌아가는 바람 바라보며 정성을 바치네.〔指南雲以寄款, 望歸風而效誠〕"라고 한 바 있다.

41 南雲 : 신흠(申欽)의 《상촌집(象村集)》에는 '寢門'으로 되어 있다.

42 萬事付冥漠 : 신흠의 《상촌집》에는 '怊悵南雲隔'으로 되어 있다.

43 이 작품은 신흠의 《상촌집》에 〈挽白善鳴〉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44 신흠(申欽) : 1566~1628.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헌(玄軒)·상촌(象村)·현옹(玄翁)·방옹(放翁)이다.

45 가업(家業) : 자세한 내용은 110쪽 주21 참조.

학발은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있다네　　纏鶴髮悲情
다행히 청전[47]을 맡길 이가 있노니　　靑氈幸有托
우아한 명성의 어진 아들 있구나　　雅望屬賢兒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 최관(崔瓘)[48]

- 절하며 애도하다.-

신선 산에서 노닌 지 10여 년　　仙山遊賞十經春
그대 저승 사람 되리라 생각도 못했네　　不道君爲泉下人
호수 저 너머에 있어 상여 못 잡고서　　湖外未能參執紼
부질없이 두 줄기 눈물로 두건 적시네　　謾將雙淚獨沾巾[49]

자헌대부(資憲大夫) 형조판서(刑曹判書) 장만(張晩)[50]

-절하며 애도하다.-

---

46 까마귀의 봉양 : '반포(反哺)'는 까마귀 새끼가 장성하면 먹이를 물어다가 제 어미에게 먹여 준다는 데서 온 말로, 이는 곧 자식이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데에 비유된다. 이를 반포보은(反哺報恩)이라 하고 그래서 까마귀를 반포조(反哺鳥)라고 한다. 진(晉)나라 성공수(成公綏)의 〈오부(烏賦)〉에 "새끼가 이미 장성해 능히 날아여, 먹이를 물어다 어미에게 먹이도다.〔雛旣壯而能飛兮, 乃銜食而反哺.〕"라고 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이 늙은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지 못한 채,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다는 말이다.

47 청전(靑氈) : 선대로부터 전해진 귀한 유물을 가리킨다. 진(晉)나라 왕헌지(王獻之)가 누워 있는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모조리 훔쳐 가려 할 적에, 그가 "도둑아, 푸른 모포는 우리 집안의 유물이니, 그것만은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偸兒, 靑氈我家舊物, 可特置之.〕"라고 하자, 도둑이 질겁하고 도망쳤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진서(晉書)·왕희지열전(王羲之列傳)》

48 최관(崔瓘) : 1563~1630. 본관은 강화(江華), 자는 형중(瑩仲), 호는 미옹(迷翁)이다.

49 이 작품은 장만(張晩)의 《낙서집(洛西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50 장만(張晩) : 1566~1629.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호고(好古), 호는 낙서(洛西)이다.

우리나라 높은 재주 지닌 그대 안타까우니 華國高才惜
벼슬 사양하고 덕망까지 숨기었지 辭官隱德加
안개 이내 속에서 일찍이 자취 감추었지만 煙霞曾遯跡
사한은 집안에 전해졌다네 詞翰卽傳家
만사가 모두 허망하게 되었지만 萬事都歸幻
뜬 인생이라 곧 끝이 있다네 浮生便有涯
호해에서 부고(訃告)가 전달되니 幽音自湖海
온 세상 사람들 모두 탄식하누나 擧世共咨嗟[51]

동양(東陽) 신익성(申翊聖)[52] 공손히 절하고 만사를 쓰다.

내 벗 호해의 선비는 吾君湖海士
품은 뜻 참으로 초월했다네 襟韻苦超越
나보다 5살이 많았지만 長我五年多
뜻이 같았고[53] 또한 집안 대대로 교유했지 同方又連閥
젊은 나이로 향시(鄕試)에 합격하여 鄕解少年時
짝인 양[54] 항상 따라 노닐었네 追遊比鶼蹩

---

51 이 작품은 신익성(申翊聖)의 《낙전당집(樂全堂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52 신익성(申翊聖) : 1588~1644.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군석(君奭), 호는 낙전당(樂全堂)·동회거사(東淮居士)이다. 아버지는 신흠(申欽)이다.

53 뜻이 같았고 : '동방(同方)'은 지향하는 바가 서로 같다는 말이다. 《예기(禮記)·유행(儒行)》에 "선비는 뜻을 합하여 방향을 같이하고, 도를 영위함엔 행위를 같이한다.〔儒有合志同方, 營道同術.〕"라고 했다.

54 짝인 양 : '겸(鶼)'은 비익조(比翼鳥)를 가리키는데, 이 새는 눈 하나와 날개 하나만 있기 때문에 두 마리가 서로 나란히 해야만 비로소 두 날개를 이루어 날 수 있다고 한다. '궐(蹩)'이라는 짐승은 앞발은 짧고 뒷발만 길어서 잘 달리지 못하므로 하루에 천 리를 달릴 수 있는 공공거허(蛩蛩巨虛)라는 짐승이 좋아하는 감초(甘草)를 가져

훌륭한 재주로 가풍에 매진했고 高才邁家風
웅장한 포부로 세상[55] 좁게 여겼네 壯懷隘溟渤
대붕이 회오리바람 타고 날았으며[56] 大鵬搏扶搖
천마가 월굴을 발로 찼다네[57] 天馬蹴月窟
시의 명성은 우리나라[58]에 진동했었고 詩名動鰈域
필법은 묘지명 새길 때에 으뜸이었다오 筆法擅版碣
한평생 임금 섬길[59] 계책이 있었기에 平生致君策

다 그에게 먹여 주고 위급한 때를 당하면 공공거허의 등에 업혀서 위기를 면하곤 한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전하여 정의가 매우 친밀한 친구 사이에 비유된다. 한유(韓愈)의 〈송문창사북유(送文暢師北遊)〉에 "더구나 옛 친구들을 만나 보니, 모두가 겸과 궐에 비할 만함에랴.〔況逢舊親識. 無不比鶼蹶.〕"라고 한 바 있다.

55 세상 : '명발(溟渤)'은 명해(溟海)와 발해(渤海)를 말하는데, 보통 큰 바다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천하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56 대붕(大鵬)이……날았으며 :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의 "붕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는 물을 3천 리나 박차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나 날아오른 뒤에야 6월의 대풍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간다.〔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摶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는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백진남이 원대한 뜻을 품었다는 의미이다.

57 천마(天馬)가……찼다네 : '월굴(月窟)'은 전설 속에 나오는, 달이 나오고 들어가고 한다는 굴로 서쪽에 있다고 한다. 또한 월굴의 서쪽에 명마(名馬)인 한혈마(汗血馬)가 생산되는 대완국(大宛國)이 있다. 한 무제(漢武帝) 때 대완(大宛)을 정벌하고 천리마를 얻었는데, 무제가 이 말을 얻고는 〈천마가(天馬歌)〉를 지어 노래하기를 "서쪽 끝의 나라에서 천마가 옴이여, 만 리 먼 길을 거쳐 덕이 있는 이에게 돌아왔네.〔天馬來兮從西極, 經萬里兮歸有德.〕"라고 한 바 있다. 《사기(史記)·악지(樂志)》 여기에서는 백진남이 천마처럼 준수한 인재였다는 말이다.

58 우리나라 : '접역(鰈域)'은 가자미 형국과 같은 지역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59 임금 섬길 : '치군(致君)'은 나라의 임금을 잘 보좌하여, 그 임금을 성명(聖明)한 임금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묵자(墨子)·친사(親士)》에 "훌륭한 인재는 부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존이 되게 할 수 있다.〔良才難令, 然可以致君見尊.〕" 했다.

다만 금빛 궁궐에 나아가고자 했다네　只欲獻金闕
제문에서 몇 번이나 거문고 탔던가[60]　齊門幾操瑟
초벽으로 세 번 발꿈치 잘리었다네[61]　楚璧三逢刖
큰 포부 품어 세상에 구속되지 않은 채　落拓世不羈
늘그막엔 편안히[62] 밭을 일구었다네　棲遲老耕岱
송호가 고요하고 한가롭게 머문 곳　松湖靜散地
푸른 대나무 사이 맑은 그늘이었지　綠竹間清樾
좌우에 거문고와 책 끼고 있으면서　左右擁琴書
벼슬아치들 찾아보는 발자취 끊었다오　蹤跡絶參謁

---

60 제문(齊門)에서……탔던가 : 제 선왕(齊宣王)은 피리〔竽〕를 매우 좋아했다. 어떤 사람이 그 궐문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며 3년 동안 벼슬을 구해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은 피리를 좋아하는데 그대는 거문고를 타니, 거문고를 아무리 잘 타도 왕이 좋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라고 했다. 《한창려집(韓昌黎集)·답진상서(答陳商書)》 이는 세상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해도 쓰일 수 없다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세상과 맞지 않아 쓰이지는 못했으나 백진남의 능력은 탁월했다는 뜻이다.

61 초벽(楚璧)으로……잘리었다네 : '초벽'은 춘추 시대 초(楚)나라 변화(卞和)가 얻은 옥인 화씨벽(和氏璧)을 가리킨다. 그가 형산(荊山)에서 직경이 한 자나 되는 박옥을 얻어 여왕(厲王)과 무왕(武王)에게 바쳤으나, 옥을 감정하는 사람이 보고 돌이라 하여 두 발이 잘리고 말았다. 그 후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화씨는 형산 아래서 박옥을 안고 사흘 밤낮을 울어 피눈물이 흘렀다. 문왕이 이 사실을 듣고 사람을 보내 "천하에 발이 잘린 사람이 많은데 그대만이 유독 이렇게 우는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발이 잘린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보배로운 옥을 돌이라 하고 곧은 선비를 미치광이라 하니, 이 때문에 내가 슬피 우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왕이 옥공(玉工)을 시켜 박옥을 다듬게 하니 직경이 한 자나 되고 티 한 점 없는 큰 옥이 나왔다 한다. 《한비자(韓非子)·화씨(和氏)》 여기에서는 좋은 재능을 갖고도 그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62 편안히 : '서지(棲遲)'는 산림에 은거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은사(隱士)의 생활을 즐긴다는 말이다. 《시경(詩經)·형문(衡門)》의 "사립문 아래에서 충분히 쉬고 노닐 수 있다.〔衡門之下, 可以棲遲.〕"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어찌 알았으랴 몸에 병이 나서[63] 豈知采薪憂
하룻밤 사이에 갑자고 돌아가실 줄 一夕成奄忽
지난겨울 조상의 묘소 정리하려고 前冬掃先壟
그대 맞이하려 심부름꾼 보냈었지 邀君郵使發
도착하기도 전에 부고가 먼저 이르니 未達訃先至
통곡하며 내 몸이 오열했네 慟哭酸我骨
비록 관 만지며 울부짖을 수 있지만 縱思撫棺呼
어이하여 이리도 급하게 가시었나 柰如行倉卒
이승과 저승으로 영원히 등졌으니 幽明永相負
이 한은 응당 끝나지 않으리라 此恨未應歇
내 늙었지만 겨우 반백인데 吾衰纔半百
친한 벗들 모두 저승으로 갔다네 執友俱淪沒
이 사람이 또 그곳으로 가니 斯人又至斯
뜬세상 어찌 그리도 바삐 가셨나[64] 浮世何卒卒
수복은 진실로 기필하기 어렵나니 壽福固難必
하늘의 이치 탄식할 만하구나 天理堪嗟咄

---

63 몸에 병이 나서 : '채신우(采薪憂)'는 몸에 병난 것을 말한다. 《맹자(孟子)·공손추하(公孫丑下)》의 "어제는 왕명이 있었지만, 채신의 근심이 있어 조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병이 조금 나아 조정에 달려 나갔습니다.〔昔者有王命, 有采薪之憂, 不能造朝. 今病小愈, 趨造於朝.〕"라고 한 데서 연유했다. 병이 나면 땔나무를 하지 못하여 근심한다는 뜻으로 병이 났음을 의미한다.

64 바삐 가셨나 : '졸졸(卒卒)'은 바쁜 모습이다. 《한서(漢書)·사마천전(司馬遷傳)》에 "마침 동쪽으로 황제를 수행한 데다가 또 잡다한 일이 닥쳐와 서로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바쁜 와중에 저의 마음을 털어놓을 틈도 없었습니다.〔會東從上來, 又迫賤事, 相見日淺, 卒卒無須臾之間得竭指意.〕"라고 했는데, 안사고(顔師古)의 주(注)에서 "'졸졸'은 재촉한다는 의미이다."라고 했다.

사정에는 두 그루 옥수 있고[65] 謝庭二玉樹
고당(高堂)에는 흰머리의 어머니 계시다네 高堂一鶴髮
봄 구름 걷혀 멀리 바라다보니 春雲罷遠望
대들보에 찬 달빛이 비치누나[66] 屋樑餘寒月
새 무덤은 아득히 바닷가 구석에 있어 新阡杳海曲
남쪽으로 돌아갈 배는 막히었구나 南紀阻歸筏
멀리서 장차 몇 줄기 눈물을 遙將數行淚
봄 물결에 보태어 보낸다오 添送春波滑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副使) 김존경(金存敬)[67]

-곡하며 애도하다.-

늘그막에 한양의 봄날에 반갑게 만났는데[68] 暮年靑眼漢城春
옥과 얼음 같은 절조로 귀를 씻어 준[69] 사람 玉節氷操洗耳人

---

65 사정(謝庭)에는……있고 : 집안에 훌륭한 자식이 있다는 말이다. '사정'은 진(晉)나라 사현(謝玄)의 집안을 말하고 '옥수(玉樹)'는 훌륭한 자식을 가리킨다. 사현이 숙부인 사안(謝安)에게 "비유하자면 지란 옥수가 집안 섬돌에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게 하겠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庭階耳.〕"라고 자신의 소망을 밝힌 고사에서 유래했다. 《진서(晉書)·사안열전(謝安列傳)》

66 대들보에……비치누나 : 친구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이다. 두보(杜甫)가 이백(李白)을 그리워하며 지은 〈몽이백(夢李白)〉에 "지는 달이 지붕을 가득히 비추나니, 그대의 밝은 안색 행여 비추는 듯.〔落月滿屋梁, 猶疑照顔色.〕"이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67 김존경(金存敬) : 1569~1631.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수오(守吾), 호는 죽계(竹溪)이다.

68 반갑게 만났는데 : '청안(靑眼)'은 상대를 반갑게 맞이한다는 말이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 완적(阮籍)이 속된 사람을 만나면 백안(白眼) 즉 흰 눈자위를 드러내어 경멸하는 뜻을 보이고, 의기투합하는 사람을 만나면 청안 즉 검은 눈동자로 대하여 반가운 뜻을 드러낸 고사가 전한다. 《세설신어(世說新語)·간오(簡傲)》

대들보에 달빛 내리는데 헤어지노니　　落月屋樑顔色隔
상엿소리[70] 한 곡조에 샘처럼 눈물 쏟아지네　　薤歌一曲淚如泉

해남(海南) 이전 원〔倅〕 노담거사(鷺潭居士) 신경행(辛景行)[71]

–곡하며 애도하다.–

왕희지의 가법을 왕헌지가 이어　　羲之家法獻之傳
몇 곳에서 무지갯빛이 밤하늘에 빛났던가[72]　　幾處虹光夜燭天
오늘 아침 옛 상자 열어 보니 눈물 떨어져서　　垂淚今朝披故篋
이로부터 붉은 줄 끊어짐을[73] 감당 못 하겠네　　不堪從此斷朱絃

---

69 귀를 씻어 준 : '세이(洗耳)'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 들은 귀를 씻어 준다는 말이다. 허유(許由)와 소보(巢父)가 기산(箕山) 영수(潁水)에 숨어 살았다. 요(堯) 임금이 제위(帝位)를 맡기려 하자 허유가 이를 거절하고서 더러운 말을 들었다면서 귀를 씻으니〔洗耳〕, 이 말을 들은 소보가 "그대가 만약 높은 산 깊은 골에 살면서 세상과 통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대를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라고 꾸짖고는,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자기 소에게 마시게 할 수 없다고 하며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가서 물을 먹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고사전(高士傳)·허유(許由)》

70 상엿소리 : '해가(薤歌)'는 만가(挽歌)이다. 해(薤)는 부추 종류인데, 사람의 목숨이 부추 잎에 맺힌 이슬처럼 쉽게 소멸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71 신경행(辛景行) : 1547~?. 본관은 영산(靈山), 자는 백도(伯道), 호는 조은(釣隱)이다.

72 무지갯빛이 밤하늘에 빛났던가 : 자세한 내용은 112쪽 주31 참조.

73 붉은 줄 끊어짐을 : '단주현(斷朱絃)'은 붉은 거문고 줄이 끊어졌다는 말로, 벗을 잃은 슬픔을 의미한다. 백아(伯牙)와 종자기(鍾子期)는 모두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으로, 종자기는 친구인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잘 이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자기가 죽자 백아가 자신의 음악을 감상할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거문고를 부수어 버리고 종신토록 다시 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기(知己)의 죽음을 애상하는 뜻으로 '백아절현(伯牙絶絃)'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여람(呂覽)·본미(本味)》

그 당시 말 나란히 타고 중국 사신 맞이하며　當年聯騎逐東槎
함께 용만관[74]에서 꽃구경하였었지　共賞龍灣館裡花
오늘 죽고 사는 것이 모두 한바탕 꿈 되었으니　今日存亡俱一夢
하늘 끝에서 고개 돌려 보매 눈물이 가로지르네　天涯回首淚橫斜

구름 물결 아득히 남쪽 하늘은 멀기만 하여　雲濤杳杳南天遠
천 리 밖의 소식을 기러기[75]가 전해 주길 기다렸지　千里音書待雁傳
어찌하여 평안하다는 말을 전해 주지 못하고　叵奈不傳安穩字
다만 슬픈 소식 전해 만사를 짓게 하는가　只傳哀怨挽詩聯

장수하든 요절하든 모두 죽지만　人生脩短同歸盡
그대는 백 년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다오　況是君過半百年
한스러운 것은 어머니 흰머리로 계시는데　惟恨慈闈鶴髮在
색동옷 입고 잔치에서 춤출 사람[76]이 없구나　彩衣無復舞華筵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현성(金玄成)[77]-절하며 애도하다.-

---

74 용만관(龍灣館) : 조선 시대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설치한 객사(客舍)로, 평안도 의주(義州)에 있었다.

75 기러기 : 기러기는 먼 길의 편지를 전해 주는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안신(雁信), 안백(雁帛), 안서(雁書)라는 표현이 생기게 된 것이다.

76 색동옷……사람 : 자세한 내용은 108쪽 주7 참조.

77 김현성(金玄成) : 1542~1621.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여경(餘慶), 호는 남창(南窓)이다.

집은 해남이요 家在海南地
태어난 해 갑자년이네 生丁甲子年
부모 사랑해 늘 하루하루 아끼었고[78] 愛親常愛日
효도할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지 思孝卽思先
도탑고 화목했으니 누가 틈 만들랴 敦睦人誰間
재주 화려해 세상에 전해지누나 才華世有傳
많은 재물은 숭상할 바 아니니 多貲非所尙
능히 흩어 뿌려 어진 이 되었네 能散是爲賢
한 해 저물어 가며 매화 피려 하는데 歲暮梅將發
추운 날 병이 몸을 휘어 감았지 天寒病與纏
먼 곳이라 끝내 도움 주지 못해 遐方終不救
슬픈 눈물이 절로 끝이 없어라 哀淚自無邊
사내 계집이 통곡함을 어찌 다하랴 男女痛何極
자식과 손자 울며 앞에 가득하구나 兒孫啼滿前
어머니는 여든의 노인인데 萱堂八十壽
그대 떠나자 돌연 서글퍼 하누나 君去轉凄然

송영구(宋英耉)[79] **쓰다.**

---

78 하루하루 아끼었고 : '애일(愛日)'은 효자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은 애석해하며 아낀다는 말이다. 한(漢)나라 양웅(揚雄)의 《법언(法言)·효지(孝至)》에 "이 세상에서 오래 가질 수 없는 것은 어버이를 모실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효자는 어버이를 봉양할 수 있는 동안 하루하루 날을 아낀다.〔不可得而久者, 事親之謂也, 孝子愛日.〕"라는 말이 나온다.

79 송영구(宋英耉) : 1556~1620. 본관은 진천(鎭川), 자는 인수(仁叟), 호는 표옹(瓢翁)이다.

효자가 아비 벗[80]의 슬픔 너무도 잘 알아　孝子深知父執悲
천 리 멀리 편지 보내와 만사 요청했네　一封千里乞哀詞
강남의 수죽은 지금 주인이 없어졌고　江南水竹今無主
바닷가의 거문고 술잔에 이미 시 끊어졌네　海上琴樽已斷詩
내사[81]와 가전에서도 오묘한 필법 추앙했고　內史家傳推妙筆
양양이 스스로를 버려 밝은 시절 그르쳤지[82]　襄陽自棄枉明時
서글퍼라 삼십여 년 전의 일이여　凄凉三十年前事
이백 명[83] 중에 몇 사람이나 남았나　二百人中幾箇遺

해흥(海興) 윤훤(尹暄)[84]-곡하며 애도하다.-

일찍이 소식 듣고 그리움을 달랬는데　曾聞消息慰相思
어찌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지경이 될 줄 알았으랴　豈料斯人遽至斯

---

80 아비 벗 : '부집(父執)'은 아버지의 친구를 말한다.

81 내사(內史) : 임금의 조서(詔書) 작성과 문서 등을 담당하던 벼슬이다.

82 양양(襄陽)이……그르쳤지 : '양양'은 당(唐)나라 시인 맹호연(孟浩然)을 말하는데, 맹호연의 고향이 양양이다. 맹호연이 금란전(金鑾殿)에서 숙직하던 왕유(王維)의 초대를 받고 가서 함께 고금의 풍아(風雅)를 담론하는데, 홀연 현종(玄宗)이 그곳으로 행차했다. 맹호연이 침상 아래에 숨었는데 왕유가 사실을 숨길 수 없어 현종에게 아뢰니, 현종이 맹호연을 불러 시를 읊게 했다. 이에 맹호연이 "재능이 없어 밝으신 임금에게 버림받고, 병이 많아 벗들과도 사이가 멀어졌네.〔不才明主棄, 多病故人疎.〕"라고 했다. 그러자 현종이 "짐은 사람을 버린 적이 없다. 경이 스스로 벼슬길에 나오지 않았으면서 어찌하여 이러한 시를 지었단 말인가."라고 하고서는 종남산(終南山)으로 돌아가게 했다. 《당척언(唐摭言)》 여기에서는 백진남을 맹호연에 비견하여, 백진남이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태평시절에 스스로 벼슬길에 나오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83 이백 명 : 백진남과 향시에 함께 합격한 사람들을 말한다.

84 윤훤(尹暄) : 1573~1627.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차야(次野), 호는 백사(白沙)이다.

촛불 아래 문장 논하던 일 어제 일인 듯하고　　燭下論文如昨日
상자 속에 남긴 유묵은 오히려 평소 일인 듯　　篋中遺跡尙平時
맑은 자태 세속에서 벗어나 숲 정원서 평안했고　　淸姿拔俗林園穩
우아한 법도 집에 전해져 선비 벗들 추앙했지　　雅禮傳家士友推
오직 저승에서도 끝없는 애통함이 있으리니　　惟有重泉無限慟
누가 어머니 위해 색동옷 입고 재롱부릴까　　萱堂誰作戲斑兒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상호군(行龍驤衛上護軍)

조탁(曺倬)[85]-곡하며 애도하다.-

벼슬하려[86] 자주 계리 따라[87] 노닐었는데　　觀國頻隨計吏遊
한 시절 만났던 사람들[88] 모두 명류였다오　　一時傾蓋盡名流

---

85 조탁(曺倬) : 1552~1621.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대이(大而), 호는 이양당(二養堂)·치재(耻齋)이다.

86 벼슬하려 : '관국(觀國)'은 국정(國情)을 살핀다는 것으로 벼슬살이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관괘(觀卦)》 육사(六四)에 "나라의 휘황한 빛을 봄이니, 왕에게 나아가 손님 노릇을 하며 벼슬하는 것이 이롭다.〔觀國之光, 利用賓于王.〕"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87 계리(計吏) 따라 : 중앙정부의 고시(考試)에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계리는 각 지방관서(官署)에서 해마다 회계장부(會計帳簿)를 조정에 가지고 와서 업무를 보고하던 관리를 가리키는데, 옛날에 각 지방 장관들이 그 지방에서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뽑은 다음에 계리가 도성에 가는 편에 함께 올려보내 과거에 응시하도록 했던 고사가 있다. 그래서 향시(鄕試)에 합격하고 나서 상경(上京)하여 과거에 응시할 때 수계(隨計), 해계(偕計) 혹은 계해(計偕)라는 표현을 쓴다. 한(漢)나라 공손홍(公孫弘)이 학관(學官)의 제도를 만들면서, 지방의 인재들을 "계리와 동행하게 해서 태상으로 보내 박사 제자(博士弟子)들처럼 수업받게 해야 한다.〔當與計偕, 詣太常, 得受業如弟子.〕"라고 건의한 말에서 유래했다. 《사기(史記)·유림열전(儒林列傳)》

88 만났던 사람들 : '경개(傾蓋)'는 경개여고(傾蓋如故)의 준말이다. 수레 덮개를 기울인다는 것으로,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을 말한다. 《사기(史記)·추양열전(鄒陽列傳)》에 "흰머리가 되도록 오래 사귀었어도 처음 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살고 죽어 갑자기 떨어지니 오늘 어찌할까　存亡忽隔那今日
편지를 거듭 보내온 것은 지난해 가을이네　札翰重尋是去秋
시는 남쪽 배 쫓아 푸른 바다 지났었고　詩逐南船過碧海
글씨는 비단[89]에 남아 온 나라[90]에 전해지네　墨留東絹散靑丘
강과 못의 풀빛에는 오히려 봄기운 있는데　江潭草色還春意
하늘가에 홀로 서니 눈물 그치지 않누나　獨立天涯淚未收

우인(友人) 순천(順天) 김류(金瑬)[91]-곡하며 애도하다.

4구의 '심(尋)' 자가 다른 판본에는 '파(披)'로 되어 있다.-

인간 세상 모든 일에 두 줄기 눈물 흐르고　萬事人間雙涕垂
그대 곡하는 오늘 또한 하늘가에 있구나　哭君今日更天涯
누가 알았으랴 목숨을 그토록 재촉할 줄　誰知壽命偏相促
늘 공명에 홀로 더딘 것을 한스러워 했네　每恨功名獨自遲
한묵의 남은 풍도는 이미 끝이 났으며　翰墨遺風長已矣
동산의 맑은 정취도 갑자기 서글퍼지네　丘園淸趣忽悽其
봄이 와도 매화 핀 소식 들을 수 없노니　春來不見梅花信
그 목소리와 모습 꿈에서만 볼 수 있네　只有音容夢裏思[92]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랜 벗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白頭如新, 傾蓋如故.〕"라는 말이 나온다.

89 비단 : '동견(東絹)'은 중국 사천성(四川省) 염정현(鹽亭縣)에서 나는 아계견(鵝溪絹)이란 좋은 비단으로,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많이 썼다.

90 온 나라 : '청구(靑丘)'는 푸른 언덕으로, 조선의 별칭이다.

91 김류(金瑬) : 1571~1648.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관옥(冠玉), 호는 북저(北渚)이다.

92 이 작품은 이춘원(李春元)의 《구원집(九畹集)》 권3에 〈挽白善鳴〉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재주 있으나 박명함을 누가 짝할 수 있나　有才無命欲誰隣
반백년의 명성이 헛되어 버려졌다오　虛擲名聲半百年
연방[93]에 함께 올라 일찍이 부끄러웠으며　蓮榜同升曾忝竊
성사로 독보적이었는데[94] 일찍이 함께 했지　星槎獨步早聯翩
예양[95]의 멋진 모임에 긴 노래 불렀었고　汭陽高會長歌裏
낙북[96]의 청아한 유람에서 맘껏 술 마시었지　洛北淸遊痛飮前
남긴 자식 위로하며 지기에 보답하고　欲撫稽孤報知己
다시 백발의 늙은 어머니 위안하고자 하네　更堪陶姥鬢皤然[97]

전(前) 감사(監司) 이춘원(李春元)[98]-곡하며 애도하다.-

종왕의 필법에 성당의 시　鍾王筆法盛唐詩
옥로[99]의 타고난 재주 세상에서 뛰어났네　玉老天才絶代奇

---

93 연방(蓮榜) : 소과(小科), 즉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던 과거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말한다.

94 성사(星槎)로 독보적이었는데 : '성사'는 천자의 명을 받들고 해외에 사신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장건(張騫)이 한 무제(漢武帝)의 명을 받고 대하(大夏)에 사신으로 나가 황하(黃河)의 근원을 찾았는데, 이때 배를 타고 은하수로 올라가 견우와 직녀를 만났다는 전설이 남조(南朝) 양(梁)의 송름(宋懍)이 지은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나온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은 1606년(선조39) 명(明)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왔을 때 유근(柳根)의 천거로 제술관(製述官)이 되어 활동했는데, 주지번이 백진남의 글씨를 보고 절세의 기보(奇寶)라고 절찬(絶讚)한 일을 가리킨다.

95 예양(汭陽) : 장흥(長興)의 옛 이름이다.

96 낙북(洛北) : 한강의 북쪽인 한양(漢陽)을 말한다.

97 이 작품은 이춘원(李春元)의 《구원집(九畹集)》에 실려 있지 않다.

98 이춘원(李春元) : 1571~1634.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원길(元吉), 호는 구완(九畹)이다.

99 옥로(玉老) : 백진남의 아버지인 옥봉(玉峯) 백광훈을 가리킨다.

백의로 종사하면서 명성 일찍이 이었는데　　從事白衣聲早繼
황지[100]에 이름 쓰려던 계획 끝내 어긋났네　　書名黃紙計終違

해마다 귤[101]을 멀리서 내게 보내왔는데　　每年陸橘遙投我
오늘 강가 매화를 뉘와 조용히 마주할까　　今日江梅靜對誰
두 집에 여든 드신 백발의 어머니 계시니　　鶴髮兩家俱八十
남쪽 바라보며 눈물만 자주 닦는다오　　不堪南望涕頻揮[102]

가선대부(嘉善大夫) 강화부윤(江華府尹) 이안눌(李安訥)[103]

-절하며 애도하다.-

생각나노니 지난해 반갑게 맞아 주었지　　憶昨揩青眼
쌍계 석동의 봄날에　　雙溪石洞春
모습 뵌 지 겨우 한 해 지났는데　　音容纔隔歲

---

100 황지(黃紙)에……어긋났네 : '황지'는 임금의 조서(詔書)를 노란색 종이에 쓰므로, 전하여 임금의 조서를 말한다. 이 구절의 의미는 백진남이 벼슬을 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을 끝내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101 귤 : '육귤(陸橘)'은 삼국 시대에 육적(陸積)의 귤이라는 말이다. 육적이 6세 때 구강(九江)에서 원술(袁術)을 만났는데 원술이 귤을 내놓았다. 육적이 귤 세 개를 품 안에 넣었는데, 떠날 때 절을 하다가 귤이 땅에 떨어졌다. 원술이 "손님으로 온 육랑이 품 안에 귤을 넣었단 말인가."라고 하니, 육적이 꿇어앉아 "돌아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원술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이로 인해 후세에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는 물건을 육랑귤(陸郎橘), 혹은 육씨귤(陸氏橘)이라고 하여 부모에 대한 효도를 상징한다. 《삼국지(三國志)·육적전(陸績傳)》

102 이 작품은 이안눌(李安訥)의 《동악집(東岳集)》 권12에 〈白進士善鳴輓詞〉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03 이안눌(李安訥) : 1571~163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이다.

슬픈 만사에 갑자기 두건 적시네　　哀挽忽沾巾
세상에 이제 누가 살아 있는가　　海內人誰在
상남[104]의 자취는 이미 먼지 되었네　　湘南跡已陳
평생 우군의 필적　　平生右軍筆
진결(眞訣) 전해짐을 다시 못 보겠구나　　不復見傳眞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이홍주(李弘胄)[105]

-절하며 곡하다.-

두 세대에 걸쳐 사귄 정은 교칠과 같아[106]　　兩世交情膠漆幷
중년에 만나고 헤어지며 비구름 같았지　　中年聚散雨雲同
하늘 끝에서 병 속에 흉한 소식 들어　　天涯病裏聞凶耗
들보에 달빛 내린 맑은 밤[107] 눈물 끝이 없어라　　樑月淸宵淚曷窮

살아 있는 늙은 벗 서포(西浦) 천객(遷客) 윤유기(尹惟幾)[108]

-병 속에 울며 애도하다.-

---

104 상남(湘南) : 중국 상수(湘水)의 남쪽이라는 말로 남방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백진남이 살았던 전라남도 장흥을 의미한다.

105 이홍주(李弘胄) : 1562~163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윤(伯胤), 호는 이천(梨川)이다.

106 교칠과 같아 : 옻나무의 칠처럼 뗄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후한(後漢)의 진중(陳重)과 뇌의(雷義)가 돈독한 우정을 발휘하자, 사람들이 "교칠이 굳다고 하지만, 진중과 뇌의의 우정만은 못하다.〔膠漆自謂堅, 不如雷與陳.〕"라고 칭찬했던 고사가 전한다. 《후한서(後漢書)·독행열전(獨行列傳)》

107 들보에……밤 : 자세한 내용은 120쪽 주66 참조.

108 윤유기(尹惟幾) : 1544~?. 본관은 해남(海南)이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아버지이다.

오십육 년 전 같은 해에 태어나 五十六年同甲子
매번 달빛 내린 들보 기대어 그리움 달랬네 每憑樑月慰相思
애달프다 병 없는데 병든 나보다 먼저 갔으니 可憐無病先多病
새 벗을 얻는다고 한들 옛 벗만 하겠는가 安得新知似舊知
희헌[109]의 풍류가 보배로운 묵적에 남아 있고 羲獻風流餘寶墨
바다 산의 소나무 대나무는 임지[110]에 담겨 있네 海山松竹鎖臨池
아득한 천도는 어찌 이리도 잔인한가 茫茫天道胡寧忍
아침저녁 자식 기다리는[111] 백발의 어머니 계시는데 朝夕門閭鶴髮垂

남곽(南郭)의 병든 친구 박동열(朴東說)[112]-곡하며 쓰다.-

---

109 희헌(羲獻) : 진(晉)나라의 명필인 왕희지(王羲之)와 그의 막내아들인 왕헌지(王獻之)의 합칭이다. 모두 명필로 이름이 높았다. 아버지인 백광훈을 왕희지에, 아들인 백진남을 왕헌지에 비견하여 부자가 모두 명필이었다고 칭송한 대목이다.

110 임지(臨池) : 연못에 간다는 것으로, 서법(書法)을 배워 익히는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 때 초성(草聖)으로 일컬어졌던 장지(張芝)가 일찍이 글씨를 익힐 적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의백(衣帛)에다 반드시 글씨를 쓴 다음에 다시 빨곤 했으므로, 그를 일러 "못가에서 글씨를 연습하여 못물이 다 검어졌다.〔臨池學書, 池水盡黑.〕"라고 했고 또 왕희지가 일찍이 어떤 이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장지는 못가에서 글씨를 연습하여 못물이 다 검어졌으니, 누구나 그와 같이 탐닉하기만 한다면 꼭 장지에게 뒤지지만은 않을 것이다.〔張芝臨池學書, 池水盡黑 使人耽之若是, 未必後之也.〕"라고 했으며, 송(宋)나라 증공(曾鞏)의 〈묵지기(墨池記)〉에 의하면, 왕희지가 일찍이 못가에서 글씨를 연습했던 장지의 일을 사모하여 그 또한 임천(臨川)의 묵지(墨池)에서 글씨를 연습했다고 한다.

111 아침저녁 자식 기다리는 : '조석문여(朝夕門閭)'는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을 말한다. 전국 시대 제(齊)나라 왕손가(王孫賈)가 나이 15세에 민왕(閔王)을 섬겼는데, 그 모친이 "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면 내가 집 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렸고, 네가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면 내가 마을 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렸다.〔女朝出而晩來, 則吾倚門而望, 女暮出而不還, 倚閭而望.〕"라고 말한 고사에서 연유했다. 《전국책(戰國策)·제책(齊策)》

112 박동열(朴東說 : 1564~1622.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열지(悅之), 호는 남곽(南郭)·봉촌(鳳村)이다.

천 년 전 종왕[113]의 필법　　千載鍾王法
그대 집안서 부자가 전했었지　　君家父子傳
치솟는 기상에[114] 사람 늙지도 않았고　　凌雲人未老
모자 벗으니[115] 세상 사람 놀라 넘어졌네　　脫帽世驚顚
그런데 강호에서 유락하니 얼마나 애석한가　　幾惜江湖落
효성과 우애만이 온전했음을 알겠어라　　偏知孝友全
외론 봉분이 필총[116]과 연이어지니　　孤墳連筆塚
꽃과 대나무도 또한 새해 맞이하리　　花竹又新年

연제(年弟)[117] 학곡(鶴谷) 홍서봉(洪瑞鳳)[118]-곡하며 절하다.-

---

113 종왕(鍾王) : 위(魏)나라 종요(鍾繇)와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모두 명필(名筆)이었다.

114 치솟는 기상에 : '능운(凌雲)'은 능운필(凌雲筆)로, 시문(詩文)에 뛰어난 것을 표현할 적에 쓰는 말이다. 《사기(史記)·사마상여열전(司馬相如列傳)》에 "사마상여가 〈대인부(大人賦)〉를 지어서 신선(神仙)의 일을 서술하여 한 무제(漢武帝)에게 바치니, 무제가 크게 기뻐하여 '표표(飄飄)하여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凌雲〕' 기상이 있다."라고 한 바 있다.

115 모자 벗으니 : '탈모(脫帽)'는 모자를 벗는다는 것으로, 당(唐)나라 장욱(張旭)과 관련된 고사에서 연유했다. 장욱은 초서(草書)를 잘 썼는데, 그는 술을 좋아하여 취한 뒤에 붓을 휘둘렀다. 그의 행동이 광태(狂態)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미친 장전(張顚)이라 불렀다.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에는 장욱에 대하여 "장욱은 술 3잔을 먹고 초성(草聖)을 전하네, 왕공 앞에서도 모자를 벗어 이마를 내놓고는 붓을 들어 종이에 쓰는데 구름인 듯 내인 듯 하네.〔張旭三杯草聖傳, 脫帽露頂王公前, 揮毫落紙如雲煙.〕"라고 한 바 있다.

116 필총(筆塚) : 고대의 서화가(書畫家)들이 다 쓰고 버리는 붓을 묻은 무덤이다. 서화 연습을 많이 했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당(唐)나라 때 장사(長沙)의 승(僧) 회소(懷素)가 초서(草書) 쓰기를 아주 좋아하여 초성 삼매(草聖三昧)를 얻었다고 자칭하기까지 했는데, 그가 일찍이 버린 붓을 산기슭에 묻고 이것을 '필총'이라 했던 데서 연유했다.

117 연제(年弟) : 동년(同年), 동방(同榜)과 같은 말로, 같은 해에 함께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아득히 오고 가며 서로 교유했는데[119] 悠悠往復三生石
명복을 모두 칠보당에 썼다오[120] 命福皆書七寶堂
여든이 된다 해도 나이 많다고 하지 말게 八耋較來年莫促
일명[121] 높은 곳에서도 오히려 장수한다오 一名高處壽還長
집안에서 효우로 사람들 눈에 띄었고 門庭孝友通人膜
서간문은 편편이 저승에서도 알려지리 簡牘絲鱗動鬼方
천 리 가는 상여 깃발 붙잡지 못한 채 千里旒旗攀不及
노인은 눈물 속에 슬픈 만사 짓네 老夫和淚寫哀章

통정대부(通政大夫) 행광주목사(行廣州牧使)

---

118 홍서봉(洪瑞鳳) : 1572~1645.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휘세(輝世), 호는 학곡(鶴谷)이다.

119 서로 교유했는데 : '삼생(三生)'은 불교 용어로, 전생(前生)·금생(今生)·내생(來生)을 가리킨다. 당(唐)나라 때 이원(李源)이 일찍이 낙양(洛陽) 혜림사(惠林寺)에 있을 적에 승 원택(圓澤)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하루는 둘이 배를 타고 남포(南浦)에 놀러 갔다가, 비단 배자를 입고 물을 긷는 한 부인을 보고는 원택이 울면서 이원에게 말하기를 "저 부인이 임신한 지 3년이 되었는데, 내가 의당 그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2년 뒤의 중추일(中秋日) 달밤에 항주(杭州) 천축사(天竺寺) 뒤에서 공과 다시 서로 만나기로 하자."라고 했다. 원택이 그날 밤에 죽었고 그 부인은 그날 아이를 낳았다. 이원은 그로부터 12년 뒤에 그곳을 찾아가 보니, 갈홍천(葛洪川) 가에서 한 목동이 소 뿔을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나는 삼생석 위의 그 옛날 정혼이거니, 음풍농월하는 건 굳이 논할 것도 없네. 친한 벗이 멀리 찾아 주매 진정 부끄럽지만, 이 몸은 달라졌으나 본성은 그대로 있다오.〔三生石上舊精魂, 賞月吟風不要論. 慚愧情人遠相訪, 此身雖異性長存.〕"라고 하여, 서로 친구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감택요(甘澤謠)·원관(圓觀)》 '삼생석'은 곧 친구 간의 재회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작가인 전유형과 백진남이 그만큼 절친했다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120 명복을……썼다오 : '칠보당(七寶堂)'은 '칠보'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인데, 칠보는 불교의 극락 세상에 있는 진귀한 나무이다. 백진남이 죽어 극락세계로 갔다는 의미로 보인다.

121 일명(一名) : 과거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한 것을 말한다.

광주진병마첨절제사(廣州鎭兵馬僉節制使) 전유형(全有亨)[122]

-절하며 애도하다.-

그리움을 어떻게 달랬던가 戀嫽何曾釋
멀리에서 보낸 세월 아득해라 關河歲月遙
흉한 소식 듣고 옥 부서져[123] 놀랐는데 承凶驚玉折
멀리 떨어져 있어 넋만이 녹는구나 隔遠但魂消
세상 살면서 어려움 많이 겪었기에 世路多貽阻
저승에서 불렀단 말인가 泉閭有可招
푸른 산과 흐르는 물을 靑山與流水
이제부턴 뉘와 함께 읊조릴까 從此爲誰調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 한회(韓懷)[124]-삼가 애도하다.-

초성[125]의 맑고 야윔으로 세상 본보기 되었고 草聖淸癯作世規
새로운 읊조림도 훌륭했으니 어찌 시뿐이랴 新聲籍籍豈惟詩
어지러운 뜬구름의 변화 깨끗이 쓸어내고 掃除變化浮雲亂
기이한 철삭[126]의 엄정한 법도를 얻었다네 模得森嚴鐵索奇

---

122 전유형(全有亨) : 1566~1624.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숙가(叔嘉), 호는 학송(鶴松)이다.

123 옥 부서져 : 자세한 내용은 111쪽 주23 참조.

124 한회(韓懷) : 1550~1621.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민망(民望), 호는 태항(苔巷)이다.

125 초성(草聖) : 초서(草書)에 있어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백진남이 초서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기에 한 말이다.

그대 집안 어른과 갑을이 되노니[127] 與子家尊爲甲乙
종왕의 뒤에 이러한 사람 없다네 較鍾王後莫何誰
가련하다 비바람이 오늘 응당 그쳐서 可憐風雨今應歇
종이 위를 내달리는 교룡[128] 다시 볼 수 없노니 無復蛟龍紙上馳

일찍이 동어 차고[129] 낭주[130] 다스릴 때 曾佩銅魚宰朗州
옥천산에서 내려와 함께 맘껏 노닐었지 玉泉山下得遨遊
필법은 집안을 이은 것임 이미 알았지만 已知筆法承家世
다시 문장이 무리에서 뛰어남 깨달았네 更覺詞華出輩流
재주 있으나 명성 못 이룬 것은 본래 운명이요 才不登名元是命
어진 사람 장수하지 못했지만 종내 뉘 원망하랴 仁無遐壽竟誰尤
늘그막에 친한 벗들 많이도 죽었으나 老天好管多人死

---

126 철삭(鐵索) : 석고문(石鼓文)과 같은 고문자(古文字)로, 매끄럽고 꼿꼿한 필치를 형용한 말이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필법이 뛰어났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한유(韓愈)가 〈석고가(石鼓歌)〉에서 석고문의 글씨에 대해 "금줄 쇠사슬 얽어맨 듯 웅장하고, 옛 솥에 끓는 물인 듯 용으로 변해 날아간 북인 듯.〔金繩鐵索鎖紐壯, 古鼎躍水龍騰梭.〕"이라고 한 바 있다.

127 그대……되노니 : '위갑을(爲甲乙)'은 서로의 수준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라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아버지인 백광훈과 아들인 백진남의 필법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의미이다.

128 교룡(蛟龍) : 교룡필(蛟龍筆)의 준말로, 훌륭한 필체(筆體)를 가리킨다. 이한(李漢)이 지은 〈창려문집서(昌黎文集序)〉에서 한유의 문장에 대해 "기이하기로는 교룡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하고, 성대하기로는 범과 봉황이 뛰어노는 듯하다.〔詭然而蛟龍翔, 蔚然而虎鳳躍.〕"라고 한 바 있다.

129 동어(銅魚) 차고 : '동어'는 동어부(銅魚符)의 준말로, 수령이 차는 물고기 모양의 구리 부신(符信)이다. 조찬한은 1612년(광해군4)에 영암의 군수로 임명되었다.

130 낭주(朗州) : 전라남도 영암의 옛 이름이다.

늙은 어머니 흰머리로 곡하는 걸 어이 견디랴　可忍慈闈哭白頭[131]

통정대부(通政大夫) 분승정원승지(分承政院承旨) 지제교(知製敎)

조찬한(趙纘韓)[132]–절하며 곡하다.–

바다에서 난 아름다운 구슬 연성보다 가치 있어[133]　美珠生海價連城
서예가와 시인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명성 있었네　筆陣詩壇第一名
반평생 교제하면서 마음에 거스름이 없었기에　半世論交心莫逆
오늘 아침 만사 짓는데 눈물이 먼저 떨어지네　今朝題挽涕先橫
거친 산 어느 곳에 편안히 묻히시려나[134]　荒山何處安眞宅
남은 경사가 응당 후손에게 있으리라[135]　餘慶應知在後生
저승에서도 눈 감기 가장 어려우리니　最是九原難暝目
여든의 어머니와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이네　八旬慈母隔幽明

---

131 이 2수의 작품이 조찬한(趙纘韓)의 《현주집(玄洲集)》 권6에 〈挽白善鳴〉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32 조찬한(趙纘韓) : 1572~1631.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선술(善述), 호는 현주(玄洲)이다.

133 바다에서……있어 : '연성(連城)'은 연성벽(連城璧)의 준말이다. 《사기(史記)·인상여열전(藺相如列傳)》에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 때에 초(楚)나라 화씨(和氏)의 구슬〔璧〕을 얻었는데, 진 소왕(秦昭王)이 그 소문을 듣고 사람을 시켜 조왕(趙王)에게 편지를 보내어 열다섯 성(城)을 줄 터이니, 구슬을 양보하라고 했다."라고 했다. 그래서 뒤에 '연성벽'이라 칭하게 된 것이다. '바다에서 난 아름다운 구슬'은 바닷가인 해남에 살고 있는 백진남을 의미한다. 결국 백진남이 화씨벽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표현이다.

134 묻히시려나 : '진택(眞宅)'은 무덤을 말한다.

135 남은……있으리라 : '여경(餘慶)'은 선(善)을 쌓은 집안에는 자손에게까지 경사가 미친다라는 말이다. 《주역(周易)·곤괘(坤卦)》의 "덕행을 쌓은 집안은 자손에까지 경사가 미친다.〔積善之家, 必有餘慶.〕"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전행안동대도호부사(前行安東大都護府使) 고용후(高用厚)[136]

-곡하며 절하다.-

평생 의로움 행해 옥산에서 높았고	平生行義玉山高
한묵은 집안 이어 기세가 호방했네	詞翰承家氣勢豪
재주 명성 조화롭지 못해 하늘이 빨리도 앗아 가니	才命不諧天奪速
하늘의 보답을[137] 나는 신선에게 묻고자 하네	報施吾欲問仙曺

송호정 주변에서 꽃 보며 술 취했는데	松湖亭上醉花前
돌아보니 멋진 노닒 오 년이나 지났구나	回首淸遊已五年
세상 일이 지금은 한바탕 꿈이 되었노니	世事卽今成一夢
벗은 남쪽 보며 시냇물 가에서 곡하누나	故人南望哭臨川

통정대부(通訓大夫) 군자감정(軍資監正) 지제교(知製敎) 남이웅(南以雄)[138]-곡하며 애도하다.-

---

136 고용후(高用厚) : 1577~1652.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선행(善行), 호는 청사(晴沙)이다.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아들이다.

137 하늘의 보답을 : '보시(報施)'는 선인(善人)에게 복을 주고 악인(惡人)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하늘의 보답이라는 말이다.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백이열전(伯夷列傳)》에서 "백이(伯夷), 숙제(叔齊)와 안연(顔淵) 같은 선인은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도척(盜跖) 같은 악인은 천하를 횡행하며 오래 살다가 죽었으니, 그러고 보면 하늘이 선인에게 보답해 준 것이 어떻다고 하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연 천도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 통렬하게 물음을 던지는 대목이 나온다.

138 남이웅(南以雄) : 1575~1648.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적만(敵萬), 호는 시북(市北)이다.

호해에서 일찍이 백옥봉에 대해 들었는데　湖海曾聞白玉峯
맑은 시와 오묘한 필법의 높은 자취 이었다지　清詩妙墨繼高蹤
그대 과거급제 했으나 조금의 녹봉도 없었지만　君無寸祿霑科第
사람들 상자 가득 그대 글씨 있다오　人各盈箱玩筆鋒
가학을 오히려 남아 가업을 이었는데　家學尙留傳緖業
어머니께서 어찌 그 모습 다시 볼 수 있으랴　親闈寧復接聲容
송호 영락하게 되었으니 누가 조문할까　松湖泠落誰相問
봄 산의 무덤[139]만이 서글프구려　怊悵春山馬鬣封

창주도사(滄洲道士) 차운로(車雲輅)[140]-절하며 곡하다.-

여든 되신 어머니가 가장 슬퍼하노니　八十親年最可悲
정원 훤초[141] 주인 없어 풍수지탄[142] 위태롭네　庭萱無主樹風危
혜초 난초 같은 딸은 규중에서 빼어나고　蕙蘭一女閨中秀
난새 고니 같은 두 아들은 세상에 기이하네　鸞鵠雙男世上奇

---

139 무덤 : '마렵(馬鬣)'은 말갈기처럼 된 분묘(墳墓) 형태의 하나로, 보통 무덤을 의미한다.

140 차운로(車雲輅) : 1559~?.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만리(萬里), 호는 창주도사(滄州道士)이다. 차천로(車天輅)의 동생이다.

141 훤초(萱草) : 망우초(忘憂草) 또는 원추리라고 하는데, 모친을 상징하는 풀이다.

142 풍수지탄(風樹之嘆) : 어버이가 세상을 떠나 다시는 봉양할 수 없는 자식의 슬픔을 말한다. 공자(孔子)가 주(周)나라 구오자(丘吾子)에게 슬피 통곡하는 이유를 묻자, "나무가 조용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것은 세월이요, 다시 뵐 수 없는 것은 어버이이다.〔夫樹欲靜而風不停, 子欲養而親不待. 往而不來者年也, 不可再見者親也.〕"라고 대답하고는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풍수지탄'의 고사가 있다. 《공자가어(孔子家語) · 치사(致思)》

하포의 이내 노을은 이미 쓸쓸해졌고　荷浦烟霞已寂莫[143]
송호의 갈매기 해오라기 또한 함께 떠나갔네　松湖鷗鷺亦携離[144]
마음 기약은 도리어 뇌진[145]의 얕음 비웃었는데　襟期却笑雷陳薄
늙고 병든 지금까지 그대와 함께 슬퍼했지　衰疾從今與子悲[146]

어릴 적 훈지[147]처럼 형 동생이 되어　少日[148]壎篪結弟兄
일찍이 의기로 서로의 명성 알았다오　曾將意氣兩知名
귤옥[149]에서 맘껏 읊조리며 때로 술잔 재촉했고　狂吟橘屋時催鉢
송촌[150]에서 술 마시며 자주 술잔 기울였지　細酌松村屢促觥
병 속에서도 진정한 벗[151]으로 지냈으며　病裏可尋鷄黍約[152]

---

143 이 구절이 윤광계(尹光啓)의 《귤옥졸고(橘屋拙稿)》 〈만백선명(挽白善鳴)〉에는 '水榭烟霞空往返'이라 되어 있다.

144 이 구절이 윤광계의 《귤옥졸고》 〈만백선명〉에는 '野亭花竹自參差'로 되어 있다.

145 뇌진(雷陳) : 자세한 내용은 129쪽 주107 참조.

146 悲 : 윤광계의 《귤옥졸고》 〈만백선명〉에는 '期'로 되어 있다.

147 훈지(壎篪) : 형제 혹은 친구 사이의 화목과 조화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으로, 《시경(詩經)·하인사(何人斯)》의 "맏형은 훈을 불고 둘째 형은 지를 분다.〔伯氏吹壎, 仲氏吹篪.〕"라는 말에서 연유했다.

148 少日 : 윤광계의 《귤옥졸고》 〈만백선명〉에는 '早歲'로 되어 있다.

149 귤옥(橘屋) : 윤광계의 거처로 보인다.

150 송촌(松村) : 백진남이 거처했던 곳으로 보인다.

151 진정한 벗 : '계서(鷄黍)'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주어 죽음도 함께할 수 있는 참다운 벗을 말한다. 후한(後漢) 범식(范式)이 장소(張劭)와 헤어질 때, 2년 뒤 9월 15일에 시골집에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므로, 그날 장소가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놓고는〔殺雞作黍〕 기다리자 과연 범식이 찾아왔으며, 또 장소가 임종(臨終)할 무렵에, "죽음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벗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고 탄식하면서 숨을 거두었는데, 영구(靈柩)가 꼼짝하지 않다가 범식이 찾아와서 위로하자 비로소 움직였다는 고사가 있다. 《후한서(後漢書)·독행열전(獨行列傳)》

늙어 가매 교칠[153] 같은 마음만 간절했다오　　老來[154]徒切漆膠情
마음 만약 변한다면 하늘의 해가 있으리니　　寸心若變有如日
마침 영령 휘장 향해 이 정성 펼치노라[155]　　會向靈帷寫此誠[156]

조산대부(朝散大夫) 전행성균관직강(前行成均館直講)
지제교(知製敎) 윤광계(尹光啓)[157]-곡하며 애도하다.-

멋진 글과 오묘한 필법은 옛 가업 이은 것이요[158]　　詞華墨妙舊弓裘
맑은 자질의 자식들[159] 무리에서 뛰어나도다　　玉樹淸標逈絶儔
천 리 밖 신교로 꿈에서도 수고로웠는데　　千里神交勞夢想
하룻밤 찾아와 이불을 함께 덮었었지　　一宵來訪共衾裯
아 소식이 강수와 위수처럼[160] 끊어졌는데　　仍嗟音問違江渭
어찌 삶을 골짜기 배에 둘 줄을 알았으랴[161]　　寧識生涯付壑舟

---

152 이 구절이 윤광계의 《귤옥졸고》 〈만백선명〉에는 '靑眼未尋鷄黍約'으로 되어 있다.

153 교칠 : 위 109번 각주 참조.

154 老來 : 윤광계(尹光啓)의 《귤옥졸고》 〈만백선명〉에는 '白頭'로 되어 있다.

155 이 구절이 윤광계의 《귤옥졸고》 〈만백선명〉에는 '淚落銀河一派傾'으로 되어 있다.

156 이 두 작품이 윤광계의 《귤옥졸고》에 〈만백선명〉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57 윤광계(尹光啓) : 1559~1619.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경열(景說), 호는 귤옥(橘屋)이다.

158 옛 가업 이은 것이요 : 자세한 내용은 110쪽 주21 참조.

159 자식들 : 자세한 내용은 120쪽 주65 참조.

160 강수와 위수처럼 : 자세한 내용은 108쪽 주8 참조.

161 어찌……알았으랴 : '부학주(付壑舟)'는 골짜기에 배를 붙여 둔다는 말로, 《장자(莊子)·대종사(大宗師)》의 "골짜기 속에 배를 숨겨 두고 산을 못 속에 숨겨 두면 안전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한밤중에 힘센 자가 등에 지고 달아나도 어리석은 사람은 알아채지를 못한다.〔夫藏舟於壑, 藏山於澤, 謂之固矣. 然而夜半有力者, 負之而走, 昧者不知也.〕"라고 한 구절에서 연유했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이 죽었다는 의미이다.

서글퍼라 송호의 남은 풍경들 속에서　　怊悵松湖餘物色
지금 누가 다시 풍류를 맡을지　　祗今誰復管風流[162]

동갑인 벗 전성균관직강(前成均館直講) 현덕승(玄德升)[163]

-멀리서 곡하다.-

세상 도리는 날로 어그러진 채　　世道日交喪
거세게 말속으로 치달아 가네　　汩汩趨末俗
누가 옛사람과 더불어 사귀었나　　孰竝古人交
나만이 겨우 그대를 보았다네　　纔看君我獨
예전부터 먼저 나를 좋아해 주었고　　懽好自故[164]先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정성스러웠지　　款愛彌悃愊
그 옛날 북쪽 거리에 살 적에　　疇昔處北巷
그대 거처와는 내 집과 이웃했지　　君廬比我屋
추녀와 섬돌이 너무 가까워　　軒階咫尺地
매우 좁아서 발 디딜 곳도 없었네　　窄甚不容足
이에 그대는 집 능히 허물어　　君能廢其宅
내가 꽃과 나무 심게 해 주었네　　供我栽花木
내가 이에 그 뜻에 감동하여　　我乃感其意
인왕상의 기슭 땅 빌려 주었지　　貸地仁王麓
멋진 정원 본래 확 트였으며　　名園本爽塏

---

162 이 작품은 현덕승(玄德升)의 《희암유고(希菴遺稿)》에는 실려 있지 않다.

163 현덕승(玄德升) : 1564~1627.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문원(聞遠), 호는 희암(希菴)이다.

164 故 : 조희일(趙希逸)의 《죽음집(竹陰集)》 〈挽白善鳴【振南】〉에는 '古'로 되어 있다.

깊을 골짝 여울물 요란했다오 深谷喧湍瀑
따르는 것도 또한 가까워 편했기에 追從亦便近
신 싣고 지팡이 짚은 채 왕래할 만했네 杖屨可往復
작년에 갑자기 유배를 가서[165] 年前忽被譴
변방에서 고향길이 막히었다네 塞路阻鄉國
외람되어 천 리 밖으로 편지 보내왔는데 尺札枉千里
고뇌 어린 말 읽을 수가 없었다네 苦語不堪讀
동쪽으로 옮겨 와[166] 다행히 서로 보게 되었노니 東遷幸相望
훤칠한 그대 모습 내 눈에 선했다오 眉宇在我目
편지 보내 이별 회포 하소연했었고 寄書訴離懷
바야흐로 장차 답장이 오길 기다렸다네 方將待回覆
그대에게 병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는데 一病亦未聞
어이하여 갑자기 그리 떠나갔는가 如何遽無祿
오래되었구나 하늘의 이치 어긋난 지 久矣天理乖
선한 자에게 복을 내리지 않노니 善者不以福
난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我齒尙未老
좋은 벗들에 연이어 곡을 하누나 良朋相繼哭
그대는 반백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子當半百年
세상 싫어 어찌 그리 빨리 가시었나 厭世胡大[167]速

---

165 작년에……가서 : 조희일(趙希逸)이 1617년(광해군9) 1월에 양사(兩司)의 논계로 인하여 평안도 이산(理山)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일을 말한다.

166 동쪽으로 옮겨 와 : 조희일이 1618년 9월에 평안도 이산에서 경산도 하동(河東)으로 이배(移配)된 것을 말한다.

167 大 : 조희일의 《죽음집》 〈挽白善鳴【振南】〉에는 '太'로 되어 있다.

남긴 두 자식이 애사 요청하려　　兩孤乞哀詞
울부짖으며 하인을 보내었다네　　悲號走一僕
참으로 친한 벗 죽었다고 여기지 않노니　　眞知不死親
그 마음 저승에까지 돈독함 미치리라　　意[168]及幽明篤
한 구절 지을 때마다 한 줄기 눈물로　　一句淚一行
글자 젖어 획을 이루지 못하누나　　字濕不成畫
흰머리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　　鶴髮在高堂
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비통하네　　念此腸逾毒
굳센 필력은 금젓가락 꺾을 정도였고　　勁筆折金筯
청아한 시는 곤산 옥 깎은 듯했네　　淸詩削昆玉
남긴 자취는 인간 세상에 빛나는데　　遺跡[169]賁人寰
외론 봉분은 아득히 바다 구석에 있네　　孤墳邈海曲
물고기 배 속에 장사 지내는 것 면했으니　　餘生免葬魚
마른 풀 안고 복부[170]를 베끼려네　　枯抱寫賦鵬
옛 정원은 잡초에 온통 뒤덮였고　　故園儘蕪沒
봄 깊자 토규[171]만이 푸르구나　　春深菟葵綠

---

168 意 : 조희일의 《죽음집》 〈挽白善鳴【振南】〉에는 '義'로 되어 있다.

169 跡 : 조희일의 《죽음집》 〈挽白善鳴【振南】〉에는 '迹'으로 되어 있다.

170 복부(賦鵬) : 한 문제(漢文帝) 때 가의(賈誼)가 권신의 배척을 받아 장사왕(長沙王) 태부(太傅)로 좌천되어 귀양 갔을 적에, 불길한 새로 여겨지는 올빼미〔鵩鳥〕 한 마리가 집으로 날아든 것을 보고는 자신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느끼면서 〈복조부(鵩鳥賦)〉를 지은 바 있다. 《한서(漢書)·가의전(賈誼傳)》

171 토규(兎葵) : 야초(野草)로 보통 가슴 아픈 황량한 정경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당(唐)나라 유우석(劉禹錫)의 〈재유현도관절구(再遊玄都觀絶句)〉의 해설에 "지금 14년 만에 다시 현도(玄都)를 거닐어 보니, 옛날 도사가 심었다는 선도(仙桃) 나무는 한 그루도 남아 있지 않고, 오직 토규와 연맥(燕麥)만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이웃 되어 살려던 계획 허무해졌으니 蕭條作隣計
다시 다음 생에 함께하길 바라오 更待他生卜[172]

기미년(1619, 광해군11) 2월 15일, 청하현(淸河縣) 하동성(河東城) 서편에서 유배 중인[173]-조희일(趙希逸)[174]- 쓰다. 혼령을 번거롭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반드시 앎이 있으리라. 이에 통곡하고 절하며 쓰다.

휘양관에서 서로 만나-휘양관은 광양에 있다.- 邂逅輝陽館-光陽-
시 논하면서 함께 취해 잠들었었지 論詩共醉眠
타향에서 옛 벗을 만났는데 他鄕逢故友
한 번 이별에 저승으로 가시었네 一別隔重泉
종왕의 글씨 어찌 차마 볼거나 忍見鍾王字
산수의 거문고[175] 타지 마시게 休彈山水絃
평생 진중했던 마음에 平生珍重意

있을 따름이었다."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172 이 작품은 조희일의 《죽음집》 권9에 〈挽白善鳴【振南】〉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73 유배 중인 : '천극중(栝棘中)'은 집 밖에 가시울타리를 친다는 뜻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된 것을 말한다.

174 조희일(趙希逸) : 1575~1638.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이숙(怡叔), 호는 죽음(竹陰) 또는 팔봉(八峰)이다.

175 산수의 거문고 : '산수현(山水絃)'은 고산유수곡(高山流水曲)을 말한다. 《열자(列子)·탕문(湯問)》에 "백아(伯牙)는 금(琴)을 잘 탔고 종자기(鍾子期)는 소리를 잘 들었다. 백아가 금을 타면서 뜻이 높은 산에 있으면 종자기가 말하기를, '좋구나 아아(峨峨)하기 태산(泰山)과 같구나.'라고 하고, 뜻이 흐르는 물에 있으면 종자기가 말하기를, '좋구나 양양(洋洋)하기 강하(江河)와 같구나.'라고 했다. 그 뒤에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다시는 금을 타지 않았다."라고 했다.

슬피 울면서 남쪽 하늘 바라보노라 痛哭望南天

진사로 명성이 두터웠으며 進士聲名重
혼탁한 세상의 어진 인재였네 翩翩濁世賢
인간 세상에선 초성[176]을 이었는데 人間傳草聖
천상에선 시선을 재촉했구나[177] 天上促[178]詩仙
높은 의리는 층층 구름까지 닿았고 高義層雲薄
맑은 의표는 옥거울[179]에 걸리었었지 淸標玉鏡懸
이제부터 사한에 끊어지게 되었으니 從今詞翰絶
이 조선 땅이 적막하게 되었네 寂寞此朝鮮[180]

한양(漢陽)의 현곡후인(玄谷後人) 조위한(趙緯韓)[181]-곡하며 애도하다.-

---

176 초성(草聖) : 당(唐)나라의 명필(名筆)인 장욱(張旭)을 말한다. 장욱이 너무도 술을 좋아한 나머지 매번 크게 취할 때마다 미친 듯 부르짖으며 질주하다 붓을 휘갈기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먹물에 적셔서 쓰곤 하였으므로, 세상에서 그를 '장전(張顚)'이라고 불렀는데, 장욱 자신이 술에서 깨어난 뒤에 다시 그와 같은 신필(神筆)을 시도해 보려고 해도 잘되지 않았다는 고사가 있다. 《신당서(新唐書)·장욱열전(張旭列傳)》 여기에서는 백진남을 장욱에 견주었다.

177 천상에선 시선(詩仙)을 재촉했구나 : 자세한 내용은 111쪽 주29 참조.

178 促 : 조위한(趙緯韓)의 《현곡집(玄谷集)》 권3 〈挽松湖白善鳴【振南】〉에는 '返'으로 되어 있다.

179 옥거울 : '옥경(玉鏡)'은 옥으로 만든 거울로 밝은 달을 비유한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인품을 밝은 달에 비유한 것이다.

180 이 작품은 조위한의 《현곡집》 권3에 〈挽松湖白善鳴【振南】〉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81 조위한(趙緯韓) : 1567~1649.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지세(持世), 호는 현곡(玄谷)이다.

전날 밤 강호를 바라다보니 江湖前夜望
달이 소미성을 범했다네[182] 月犯少微星
죽고 살아 우리 도 상심하면서 存沒傷吾道
문장의 전형을 생각하였네 文章憶典刑
붓 묻었던 무덤[183]에서 풀 돋아나고 草生埋筆塚
거위와 바꾼 경[184]은 먼지에 뒤덮였네 塵暗換鵝經
홀로 산양의 눈물[185]을 흘리면서 獨有山陽淚
자리 빙 두른 병풍을 새로 적신다네 新霑遶座屛[186]

남리(南利)에서 쓰는데, 남리는 해남(海南) 지역의 역(驛) 이름이다. 마침 백진남 공의 묵적(墨蹟)이 병풍에 있었기에 정회를 감당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행사직(行司直) 이민구(李敏求)[187] -절하며 애도하다.-

---

182 달이 소미성(少微星)을 범했다네 : 자세한 내용은 113쪽 주38 참조.

183 붓 묻었던 무덤 : 자세한 내용은 131쪽 주117 참조.

184 거위와 바꾼 경 :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을 가리킨다. 진(晉)나라 명필 왕희지(王羲之)가 거위를 매우 좋아해 도사(道士)의 집에 거위가 있음을 알고 갖고 싶어 하자, 도사가 "《도덕경》을 써 주면 거위를 주겠노라."라고 하니, 왕희지가 마침내 《도덕경》을 써 주고 그 거위를 가져갔다. 《진서(晉書)·왕희지열전(王羲之列傳)》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글씨가 뛰어났다는 의미이다.

185 산양(山陽)의 눈물 : 세상을 떠난 벗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을 말한다. 진(晉)나라의 상수(向秀)가 혜강(嵇康)·여안(呂安)과 산양이란 곳에서 함께 살며 서로 가까이 지냈는데 두 벗이 죽은 뒤 산양의 옛터를 지나다가 이웃 사람이 부는 처량한 피리 소리를 듣고, 옛날에 벗들과 함께 놀던 일을 생각하여 죽은 두 벗을 위하여 〈인적부(隣笛賦)〉를 지었다는 고사가 있다. 《진서(晉書)·상수열전(向秀列傳)》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죽음에 이민구(李敏求)가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이다.

186 이 작품은 이민구(李敏求)의 《동주집(東州集)》에 실려 있지 않다.

187 이민구(李敏求) : 1589~1670.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州)·관해(觀海)이다.

연원은 향산[188] 이어 성정을 쏟아내었고　　泒接香山瀉性情
집안에 전해진 한묵으로 명성을 이었다네　　家傳翰墨繼名聲
세상에선 경수[189]가 비록 이어 나왔다고 하는데　　世間瓊樹雖連出
천상의 옥 누대를 어느 곳에 만들었나[190]　　天上玉樓何處成
못 보겠어라 어머니 흰머리로 계시는 걸　　不忍庭闈鶴髮在
못 견디겠어라 병풍에 있는 멋진 글씨를[191]　　那堪屛障鳳毛明
가을의 닭과 기장의 좋은 기약 얼마나 저버렸나　　佳期幾負秋鷄黍
백마 타고 온 범거경에게 지금 부끄러워라[192]　　白馬今慙范巨卿

통훈대부(通訓大夫) 광주제독관(光州提督官)

홍천영(洪千璟)[193]-곡하며 애도하다.-

세상 있던 일 꿈처럼 뒤집히어　　在世翻如夢

---

188 향산(香山) : 당(唐)나라의 시인인 백거이(白居易)를 말한다. 백거이는 당 무종(唐武宗) 때에 형부 상서(刑部尙書)로 있다가 치사(致仕)한 뒤에 향산으로 들어가서 향산거사(香山居士)라고 자호하고는 승려 여만(如滿) 등과 함께 향화사(香火社)를 결성하고 만년을 보냈던 고사가 전한다. 《구당서(舊唐書)·백거이열전(白居易列傳)》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백(白)'과 백거이의 '백(白)'이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백진남을 백거이에 견준 것이다.

189 경수(瓊樹) : 자세한 내용은 120쪽 주65 참조.

190 천상의……만들었나 : 자세한 내용은 111쪽 주29 참조.

191 글씨를 : '봉모(鳳毛)'는 부조(父祖)처럼 뛰어난 재질을 소유한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다. 진(晉)나라 왕도(王導)의 아들 왕소(王劭)에 대해서, 환온(桓溫)이 "봉황의 터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당연하다.〔固自有鳳毛〕"라고 찬탄했던 고사가 전한다. 《세설신어(世說新語)·용지(容止)》 여기에서는 아버지인 백광훈을 이어 뛰어난 필체를 발휘했던 백진남의 글씨를 의미한다.

192 가을의……부끄러워라 : 자세한 내용은 138쪽 주152 참조.

193 홍천영(洪千璟) : 1553~1632.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군옥(群玉), 호는 반항당(盤恒堂)이다.

이 사람이 또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194] 斯人又至斯
영락한 채 나그네로 있으면서 飄零爲客處
서글피 그대 위해 곡을 한다오 悽愴哭君時
슬픔 참으며 슬픈 만사를 쓰노니 尙忍題哀挽
더욱 옛 모습이 생각나누나 尤感憶舊儀
난정의 비단첩을[195] 蘭亭繭紙帖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으랴 何路更看之[196]

임숙영(任叔英)[197]-곡하며 애도하다.-

집안 대대로 청진함은 우군[198]과도 같아 家世淸眞等右軍
비단 터럭 붓 휘두르면 이내 안개 일어났네 綵毫揮處落烟雲
홍련 녹수[199]의 막부에서 시를 읊조렸고 紅蓮綠水吟詩幕

---

194 이 사람이……이르렀구나 : 이 구절은 《논어 · 공야장(公冶長)》의 "군자답구나, 이 사람이여.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덕을 취하였겠는가.〔君子哉, 若人. 魯無君子者, 斯焉取斯.〕"라고 한 구절을 변용하여 활용한 것이다. '사인(斯人)'은 백진남을 말하고 '지사(至斯)'의 '사(斯)'는 죽었다는 의미이다.

195 난정의 비단첩을 : '견지(繭紙)'는 비단 종이〔繭紙〕를 말하고 '난정밀지첩(蘭亭繭紙帖)'은 비단 종이에 쓴 동진(東晉)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첩(蘭亭帖)을 말한다. 왕희지가 3월 3일에 벗들과 더불어 난정(蘭亭)에서 모여 놀고 각각 시(詩)를 짓고 자신이 서문(序文)을 지어 그의 득의한 글씨를 서수필(鼠鬚筆)로 비단 종이에 쓴 것이 바로 난정첩이다.

196 이 작품은 임숙영(任叔英)의 《소암집(疎菴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197 임숙영(任叔英) : 1576~1623. 본관은 풍천(豊川), 초명은 상(湘), 자는 무숙(茂淑), 호는 소암(疎庵) 또는 동해산인(東海散人)이다.

198 우군(右軍) : 자세한 내용은 112쪽 주34 참조.

199 홍련(紅蓮) 녹수(綠水) : 막부(幕府)의 종사관을 지칭한다. 남조(南朝) 제(齊)의 왕검(王儉)이 위군 장사(衛軍長史)로 있을 때 그 휘하에 인재들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곳을 부용지(芙蓉池)라고 일컬었다. 당시 문명(文名)을 떨치던 유고

옥검 금니[200]의 덕 칭송하는 글 지었었지　　玉檢金泥頌德文
인간 세상 주막에서 한 꿈을 이루노니[201]　　酒肆人間成一夢
무의의 당상에선 서녘으로 해 지는구나[202]　　舞衣堂上迫西曛
천 리 밖으로 글 보내며 강 가에서 곡하노니　　緘辭千里臨江哭
양흔의 흰 비단 바지[203]가 눈물에 젖누나　　淚濕羊欣白練裙[204]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충좌위(行忠佐衛) 사과문(司果文)
겸선전관(兼宣傳官) 고부천(高傅川)[205]-곡하며 애도하다.-

남극의 문창성이 자원에 진동했고[206]　　南極文星動紫垣[207]

지(庾杲之)가 그 막부로 들어가자, 소면(蕭緬)이 "유경행이 푸른 물에 둥둥 떠서 연꽃을 의지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庾景行泛滄水, 依芙蓉, 何其麗也.〕"라고 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경행(景行)은 유고지의 자(字)이다. 《남제서(南齊書)·유고지열전(庾杲之列傳)》

200 옥검(玉檢) 금니(金泥) : '옥검'은 옥첩(玉牒), 옥책문을 넣은 옥함(玉函)이며, '금니'는 아교를 섞은 금분(金粉)으로 왕사(王事)에 관한 귀중한 글을 봉(封)하는 데 사용되었다.

201 인간 세상……이루노니 : 백진남이 타향에서 죽었다는 의미이다.

202 무의(舞衣)의……지는구나 : 자세한 내용은 108쪽 주7 참조.

203 양흔(羊欣)의 흰 비단 바지 : 양흔은 남조(南朝)의 유명한 서예가이다. 어느 날 하얀 바지〔白練裙〕를 입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평소 그를 아끼던 서예의 대가 왕헌지(王獻之)가 와서 보고는 하의에 글씨 몇 폭을 써 주고 갔다. 양흔이 잠에서 깨어 그 글씨를 보고 서법을 익혀 글씨가 더욱 정교해졌다고 한다. 《남사(南史)·양흔열전(羊欣列傳)》

204 이 작품은 고부천(高傅川)의 《월봉집(月峯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205 고부천(高傅川) : 1578~1636.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군섭(君涉), 호는 월봉(月峯)이다. 고경명(高敬命)의 손자이다.

206 남극(南極)의……진동했고 : '남극'은 남쪽이라는 의미로, 백광훈이 해남에 거주했기에 한 말이다. '문성(文星)'은 문창궁(文昌宮)의 여섯 별 가운데 네 번째의 별로, 문창성(文昌星) 또는 문곡성(文曲星)으로 불리기도 하며, 문재(文才)를 주

훌륭한 아비[208]의 시 모든 사람 칭송했다오　大爺[209]詞翰萬人喧
천리마[210] 내달리면 천 리를 갈 수 있는데　驊騮墮地能千里
난새 학 타고 하늘 올라 이미 저승 갔다오　鸞鶴昂霄已九原
옥판과 금서는 세상에 알리어졌는데　玉[211]版金書懸日月
지는 꽃 날리는 눈이 천지에 가득하여라　落花飛雪滿乾坤
희헌[212]만이 신묘한 필법 전했다 하지 마소　休誇羲獻傳神妙
그대 집안에 전해지는 것과 우열 다투리니　爭似君家祖子孫[213]

연안(延安) 이명한(李明漢)[214]-절하며 곡하다.-

백자가 남곽에 묻히노니　白子埋南郭
저승 가는 길 바닷가로 들어가네　泉程入海斜
강호의 지사들은 눈물을 흘리고　江湖志士涕
비바람도 고인 때문에 탄식하네　風雨故人嗟

관하는 별이라고 한다. '자원(紫垣)'은 자미원(紫微垣)의 약칭으로 천자(天子)가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궁궐의 의미이다.

207 紫垣 : 이명한(李明漢)의《백주집(白洲集)》권7〈挽白進士【振南】〉에는 '海門'으로 되어 있다.

208 훌륭한 아비 : '대야(大爺)'는 백진남의 아버지인 백광훈을 말한다.

209 大爺 : 이명한의《백주집》권7〈挽白進士【振南】〉에는 '玉峯'으로 되어 있다.

210 천리마 : '화류(驊騮)'는 대추 빛깔의 준마(駿馬)로 보통 천리마를 가리킨다.

211 玉 : 이명한의《백주집》권7〈挽白進士【振南】〉에는 '寶'로 되어 있다.

212 희헌(羲獻) : 진(晉)나라의 명필 왕희지(王羲之)와 그의 아들 왕헌지(王獻之)를 말한다.

213 이 작품은 이명한의《백주집》권7에〈挽白進士【振南】〉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14 이명한(李明漢) : 1595~1645.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천장(天章), 호는 백주(白洲)이다.

큰 그릇 끝내 오래 살지 못했으니 大器終無命
뜬 인생 정말로 끝이 있구나 浮生正有涯
높은 의기는 하늘에 치솟았고 軒昂高意氣
글은 성대하여 쇄락함 있었지 洒落盛文華
오묘한 필법은 선대의 업적을 따랐고 妙筆追先業
청아한 풍모는 그대 집에 있었다오 淸風屬乃家
기린 같은 좋은 자식이 있어 麒麟仍好子
난초 혜초 같은 향기 풍기었다네 蘭蕙有芳芽
남국에서 명성을 떨치었고 南國聲名擅
동산에서의 흥취는 대단했다오 東山逸趣賒
평생 좋은 벗이었던 그대 平生良友是
이날 날 버리고 멀리 갔어라 此日棄余遐
상자에는 남긴 글이 많이 있고 篋笥餘遺草
지대[215]에는 절로 꽃이 떨어지누나 池臺自落花
새끼 제비의 그림자는 차가웁고 影寒新乳鷰
옛 어미 까마귀의 울음 서글퍼라[216] 聲愴舊慈鴉
저승은 글 전하기엔 너무 멀기만 하고 地府脩文遠
어머니 봉양하는 일[217]도 어긋났구나 高堂色養差

---

215 지대(池臺) : 자세한 내용은 130쪽 주110 참조.

216 새끼……서글퍼라 : '신유연(新乳鷰)'은 갓 태어난 새끼 제비로,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자식을 말한다. '구자아(舊慈鴉)'는 오래된 자애로운 까마귀로,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어머니를 말한다.

217 봉양하는 일 : '색양(色養)'은 《논어·위정(爲政)》의 "부모님의 얼굴빛은 온화하게 하기 어렵다.〔色難〕"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얼굴빛을 화열(和悅)하게 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것, 혹은 부모님의 안색을 맞춰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처량하구나 몸 죽은 뒤의 일이여　凄涼身後事
외론 봉분 잔 노을이 뒤덮었어라　孤塚帶殘霞

함평(咸平) 후인(後人) 영양(盈陽) 이경원(李敬元)이 금릉(金陵)에 있으면서 슬퍼하고 곡하며 써 보내다.

멋진 선비 남쪽 지방에서 태어나　秀士生南紀
조정에서 장대한[218] 모습 드러내었지　魁梧廊廟姿
청아한 시는 진실로 이백[219]이었고　淸詩眞白也
신묘한 필법은 작은 왕희지였지　妙筆小羲之
단혈[220]의 봉황 새끼 모두 훌륭했었고　丹穴雛皆好
반의의 춤[221] 또한 기이했다오　斑衣舞亦奇
갑자기 옥 같은 나무 부러져[222]　無端摧玉樹
천 리 밖에서 곡하며 글 보내네　千里哭緘辭

영성(寧城) 후인(後人) 엄성(嚴惺)[223]-절하며 애도하다.-

---

218 장대한 : '괴오(魁梧)'는 몸이 장대한 것을 말한다. 한 고조(漢高祖)의 모신(謀臣) 장량(張良)의 봉호이다.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이 장량을 평한 "나는 그가 아주 장대하고 뛰어난 인물인 줄로 알았는데, 뒤에 그의 초상을 보니 그의 상모가 마치 부인, 미녀와 같이 생겼더라.〔余以爲其人計魁梧奇偉, 至見其圖, 狀貌如婦人好女.〕"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사기(史記)·유후세가(留侯世家)》

219 이백(李白) : 당(唐)나라 시인인 이백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을 이백에 견준 것이다.

220 단혈(丹穴) : 전설 속의 산 이름으로, 이곳에 오색영롱한 봉황새가 산다고 한다. 《산해경(山海經)·남산경(南山經)》

221 반의의 춤 : 자세한 내용은 108쪽 주7 참조.

222 갑자기……부러져 : 자세한 내용은 111쪽 주23 참조.

223 엄성(嚴惺) : 1575~1628. 본관은 영월(寧越), 자는 경보(敬甫), 호는 동강(桐江)이다.

나라에서 영기(靈氣) 환하여 國朝炳靈
시로써 명성을 날린 이로 詞匠輩英
최경창과 백광훈이 있어 有崔有白
마음을 갈고 닦았다오 鉥心鉤情
시로써 명성을 다투어 爭以詩鳴
쇠와 옥을 다듬는 듯했지 舂金撼玉
맹교 가도[224]와 명성 나란했었고 郊島齊聲
종왕의 향기 전했었지 鍾王傳芳
집안의 난새 고니로 칭송되었고 稱家鸞鵠
필묵은 즐비한 병사였다오 筆陣墨兵
날뛰는 교룡과 춤추는 봉황이[225] 蛟躍鳳蹌
흩어져 금석에 새겨져 있네 散在金石
바로잡아 쓴 글씨[226]와 늙은 등나무[227]도 敗素古藤

---

224 맹교 가도 : '맹교(孟郊)'는 당(唐)나라 때의 시인으로, 그의 시어(詩語)가 청산한 수(淸峭寒瘦)하기에 이렇게 부른다. '가도(賈島)'는 당(唐)나라 때의 시승(詩僧)으로 뒤에 환속(還俗)은 했으나 평생 그지없이 곤궁했고 또는 곤궁한 사상의 시를 짓기로도 유명했다. 소식(蘇軾)이 당나라 시인을 평하면서 〈제유자옥문(祭柳子玉文)〉에서 "원진(元稹)은 가볍고 백거이(白居易)는 속되며, 맹교의 시는 한산(寒酸)하고 가도는 앙상하다.〔元輕白俗, 郊寒島瘦.〕"라고 한 바 있다.

225 날뛰는……봉황이 : 필법(筆法)을 묘사한 말이다.

226 바로잡아 쓴 글씨 : '패소(敗素)'는 제자패소(齊紫敗素)의 준말이다. 제(齊)나라의 명산물인 자색 비단은 한 번 사용한 흰 비단을 다시 염색한 것이라는 뜻이다. 보통 실패를 뒤집어 성공으로 바꾸는 것 혹은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의미로 쓰인다. 《전국책(戰國策)》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27 늙은 등나무 : 황정견(黃庭堅)의 〈기하방회(寄賀方回)〉에 진소유(陳少游)의 죽음을 슬퍼하며 "소유가 술 취해 늙은 등나무 아래 누웠으니, 다시는 시름겨운 눈썹으로 술 한 잔을 권할 이 없구나. 강남의 단장구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은, 지금은 오직 하방회가 있을 뿐일세.〔少游醉臥古藤下, 無復愁眉唱一盃. 解作江南斷腸句,

그 가치는 금덩이보다 귀하다오 價越金嬴
사람들 보물처럼 귀중히 여기면서 人重珙璧
반평생 그것을 즐긴다네 娛嬉半生
부귀를 구름처럼 가볍게 보고 富貴雲輕
물가에서 문 닫아걸었지 杜門湖曲
한 번도 명성 이루지 못했는데 一名未成
연이어 병[228]이 그 몸 덮쳤지 二豎交嬰
나이 겨우 쉰인데 年纔半百
서쪽으로 해가 기울려 하네 西日將傾
옛 대나무는 부질없이 푸르고 舊筍空青
살고 죽음에 서글프기만 해라 存亡悽惻
짧은 등잔걸이는 먼지에 묻히고 塵埋短檠
너른 뜨락은 잡초가 뒤덮었다네 草沒脩庭
이로부터 도서는 쓸쓸해졌고 圖書寂莫
비는 붉은 명정을 적시누나 雨濕丹旌

只今惟有賀方回.〕"라고 했다. 《시인옥설(詩人玉屑)》 소유(少游)는 송나라 진관(秦觀)의 자이다. 그가 처주(處州)에 좌천되어 있을 때 꿈속에서 지은 장단구(長短句)에 "술 취해 등나무 그늘 아래 누웠노라니, 동서남북 방위를 도무지 모를레라.〔醉臥古藤陰下, 了不知南北.〕"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후 등주에 머물 때 광화정(光華亭)에서 취해서 자다가 일어나 옥사발로 샘물을 떠서 마시고는 웃으면서 죽었다 한다. 즉 꿈속의 등나무가 등주를 뜻했던 것이다. 《영재야화(冷齋夜話)》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시 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28 병(病) : '이수(二竪)'는 병마(病魔)의 별칭이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경공(景公)의 꿈에 병마가 두 아이〔二竪〕의 모습으로 나타나 고황(膏肓) 사이에 숨는 바람에 끝내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10년조에 보인다.

한낮에도 무덤[229]에 갇혀 있어 晝閉佳城
유명 간에 영원히 떨어지게 되었네 幽明永隔
이 게으른 저를 돌아보건대 顧此乖慵
그대는 등용문[230] 가운데 옥이었네 登龍間瓊
아 예전부터[231] 嗚自誰昔
부고 들으면 마음 놀랐다오 聞訃魂驚
짧은 글에 정성을 담아 短詞寫誠
이로써 제물[232]을 대신하네 用代蒭束[233]

오천(烏川) 정홍명(鄭弘溟)[234]-절하며 쓰다.-

---

229 무덤 : '가성(佳城)'은 무덤을 뜻한다. 한나라 등공(滕公)이 말을 타고 가다가 동도문(東都門) 밖에 이르자 말이 울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발로 오랫동안 땅을 구르기에 사졸(士卒)을 시켜 땅을 파 보니, 깊이 석 자쯤 들어간 곳에 석곽(石槨)이 있고 거기에 "가성이 울울(鬱鬱)하니, 3천 년 만에 해를 보도다. 아, 등공이여, 이 실(室)에 거처하리라."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한다. 《서경잡기(西京雜記)》

230 등용문(登龍門) : 후한 환제(桓帝) 때에 이응(李膺)을 경모하는 선비들이 그의 집 마루에 올라가기만 해도 '용문에 올랐다〔登龍門〕'면서 영광으로 알았던 고사가 있다. 《세설신어(世說新語)·덕행(德行)》

231 예전부터 : '수석(誰昔)'은 예전부터라는 말이다. 이때 '수(誰)'는 발어사(發語詞)이다. 《시경·묘문(墓門)》의 "알면서도 막지 못하니, 예전부터 그러했다오.〔知而不已, 誰昔然矣.〕"라는 구절에 대해 주희(朱熹)는 《시경집전(詩經集傳)》에서 "'수석(誰昔)'은 석(昔)으로 예전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한 바 있다.

232 제물(祭物) : '추속(蒭束)'은 조제(弔祭)의 예물을 뜻한다. 후한(後漢)의 고사(高士)인 서치(徐穉)가 매우 가난하여 곽임종(郭林宗)의 어머니 상(喪)에 조문하러 가서 풀 한 다발을 집 앞에 두고 상주(喪主)를 보지 않은 채 돌아왔다는 데서 유래했다. 《후한서(後漢書)·서치열전(徐穉列傳)》

233 이 작품은 정홍명(鄭弘溟)의 《기암집(畸庵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234 정홍명(鄭弘溟) : 1582~1650.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자용(子容), 호는 기암(畸庵) 또는 삼치(三癡)이다. 정철(鄭澈)의 아들이다.

백옥봉의 명성을 이었으며 白玉峯名胤
청련[235]이 떠난 후의 자태였다오 青蓮去後姿
두륜산으로 원기가 돌아오니[236] 頭輪元氣返
창해의 사람들 슬퍼하누나 滄海幾人悲
종왕의 필법 허무하게 끊어졌고 蕪絶鍾王筆
맹가[237]의 시도 서글프기만 해라 凄涼孟賈詞
하늘에 닿을 남은 한이 있노니 窮天有遺痛
어머니 문에 기대어 있다네[238] 慈母倚門時

가풍은 오동나무와 대나무요 家韻梧兼竹
선풍은 봉황에 난새였다오[239] 仙風鳳帶鸞
외론 혼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 孤魂已天上
남긴 명성만 인간 세상에 떨어지네 餘響落人間
밤 비 소리를 어찌 들을 수 있으랴 夜雨何堪聽

---

235 청련(靑蓮) : 청련거사(靑蓮居士)의 약칭으로, 이백(李白)의 별호(別號)이다.

236 두륜산(頭輪山)으로 원기가 돌아오니 : '두륜산'은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삼산면・현산면의 경계에 있는 대둔산(大屯山)을 말한다. '원기가 돌아오니'라는 말은 죽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말이다.

237 맹가(孟賈) : 자세한 내용은 112쪽 주30 참조.

238 어머니……있다네 : 자세한 내용은 130쪽 주112 참조.

239 가풍은……난새였다요 : 훌륭한 자제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한유(韓愈)의 〈전중소감마군묘명(殿中少監馬君墓銘)〉에서 "물러나 소부(少傅)를 뵈니, 푸른 대나무와 푸른 오동나무에 난새와 고니가 우뚝이 멈추어 서 있는 듯하였으니, 능히 그 가업을 지킬 수 있는 분이었다.〔退見少傅 翠竹碧梧, 鸞鵠停峙, 能守其業者也.〕"라고 했는데, 난새와 고니와 같은 훌륭한 자손들이 있음을 본다는 뜻이다. 《고문진보(古文眞寶)》 이 구절을 활용하여 백진남을 칭송했다.

봄 구름도 차마 보지 못하겠네　　春雲不忍看
늘그막에 흰머리 짧아지는데　　途窮白髮短
저물녘 물굽이에서 눈물 쏟누나　　淚盡暮江灣

여양(驪陽) 후생(後生) 섬호(剡湖) 진경문(陳景文)[240]

-삼가 애도하다.-

죄 많은 동생에게 편지가 왔는데　　累弟書來至
공께서 오늘 밤 돌아가셨다 하네　　公亡此夕聞
지는 해에 혼이 녹아내리고　　銷魂向落日
돌아가는 구름 보며 통곡한다오　　慟哭望歸雲
이묘[241]의 필법을 응당 전해질 것이지만　　二妙應傳筆
어머니만 문에 기대어[242] 애간장 끊네　　偏慈斷倚門
서글퍼라 무릉의 달빛은　　傷心茂陵月
부질없이 옛 문군 비추겠지[243]　　虛照舊文君

---

240 진경문(陳景文) : 1561~1642. 본관은 여양(驪陽), 호는 섬호(剡湖)이다.

241 이묘(二妙) : 동시대의 재주가 뛰어난 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진(晉)나라 때 위관(衛瓘)이 학문에 조예가 깊고 문장에 능숙하였으며, 상서랑(尙書郞) 돈황(敦煌), 삭정(索靖)은 모두 초서(草書)를 잘 쓰니, 당시 사람들이 일대이묘(一臺二妙)라 했다. 여기에서는 백광훈과 그의 아들인 백진남의 필법을 의미한다.

242 어머니만 문에 기대어 : 자세한 내용은 130쪽 주112 참조.

243 무릉(茂陵)의……비추겠지 : '무릉'은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병든 후에 관직에서 물러나 살던 곳인데, 보통 사마상여의 대칭(對稱)으로 쓰인다. '문군(文君)'은 탁문군(卓文君)으로, 사마상여의 아내이다. 사마상여가 일찍이 탁왕손(卓王孫)의 딸 탁문군을 좋아하여 탁문군을 데리고 도망쳐서 성도(成都)에서 살았는데, 워낙 가난하여 살길이 막연했다. 이에 목로집을 차리고서 탁문군에게는 손님에게 술을 팔게 하고, 자신은 쇠코잠방이를 입고 잡역(雜役)을 하며 지냈다. 그 뒤에 사마상여가 형편이 나아지자, 다시 무릉(茂陵) 땅의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려

용계(龍溪) 이영원(李榮元)-삼가 애도하다.-

날 아껴 주는 사람은 형뿐이었고	愛我惟兄耳
형 아는 것 누가 나와 같으랴	知兄孰我同
참된 필법은 집안 대대로 전해졌고[244]	箕裘眞筆法
효도와 우애는 가풍이었다오	孝友乃家風
살고 죽어 유명을 달리했지만	生死幽明隔
그 모습과 목소리 꿈속에 보이네	音容夢寐中
응당 지하에서도 한스러워 하겠지	想應泉下恨
어머니 봉양하다가 마치지 못했노니	曾養未能終

교류하던 집안의 동생 정봉(鄭諷)-곡하며 애도하다.-

젊은 시절 좇으며 외람되이 지우 입어	少日登門忝受知
늘 좋은 가르침 받으며 허물없이 지냈네[245]	慣承佳誨去毛皮
집안에 전해 온 필법은 신묘하기만 했고	傳家筆法通神妙
세상에 환한 문장은 무리에서 뛰어났네	耀世詞華絶等夷

하니, 탁문군이 〈백두음(白頭吟)〉을 지어서 결별(訣別)의 뜻을 드러냈다. 《서경잡기(西京雜記)》 참고로 두보(杜甫)는 〈금대(琴臺)〉에서 "사마상여는 소갈증에 걸린 뒤에도, 여전히 탁문군을 사랑할 줄 알았다네.〔茂陵多病後, 尙愛卓文君.〕"라고 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두 사람의 교분이 지속되지 못하게 되어 서글퍼한 것이다.

244 집안 대대로 전해졌고 : 자세한 내용은 110쪽 주21 참조.

245 허물없이 지냈네 : '거모피(去毛皮)'는 허례(虛禮)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다. 《오백가주창려문집(五百家注昌黎文集) · 귀팽성(歸彭城)》에 "모피를 제거하지 못하였다.〔未能去毛皮〕"라는 말이 보이는데, 그 주에 "모피는 허례이다."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서로 간 허물없이 지냈다는 의미이다.

천 리 밖 해산으로 그대[246]와 떨어졌는데　千里海山芝宇隔
한바탕 꿈인 듯[247] 계곡 배 옮겨 갔네[248]　一場梁夢壑舟移
새 봉분에 술 따를 수조차 없기에　新阡無計遶茅酒
남쪽으로 가는 구름 보니 눈물 절로 난다　目送南雲淚自垂

하늘이 호걸을 바닷가에 태어나게 했노니　天遣英豪出海隈
풍모와 명성 뛰어나 지금까지 전해 오네　風聲獨擅古今來
인간 세상에서 비록 과거 합격 못 했지만[249]　人間縱欠攀蟾桂
세상 밖에서 오히려 매죽을 재배했다오　物外猶能管竹梅

---

246 그대 : '지우(芝宇)'는 상대방을 존칭하는 말이다. 당(唐) 원덕수(元德秀)의 자는 자지(紫芝)인데, 재상(宰相) 방관(房琯)이 항상 덕수를 보면 탄식하며 "자지의 미우(眉宇)를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명리(名利)의 마음이 다 녹아나게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서한(書翰)에 상대방의 미우를 칭하여 지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247 한바탕 꿈인 듯 : '일장량몽(一場梁夢)'은 황량몽(黃粱夢)과 같은 말로, 한단몽(邯鄲夢)이라고도 한다. 당(唐)나라 개원(開元) 연간에 도사(道士) 여옹(呂翁)이 한단(邯鄲)에서 소년 노생(盧生)을 만났는데, 노생이 여옹에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자, 여옹은 노생에게 베개를 주면서 "이것을 베면 부귀영화를 뜻대로 누릴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여옹은 기장〔粱〕으로 밥을 짓고, 노생은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일평생의 부귀영화를 실컷 누리고 그 꿈을 깨어 보니 아직 기장밥이 익지 않았었다는 고사이다.

248 계곡 배 옮겨 갔네 : 자세한 내용은 139쪽 주162 참조.

249 과거 합격 못 했지만 : '반섬계(攀蟾桂)'의 섬계(蟾桂)는 두꺼비가 사는 월궁의 계수나무라는 뜻으로, 그곳의 계수나무 가지를 잡았다는 것은 과거에 급제했음을 의미한다. 진(晉)나라 때 현량 대책(賢良對策)에서 장원을 한 극선(郤詵)에게 진 무제(晉武帝)가 소감을 묻자, "달나라 계수나무 숲의 가지 하나를 꺾은 격이요, 곤륜산의 옥돌 한 조각을 캔 격이다.〔猶桂林之一枝, 崑山之片玉.〕"라고 답변한 고사가 전한다. 《진서(晉書)·극선열전(郤詵列傳)》 여기에서는 백진남이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시와 예는 전해져 자식들[250] 훌륭했고　　詩禮有傳庭玉潤
어느새 세월이 그리도 빨리 흘러갔다오[251]　　已辰居歲隙駒催
멀리서 생각해 보니 숲 뜰 봄날 주인 없을 테니　　林園遙想春無主
백발의 고당 슬퍼하심을 차마 어찌 보랴　　忍見高堂鶴髮哀

안동(安東) 김광혁(金光爀)[252]-재배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공의 나이 나보다 한 살이 어리지만　　公年一歲少於吾
늘그막의 건강은 대략 서로 비슷했다오　　迨老衰强略不殊
팥배나무에 남은 봄이 얼마나 되던가　　杜棣殘春餘幾日
문창성[253] 밝게 빛났는데 먼저 시들어 애석하네　　文星明彩惜先枯
훌륭하고 보배로운 두 명의 자식들이 있지만[254]　　芳傳謝樹聯雙寶
어머니 봉양할 자식이 없어지게 되었구나[255]　　哺反烏枝欠一雛
오하[256]의 옛 자취는 시구 속에 남아 있지만　　吳下陳蹤詩句在

---

250 자식들 : 자세한 내용은 120쪽 주65 참조.

251 그리도 빨리 흘러갔다오 : '극구최(隙駒催)'는 틈 사이로 망아지가 지나가는 것을 재촉한다는 말로,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의미이다. 《장자(莊子)·지북유(知北遊)》의 "사람이 천지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준마가 틈 사이를 지나는 것과 같아 잠깐 사이일 뿐이다.〔人生天地之間, 若白駒之過郤, 忽然而已.〕"라고 한 데서 연유했다.

252 김광혁(金光爀) : 1590~1643.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회경(晦卿), 호는 동림(東林)이다.

253 문창성(文昌星) : '문성(文星)'은 문창궁(文昌宮)의 여섯 별 가운데 네 번째의 별로, 문창성 또는 문곡성(文曲星)으로 불리기도 하며, 문재(文才)를 주관하는 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문재를 의미한다.

254 훌륭하고……있지만 : 자세한 내용은 120쪽 주65 참조.

255 어머니……되었구나 : 자세한 내용은 115쪽 주46 참조.

256 오하(吳下) : 오(吳)나라 땅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한양을 말한다.

꿈의 혼은 이로부터 송호와 떨어지게 되었네　　夢魂從此阻松湖

유학(幼學) 이원주(李元胄)

사한의 가업을 전수받았노니　　詞翰傳家業
왕희지에게 왕헌지가 있었다오　　羲之有獻之
보배로운 글씨는 완염[257]에 남아 있고　　寶書有琬琰
좋은 시구는 경사에 진동한다오　　佳句動京師
호남과 경기로 삼 년 전에 헤어졌는데　　湖甸三年別
저승 가 만고의 슬픔이 이누나　　泉臺萬古悲
상자에 남긴 글씨가 남았노니　　篋中遺墨在
살펴보매 두 줄기 눈물만 흐르네　　披閱淚雙垂

금성(金城) 후인(後人) 이석기(李碩基)[258]-곡하며 애도하다.-

가업[259]을 백미[260]에게 전해 주었노니　　却把靑氈付白眉
뜬 인생에 반평생 꿈과도 같았다오　　浮生半白夢依俙
집집마다의 병풍은 이로부터 귀하게 되었고　　家家屛障從今貴
대대로 맑은 풍도는 예로부터 드물었다오　　世世淸修振古稀

---

257 완염(琬琰) : 옛날 주(周)나라 묘당(廟堂)의 서쪽 행랑에 비치했던 보옥(寶玉)을 말한다.

258 이석기(李碩基) : 1598~1653.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덕여(德輿)이다.

259 가업(家業) : 자세한 내용은 115쪽 주47 참조.

260 백미(白眉) : 흰 눈썹으로, 형제나 제자들 중에서 걸출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삼국 시대 촉(蜀)나라 마량(馬良)이 다섯 형제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면모를 보였는데, 그의 눈썹에 흰 털이 있었으므로 백미라고 불렀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삼국지(三國志)·마량전(馬良傳)》 여기에서는 백진남을 가리킨다.

송포의 바람 이내 속엔 낚싯배만 남아 있고　　松浦風煙餘釣艇
옥천의 꽃과 달은 이끼 낀 사립에 갇혔어라　　玉泉花月掩苔扉
흰머리 고당의 마음 누가 위로하려나　　高堂鶴髮誰溫情
응당 외론 혼만이 쓸쓸히 돌아가겠지　　應有孤魂寂莫歸

승의랑(承議郎) 전주교수(全州敎授) 겸제독속교관(兼提督屬校官)
양형우(梁亨遇)[261]-곡하며 애도하다.-

제문 祭文

만력(萬曆) 47년(1619) 세차(歲次) 을미(己未) 4월 갑인(甲寅) 삭(朔) 18일 신미(辛未)에, 조산대부(朝散大夫) 전행성균관직강(前行成均舘直講) 지제교(知製敎) 윤광계(尹光啓)[262]는 삼가 종제(從弟) 색(繹)을 보내어, 망우(亡友) 성균진사(成均進士) 백군(白君)의 영전(靈前)에 제사를 드린다.

오호라 슬프도다　　嗚呼哀哉
나와 그대가　　我之與子
서로 안 지 몇 년이던고　　相知幾年
그대 머리 묶은 어릴 적에　　子總其角
나는 머리에 관을 썼었지　　我冠其顚

261 양형우(梁亨遇) : 1574~1623.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자발(子發), 호는 동애(東愛)이다.

262 윤광계(尹光啓) : 1559~1619.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경열(景說), 호는 귤옥(橘屋)이다.

예전에는 뇌진[263]이 되었었고 昔爲雷陳
그 뒤에 또한 반양[264]이 되었었지 後又潘楊
서로 만나 한잔 술 기울이며 邂逅一飮
육신과 세상 둘 다 잊었었지 身世兩忘
어제 갔다 오늘 돌아오며 昨往今返
성곽의 동서에서 함께 했지 城東郭西
그대 집을 지어서는 逮子結茅
오랫동안 물오리 갈매기 짝을 했지 長伴鳧鷺
때론 말 타고 때론 수레에 올라 或騎或輿
늘 그윽한 처소를 방문했었지 每訪幽棲
하포의 게와 荷浦之蟹
송강의 물고기에 松江之魚
아침에 그대 집에서 취해 朝醉君家
저물녘 내 집으로 돌아왔지 暮還吾廬
흰머리 될 때까지 서로 따르며 白首相從
만년을 맞이하자 약속했었지 歲晩爲期
그런데 어찌하여 이날에 如何此日

---

263 뇌진(雷陳) : 자세한 내용은 129쪽 주107 참조.

264 반양(潘楊) : 서로 인척관계가 되었다는 말이다. '반양'은 진(晉)나라 반악(潘岳)과 양중무(楊仲武)를 말한다. 반악이 양중무를 애도한 시에 "이미 3세나 대대로 인척이 된 데다 그대의 고모가 나의 부인이 되었다.……반씨와 양씨의 화목함이 유래가 있었고 더구나 오늘날까지 처음처럼 잘 지내고 있으니,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 주(注)에 "반악의 아버지가 양중무의 할아버지와 옛날부터 사이가 좋았다. 더구나 오늘날 나와 양중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처음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문선(文選)·양중무뢰(楊仲武誄)》

갑자기 이 지경에 되었나 奄至於斯
오호라 슬프도다 嗚呼哀哉
어머니께서는 萱庭已矣
흰머리 드리웠는데 鶴髮垂垂
아침저녁 맛 좋은 음식은 晨甘夕旨
누가 맡아 올리려나 孰主張尸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追惟曩昔
복랍[265]과 세시 절기에 伏臘歲時
양 삶고 술을 올리었고 烹羔獻酒
거문고 연주하고 비파 불었네 鼓瑟吹笙
고을에서 효자라고 칭송했었고 鄕黨稱孝
마을에서 영화롭다 말했었지 里閈謂榮
뜻으로 어머니 뜻 봉양했으니 以志養志
삼생[266]의 고기를 어찌 쓰리오 安用三牲
부추 잎의 이슬 갑자기 말랐으니[267] 薤露溘晞
어느 날에는 눈을 감으려나 何日瞑目
한갓 헛된 말이로구나 徒虛語耳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268] 爲善者福

---

265 복랍(伏臘) : 여름철의 삼복(三伏)과 겨울철의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사 이름인데, 보통 이날 술을 마시기 때문에 다정한 술자리를 말할 때 시어(詩語)로 많이 쓰인다.

266 삼생(三牲) : 소·양·돼지 고기를 말한다.

267 부추……말랐으니 : 자세한 내용은 121쪽 주70 참조.

268 선한……것 :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보답하고, 불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이 재앙으로 돌려준다.〔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

오호라 슬프도다 嗚呼哀哉
동생은 이웃에 살고 있고 有弟在鄰
첩은 방에 있다오 有妾在房
형제들[269]은 이에 쓸쓸해졌고 鴒原寂莫
아내[270]는 슬픔 속에 잠기었구나 鸞鏡悲凉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所可幸者
뜻 이을 두 자식 있는 것이라오 繼志二人
사정에는 옥수가 있는데[271] 玉樹謝庭
천상의 기린 같은 존재라오 天上麒麟
죽어서 결코 죽지 않은 것이니 死而不死
집안의 명성 연이어지리라 袞袞家聲
오호라 슬프도다 嗚呼哀哉
필법은 굳세었고 筆法之勁
시율은 정밀했다오 句律之精
종왕을 북면했으며[272] 鍾王北面

善者, 天報之以禍.〕"라고 했다.

269 형제들 : '영원(鴒原)'은 우애 있는 형제를 뜻하는 말이다. 《시경·상체(常棣)》에 "저 할미새 들판에서 호들갑 떨듯, 급할 때는 형제들이 서로 돕는 법이라오. 항상 좋은 벗이 있다고 해도, 그저 길게 탄식만을 늘어놓을 뿐이라오.〔鶺鴒在原, 兄弟急難, 每有良朋, 況也永歎.〕"라고 했다.

270 아내 : '난경(鸞鏡)'은 아리따운 부인을 말한다. 난새가 울지 않자 거울을 갖다주니 자기 모습을 비춰 보고는 슬피 울면서 날아오르다가 숨이 끊어졌다는 고사가 전한다. 《태평어람(太平御覽)·난조시서(鸞鳥詩序)》

271 사정에는 옥수가 있는데 : 자세한 내용은 120쪽 주65 참조.

272 종왕(鍾王)을 북면(北面)했으며 : '종왕'은 위(魏)나라 종요(鍾繇)와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모두 명필(名筆)이었다. 여기에서는 백진

이두[273]를 형으로 삼았었지	李杜爲兄
사람됨은 진실했으며	爲人必忠
사람 대할 때 정성 기울였지	待物以誠
말이 지나치고 잘못됨을 부끄럽게 여기며	耻言過失
그 부모님의 이름을 드러냈다오[274]	父母其名
술은 대단히 잘도 마시어	酒量恢恢
종일 마셔도 흠이 없었다오	終日無疵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夫我何言
사람들이 모두 다 칭송했다오	口口皆碑
오호라 슬프도다	嗚呼哀哉
내 나이도 이미 늘그막으로	吾年已老
올해 회갑이 되었다네	今已再甲
뜻과 기운은 시들해졌고	志氣凋耗
터럭과 혈기도 야위고 말랐네	毛血枯涸
그러니 이 세상에서	其在于世
능히 얼마나 살 것인가	而能幾何

남의 필법을 종왕에 견주었다. '북면'은 보통 신하가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임금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이 종요와 왕희지를 존경했다는 의미로 쓰였다.

273 이두(李杜) : 당(唐)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합칭이다.

274 그 부모님의……드러냈다오 : 죽어 부모님의 이름을 드러내 효도를 했다는 말이다. 《효경(孝經)》의 "이 몸은 모두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자신의 몸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해 드리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라고 말한 구절을 활용한 구절이다.

하물며 다시 술을 좋아해 況復耽酒
지금 이미 고질병이 되었다오 今已成痾
한 달 30일 동안 一月三十
겨우 2, 3일만 술 깨어 있다네 數日纔醒
이젠 곧 뒤따라 自此追隨
저 어두운 곳에 가겠지 庶指冥冥
그대의 부고를 듣고서는 聞君之訃
눈물 콧물이 연이어 쏟아졌네 泣涕交零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다 보니 遷延時日
영전에 곡을 하지 못했다네 未哭靈筵
이미 멍에 매는 것 그만두었으니 旣駕中止
쇠하고 늙음이 붙잡은 것이네 衰老所牽
유명 간에 서로 등지게 되었으니 幽明兩負
저 푸른 하늘이여 彼蒼者天
오호라 슬프도다 嗚呼哀哉
염을 해도 시신을 보지 못했고 斂不憑屍
하관해도 무덤에 가지 못했네 窆不臨穴
다른 일로 인해 핑계를 대었노니 所祟伊他
반평생 마음 아픈 일로 남았네 半世心疾
자취 들으매 문득 놀라고 聞跡則驚
말소리 들으매 실성한 듯해라 聽語若失
가련토다 인간 세상에서 可憐人世
영원히 버려진 물건 되었으니 永爲棄物
그대 향한 마음 만약 변한다면 寸心若變

백일이 비추고 있을 것이네	白日照之
그대의 휘장에 옷자락 치켜올리고	褰子之帷
내 술잔을 바치면서	進我之巵
가을바람에 병이 낫기를	秋風病蘇
만에 하나라고 기약한다오	萬一可期
이에 종제 색을 보내어	玆遣從繟
영전에 가서 한잔 술 올리게 하네	往奠一觴
영령이시여 오시어서	靈乎來哉
내 진심 어린 마음 흠향하소서	歆我衷腸
상향	尙饗[275]

만력(萬曆) 47년(1619) 세차(歲次) 기미(己未) 3월 갑신(甲申) 삭(朔) 17일 경자(庚子)에, 통정대부(通政大夫) 행평해군수(行平海郡守) 권계(權啓)[276]는 삼가 간소한 제물(祭物)[277]을 차려 놓고 멀리서 고(故) 성균진사(成均進士) 백군(白君)의 영전에 제사 드린다.

---

275 이 작품은 윤광계(尹光啓)의 《귤옥졸고(橘屋拙稿)》 권하에 〈祭白上舍文〉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자구의 출입도 보인다.

276 권계(權啓) : 1574~1641.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제중(霽仲), 호는 구사(龜沙)이다.

277 간소한 제물(祭物) : 원문의 '면지(緜漬)'는 말린 솜으로 초상에 가서 제물을 드린다는 뜻으로 문상(問喪)을 의미한다. 후한(後漢) 때의 고사(高士) 서치(徐穉)가 평소 고관들로부터 천거를 받았으나 한 번도 취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사(喪事)가 있으면 반드시 조문했다. 그는 닭구이 한 마리를 준비하고, 솜을 술 항아리에 담근 후 바싹 말렸다가, 그 솜으로 닭구이를 싸 가지고 고관의 묘소 근처에 가서는 솜에 물을 적시어 술기운이 나게 한 다음, 묘 앞에 흰 띠〔白茅〕를 깔고 닭구이를 놓고 술 한 잔을 땅에 부어 예를 마치고는 상주도 보지 않고 떠나 버렸다. 《후한서 보전(後漢書補逸)·서치(徐穉)》

오호라 슬프도다 嗚呼哀哉
사람들은 그 재주를 아끼지만 人惜其才
나는 그 사람을 아낀다오 我惜其人
사람들은 그 죽음을 슬퍼하지만 人悲其死
나는 그 어머니 때문에 슬프다오 我悲其親
천 리 밖에서 늦게서야 들었으니 千里晩聞
생시가 꿈인가 眞耶夢耶
삼가 간소한 예를 올리면서 敬致微禮
슬퍼하고 통곡하노라 以哀以慟
오호라 슬프도다 嗚呼哀哉
상향 尙饗

만력(萬曆) 47년(1619) 4월 8일, 벗 함평(咸平) 이경원(李敬元)은 죽은 벗 백군(白君)의 영전에 제사 드린다.

오호라 백군이여 嗚呼白君
영혼이 어찌 모르시겠는가 靈豈不知
해내의 친한 벗으로 海內親朋
나 말고 누가 있던가 非我其誰
어찌 나보다 먼저 가시었나 豈惟故先
풍도를 논할 수 있었는데 風期可論
문장으로 서로 교유하면서 文章交契
정신과 도리 모두 갖추었다네 神道具存
한북의 시단과 漢北詩壇

호남의 주루에서 湖南酒樓
꽃과 달을 맘껏 즐기면서 快意花月
삼십여 권의 책 있었지 三十餘秩
예전 병술년(1586)에 昔在丙戌
나라의 광채 비로소 보았다오 國光初觀
그대는 턱에 수염 나기 시작했고 君頤始鬚
나는 겨우 관직에 나갔다네 我顚纔冠
도성 서쪽에서 함께 공부하며 隸業城西
책상 마주하고 함께 잠을 잤지 連床共被
치린을 이미 제거했었고[278] 緇磷旣去
아교와 옻[279]에 절로 견주었지 膠漆自比
내 벗의 사귐은 我友之交
마땅히 옛 사람에게 구해야 하네 宜古人求
누가 능히 힘든 인생길에서 誰能末路
끝까지 여유로울 수 있으랴 終是悠悠
오호라 백군이여 嗚呼白君

---

278 치린(緇磷)을 이미 제거했었고 : '치린'은 근본 바탕이 외면적인 영향을 받아 물이 들거나 갈리어 나간다는 뜻이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대부 조씨(趙氏)의 읍재(邑宰)인 필힐(佛肹)의 부름을 받고 공자가 그에게 가려고 했다. 이때 자로(子路)가 그 불선한 사람에게 가려고 하는 공자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에 공자가 이르기를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갈아도 닳아지지 않느니라. 희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느니라.〔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緇.〕"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검고 닳지 않음은 곧 지조의 견정(堅貞)함을 뜻한다. 《논어·양화(陽貨)》 여기에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였다.

279 아교와 옻 : 자세한 내용은 129쪽 주107 참조.

하늘은 어찌 복을 내리지 않는가 天不以祜
백군은 의지가 있었노니 白君有志
옛사람과 같지 않음 없었고 非不如古
백군은 재주가 있었노니 白君有才
어찌 지금 사람만 못하랴 豈不如今
선한데도 지위가 없었노니 善而無位
하늘의 이치 믿기 어려워라 天理難諶
뛰어난 흥취는 날듯이 솟았고 飛騰逸趣
높은 의리는 탁월하기만 했네 卓絶高義
고향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放情丘園
명성과 이익 멀리했다오 遺外聲利
시는 도연명과 사령운[280]을 겸했었고 詩兼陶謝
필법은 종요와 왕휘지 뛰어넘었지 筆凌鍾王
노닐던 자취는 유유자적했으며 浪跡蕭散
긴 노래는 울려 퍼지었지 長謌激昂
오호라 이와 같은 사람은 嗚呼若人
진실로 나의 멋진 벗이로다. 寔我高友
늘 맑고 향기로움 경하하면서 每揖清芬
늙어 가자고 약속했었지 終期白首
그러나 풍상에 보존하기 어려워 風霜難保
나는 가을 잎 신세가 되었지 我作秋葉

---

280 도연명(陶淵明)과 사령운(謝靈運) : '도사(陶謝)'는 도연명과 사령운의 합칭이다. 모두 시로 명성이 자자하다.

만 리 밖으로 유배를 갔는데 一謫萬里
겹겹이 쌓인 변방이었다오 關塞重疊
떠돌이 혼은 길을 잃었고 羈魂迷路
눈 쌓인 봉우리 넘기 힘들었네 雪嶺難越
골육과도 떨어지게 되었고 骨肉阻隔
집안 편지도 끊어져 버렸네 音書斷絶
옛 벗들과도 서로 떨어져[281] 舊友參商
구름 나무[282]처럼 아득했다오 邈矣雲樹
오직 그대는 높은 의기로 惟君高義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不以禍懼
편지를 자주 보내와 尺札頻傳
멀리서 힘든 근심 위문했다오 遠問窮愁
깊은 정은 너무도 진중했고 深情耶重
두터운 마음 가득했다네 厚意綢繆
한 자루 둥근 부채에 쓴 一柄圓扇
두어 줄의 애달픈 글 數行悲辭
펼쳐 보고 세 번 반복하니 開緘三復
눈물이 뺨에 가득했다오 有淚盈腮
타향에서 이걸 얻으니 殊方得此

---

281 서로 떨어져 : '삼상(參商)'은 삼성(參星)과 상성(商星)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표현이다. 삼성은 동쪽 하늘에 있고 상성은 서쪽 하늘에 있어서, 각각 뜨고 지는 시각이 다른 관계로 영원히 서로 만날 수가 없는 데에서 유래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원년(元年)조에 보인다.

282 구름 나무 : 자세한 내용은 108쪽 주8 참조.

곤옥[283]처럼 그리움 생기었다네 入懷昆玉
길 멀어 다니는 사람 없노니 路遠人稀
조각 글도 받기 어려웠다오 一字難復
그대가 남쪽으로 돌아갔지만 白足南歸
시편을 다행히 부쳐 주었지 詩篇幸付
보답하는 시편 비록 늦었지만 報章雖遲
마음을 온전히 토로한 것이라오 中情以吐
지난해 10월 去年十月
오랑캐가 북쪽 지방 엿보았지 虜窺北陲
조정에서는 양이[284]하여 朝家量移
내가 이 고을로 오게 되었네 我得此州
기쁜 일은 무엇인가 所喜何事
그대 집과 가까운 것이라네 適近君家
그대 그리워 먼 길을 갔고 懷君涉遠
그대가 멀리서 옴을 바라보았지 望君來遐
먼 길 험하고 고단했노니 長途苦險
눈이 모래처럼 어둡게 내렸네 雪暗如沙
맹추위 속에 한 달여 만에 隆寒月餘
비로소 남쪽 물가에 이르렀다네 始到南涯

---

283 곤옥(昆玉) : 옥곤금우(玉昆金友)와 같은 말이다. 남조(南朝) 양(梁)나라 왕전(王銓)이 그 아우 왕석(王錫)과 더불어 효행이 똑같이 드러나니, 사람들이 옥곤금우라 칭하였다. 그래서 후세에는 형제를 곤옥이라 한다.

284 양이(量移) : 섬이나 변방으로 멀리 유배되었던 사람의 죄를 참량(參量)하여 내지로 배소(配所)를 옮기는 것이다.

옥산이 눈에 보이었고 玉山在眼
금릉[285]도 멀지 않았지 金陵不隔
동서로 서로 바라다보며 東西相望
길가의 지석을 가로질렀지 路貫支石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왔는데 朝馳夕返
그대는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지 君不厭頻
애초에 가려서 좇은 것 아니지만 初非擇就
다행히 어진 이에게 기대게 되었으니 幸此依仁
또한 우연이 아니요 又非偶然
하늘이 진실로 준 바였지 天實所與
지친 육신 의탁할 곳 생겼고 殘骸有托
마른 물의 고기[286] 마땅한 곳 얻었지 涸魚得所
즐거웠네 이 땅이 樂矣玆土
궁핍함과 외로움 면할 수 있어서 庶免窮獨
자식 보내어 위문하면서 令子來慰
처음에는 읍죽[287]을 살피었고 初審泣竹

---

285 금릉(金陵) : 전라남도 강진의 옛 이름이다.

286 마른 물의 고기 : '학어(涸魚)'는 학철어(涸轍魚)의 준말로, 길바닥의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빗물에 있는 붕어이다. 장주(莊周)가 길을 가다가 수레바퀴 자국을 보니 붕어가 헐떡이고 있었다. 장주가 묻기를, "붕어가 왔구나. 그대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라고 하니 붕어가 대답하기를, "나는 동해(東海)의 파신(波臣)이다. 그대는 몇 말의 물로 나를 살려 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장자(莊子)·외물(外物)》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287 읍죽(泣竹) : 삼국 시대 오(吳)나라의 효자(孝子) 맹종(孟宗)이 한겨울 날 대숲에 들어가서 평소 자기 어머니가 즐기는 죽순(竹筍)이 없음을 슬피 울며 탄식하자, 갑자기 눈 속에서 죽순이 나왔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삼국지(三國志)·손호전

내 아우가 가서 문안드리며 吾弟往候
뒤에 부신[288]을 살폈다네 後諦負薪
그런데 어찌하여 질병이 如何一疾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르렀나 卒至無因
손님이 문에 오는 것 좋아했는데 愛客臨門
갑자기 맞이하지 못했네 劇不能迎
내가 이 말을 듣고서 我聞此語
근심하고 또한 놀랐다네 旣憂且驚
그런데 닷새도 되지 않아 不浹五日
부고가 갑자기 이르렀다오 凶訃遽至
오호라 백군이여 嗚呼白君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랴 是何天意
어찌하여 그대를 胡爲以君
내게서 빼앗아갔는가 與奪於我
나를 남쪽으로 오게 하고 使我來南
함께한 것이 얼마이던가 與之何果
오자마자 그대를 잃었으니 來卽喪君
어찌 그리 쉽게 빼앗아가나 奪之何易
어찌 주고 빼앗는 것이 何其與奪

(孫皓傳)》 여기에서는 기거(起居)를 의미한다.

288 부신(負薪) : 《예기 · 곡례 하(曲禮下)》에 "임금이 선비에게 활을 쏘라고 명할 때, 만약 쏠 형편이 못 되면 병을 칭하여 사양하면서 '저는 섶나무를 짊어진 여독이 있습니다.〔某有負薪之憂〕' 했다."라고 했던 데서 유래한 말로, 병에 걸렸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이다.

나에게만 그리 심한가 於我獨異
내가 오자 그대 떠났으니 我來君去
빠르기가 마치 원수 피하는 듯했네 速如避仇
오호라 하늘이여 嗚呼天乎
어찌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랴 何不上尤
푸른 눈동자[289] 보지도 못한 채 靑眸未接
진실로 끝내 어긋남만 보았네 良覿終乖
지하에서도 길이 한스러워 할 터니 地下長恨
인간 세상에서도 길이 그리워한다오 人間永懷
오호라 백군이여 嗚呼白君
사람 일이 진실로 한탄스럽구나 人事良嗟
나는 요행히 죽지 않아 我幸不死
그대에게 곡하니 무슨 일인가 哭君何耶
마땅히 내가 먼저 죽어서 我死宜早
그대가 나에게 곡을 해야 하는데 君哭當先
육신을 버리고 捐軀之日
날개가 잘려 나간 채 鎩翮之年
만 번 죽어도 애석함 없노니 萬死無惜
목숨 보전 알 수가 없다오 全生未料

---

289 푸른 눈동자 : '청모(靑眸)'는 청안(靑眼)과 같은 말로, 상대를 반갑게 맞이한다는 말이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 완적(阮籍)이 속된 사람을 만나면 백안(白眼) 즉 흰 눈자위를 드러내어 경멸하는 뜻을 보이고, 의기투합하는 사람을 만나면 청안 즉 검은 눈동자로 대하여 반가운 뜻을 드러낸 고사가 전한다. 《세설신어(世說新語)·간오(簡傲)》

변방 모래밭에 뼈를 묻었다면 邊沙埋骨
떠도는 혼 응당 불렀을 것이요 旅魂應招
지금 이 일이 없었다면 其無此時
그대가 내 죽음에 곡을 했으리 君哭我屍
그대는 고요히 수양을 했노니 吾君靜養
이치상 오래 살아야 한다네 理宜延期
나는 형벌을 받아 我經刑囚
근력이 모두 소진되었다네 筋力全衰
누가 말하랴 살아남아 孰謂餘生
도리어 그대에게 곡을 할 줄 反哭吾君
건강했던 그대도 이리되었는데 康君尙然
병든 나는 말해 무엇하랴 病我奚云
조만간 서로 따라 未幾相隨
지하에서 벗이 되리라 泉下爲群
백아의 거문고 줄 먼저 끊어져[290] 牙絃先絶
진탑의 걸상 내리지 않는다네[291] 陳榻未解

---

290 백아(伯牙)의……끊어져 : 지음(知音)이 죽었다는 비통함을 담은 백아절현(伯牙絶絃)의 고사이다. 백아와 종자기(鍾子期)는 모두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으로, 종자기는 친구인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잘 이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자기가 죽자 백아가 자신의 음악을 감상할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거문고를 부수어 버리고 종신토록 다시 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백아절현'이다. 《여람(呂覽)·본미(本味)》

291 진탑(陳榻)의……않는다네 : '진탑'은 진번(陳蕃)의 걸상이라는 말로, 현인을 맞아 담소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의 진번이 다른 손님은 일절 맞지 않다가, 현인인 서치(徐穉)가 오면 특별히 걸상 하나를 내려놓고 환담을 하고는 그가 가면 다시 올려놓았다는 현탑(懸榻)의 고사가 전한다. 《후한서(後漢書)·

지난 일이 마치 어제와 같은데 往事如昨
산과 강은 변하지 않았어라 山河不改
연사에서 달을 바라다보았고 蓮社望月
용봉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었지 龍峰觀海
예강[292] 가에서 매화를 찾았었고 探梅汭上
호수 구비에는 소나무 그늘 드리웠었지 蔭松湖曲
남쪽 지방에서의 노닒을 南國之遊
지금은 다시 할 수가 없게 되었네 于今難續
나는 삼도[293]에 떨어지게 되었고 我墜三途
그대는 저승으로 돌아갔다네 君歸九原
오호라 이제 끝이 났으니 嗚呼已矣
다음 생을 기약할 수밖에 庶卜他生
이내 몸 초야에 묻혀 있어 身羈草澤
새 무덤에 곡하지 못하네 哭阻新阡
돌아간 혼은 다시 오지 않는데 歸魂未復
떠나는 상여줄도 끌기 어려워라 去紼難牽
오호라 백군이여 嗚呼白君
어찌 슬프고 가련하지 않으랴 寧不悲憐
어머니에게는 효를 다했었고 孝盡萱堂

서치열전(徐穉列傳)》 여기에서는 백진남이 죽어 다시는 걸상을 내려놓을 일이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292 예강 :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예양(汭陽)으로 물 이름이다.

293 삼도(三途) : 불교어로 지옥도(地獄道)·축생도(畜生道)·아귀도(餓鬼道)의 세 지옥을 말한다.

아내에게도 은혜가 뛰어났다오 恩絶蘭閨
늙은 어머니 억장 무너져 통곡하고 老母摧痛
어린 아내는 울부짖으며 우는구나 幼妾號啼
거문고 책은 쓸쓸해졌고 琴書廖落
붓과 벼루도 길이 버려졌구나 筆硯長抛
흘러가는 물에 슬프고 처량하니 悲凉逝水
신교도 막막하게 되었구나 冥漠神交
오호라 백군이여 嗚呼白君
나는 장차 어디로 갈거나 我將安適
부질없이 지난 일을 空令舊事
다만 이웃집 피리 소리[294]에 부치네 只付隣笛
상향 尙饗

곽가촌 대나무 창에서 마주한 날 竹窓當日郭家村
그대는 노래했고 나는 화답했었지 君唱篴邊我和壎
사찰에서 몇 번이나 함께 하자 약속했나 禪榻幾期同負笈
매화 핀 창에서 자주 술잔을 대했었지 梅窓頻占對芳樽

호산에서 늘 담장 마주하고 살길 바랐는데 湖山每擬連墻宅
저승 가 풍채[295] 볼 수 없어 홀연 놀라누나 泉路忽驚隔彩軒
짝 잃은 기러기 울며 날며 어디로 가나 斷雁飛鳴何處去

---

294 이웃집 피리 소리 : 자세한 내용은 145쪽 주185 참조.
295 풍채 : '채헌(彩軒)'은 풍채가 헌칠한 것을 말한다.

어머니 자식 기다리는 것[296]이 가장 마음 아프네　最憐鶴髮倚閭門

하늘은 어찌 우리 아우 그리 빨리 뺏어갔나　天何奪我弟之忙
흰머리로 눈물 쏟아지는 것 못 참겠네　白首難禁淚滿眶
이로부터 송호는 응당 적막해질 것이고　自此松湖應寂莫
주막만이 부질없이 옛 화려한 집 옆에 있어라　酒壚空側舊華堂

표종(表從) 양예용(梁禮容)-곡하며 애도하다.-

---

296 어머니……것 : 자세한 내용은 130쪽 주111 참조.

송호선조부인 장시 신해년(1611, 광해군3)[1]

松湖先祖夫人葬時 辛亥年

남쪽 고을에 한 선비 있노니	南方有一士
옥봉의 어진 자식이라오	玉峯之賢嗣
아내 있어 시부모 잘 섬기었고	有婦善養姑
시부모 뜻 받드는 것에 마음 두었지	以姑志爲志
한 명의 딸과 두 아들이	一女與二男
좌우에서 번갈아 서로 모시었지	左右迭相侍
친족들이 효부라고 칭송한 경우는	宗族稱孝婦
호남에서 이 사람 한 명뿐이라오	湖右一人耳
어찌 질병에 걸리어서	云胡嬰沉痾
반년 만에 돌아가셨단 말인가	半歲終不起
하늘이여 앎이 있다면	天乎其有知
어찌 차마 이 지경에 이르게 했는가	何忍至於此
저승길 떠나 영원히 끝이로니	九原長已矣
이 만사 지어 군자를 위로하네	寫此慰君子[2]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신(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臣)

---

1 백진남의 아내는 해남 윤씨(海南尹氏)로 아버지는 윤관중(尹寬中), 할아버지는 윤항(尹衖)이며, 외할아버지는 유희춘(柳希春)이다.

2 이 작품은 유근(柳根)의 《서경집(西坰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근(柳根)[3]-절하며 애도하다.-

백옥봉의 명성 있는 문벌	白玉峯名閥
시서로 대대로 유명했다오	詩書奕世華
향기로움 아들에게 전해졌고	傳芳有此子
아내도 그 집안에 어울렸다오	擇婦稱其家
금슬의 아름다운 빛은 짧았지만	琴瑟韶光短[4]
아내로서의 맑은 법도 아름다웠네	巾箴[5]淑範多
붉은 명정이 가을 풀에 묻혔으니	丹旌入秋草
만사에 온통 긴 탄식만 이네	萬事一長嗟[6]

숭정대부(崇政大夫)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겸(兼)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춘추관(知春秋館) 성균관(成均館) 사세자좌빈객(事世子左賓客)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이정귀(李廷龜)[7]-절하며 애도하다.-

---

3 유근(柳根) : 1549~1627.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회부(晦夫), 호는 서경(西坰)이다.

4 短 : 《장춘동수창록》에는 결자(缺字)로 되어 있다. 이정귀(李廷龜)의 《월사집(月沙集)》 16권 〈挽白振南妻〉에 따라 추가했다.

5 巾箴 : '잠(箴)'은 잠(箴)의 오자(誤字)인 듯하다. 건잠(巾箴)은 부녀자의 용의(容儀)를 뜻한다.

6 이 작품은 이정귀의 《월사집》 16권에 〈挽白振南妻〉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7 이정귀(李廷龜) : 1564~1635.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보만당(保晩堂)·치암(癡菴)·추애(秋崖)·습정(習靜),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비단 끈을 당시에 매어 주었는데　　綵縷當時結
아내가 이날에 비게 되었구나　　蘭閨此日空
저승 간 사람은 절로 옥이었고　　夜臺人自玉
아내 법도는 역사책[8]에 기록되리　　閨範管堪彤
옷상자에는 아직도 향기 남아 있고　　衣篋猶聞嚮
누에 광주리에서 이미 실 뽑았다네　　蠶筐已能工
멀리서도 알겠어라 아내 잃은 노래 부르며　　遙知悼亡賦
바다 구름 짙은 곳에서 목메어 울리라는 걸　　唱咽海雲重[9]

숭정대부(崇政大夫)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겸지춘추관사(兼知春秋館事) 동지경연(同知經筵)
성균관사(成均館事)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신흠(申欽)[10]-절하며 애도하다.-

송호 백진남 어진 아내 잃었으니　　松湖喪賢配
침통한 그 마음 어떠하랴　　沈痛若爲心
거안제미[11]는 다시 없노니　　無復齊眉案

---

8 역사책 : '동관(彤管)'은 단심(丹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붓대를 붉게 칠한 붓으로, 보통 후비(后妃)의 거조(擧措)를 기록하는 여사(女史)가 사용했으므로, 여자 사관 혹은 문필에 종사하는 규수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시경(詩經)·정녀(靜女)》

9 이 작품은 신흠(申欽)의 《상촌집(象村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10 신흠(申欽) : 1566~1628.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헌(玄軒)·상촌(象村)·현옹(玄翁)·방옹(放翁)이다.

11 거안제미(擧案齊眉) : '제미(齊眉)'는 밥상을 들어 올려 눈썹과 가지런히 한다는 뜻으로, 남편을 공경하는 아내를 말한다. 후한(後漢)의 현사(賢士)인 양홍(梁鴻)의 처 맹광(孟光)이 밥상을 들고 올 때에도 양홍을 감히 마주 보지 못하고 이마 위에까지 들어 올렸다는 거안제미의 고사에서 유래했다. 《후한서(後漢書)·양홍

부질없이 타던 거문고[12]만 남았어라　　空餘在御琴
저승 깊이 구슬은 이미 떨어졌노니　　泉深珠已隕
파도 넘실거려 검을 찾기 어렵도다　　波闊釰難尋
멀리서 만사를 지어 보내는데　　遠寄哀詞去
남쪽 구름은 온 산봉우리 너머에 있어라　　南雲隔萬岑[13]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김현성(金玄成)[14]-멀리서 애도하다.-

공경스레 거안제미하던 아내 도리 있었고　　有敬齊眉存婦道
부인 도리[15] 어김없이 규문의 의범 드러냈지　　無違主饋著閨儀
결혼하며[16] 즐겁게 살자는 약속 그대로인데　　結縭不改初歡約

열전(梁鴻列傳)》

12 타던 거문고 : 《시경(詩經)·여왈계명(女曰鷄鳴)》에서 부부의 화락(和樂)한 모습을 형용하여 "자리에 있는 금슬도 고요하고 좋지 않음이 없도다.〔琴瑟在御, 莫不靜好.〕"라고 한 구절을 활용했다.

13 이 작품은 김현성(金玄成)의 《남창잡고(南窓雜藁)》에 실려 있지 않다.

14 김현성(金玄成) : 1542~1621. 본관은 김해(金海), 초명(初名)은 방진(方進), 자는 여경(餘慶), 호는 남창(南窓)이다.

15 부인 도리 : '주궤(主饋)'는 음식을 담당하는 부인의 임무를 말한다. 《주역(周易)·가인괘(家人卦)》의 "육이는 이루는 바가 없고 안에 있으면서 음식을 장만하면 정하여 길하리라.〔六二, 無攸遂, 在中饋, 貞吉.〕"라고 한 데서 온 말인데, 이는 곧 부인의 도리는 오직 집안에서 음식 장만하고 제사 받드는 일만을 주관할 뿐이라는 뜻으로, 전하여 음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곧 부인의 직무를 가리킨다.

16 결혼하며 : '결리(結縭)'는 향주머니를 채워 주는 것으로, 결혼을 뜻한다. 딸이 시집갈 때 어머니가 딸에게 경계의 말을 하며 향주머니를 채워 주었는데, 《시경(詩經)·동산(東山)》의 "아가씨 시집가니, 누른 말과 얼룩말이로다. 어머니가 향주머니 채워 주니, 그 위의 성대하도다.〔之子于歸, 皇駁其馬. 親結其縭, 九十其儀.〕"라고 한 말에서 연유했다.

늙어 함께 죽자는 약속은 끝내 어기었네　同穴終乖晩歲期
향기[17]만이 처량하게 소매 속에 남아 있고　芳澤凄涼在巾袂
죽은 영혼[18] 쓸쓸히 병풍 뒤에 있어라　幽陰蕭瑟入屛帷
가장 슬픈 건 외론 봉새 짝 잃어[19]　最憐孤鳳離凰意
천지 가득한 슬픔 어찌 끝 있으랴　地久天長何限悲

당종(堂從)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 지제교(知製敎) 윤유기(尹唯幾)[20]-곡하며 애도하다.-

귤정 노인의 아름다움이었고　傳芳橘亭老
게다가 옥천의 아이들 아름다웠지[21]　竝美玉川兒
거안제미를 삼기[22] 동안 드리웠고　擧案垂三紀
달가운 마음으로 오희[23]를 함께 했었지　甘心共五噫

---

17 향기 : '방택(芳澤)'은 고대 부녀자들이 머리를 윤기 나게 하기 위해 바르던 향기로운 기름을 말한다.

18 죽은 영혼 : '유음(幽陰)'은 음혼(陰魂)을 가리키는 말로, 여기에서는 죽은 영혼의 의미이다.

19 외론 봉새 짝 잃어 : 봉황은 전설 속의 새인데, 수컷을 '봉(鳳)'이라 하고 암컷을 '황(凰)'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는 남편이 그 짝인 아내를 잃었다는 말이다.

20 윤유기(尹唯幾) : 1544~?. 본관은 해남(海南)이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아버지이다.

21 귤정(橘亭)……아름다웠지 : '귤정'은 윤구(尹衢, 1495~?)의 호이다. 고산 윤선도의 증조고(曾祖考)이다. 이 구절은 백진남의 아내가 귤정 윤구 집안의 딸이었다는 의미이다. '옥천(玉川)'은 백진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진남에게 시집와서 훌륭한 아이들을 낳았다는 의미이다.

22 삼기(三紀) : 기(紀)는 12년을 말하니, 삼기는 36년이다.

23 오희(五噫) : 양홍(梁鴻)은 후한(後漢) 부풍(扶風) 평릉(平陵) 사람으로 자는 백란(伯鸞)이다. 가난하면서도 학문을 좋아하고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현숙한 아내 맹광(孟光)과 함께 패릉(霸陵) 산골에서 농사짓고 살다가 〈오희가(五噫歌)〉를 지

어이해 하늘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나 奈何天不弔
결국 병을 어찌해 볼 수 없었네 畢竟病難爲
군자가 조강지처에 대해 통곡함은 君子糟糠痛
응당 부귀할 때에 더욱 깊으리라 應深富貴時

통정대부(通政大夫) 행나주목사(行羅州牧使)

박동열(朴東說)[24]-절하고 쓰다.-

남쪽 지방 명가의 며느리 南國名家婦
깊은 규방에서 사십 년 보냈지 幽閨四十春
반평생 얼굴 받들었고 承顔半世色
병으로 누워 해를 넘기었지 臥病隔年身
침상의 장막이 걷히었으니 寢席裳帷罷
무덤의 풀 위 이슬[25] 새롭도다 丘園草露新
순봉천[26]처럼 상심했을 테고 傷心荀奉倩

어 나라의 정사를 비방한 일로 화를 피해 오(吳) 땅으로 도망가 남의 집에서 쌀방아 찧는 고용살이를 했다. 그가 집에 돌아오면 맹광은 남편을 극진히 공경한 나머지 남편의 밥상을 눈썹 높이로 받쳐 들고 들어왔다 한다. 《후한서(後漢書)·양홍열전(梁鴻列傳)》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아내가 맹광과 같은 부덕(婦德)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24 박동열(朴東說) : 1564~1622.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열지(悅之), 호는 남곽(南郭)·봉촌(鳳村)이다.

25 풀 위 이슬 : 사람의 목숨이 부추 잎에 맺힌 이슬처럼 쉽게 소멸된다는 말이다. 만가(輓歌)인 〈해로가(薤露歌)〉 1장(章)에 "염교 위 아침 이슬은 어찌 그리 빨리 마르는가.〔薤上朝露何易晞〕"라는 구절이 보인다.

26 순봉천(荀奉倩) : 봉천(奉倩)은 삼국 시대 위(魏)나라 순찬(荀粲)의 자이다. 자기 아내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은 나머지 아내가 일찍 병들어 죽자, 상심(傷心)하여 그 역시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고 한다. 《세설신어(世說新語)·혹닉(惑溺)》

고분인[27]의 마음이리라 情感叩盆人

통정대부(通政大夫) 예조참의(禮曹參議) 지제교(知製敎)

윤휘(尹暉)[28]-절하며 애도하다.-

일찍이 향산의 노인[29]을 알았노니 早識香山老

늘 덕이 빛나는 현인이라 들었다오 常聞德耀賢

포선 집안에서 항아리를 들었고[30] 鮑家提甕日

도잠의 집에서 땔나무를 때었지[31] 陶室爨薪年

---

27 고분인(叩盆人) : '고분(叩盆)'은 동이를 두드린다는 것으로, 아내의 상(喪)을 당하여 슬퍼한다는 뜻이다. '고분인'은 장자(莊子)를 말한다. 장자의 아내가 죽어 혜자(惠子)가 문상(問喪)하러 갔더니, 장자는 다리를 뻗고 앉아서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하고 있었다. 이에 그 까닭을 물으니 "본래 삶이란 것도 형체란 것이 없었는데, 이제 본래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니 슬퍼할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대답했다. 《장자(莊子)·지락(至樂)》

28 윤휘(尹暉) : 1571~1644.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정춘(靜春), 호는 장주(長洲)이다. 윤두수(尹斗壽)의 셋째 아들이다.

29 향산의 노인(老人) : 향산거사(香山居士)라 자호했던 당(唐)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성이 '백(白)'이기에 백거이에 견준 것이다.

30 포선(鮑宣)……들었고 : 모범적으로 부도(婦道)를 수행하며 청고(淸苦)한 생활을 달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 때 발해(勃海) 포선의 처(妻)는 환씨(桓氏)의 딸로, 자(字)가 소군(少君)이었다. 포선이 일찍이 소군의 부친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업을 닦았는데, 스승이 그의 청고함을 기특하게 여겨서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다. 그런데 부잣집에서 자라난 그의 처가 혼수품을 많이 장만한 것을 보고는, 포선이 "나는 실로 빈천해서, 그런 예를 감히 당할 수가 없소."라고 하니, 소군이 그 말에 순종하여 시어(侍御)와 복식(服飾) 등을 모두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짧은 베옷으로 갈아입고서 남편과 함께 녹거(鹿車)를 끌며 향리로 돌아온 뒤에, 시어머니를 뵙고 인사하는 예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으러 나와[提甕出汲] 부도(婦道)를 수행하자 마을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후한서(後漢書)·포선처(鮑宣妻)》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아내가 부도(婦道)를 잘 수행했다는 말이다.

31 도잠의……때었었지 : '도실(陶室)'은 연명(淵明) 도잠(陶潛)의 아내를 가리킨다.

천 리 떨어진 채 기장밥 지었는데[32] 作黍淹千里
향기가 갑자기 구천에 묻혔다네 埋香忽九泉
맑은 가을 가득한 국화 눈물을 淸秋滿菊淚
바다 구름 가에 뿌린다오 洒向海雲邊
유랑은 〈상왕부〉를 지었고[33] 劉郎傷往賦
반령은 〈도망시〉 지었다네[34] 潘令悼亡詩
다른 시대에도 오히려 감동 있는데 曠世猶相感
집안끼리 교유하고 게다가 평소 알고 있음에랴 通家況素知
퉁소[35] 불어 가을날 짝 부르고 鳳簫秋引儷
용검은 밤에 암컷 부르고 날아오르네[36] 龍釰夜騰雌

그의 아내가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직접 땔나무를 땐 일을 가리킨 듯하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아내가 직접 땔나무를 땔 정도로 부도를 잘 수행했다는 의미이다.

32 천 리……지었는데 : 멀리서도 친한 벗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후한(後漢) 범식(范式)이 장소(張劭)와 헤어질 때, 2년 뒤 9월 15일에 시골집에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그날 장소가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놓고는〔殺雞作黍〕 기다리자 과연 범식이 찾아왔다고 한다. 《후한서(後漢書)·독행열전(獨行列傳)》

33 유랑(劉郎)은 상왕부(傷往賦)를 지었고 : '유랑'은 당(唐)나라 시인 유우석(劉禹錫)을 가리킨다. 유우석은 결혼한 지 9년 만에 부인을 잃고 너무 애통한 나머지 〈상왕부〉를 지어 부인을 애도하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드러냈으며, 세상 사람들이 배우자의 중요성을 알기 바란다고 서술했다.

34 반령(潘令)은 도망시(悼亡詩) 지었다네 : '반령'은 진(晉)나라의 반악(潘岳)을 가리킨다. 반악은 아내를 잃은 뒤에 〈도망시〉 세 수를 지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한 바 있다.

35 퉁소 : '봉소(鳳簫)'는 농옥(弄玉)과 소사(蕭史)가 부는 퉁소를 가리킨다. 진 목공(秦穆公)의 딸 농옥은 음악을 좋아했고, 소사는 퉁소를 잘 불어 봉새가 우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에 목공이 농옥을 그에게 시집보내고 누각을 지어 주었는데, 이들이 퉁소를 불면 봉황이 날아와 모였으며, 뒤에 두 사람은 봉황을 타고 날아갔다고 한다. 《열선전(列仙傳)》

36 용검(龍釰)은……날아오르네 : '용검'은 용천검(龍泉劍)을 말한다. 진(晉)나라 장

서왕모의 복숭아 열매 세 개로[37] 王母三桃實
천년도록 짧은 생애 위로하노라 千年慰短期[38]

통정대부(通政大夫) 전행담양부사(前行潭陽府使)
이안눌(李安訥)[39]-절하며 애도하다.-

송호거사는 내 형뻘 되는데 松湖居士我年兄
일찍이 조강지처의 부덕 올곧다 말했네 曾說糟糠婦德貞
힘들게 자식 기르며 집안 법도 세웠고 鞠子辛勤家道立
시부모 효성으로 섬기며 규법 이루었지 奉親誠孝軌儀成
가을 저물 때 저승에 옥이 묻히노니 重泉埋玉三秋暮

인간 세상 허무한[40] 한바탕 꿈에 놀라네 人世炊粱一夢驚

화(張華)와 뇌환(雷煥)이 용천(龍泉)과 태아(太阿)의 두 보검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 두 보검이 절로 연평진(延平津) 속으로 날아 들어가서 두 마리 용으로 바뀐 채 유유히 모습을 감췄다는 전설이 있다. 여기에서는 용천검이 밤에 날아올라 자신의 짝인 태아검을 부른다는 의미이다.

37 서왕모(西王母)의……개로 : '왕모(王母)'는 서왕모로 선인(仙人)이다. 동방삭(東方朔)이 서왕모의 뜰에 있는 복숭아를 훔쳐 먹은 일이 있다. '삼도(三桃)'는 그가 훔쳐 먹은 서왕모의 삼천 년에 한 번 열린다는 복숭아 3개를 뜻한다. 《박물지(博物志)》

38 이 작품은 이안눌(李安訥)의 《동악집(東岳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39 이안눌(李安訥) : 1571~163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이다.

40 허무한 : '취량(炊粱)'은 황량몽(黃粱夢) 또는 한단몽(邯鄲夢)이다. 《열선전(列仙傳)》에 "당(唐)나라의 노생(盧生)이 주막에서 여옹(呂翁)에게서 베개를 얻었다. 그때에 주막집 주인이 노란 조[黃粱]를 찧고 있는데, 베개를 베니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베개 속으로 들어가 영화롭게 살다가 18세로 죽는 꿈을 꾸었다. 꿈을 깨고 보니 노란 조가 아직도 익지 아니했기로, '이것이 꿈이란 말인가.'라고 하니, 옹은 웃으면서 '인간 세상일도 역시 이와 같다.'라고 했다."라고 한다.

부고가 천 리 밖에서 북쪽으로 오니　凶問北來千里外
만사 지으며 바다 구름 향해 눈물 떨구네　題詞淚向海雲傾[41]

통정대부(通政大夫) 행광주목사(行廣州牧使)

김상헌(金尙憲)[42]–절하며 애도하다.–

무녀의 별이 남두 사이에게 빛났는데[43]　婺女潛輝南斗間
공연히 아내 법도만 남아 인간 세상에 전해지네　空遺閨範在人寰
가위와 자에 내려앉은 먼지를 어찌 볼거나　忍看塵垢生刀尺
다시는 혼정신성[44]의 패옥 울림 없게 되었네　無復晨昏響佩環
찬 이슬 내린 오동나무에는 두 봉새 남아 있고[45]　露冷梧栖留二鳳
찬 달빛 속 난초 휘장에서 외로운 지아비 자네[46]　月寒蘭幌宿孤鰥
향기로운 자태와 혜초 같은 덕망 익숙히 들었노니　芳姿惠德聞曾慣
만사 마치며 눈물만 줄줄 흘리누나　題罷哀詞涕淚潸[47]

---

41 이 작품은 김상헌(金尙憲)의 《청음집(淸陰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42 김상헌(金尙憲) : 1570~165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서간노인(西磵老人),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43 무녀의……빛났는데 : '무녀(婺女)'는 별 이름이다. 이 별은 여수(女宿)로 포백(布帛)을 맡았다고 한다. '남두(南斗)' 역시 별 이름이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이 살았던 남쪽 고을을 의미한다.

44 혼정신성(昏定晨省) : 어버이를 제대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곡례상(曲禮上)》에 "자식이 된 자는 어버이에 대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드려야 하며,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한다.〔凡爲人子之體, 冬溫而夏淸, 昏定而晨省.〕"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아내가 그 시부모님을 잘 봉양한 것을 말한다.

45 찬 이슬……있고 : '이봉(二鳳)'은 두 봉새로,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자식을 말한다. 백진남의 아내가 죽고 두 자식만이 남았다는 의미이다.

46 찬 달빛……자네 : 아내가 죽고 홀로 남아 있는 백진남의 상황을 묘사한 구절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사헌부집의(行司憲府執義) 지제교(知製敎)

김지남(金止男)[48]-절하며 애도하다.-

아내의 일 일찍이 모두 수행했고	內職曾無曠
규방의 법도 또한 어그러지지 않았지	閨儀且不虧
금슬 속에 온 집안이 즐거웠으며	一堂琴瑟樂
옥 같은 난초 가지[49] 집 가득했네	滿室玉蘭枝
큰 복 끝까지 누리는 것에 인색하여	遐福靳終享
진유[50]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오	眞游未少遲
서리 바람에 붉은 명정 드노니	霜風丹旐擧
눈물 뿌리며 만사를 쓴다오	揮淚寫哀詞

당종(堂從) 통훈대부(通訓大夫)

전행장단도호부사(前行長湍都護府使) 윤유심(尹唯深)[51]

-곡하며 애도하다.-

---

47 이 작품은 김지남(金止男)의 《용계유고(龍溪遺稿)》에는 실려 있지 않다.

48 김지남(金止男) : 1559~1631.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자정(子定), 호는 용계(龍溪)이다.

49 옥 같은……가지 : 남의 훌륭한 자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진(晉)나라 사현(謝玄)이 숙부인 사안(謝安)에게 "비유하자면 지란 옥수가 집안 섬돌에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게 하겠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庭階耳.〕"라고 자신의 소망을 밝힌 고사에서 유래했다. 《진서(晉書)·사안열전(謝安列傳)》

50 진유(眞游) : 신선놀음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신선이 되었다는 것으로 죽음을 의미한다.

51 윤유심(尹唯深) : 1551~1612.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통보(通甫)이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생부(生父)이다.

온화한 은혜 모두 다 예찬했었고 競贊溫溫惠
성대한 위의[52] 다투어 칭송했었네 爭稱棣棣儀
청춘이 아직 다 시들지 않았는데 靑春未全老
푸른 혜초 갑자기 먼저 시들었구나 碧蕙奄先萎
음식 쌓아 둬 겨울날 계획 세웠고[53] 旨蓄經冬計
겨울 옷 마련해 한 해 마칠 밑천으로 삼았지 寒衣卒歲資
지금에는 모든 상념 사라졌노니 如今萬念息
지아비만이 다만 서글퍼 하누나 悽惻只郎知[54]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세자시강원문학(行世子侍講院文學)
지제교(知製敎) 겸춘추관기주관(兼春秋館記注官)
조희일(趙希逸)[55]-두 번 절하다.-

난초 같은 고운 자태에 부덕도 마땅했고 婉孌蘭姿婦德宜
시부모 봉양하며 가장 기뻐했다오 及姑承奉最怡怡

---

52 성대한 위의 : '체체(棣棣)'는 위의(威儀)가 성대한 것을 말한다. 《시경(詩經)·백주(柏舟)》의 "내 마음은 돌이 아니라서 굴릴 수도 없고, 내 마음은 돗자리가 아니라서 걷어치울 수도 없다. 위의가 성대히 갖추어져서 특별히 고를 것이 없다.〔我心匪石, 不可轉也. 我心匪席, 不可卷也. 威儀棣棣, 不可選也.〕"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53 음식……세웠고 : '지축(旨蓄)'은 저장해 둔 맛있는 음식을 말한다. 《시경(詩經)·곡풍(谷風)》에 "나에게 쌓아 둔 채소가 있어, 그로써 겨울을 날 수가 있네.〔我有旨蓄, 亦以御冬.〕"라고 했는데, 이는 맛있는 채소를 쌓아 두어서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이다.

54 이 작품은 조희일(趙希逸)의 《죽음집(竹陰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55 조희일(趙希逸) : 1575~1638.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이숙(怡叔), 호는 죽음(竹陰) 또는 팔봉(八峰)이다.

마름 뜯어[56] 봉양하니 법도 어찌 어긋나랴　　采蘋中饋儀寧忒
약 훔쳐 달나라 갔으니 꿈인 듯 의심스럽네[57]　　竊藥騎蟾夢亦疑
우석의 〈상왕부〉[58]에 슬픈 감정 일어나고　　禹錫可感傷往賦
안인의 〈도망시〉[59]를 차마 듣지 못하겠네　　安仁不耐悼亡詩
이로부터 정이 생겨 글이 중요하게 되었노니　　情生自是以文重
장자 노인은 부질없이 동이만 두드렸다오[60]　　莊叟扣盆空爾爲[61]

통훈대부(通訓大夫) 행봉상시첨정(行奉常寺僉正)

차천로(車天輅)[62]-절하며 애도하다.-

옥봉의 고운 며느리 좋은 사람이라 칭송했고　　玉峰佳婦稱佳兒
아내 법도와 가풍은 세상 사람 다 알았다오　　閨範家風世共知
늘 말했지 "시부모 뜻 받들어 잘 모셨고　　常曰上堂善下氣
반평생 음식 봉양에 거안제미 했었네"　　半生中饋與齊眉

---

56 마름 뜯어 : 《시경(詩經)·채빈(采蘋)》에 "마름 풀 뜯으러 남쪽 시냇가로 가네. 마름 풀 뜯으러 저 개울가로 가네.〔于以采蘋, 南澗之濱. 于以采藻, 于彼行潦.〕"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시는 법도에 따라 제사 음식을 정결하게 마련하려는 주부(主婦)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록한 것이다.

57 약 훔쳐……의심스럽네 : '절약기섬(竊藥騎蟾)'은 항아(姮娥)와 관련된 고사이다. 예(羿)가 서왕모(西王母)에게서 얻은 불사약(不死藥)을 그의 처(妻)인 항아가 몰래 훔쳐 달 속으로 도망쳤다는 전설이 있다. 《회남자(淮南子)·남명훈(覽冥訓)》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아내가 죽었다는 의미이다.

58 우석의 상왕부 : 자세한 내용은 187쪽 주33 참조.

59 안인의 도망시 : 자세한 내용은 187쪽 주34 참조.

60 장자……두드렸다오 : 자세한 내용은 186쪽 주27 참조.

61 이 작품은 차천로(車天輅)의 《오산집(五山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62 차천로(車天輅) : 1556~1615.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복원(復元), 호는 오산(五山)·귤실(橘室)·청묘거사(淸妙居士)이다.

갑자기 학과 난새 떠나갔노니[63] 翻成別鶴離鸞去
다시는 〈여왈계명〉[64] 노래 듣지 못하겠네 不復聞鷄宜雁詩
누가 장림[65]에게 부탁해 정성스런 법도 전해 誰托張林傳悃則
큰 비석에 외손들 칭송하는 말 넘치게 할까 豊碑將溢外孫辭

일찍이 중랑의 업을 이었으며 早繼中郎業
국사의 집안으로 시집갔다오 于歸國士家
정갈한 음식으로 손님 접대했고 賓筵精酒醴
부드럽고 좋은 음식 올리었다네 廚饌薦柔嘉
거울 상자에게 남은 청대 거두고[66] 鏡匣收殘黛
흙 바른 집의 푸른 깁 어두워졌네 塗宮暗碧紗
마음 아프다 규방에 뜬 달빛이 傷心閨裏月

---

63 학과 난새 떠나갔노니 : '별학(別鶴)'과 '이란(離鸞)'은 거문고 곡조로, 남녀의 이별을 비유하는 데 흔히 쓰인다.

64 여왈계명(女曰鷄鳴) : 《시경(詩經)》의 편명이다. 〈여왈계명〉에 "여자가 닭이 울었다 하거늘, 남자는 아침이 아직 어둡다 하네. 여자가 말하길, '그대 일어나 밤을 보라. 샛별이 한창 반짝이고 있으니, 어서 떨치고 나가서 오리와 기러기를 잡을지어다.'〔女曰鷄鳴, 士曰昧旦. 子興視夜, 明星有爛. 將翱將翔, 弋鳧與雁.〕"라고 한 구절이 보인다. 이 시는 어진 부부가 혹시라도 안일함에 빠져서 일을 폐하게 될까 서로 경계하는 말을 노래한 것이다.

65 장림(張林) : 진(晉)나라 사람으로, 장림이 지은 〈진부인묘비(陳夫人墓碑)〉가 있는데, 그 비에서 진 부인의 현덕(賢德)을 아주 높이 칭송해 놓았다. 《예문유취(藝文類聚)》

66 거울……거두고 : '경갑(鏡匣)'은 거울을 넣어 두는 상자이고 '청대(青黛)'는 여인들이 눈썹을 그리는 데에 사용하는 검푸른 먹을 말한다. '거울 상자에서 청대를 거두었다'는 것은 부인이 죽었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당(唐)나라 이상은(李商隱)의 〈촉루(促漏)〉에 "춤추는 난새를 새긴 경갑에서 남은 청대를 거두고, 잠자는 오리 모양의 향로에서 저녁 향을 바꾸누나.〔舞鸞鏡匣收殘黛, 睡鴨香爐換夕熏.〕"라는 구절이 있다.

도리어 무덤 가로 기울어 가노니　　却向隴頭斜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영광군수(行靈光郡守) 윤황(尹煌)[67]

-절하며 애도하다.-

뛰어난 총명함은 하늘이 부여해 주었고　　天賦聰明脫等夷
멋지고 단아한 모습에 장수[68] 기대했네　　豊端姿貌可期頤
누가 알았으랴 이러한 고질병을 만나　　誰知値此膏盲疾
나로 하여금 조물주를 미워하게 할 줄　　使我憎玆造化兒
백 년 기약할 만큼 금슬이 좋았으며　　百歲自期琴瑟好
한평생 집안 화목하게 했다고 말들 했지　　一生人道室家宜
가엾다 한밤중 외론 난새 춤을 추며[69]　　堪憐中夜孤鸞舞
홀로 뜰 앞에서 끝없는 슬픔에 싸였으니　　獨向庭前無限悲[70]

당에 올라 일찍이 의기 서로 친함 깨달았고　　登堂早覺意相親

---

67 윤황(尹煌) : 1571~1639.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덕요(德耀), 호는 팔송(八松)이다.

68 장수 : '기이(期頤)'는 백 년의 수명을 누리면서 자손의 봉양을 받는 것을 뜻한다. 《예기(禮記)·곡례 상(曲禮上)》에 "백 년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수명이니, 자손들은 최대한으로 봉양해야 마땅하다.〔百年曰期, 頤.〕"라는 말이 나온다.

69 외론……추며 : 계빈국(罽賓國)의 임금이 준기산(峻祁山)에 그물을 쳐서 난조(鸞鳥) 한 마리를 잡아서 애지중지하였는데 3년 동안 울지 않았다. 그 부인이 "일찍이 들으니 새는 자기와 같은 무리를 보면 운다고 하였으니, 어찌 거울을 걸어서 제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여 거울을 걸어 두었더니, 난조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슬피 울더니 하늘로 한 번 날아오르고는 바로 죽었다 한다. 《태평어람(太平御覽)·난조시서(鸞鳥詩序)》 일반적으로 남편을 잃은 부인의 슬픔을 뜻한다.

70 이 작품은 윤광계(尹光啓)의 《귤옥졸고(橘屋拙稿)》에는 실려 있지 않다.

게다가 다시 인자하고 순후함 타고남에랴　　況復仁醇出天性
정성스런 모습으로 우애를 실천했으며　　款款儀容偏友愛
낭랑한 말로 맑은 정신 드러내었지　　琅琅言語最精神
가르치는 법도는 이미 추모[71]와 같았고　　已將教誨同鄒母
온화하고 공손함으로 길손을 접대했었지　　還把溫恭對冀賓
사정의 옥수[72]로 남은 경사 있으리니　　玉樹謝庭餘慶在
우두커니 인지 보면서 어짊 읊조리노라[73]　　佇看麟趾詠振振[74]

당종(堂從) 조봉대부(朝奉大夫) 전행공조정랑(前行工曹正郎) 지제교(知製敎) 윤광계(尹光啓)[75]-통곡하며 두 번 절하고 애도하다.-

정숙하게 가정의 가르침 받았고　　婉娩承庭訓
시집가선 아내의 도리에 힘썼지　　于歸婦道勤
손님 접대할 때 음식 정갈하게 했고　　賓筵精酒醴
제사 지낼 땐 제물[76] 깨끗이 하였다네　　祀事潔蘋蘩

---

71 추모(鄒母) : 추(鄒)나라 사람인 맹자(孟子)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맹가모전(孟軻母傳)》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갔던 고사가 전한다.

72 사정의 옥수 : 자세한 내용은 190쪽 주49 참조.

73 우두커니……읊조리노라 : '인지(麟趾)'는 《시경》의 편명인 인지지(麟之趾)의 준말로, 자손의 번창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기린의 인후함이여, 어진 공자들이로소니, 아 상서로운 기린이로다.〔麟之趾, 振振公子, 于嗟麟兮.〕"라는 내용이 보인다.

74 이 작품은 윤광계의 《귤옥졸고》에는 실려 있지 않다.

75 윤광계(尹光啓) : 1559~1619. 본관은 해남(海南), 자가 경열(景說), 호는 귤옥(橘屋)이다.

76 제물(祭物) : 자세한 내용은 192쪽 주56 참조.

병에 걸렸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서 一病醫無術
외론 난새 거울 속에 홀로 있게 되었지[77] 孤鸞鏡獨存
끝없이 남은 경사 있으리니 綿綿餘慶在
난초와 옥[78]이 집안 가득 성대하리라 蘭玉殷盈門

통훈대부(通訓大夫) 전행홍문관교리(前行弘文館校理) 홍방(洪霧)[79]

상사는 나보다 5살 형으로 上舍吾年伯
일찍이 아내에 대해 알고 있었다네 曾知內有人
화목한 집안에선 금슬을 칭송했었고 宜家稱琴瑟
제사 받들 땐 제물 정성스레 바쳤네 奉祭薦蘋蘩
신선 수레는 돌아갈 길 재촉하여 仙馭催歸路
그윽한 난초 계곡 먼지 속에 버려졌구나 幽蘭委壑塵
위로[80]는 한은 끝이 없으리니 無窮韋老恨
죽고 사는 것 어찌 감히 논하랴 生死詎敢論

전라좌도(全羅左道) 경차관(敬差官)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충무위사과(行忠武衛司果) 겸사헌부지평(兼司憲府持平)

---

77 외론……되었지 : 자세한 내용은 194쪽 주69 참조.

78 난초와 옥 : 자세한 내용은 190쪽 주49 참조.

79 홍방(洪雱) : 1573~1638.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경망(景望), 호는 지계(芝溪)이다.

80 위로(韋老) : 당(唐)나라 시인인 위응물(韋應物)을 말한다. 위응물의 문집인 《위소주집(韋蘇州集)》 권6에 〈상서(傷逝)〉·〈송종(送終)〉 등 〈도망시(悼亡詩)〉 19수(首)가 전하는데, 이는 모두 16세에 시집와서 36세에 죽은 그의 부인 하남 원씨(河南元氏)를 못 잊으며 절절이 추억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위응물에 견준 것이다.

임업(林懋)[81]-절하며 애도하다.-

딸아이 낳아[82] 정숙하게 길렀으며	寢地幽貞毓
시집가서는[83] 덕과 예가 드러났다오	移天德禮彰
양홍과 겨우 좋은 기약을 맺었는데[84]	梁鴻纔好合
반악처럼 갑자기 슬픔에 빠졌네[85]	潘岳遽哀傷
향기론 나무는 위응물의 머리털[86] 수심겹게 했고	芳樹愁韋鬢
푸른 등불은 이벽의 간장 끊어지게 했네[87]	青燈斷李腸
누가 말했나 현인은 반드시 장수한다고	誰言賢必壽
하늘의 이치 진실로 잘 알기 어렵도다	天理信難詳

전라우도(全羅右道) 경차관(敬差官) 중훈대부(中訓大夫)

---

81 임업(林懋) : 1570~1624.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신(子愼), 호는 석촌(石村)이다. 초명이 업(懋)으로, 임서(林惰)이다.

82 딸아이 낳아 : '침지(寢地)'는 아이를 낳아 땅에 눕힌다는 말이다. 《시경(詩經)·사간(斯干)》의 "이에 여자아이를 낳아 이에 땅에 눕힌다.〔乃生女子, 載寢之地.〕"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83 시집가서는 : '이천(移天)'은 하늘을 옮겼다는 것으로, 시집간 것을 말한다. 여자에게는 삼종지도(三從之道)가 있는데,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84 양홍(梁鴻)과……맺었는데 : 자세한 내용은 182쪽 주11 참조.

85 반악처럼……빠졌네 : 자세한 내용은 187쪽 주34 참조.

86 위응물의 머리털 : 자세한 내용은 196쪽 주80 참조.

87 이벽(李璧)의……했네 : '이장(李腸)'은 송(宋)나라 이벽의 애간장이라는 말로 보인다. 이벽 역시 아내를 잃고 〈도망시(悼亡詩)〉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남송(南宋)의 유극장(劉克莊)은 "도망시는 앞에 기성(騎省) 반악(潘岳)이 있고 뒤에 소주(蘇州) 위응물(韋應物)이 있으며 또 안호(鴈湖) 이벽이 있는데, 이들보다 더 뛰어난 이가 없다.〔悼亡之作, 前有潘騎省, 後有韋蘇州, 又有李鴈湖, 不可以復加矣.〕"라고 평한 바 있다. 《후촌시화(後村詩話)》

행예조정랑(行禮曹正郎) 겸사헌부지평(兼司憲府持平)

최연(崔蒨)[88]-곡하며 애도하다.-

아름다운 백씨의 아내가 있어	有美白氏婦
시집올 때부터 집안이 화목했지	宜家自于歸
끝내 완화하고[89] 내칙[90] 읽었으며	終溫讀內則
또 은혜롭고[91] 아내의 법도 닦았다오	且惠修中圍
지금까지 삼십여 년 동안	如今三十載
시부모 뜻 봉양하며 어김이 없었다오	養姑志無違
한 번의 병으로 갑자기 이렇게 되었나	一疾遽如許
세상 일이 마치 아침 이슬 마르는 것[92] 같네	世事朝露晞
손님 오면 누가 음식 준비하고	客來誰主饋
추워지면 누가 옷을 마련할거나	天寒誰縫衣
영혼 실은 수레가 무덤[93]으로 향하니	靈輀向槐里

---

88 최연(崔蒨) : 1576~1651. 본관은 삭녕(朔寧), 자는 유장(孺長), 호는 성만(星灣)·성연(星淵)이다.

89 끝내 온화하고 : '종온(終溫)'은 《시경(詩經)·연연(燕燕)》의 "중씨가 미더우니 그 마음 진실하고 깊도다. 끝내 온화하고 또 순하여 그 몸을 잘 삼갔고, 선군을 생각하라는 말로써 과인을 권면하도다.〔仲氏任只, 其心塞淵. 終溫且惠, 淑愼其身. 先君之思, 以勗寡人.〕"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90 내칙(內則) : 《예기(禮記)》의 편명으로, 가정에서 여성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법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91 또 은혜롭고 : 자세한 내용은 198쪽 주89 참조.

92 아침 이슬 마르는 것 : 자세한 내용은 185쪽 주25 참조.

93 무덤 : '괴리(槐里)'는 중국의 흥평현(興平縣)에 있는 지명인데, 이곳에는 한 무제(漢武帝)의 무릉(茂陵), 위청(衛靑)과 곽거병(霍去病)의 묘(墓) 등이 있으므로 시문(詩文)에서 흔히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참고로 두보(杜甫)의 〈고사도

백일도 슬픔에 잠겨 빛을 잃었구나　白日慘無輝
어진 이는 장수한다[94]고 들었는데　吾聞仁者壽
이 말이 맞는가 맞지 않도다　此言是耶非[95]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예조정랑(行禮曹正郎) 지제교(知製敎)
조위한(趙緯韓)[96]-절하며 애도하다.-

거문고에 줄 끊겨 탄식할 만하니　瑤琴絃絶足堪嗟
꿈속의 세월은 골짜기로 가는 뱀[97] 같네　夢裏光陰壑面蛇
얼음 같은 옥은 자연스레 성대한 가문 만들었고　氷玉自然生盛閥
그윽하고 한정함으로 마땅히 명가 이루었지　幽閑端合適名家
가정 가르침[98]에 오히려 연성벽[99]이 있어　鯉庭尙有連城璧

이광필(故司徒李光弼)〉에서 "고아했던 명망과 영웅스러운 자태가, 구슬프게 괴리와 접해 있구나.〔雅望與英姿, 悽愴槐里接.〕"라고 했다.

94 어진 이는 장수한다 : 《논어 · 옹야(雍也)》에 "지자는 즐기고 인자는 수를 누린다.〔知者樂, 仁者壽.〕"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95 이 작품은 조위한(趙緯韓)의 《현곡집(玄谷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96 조위한(趙緯韓) : 1567~1649.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지세(持世), 호는 현곡(玄谷)이다.

97 골짜기로 가는 뱀 : '학면사(壑面蛇)'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뱀이란 말로,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이다. 소식(蘇軾) 〈수세(守歲)〉에 "한 해가 저무는 걸 알고자 하면, 골짜기로 들어가는 뱀과 같아라. 긴 비늘이 반은 이미 들어갔으니, 가는 것을 누가 능히 막아내리오.〔欲知垂盡歲, 有似赴壑蛇. 脩鱗半已沒, 去意誰能遮.〕"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98 가정 가르침 : '이(鯉)'는 공자(孔子)의 아들이다. 공자(孔子)의 아들 이(鯉)가 뜰을 가로질러 갈 때〔過庭〕, 공자가 그를 불러 세우고 시(詩)와 예(禮)를 공부하라고 가르침을 내렸던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논어 · 계씨(季氏)》

99 연성벽(連城璧) : 전국 시대 진 소왕(秦昭王)이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에게 15성과 바꾸자고 청한 화씨벽(和氏璧)으로, 나라의 진귀한 보배를 뜻한다. 조나라

달[100] 속에서 응당 한 줄기 꽃을 들었으리라　桂殿應擧一朶花
저승길로 서글피 난새 이미 떠나가노니　泉路悲凉鸞已去
화장대에는 쓸쓸히 달빛만 비추네　鏡臺寥落月初斜

집안의 이름난 시문은 남녘에서 돋보였고　自家名韻藉南端
웅대한 문벌 마한에서 드날렸다오　雄閥由來擅馬韓
명성은 두 옥수[101]에게 넉넉히 전해졌는데　聲價剩傳雙玉樹
바람서리에 유독 한 떨기 난초 꺾어졌네[102]　風霜偏折一叢蘭
구름 깊은 단혈에서 외론 봉새[103] 시름하고　雲深丹穴愁孤鳳
달빛 찬 청산에서 짝 잃은 난새[104] 원망하네　月冷青山怨隻鸞
생각해 보면 저승 눈물 머금은 곳에서　想見泉臺含淚處
토사[105]의 꽃 그림자 결국 홀로이리라　菟絲花影竟成單

인상여(藺相如)가 이 구슬을 가지고 진나라에 갔다가 성을 주겠다는 진나라의 약속이 미덥지 못하자, 다시 화씨벽을 온전히 보전해서 조나라로 돌아가게 했던 '완벽귀조(完璧歸趙)'의 고사가 전한다. 《사기(史記)·염파인상여열전(廉頗藺相如列傳)》

100 달 : '계전(桂殿)'은 계수(桂樹), 즉 계수나무가 있는 달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죽어 달나라로 갔다는 의미이다.

101 옥수(玉樹) : 자세한 내용은 190쪽 주49 참조.

102 한 떨기……꺾어졌네 : '절란(折蘭)'은 난최옥절(蘭摧玉折)로, 현재(賢才)가 요절(夭折)한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언어(言語)》에 "모백성(毛伯成)이 자신의 재기(才氣)를 자부하면서 항상 '차라리 난초로 꺾이고 옥으로 부서질지언정, 쑥부쟁이처럼 더부룩하게 우거지지는 않겠다.〔寧爲蘭摧玉折, 不作蕭敷艾榮.〕' 했다."라는 말이 보인다.

103 외론 봉새 : 자세한 내용은 184쪽 주19 참조.

104 짝 잃은 난새 : 자세한 내용은 194쪽 주69 참조.

105 토사(菟絲) : 여라(女蘿)로 새삼 덩굴이다. 여기에서는 짝을 잃은 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두보(杜甫)의 〈신혼별(新婚別)〉에서 "새삼 덩굴이 쑥대 삼을 타고 오르니, 이 때문에 덩굴이 길게 뻗지 못하네. 딸을 원정군에게 시집보내

통훈대부(通訓大夫) 행능성현령(行綾城縣令) 윤수(尹燧)[106]

-절하며 애도하다.-

정숙하고 고요한 덕망을 지닌 채 貞靜幽閑德
시집온 지 삼십여 년 于歸三十冬
함께 늙자는 계획 어긋나 事乖偕老計
미망객은 시름에 잠겨 있다네 愁滯未亡客
옥수는 오히려 훌륭하기만 한데 玉樹猶看秀
색동옷[107] 만드는 일 갑자기 끊어졌네 菜衣忽罷縫
뜬세상 황급히 떠나 마음 아프니 傷心浮世促
근심 즐거움 모두 자취가 없어라 憂樂摠無蹤

한평(漢平) 조유한(趙維韓)[108]-곡하며 애도하다.-

적선[109]을 보지 못한 지 지금 오 년 不見謫仙今五年

려거든, 차라리 길가에 버리는 게 나으리라.〔兎絲附蓬麻 引蔓故不長 嫁女與征夫 不如棄路傍〕."라고 한 바 있다. 이는 부부의 이별을 말한다. 또한 고시(古詩)에서는 "그대와 새로 혼인을 했으니, 토사가 송라에 부침이로다.〔與君爲新婚, 兎絲附松蘿.〕"라고 한 구절도 보인다.

106 윤수(尹燧) : 1562~1617.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명숙(明叔), 호는 설봉(雪峯)이다.

107 색동옷 :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70세 된 노래자(老萊子)가 일부러 색동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떨었다는 고사가 있다.《초학기(初學記)·효자전(孝子傳)》

108 조유한(趙維韓) : 1558~1613.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지국(持國)이다.

109 적선(謫仙) : 보통 당(唐)나라 시인 이백(李白)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백진남을 가리킨다.

강남의 길은 아득히 삼천리라오　江南迢遞路三千
훌륭한 글씨[110]를 늘 사모했었는데　籠鵝文彩尋常慕
아내 죽었다[111]는 부고가 갑자기 이르렀네　炊臼凶音遽爾傳
서치의 생추[112]도 바치지 못해 탄식하고　孺子生芻嗟未致

---

110 훌륭한 글씨 : '농아문채(籠鵝文彩)'는 동진(東晉) 때의 명필 왕희지(王羲之)와 관련된 고사가 있다. 왕희지가 산음(山陰)의 도사(道士)가 가진 거위를 얻기 위해 당대에 이름난 자신의 필적을 아끼지 않고 《도덕경(道德經)》을 써 주고는 거위들을 조롱에 담아 가지고 왔다 한다. 《진서(晉書) · 왕희지열전(王羲之列傳)》 참고로 이백(李白)은 〈왕우군(王右軍)〉에서 "우군은 본래 청진한 사람인데 소쇄한 모습으로 풍진에 있도다. 산음에서 도사를 만나니 이 거위 좋아하는 손님에게 글씨 달라 요구했지. 흰 깁을 펼쳐 도덕경을 쓰니, 필법이 정묘하여 입신의 경지로세. 글씨를 다 쓰고는 거위를 조롱에 넣어 갔나니 어찌 주인에게 작별 인사인들 했으랴.〔右軍本淸眞, 瀟洒在風塵. 山陰遇羽客, 要此好鵝賓. 掃素寫道經, 筆精妙入神. 書罷籠鵝去, 何曾別主人.〕"라고 한 바 있다.

111 아내 죽었다 : '취구(炊臼)'는 취구몽(炊臼夢)을 말한다. 옛날 강회(江淮)의 왕생(王生)이란 사람이 해몽(解夢)을 잘했다. 한번은 장사꾼 장첨(張瞻)이란 자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마침 절구통 안에다 밥 짓는 꿈을 꾸고는 왕생에게 가서 그 해몽을 부탁하자, 왕생이 말하기를, "그대는 집에 가도 아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절구통 안에 밥을 짓는 것은 진실로 솥이 없기 때문이다.〔君歸不見妻矣, 臼中炊, 固無釜也.〕"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장첨이 자기 집에 돌아가 보니, 과연 그 아내는 죽은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난 뒤였더라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유양잡조(酉陽雜俎) · 몽(夢)》 전하여 상처(喪妻)의 뜻으로 쓰인다.

112 서치(徐穉)의 생추(生芻) : '유자(孺子)'는 후한(後漢)의 고사(高士) 서치의 자(字)이다. '생추'는 조촐한 예물로 조문하는 일을 말한다. 서치가 배낭을 메고 각지를 유력하다가 누가 죽거나 상(喪)을 당하면 도보로 먼 길을 찾아가서 제사를 올린 뒤에 곧장 떠나갔으므로 그가 누구인지 상주(喪主)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곽태(郭太)가 모친상을 당했을 적에 누군가가 그의 여막 앞에 생추 한 묶음을 놔두고 떠났으므로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자, 곽태가 "필시 남주(南州)의 고사 서유자(徐孺子)일 것이다. 《시경(詩經) · 백구(白駒)》에서 이르지 않았던가, '망아지에게 먹이는 싱싱한 풀 한 다발, 그 사람 백옥처럼 아름다운 분.〔生芻一束, 其人如玉.〕'이라고. 하지만 나의 덕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한 고사가 전한다. 《후한서(後漢書) · 서치열전(徐穉列傳)》

양주의 사귐[113]에 부끄럽기만 하여라　　凉州交契愧歉然
멀리서도 알겠어라 맑은 덕에 남은 경사 있어　　遙知淑德徵餘慶
뜰 가에 지초와 난초[114] 무성하리라　　庭畔芝蘭摠蔚芊

중직대부(中直大夫) 행홍문관부수찬(行弘文館副修撰)
지제교(知製敎) 겸경연검토관(兼經筵檢討官)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 박정길(朴鼎吉)[115]-절하며 애도하다.-

아름답고 고운 후손이 있는데　　有美嬋媛系
태어나면서 요조숙녀의 자태였네　　生茲窈窕姿
정성껏 봉양하며 몸소 음식 마련했고　　奉誠身主饋
공경함 속에 거안제미 했다오　　持敬案齊眉
아내의 도리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으랴　　婦道何如也
집안사람들 이렇게 하기 힘들 정도였네　　門闥歎服之
그런데 어찌하여 쉰도 되기 전에　　胡爲未五[116]十
갑자기 이러한 지경에 이르셨나　　奄忽至於斯[117]

전사과(前司果) 조찬한(趙纘韓)[118]-두 번 절하다.-

---

113 양주의 사귐 : 미상(未詳).

114 지초와 난초 : 자세한 내용은 190쪽 주49 참조.

115 박정길(朴鼎吉) : 1583~1623.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양이(養而)이다.

116 五 : 조찬한(趙纘韓)의 《현주집(玄洲集)》 권5 〈挽白善鳴妻【振南】〉에는 '四'로 되어 있다.

117 이 작품은 조찬한의 《현주집》 권5에 〈挽白善鳴妻【振南】〉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18 조찬한(趙纘韓) : 1572~1631.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선술(善述), 호는 현주(玄洲)이다.

현숙한 아내 귤정[119] 집안에서 나고 자라　幽閨生長橘亭門
끝까지 아내 법도 돈후했다고 들었다네　得對終聞婦禮敦
오경의 별빛에 서로를 경계했었고　五夜明星相警戒
몇 년이나 좋은 음식[120]으로 아침저녁 봉양했나[121]　幾年甘毳奉晨昏
노을 병풍은 아득히 돌아올 날이 없게 되었고　霞屛縹緲無回日
상여줄 얼키설키 끌며 혼이 떠나가누나　紼翣交橫引去魂
만고 세월 푸른 산에 사녀를 묻노니　萬古靑山埋士女
흰 구름 덮인 비석을 누가 알려 주려나　石章誰動白雲根[122]

청주(菁州) 강항(姜沆)[123]-절하며 애도하다.-

사문의 가문에서 태어나서는　系出斯文閥
한묵의 집안으로 시집갔다네　于歸翰墨家
온 마음 기울여 음식 마련했고　專心治酒醬
집안일 열심히 길쌈에 힘썼네　篤業務絲麻
집안 법도는 늘 검소함에서 비롯되었고　壺範常由儉

---

119 귤정(橘亭) : 윤구(尹衢, 1495~?)의 호이다. 고산 윤선도(尹善道)의 증조고(曾祖考)이다. 백진남의 아내가 귤정 윤구 집안의 딸이었다는 의미이다.

120 좋은 음식 : '감취(甘毳)'는 맛있고 부드러운 음식을 말한다. 《사기(史記)·자객열전(刺客列傳)》에 "신이 다행히 늙은 어머니가 있어, 집이 가난하여 떠돌면서 개 잡는 일을 하면서도 아침저녁으로 맛있는 고기를 얻어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습니다.〔臣幸有老母, 家貧, 客游以爲狗屠, 可以旦夕得甘毳以養親.〕"라는 구절이 보인다.

121 아침저녁 봉양했던가 : 자세한 내용은 189쪽 주44 참조.

122 이 작품은 강항(姜沆)의 《수은집(睡隱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123 강항(姜沆) : 1567~1618.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태초(太初), 호는 수은(睡隱)이다.

손님 접대할 땐 자못 풍성하게 했다오　賓筵動致奢
자식들 결혼 마치기를 기약했었는데　方期婚嫁畢
저승[124]으로 먼 길 떠나 탄식하누나　大暮經長嗟

전전적(前典籍) 홍천영(洪千璟)[125]–절하며 곡하다.–

일찍이 장림의 부덕비[126]를 읽었는데　曾讀張林婦德碑
천 년 세월 아내 법도 함께 드리울 만했네　千年閨範可同垂
어김없이 유순하게 거안제미 했었고　無違有順齊眉日
온화하고 공손한 모습으로 뜻 받들었지[127]　和氣承顔養志時
집안 넉넉하게 된 것은 아내로 인한 것이며　潤屋倉箱由內相
뜰 가득한 난옥[128]은 모두 훌륭한 자식이라네　滿庭蘭玉摠佳兒
인간 세상에서 장수와 복 겸비하기 어렵나니　人間壽福難兼至
사십 년 세월이 모두 비통하게 되었구나　四十春秋一爲悲

---

124 저승 : '대모(大暮)'는 긴 밤이라는 말로, 죽음을 의미한다.

125 홍천영(洪千璟) : 1553~1632.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군옥(羣玉), 호는 반환(盤桓)·반항당(盤恒堂)이다.

126 장림(張林)의 부덕비(婦德碑) : 자세한 내용은 193쪽 주65 참조.

127 뜻 받들었지 : '양지(養志)'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모신다는 말이다.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증자(曾子)께서 증석(曾晳)을 봉양할 적에 밥상에 반드시 술과 고기가 있었는데, 밥상을 치울 적에 증자가 반드시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으며, 증석이 '남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증석이 죽자, 증원(曾元)이 증자를 봉양했는데, 밥상에 반드시 술과 고기가 있었으나 밥상을 치울 적에 증원은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라고 묻지 않았으며, 증자가 '남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반드시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그 음식을 다시 올리려고 해서였다. 이것은 이른바 '구체(口體)만을 봉양한다.'는 것이니, 증자와 같이 하면 '뜻을 봉양한다[養志]'라고 이를 만하다."라고 했다.

128 난옥(蘭玉) : 자세한 내용은 190쪽 주49 참조.

승훈랑(承訓郞) 전형조좌랑(前刑曹佐郞) 김극녕(金克寧)

-절하며 애도하다.-

요조숙녀는 군자와 어울리는데　　窈窕宜君子
평생 멀리 떨어져 지냈다오[129]　　平生契闊心
엄숙하고 온화한 아내 법도는 올바랐고　　肅雍閨壺正
자애롭고 효성스러움 마을에서도 흠모했지　　慈孝里閭欽
떠나는 길[130]에 명정이 바람이 어지럽고　　祖道風旌亂
혼백 돌아가는 월궁은 깊숙하여라　　歸魂月殿深
훌륭한 명성 사람들에게 전해지리니　　豐碑在人口
장림의 비석을 빌릴 필요 없다네　　不用借張林[131]

전교관(前敎官) 권필(權韠)[132]-애도하다.-

아내 덕으로 집안은 정숙했고　　媲德門闌靜

---

129 멀리 떨어져 지냈다오 : '계활(契闊)'은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말한다. 《시경(詩經)·격고(擊鼓)》에 "죽든 살든 멀리 떨어져 있든 그대와의 약속 이루자고 하였노라.〔死生契闊, 與子成說.〕"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주자(朱子)는 《집전(集傳)》에 "계활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성설(成說)은 그 서약(誓約)한 말을 이룸을 이른다."라고 했다.

130 떠나는 길에 : '조도(祖道)'는 조도제(祖道祭)로, 먼 길 떠날 때에 행로신(行路神)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말한다. 옛적에 황제의 아들 누조(累祖)가 여행길에서 죽었으므로 후인이 행로신으로 모신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죽어 저승 가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131 이 작품은 권필(權韠)의 《석주집(石洲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132 권필(權韠) : 1569~161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이다.

집안 다스릴 때 시와 예 넉넉했지　持家詩禮優
일상생활은 여훈을 따랐으며　起居從女訓
맛 좋은 음식을 마련했다오　甘旨盡珍羞
마흔의 짧은 삶에 서글프니　四十悲脩短
유명지간에 가고 머묾 비통해라　幽明痛去留
솔바람과 풀에 내린 이슬에　松風與草露
쓸쓸하게 천년도록 갇히었다네　寂寞閟千秋

급제(及第) 임회(林檜)[133]-절하며 애도하다.-

한밤중에 죽어 한 꿈이 근심스러웠고　炊臼中宵一夢愁
자줏빛 난초 꺾인 곳[134]에 새벽이슬 짙었네　紫蘭催處曉霜稠
황천으로 이미 날아간 양 날개 그림자　黃壚已隔雙飛影
벽해에서 비목어[135] 노닒 만나기 어렵게 되었네　碧海難逢比目遊
자식들[136]은 나라의 보배라고 다투어 칭송하고　玉樹爭稱懷國寶
향산[137]을 넉넉히 본받아 풍류를 즐기었네　香山贏得藉風流
마치 손님처럼 평생 서로 공경했는데　平生相敬猶如客

---

133 임회(林檜) : 1562~1624.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공직(公直), 호는 관해(觀海)이다. 정철(鄭澈)의 문인이자 사위이다.

134 자줏빛……곳 : 자세한 내용은 200쪽 주102 참조.

135 비목어(比目魚) : '비목(比目)'은 비목어를 말한다. 비목어는 가자미로, 눈이 각각 한쪽에만 달려 있어 두 마리가 만나야만 비로소 나란히 다닐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전하여 정분(情分)이 매우 두터운 친구 사이나 부부(夫婦) 사이를 비유한다.

136 자식들 : 자세한 내용은 190쪽 주49 참조.

137 향산(香山) : 향산거사(香山居士)라고 자호(自號)한 당(唐)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을 백거이에 견준 것이다.

훌륭했던 아내의 도리만 부질없이 전해지네　　宜室空傳婦道優

장사랑(將仕郎) 윤욱(尹頊)[138]-곡하며 애도하다.-

지아비와 지어미 되어 조강지처가 되었으며　　爲夫爲婦兮出糟糠
결혼해 부부 되었으면 당에서 내리지 못하거늘　　結髮結縭兮不下堂
어찌하여 백 년 살지 못하고 나보다 먼저 가시었나
　　胡不百年兮先我亡

'선아망(先我亡)'이 다른 판본에는 '중도망(中道亡)'으로 되어 있다.

자식들 놓아두고 규방을 떠나　　離其子女兮去閨房
저 송추[139]가 있는 산비탈로 가시어　　遵彼松楸兮山之岡
호리[140]에서 여우 토끼와 이웃 되시었나　　狐兎爲隣兮蒿里傍

슬픔 속에 영원히 이별하니 황망하기만 하고　　御哀永訣兮但遑遑
외론 봉새 놀라 날며 짝이 봉새를 부르니[141]　　孤鳳驚飛兮呼其凰
하소연하고자 하나 하늘은 푸르기만 하네　　我欲訴之兮天蒼蒼

생원(生員) 진경문(陳景文)[142]-삼가 애도하다.-

---

138 윤욱(尹頊) : ?~?.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경중(卿仲), 호는 반우노인(飯牛老人)·심적당(心適堂)이다.

139 송추(松楸) :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말하는데, 예전 무덤 가에 심었던 나무이다. 전하여 무덤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140 호리(蒿里) : 태산(泰山) 남쪽에 있는 산의 이름인데, 사람이 죽으면 여기에 묻었던 고사에서 유래하여, 후세에 묘지(墓地)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141 외론……부르니 : 자세한 내용은 194쪽 주69 참조.

142 진경문(陳景文) : 1561~1642. 본관은 여양(驪陽), 호는 섬호(剡湖)이다.

어진 사람이 장수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지만 간혹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선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 또한 하늘의 이치이지만 진실로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장차 어떻게 절충하여 조화시켜야 하는가.[143]

송호 백진남의 아내 윤씨(尹氏)는 그 사람됨이 참되고 어질었다. 효성으로 시부모님을 봉양하였는데, 사람들도 형제들의 말에 이견(異見)을 보이지 않았다.[144] 가정에서 두 현인에게 배워[145] 모두들 천리마의 재능이 있다고 칭송했으며, 탄복의 낭군[146]은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147]의 실마리를 이었다. 그러니 모든 일이 한 집안의 경사가 되기에 충분했으니, 이른바 복을 받아 누리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하늘

---

143 어진……하는가 : 이 구절은 소식(蘇軾)의 〈삼괴당명(三槐堂銘)〉에 "하늘의 뜻이 공정하다고 기필할 수 있는가. 현자(賢者)가 꼭 귀하게 되지 않고 인자(仁者)가 꼭 오래 살지 않는다. 하늘의 뜻이 공정하다고 기필할 수 없는가. 인자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후손이 있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절충하여 조화시켜야 하는가.〔天可必乎, 賢者不必貴, 仁者不必壽. 天不可必乎, 仁者必有後, 二者, 將安取衷哉.〕"라고 한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144 사람들도……않았다 : 이 구절은 《논어 · 선진(先進)》의 "효성스럽구나, 민자건이여. 사람들이 그의 부모와 형제들의 말에 대해 달리 말하지 못하는구나.〔孝哉, 閔子騫, 人不間於其父母昆弟之言.〕"라는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145 가정에서 두 현인에게 배워 : 자세한 내용은 199쪽 주98 참조

146 탄복(坦腹)의 낭군 : 탄복랑(坦腹郞)은 배를 드러낸 신랑감이라는 뜻으로, 흔히 다른 사람의 사위를 칭하는 말로 쓰인다. 진(晉)나라 때 태위(太尉) 치감(郗鑒)이 왕도(王導)의 집안에서 사윗감을 고르려고 왕도의 집에 사람을 보냈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잘 보이려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있었으나 왕희지(王羲之)만은 동상(東床)에서 배를 드러내 놓고 태연히 누워 음식을 먹고 있었으므로, 왕희지를 사위로 정했다는 고사가 있다. 《세설신어(世說新語) · 아량(雅量)》

147 이후백(李後白) : 1520~1578.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계진(季眞), 호는 청련(靑蓮)이다.

은 어찌하여 이미 선한 사람이라고 해 놓고 경사(慶事)로 보답한 것은 대단히 두터웠으면서도 그 어진 것에 대해서는 장수를 내리지 않아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했단 말인가.

강호의 늙은이가 갑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날 곧바로 힘겹게 발길을 옮기었다. 그 친척들과 노복들이 애통해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바이지만, 그 마을의 여인이나 늙은이들도 대부분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진 부인께서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어진 부인께서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라고 했다.

오호라 슬프도다. 깊은 규방의 맑은 법도가 얼마나 평소에 잘 드러났으면 지금까지도 멀고 가까운 이들이 그 어짊에 탄복하고 그 죽음에 아파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니 그 어짊과 선함은 한 고을에서만 칭송되거나 한 시대에만 알려질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옛 어진 부인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이에 삼가 만사 일절(一絶)을 짓노니, 다음과 같다.

일찍이 하늘에선 옛 신선의 무리였는데　三淸曾是舊仙儔
한 번 인간 세상에 내려와 얼마나 보냈는가　一下人間歲幾迺
가을 오자 학을 타고 먼 길을 돌아갔노니　鶴馭秋來歸縹緲
부질없이 찬 달빛만이 무덤을 비추누나　空留寒月照丹丘

만력(萬曆) 39년(1611) 10월 일, 향인(鄕人) 생원(生員) 김안방(金安邦)-절하며 애도하다.-

한 번 시집온 후 얼마나 세월 흘렀나　一自于歸問幾年
자손들 번성한데 모두 다 멋지고 어질다네　子孫連袂儘英賢

가풍은 화목하고 아내 법도는 가지런하며　家風雍睦閨儀整
성품은 온화 순후했고 부인의 덕도 온전했네　至性溫醇婦德全
영원히 남긴 은혜에 노복들도 사모하는데　遺澤永留僮僕慕
붉은 영정 지금 바닷가 산으로 떠나가누나　丹旌今向海山遷
뜬 인생 사십 년이 오히려 꿈만 같노니　浮生四十還如夢
황망한 대련과 소련[148]에 애달프구나　哀此遑遑大小連

향인 생원 김안우(金安宇)-두 번 절하다.-

평소 송호 노인 잘 섬기었고　雅善松湖老
일찍이 아내 법도 어짊을 알았네　曾知閨範賢
동서[149] 간에도 예에 따라 행동했었고　禮緣鍾郝受
풍도는 절로 고왕[150]의 스승이었다오　風自顧王傳
새 흙으로 무덤[151]을 만드노니　馬鬣封新土

---

148 대련(大連)과 소련(小連) : '대소련(大小連)'은 대련과 소련으로, 거상(居喪)을 잘한 인물이다. 《예기(禮記)·잡기 하(雜記下)》에 "소련과 대련은 거상을 잘하여 3일 동안 태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해이하지 않았으며, 1년 동안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했는데, 이들은 동이 사람이다.〔少連大連善居喪, 三日不怠, 三月不解, 期悲哀, 三年憂, 東夷之子也.〕"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자식들을 가리킨다.

149 동서(東西) : '종학(鍾郝)'은 아녀자로서의 덕이 아주 현숙(賢淑)하여 동서 간에 잘 지내는 것을 말한다. 위진(魏晉) 시대 진(晉)나라 왕혼(王渾)의 아내 종씨(鍾氏)는 위(魏)나라의 태부(太傅)를 지낸 종요(鍾繇)의 증손녀였는데, 왕혼에게 시집온 뒤로 아녀자로서의 예의와 법도가 아주 뛰어났으며, 왕혼의 동생 왕담(王湛)의 아내 학씨(郝氏) 역시 뛰어난 행실이 있었다. 이들은 동서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왕담의 집에서는 학 부인의 법도를 본받았고, 왕혼의 집에서는 종 부인의 예법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한다. 《세설신어(世說新語)·현원(賢媛)》

150 고왕(顧王) : 부인의 규범과 관련된 두 인물로 보이는데, 미상(未詳)이다.

151 무덤 : '마렵(馬鬣)'은 말갈기처럼 된 분묘(墳墓) 형태의 하나로, 보통 무덤을 의미한다.

난교[152]로도 옛 줄을 잃어버렸구나　　鸞膠失故絃
봉황 같은 두 자식에게 남겨진 경사 있어　　尙餘雙鳳角
대대로 가업[153]을 이으리라　　世世業靑氈

생원(生員) 오정남(吳挺男)-애도하다.-

사십오 년의 삶이 진실로 한바탕 꿈이니　　四十五年眞一夢
지난날 돌아보매 더욱 눈물만 흐른다　　追惟往事倍潸然
덕망으로 집안 다스려 노복들도 은혜롭게 여겼고　　德流庭戶恩僮僕
정성스런 제물[154]로 선조들께 효성 바쳤지　　誠薦蘋蘩孝祖先
기결의 아내처럼 손님 대하듯 음식 마련했고[155]　　冀缺妻如賓主饋
최씨 집안 며느리처럼 시부모 어질게 섬기었네[156]　　崔門人道婦姑賢

---

152 난교(鸞膠) : 서해(西海)에서 바쳤다는 난새로 고은 갖풀이다. 한 무제(漢武帝)가 일찍이 이것으로 끊어진 거문고 줄을 튼튼하게 접착시켰다고 한다.

153 가업(家業) : '청전(靑氈)'은 선대(先代)로부터 전해진 귀한 유물을 가리킨다. 진(晉)나라 왕헌지(王獻之)가 누워 있는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모조리 훔쳐 가려 할 적에, 그가 "도둑아, 푸른 모포는 우리 집안의 유물이니, 그것만은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偸兒, 靑氈我家舊物, 可特置之.〕"라고 하자, 도둑이 질겁하고 도망쳤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진서(晉書)·왕희지열전(王羲之列傳)》

154 제물(祭物) : 자세한 내용은 192쪽 주56 참조.

155 기결(冀缺)의……마련했고 : '기결'은 춘추(春秋) 시대 진(晉)나라 기읍(冀邑)에 살았던 극결(郤缺)을 말한다. 그가 기읍에 은둔하여 농사지으며 살 때에 아내가 들밥을 내가곤 하였는데, 부부간에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깍듯이 공경하였다고 한다. 《국어(國語)·진어(晉語)》

156 최씨……섬기었네 : 당(唐)나라 때 산남서도 절도사(山南西道節度使)를 지낸 최관(崔琯)의 증조모 장손 부인(長孫夫人)이 나이가 많아 치아(齒牙)가 없어 밥을 먹지 못하자, 최관의 조모 당부인이 수년 동안 시어머니인 장손 부인에게 젖을 먹이는 등 효성이 지극했다. 장손 부인은 죽을 때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의 은혜를 갚을 수 없으니, 며느리의 자손들이 모두 며느리처럼 효도하고

고운 영혼 영원히 저승으로 가게 되었으니　　精靈永托泉臺夜
어진이 장수한다는 하늘 이치 믿기 어렵네　　仁壽終難必老天

진사(進士) 윤작(尹綽)-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만력(萬曆) 39년(1611) 신해(辛亥) 10월 정묘(丁卯) 삭(朔) 29일 을미(乙未)에 당종형(堂從兄) 조봉대부(朝奉大夫) 전행공조정랑(前行工曹正郎) 지제교(知製敎) 윤광계(尹光啓)[157]는 삼가 아들 윤형(尹逈)을 보내어, 맑은 술과 제물(祭物)로 삼가 백씨(白氏) 누이의 영전에 다음과 같이 고하노라.

오호라 어진 누이여　　嗚呼賢妹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而至是耶
정승 집안의 후예요　　相門之系
유자의 집안 딸로　　儒素之家
어려서는 총명했으며　　幼而穎悟
자라면서 더욱 노성했지　　長益老成
이미 남편 섬기면서　　旣相夫子
참으로 아름답고 곧았다네　　洵美且貞
제물은 항상 때에 맞았고　　蘋蘩孔時
조상을 산 사람처럼 섬기었지　　事死如生

공경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최씨의 가문이 어찌 창대(昌大)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다. 《신당서(新唐書)·최관열전(崔琯列傳)》

157 윤광계(尹光啓) : 1559~1619.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경열(景說), 호는 귤옥(橘屋)이다.

맛 좋은 음식 끊이지 않았고 旨甘無缺
정성으로 시부모님 섬기었네 養姑以誠
낭랑한 웃음과 말에 琅琅笑語
친척들이 기뻐했으며 親戚喜之
음식 마련에 힘쓰니 亹亹酒食
손님들 이를 칭송했었지 賓客稱之
유순한 도리와 柔順之道
성실한 마음가짐[158] 塞淵之心
《주역》의 재물을 체득했고[159] 體易載物
《시경》의 덕음을 본받았다오[160] 師詩德音
규문은 질서정연하여 閨門井井
안을 다스리는 법도가 있었고 治內有法
노복은 기뻐하였으니 婢僕欣欣
아래 사람 다스리는 법 있었네 御下有則
맹모의 자식 교육[161]을 따랐으며 趨機孟母

---

158 성실한 마음가짐 : '색연(塞淵)'은 성실하다는 뜻으로, 《시경(詩經)·정지방중(定之方中)》의 "사람의 마음가짐 성실할 뿐만이 아닌지라, 우람한 말 삼천 마리 들어찼도다.〔匪直也人, 秉心塞淵, 騋牝三千.〕"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159 주역(周易)의 재물을 체득했고 : 《주역·곤괘(坤卦)》의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厚德載物〕"라는 구절을 의미한다. 곤괘는 부인의 덕과 관련된 언급이다.

160 시경(詩經)의 덕음을 본받았다오 : 부부 사이의 진실한 믿음을 뜻한다. 《시경·곡풍(谷風)》에 "배추를 뜯고 부추를 뜯음은 그 뿌리를 먹자는 것이 아니니, 덕음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면 그대와 함께 죽어야 한다.〔采葑采菲, 無以下體, 德音莫違, 及爾同死.〕"라고 했다. 이는 부부 사이에는 덕행(德行)이 중요한 것이지 용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 심덕(心德)이 어긋나지 않으면 부부가 변치 않고 해로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홍의 처처럼 거안제미 했네[162] 擧案鴻妻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兼而有之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었다오 展如人乎
오호라 슬프구나 嗚呼哀哉
바람 부는 나무 고요하기 어렵고[163] 樹風難靜
염교의 이슬은 쉬 마른다오[164] 薤露易乾
고어의 통곡[165]과 皐魚之慟
순찬의 슬픔[166] 荀粲之悲
광계가 옛날 일찍이 당에 올라 光啓昔嘗升堂

---

161 맹모의 자식 교육 : 자세한 내용은 195쪽 주71 참조.

162 양홍의……했네 : 자세한 내용은 182쪽 주11 참조.

163 바람……어렵고 : 어버이가 세상을 떠나 다시는 봉양할 수 없는 자식의 슬픔을 말한다. 공자(孔子)가 주(周)나라 구오자(丘吾子)에게 슬피 통곡하는 이유를 묻자, "나무가 조용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것은 세월이요, 다시 뵐 수 없는 것은 어버이이다.〔夫樹欲靜而風不停, 子欲養而親不待. 往而不來者年也, 不可再見者親也.〕"라고 대답하고는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풍수지탄(風樹之歎)'의 고사가 있다. 《공자가어(孔子家語)·치사(致思)》

164 염교의……마른다오 : 자세한 내용은 185쪽 주25 참조.

165 고어(皐魚)의 통곡 : 춘추 시대 공자(孔子)가 길을 가는데 고어란 사람이 슬피 울고 있기에 까닭을 물었더니,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여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여도 어버이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라고 하고는 서서 울다가 말라 죽었다는 고사가 있다. 《한시외전(韓詩外傳)》 일반적으로 어버이를 생전에 모시지 못하여 사후에 슬퍼하는 마음을 뜻한다.

166 순찬(荀粲)의 슬픔 : '순찬'은 삼국(三國) 시대 위(魏)나라 사람이다. 순찬은 자기 부인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일찍이 부인이 겨울철에 열병(熱病)을 앓을 적에는 자신이 밖에 나가 몸을 차갑게 해서 들어와 자신의 몸으로 부인의 열을 식혀 주었고, 이어 부인이 죽고 나서는 그 또한 지나친 상심(傷心) 끝에 요절하였던 고사가 전한다.

술잔을 받았었는데 得奉樽巵
가인은 예를 마치고서는 家人禮畢
얼굴빛이 온화하고 밝았다오 顔色怡怡
운명이구나 이 사람이 命矣斯人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而至於斯
오호라 슬프도다 嗚呼哀哉
유명 간에 길이 다르니 幽明途殊
영혼 실은 수레 새벽에 출발하네 靈車曉發
나는 병을 앓고 있어서 疾病間之
가서 상여줄 잡지 못하네 未往執紼
이에 집안 자식을 보내어 玆遣家豚
삼가 조촐한 제물 진설하네 敬陳菲薄
제문을 지어 올리니 詞以薦之
내 정성에 흠향하소서 欽我惘愊
상향 尙饗[167]

167 이 작품은 윤광계(尹光啓)의 《귤옥졸고(橘屋拙稿)》에는 실려 있지 않다.

옥봉선조부인[1] 후위개장시 정묘년(1627, 인조5)

玉峯先祖夫人後位改葬時 丁卯年

두극[2]과 수성[3]처럼 존귀함 함께 전해졌는데 共傳斗極壽星尊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 남쪽 무성 빛 어두워졌네[4] 俄看天南婺彩昏
천 리 밖에서 시 지으며 멀리서 애도하면서 千里題詩遙作挽
애오라지 대대의 우호로 현손을 위로하네 聊將世好慰賢孫[5]

우의정(右議政) 신흠(申欽)[6]-절하며 애도하다.-

글씨는 종왕[7]의 필법이요 筆自鍾王法
시는 정시[8]의 음색이었네 詩能正始音

---

1 옥봉선조부인(玉峯先祖夫人) : 백광훈의 두 번째 아내인 하동 정씨(河東鄭氏)이다. 정씨의 아버지는 정응서(鄭應瑞), 외할아버지는 김세걸(金世傑)이다.

2 두극(斗極) : 북두성(北斗星)과 북극성(北極星)을 가리키는데, 전하여 존귀한 존재의 의미로도 쓰인다.

3 수성(壽星) : 노인성(老人星)의 별칭이다. 장수한 노인의 상징으로, 이 별이 비치는 지방에 사는 사람은 장수한다는 전설이 있다.

4 하늘……어두워졌네 : '무(婺)'는 무녀(婺女)로, 별 이름이다. 이 별은 여수(女宿)로서 포백(布帛)을 맡았다고 한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옥봉의 아내가 죽었다는 말이다.

5 이 작품은 신흠(申欽)의 《상촌집(象村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6 신흠(申欽) : 1566~1628.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헌(玄軒)·상촌(象村)·현옹(玄翁)·방옹(放翁)이다.

7 종왕(鍾王) : 위(魏)나라 종요(鍾繇)와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모두 명필(名筆)이었다.

훌륭한 재주는 팔두[9]를 기울게 했고　　高才傾八斗
한 글자는 천금의 가치 있다오　　隻字重千金
푸른 바다에 문창성[10]이 떨어져　　碧海文星落
시 언덕에서 옛 검을 찾누나　　詩阡[11]古劍尋
집안에 전해져 가업으로 남았나니　　傳家舊業在
귤 숲 깊은 곳에 봄비 내리누나　　春雨橘林深[12]

절충장군(折衝將軍)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
지제교(知製敎) 이명한(李明漢)[13]

반평생 남긴 원고를 읽어 보니　　半世讀遺藁
말이 맑고 새로워 놀랐어라　　語驚淸且新

---

8 정시(正始) : 처음을 바르게 한다는 뜻인데, 자하(子夏)의 〈모시 서(毛詩序)〉에 "〈주남〉과 〈소남〉이야말로 왕도를 처음부터 단정하게 펴는 길이요, 제왕의 교화의 기초가 된다.〔周南召南, 正始之道, 王化之基.〕"라는 말이 나온다.

9 팔두(八斗) : 삼국 시대 위(魏)나라 조식(曹植)과 관련된 고사이다. 송(宋)나라의 시인 사령운(謝靈運)이 "천하의 글재주가 모두 합쳐서 한 섬이라면, 조자건 혼자 여덟 말을 차지하고, 나는 한 말이요, 나머지 한 말을 천하 사람들이 나누어 갖고 있다.〔天下才有一石, 曹子建獨占八斗, 我得一斗, 天下共分一斗.〕"라고 말한 일화가 《석상담(釋常談)》에 실려 있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의 재주가 조식보다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10 문창성(文昌星) : '문성(文星)'은 문창궁(文昌宮)의 여섯 별 가운데 네 번째의 별로, 문창성 또는 문곡성(文曲星)으로 불리기도 하며, 문재(文才)를 주관하는 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의 문재를 의미한다.

11 詩阡 : 이명한(李明漢)의 《백주집(白洲集)》 권5 〈挽白玉峯【光勳內】〉에는 '冥途'로 되어 있다.

12 이 작품은 이명한의 《백주집》 권5에 〈挽白玉峯【光勳內】〉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3 이명한(李明漢) : 1595~1645.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천장(天章), 호는 백주(白洲)이다.

해동에서 뛰어난 시라 떠들썩하니　海東喧絶調
천하에 이와 견줄 이 없으리라　天下恐無倫
옛 무덤을 지금 옮기노니　舊兆今移卜
저승에서도 잠깐 사이여라　重泉忽暫晨
해서의 필법은 더욱 올바르고　楷書法逾正
토해낸 글씨는 이왕[14]처럼 참되구나　吐篇二王眞[15]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 조희일(趙希逸)[16]

빽빽하게 향을 묻고　鬱鬱乎埋香
깊고 깊게 옥을 묻노라　深深乎瘞玉
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逝彼乎九載
빈 골짝이 쓸쓸하구나　寂廖乎空曲
날마다 부군을 바랐는데　日望乎夫君
이에 지금 서로 따르게 되었네　乃今乎相從
이미 한집에서 살았었는데　旣生乎同室
어찌 죽어 다른 봉분 되었나　胡死乎異封
이에 새로운 무덤으로 옮겨　乃移乎新阡
외로운 혼을 위로한다네　乃慰乎孤魂
편안하고 화락하여[17]　洩洩乎融融

---

14 이왕(二王) : 왕희지(王羲之)와 그의 아들 왕헌지(王獻之)를 합칭한 것이다.

15 이 작품은 조희일(趙希逸)의 《죽음집(竹陰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16 조희일(趙希逸) : 1575~1638.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이숙(怡叔), 호는 죽음(竹陰) 또는 팔봉(八峰)이다.

애오라지 우리들 즐겁도다 聊樂乎我員
여러 차례 두 효자가 累然乎雙孝
예와 정성을 다하였다네 盡禮乎盡誠
함께 하게 되어 편안하니 旣同乎旣安
유명 간에도 한스러움 없으리 無憾乎幽明
남산은 우뚝하기만 하고 南山乎岌岌
숲 나무는 무성하여라 林木乎莽莽
봄가을 제물[18]이 春秋乎蘋蘩
영원토록 끊이지 않으리라 無絶乎終古[19]

이춘원(李春元)[20]

필법은 종왕처럼 오묘했고 筆法鍾王妙

---

17 편안하고 화락(和樂)하여 : '예예융융(洩洩融融)'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공(隱公) 원년에 나오는 말이다. 정(鄭)나라 장공(莊公)이 아우 공숙단(共叔段)의 반란을 평정한 뒤에 그와 공모(共謀)한 어머니 강씨(姜氏)를 성영(城潁)에 유폐하고 다시 안 만나겠다고 했다가, 영고숙(潁考叔)의 충언을 듣고 땅굴을 통해 들어가서 강씨를 만났다. 그때에 장공이 노래하기를 "대수 안에 그 즐거움이 화락하네.〔大隧之中, 其樂也融融.〕"라고 했고, 그 어머니가 나와서 노래하기를 "대수 밖에는 그 즐거움이 펴지도다.〔大隧之外, 其樂也洩洩.〕"라고 했다. 그 주석에 "융융은 화락이고 예예는 서산(舒散)이다."라고 했다.

18 제물(祭物) : 《시경(詩經)·채빈(采蘋)》에 "마름 풀 뜯으러 남쪽 시냇가로 가네. 마름 풀 뜯으러 저 개울가로 가네.〔于以采蘋, 南澗之濱. 于以采藻, 于彼行潦.〕"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시는 법도에 따라 제사 음식을 정결하게 마련하려는 주부(主婦)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록한 것이다.

19 이 작품은 이춘원(李春元)의 《구원집(九畹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20 이춘원(李春元) : 1571~1634. 본관은 함평(咸平), 초명은 신원(信元)·입지(立之), 자는 원길(元吉), 호는 구원(九畹)이다.

시는 교도[21]처럼 한산했다오 詩羞郊島寒
풍류는 마치 어제인 듯 생생하니 風流宛如昨
가업은 응당 쇠잔해지지 않았으리 緖業未應殘
하늘에서 무녀의 빛이 사그라들고 象緯婺晶損
저승길에 붉은 기운 가득하여라 泉途紫氣盈
평생도록 경모하던 곳 平生景慕地
만사 지어 의관을 묻노라 題挽藏衣冠[22]

숭덕대부(崇德大夫)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23]

명월주는 바닷가 고을에서 태어났고 明月珠胎出海鄕
옥봉의 성명은 문단을 휩쓸었네 玉峯聲價擅詞場
집안에 전해진 한묵에는 풍류가 있고 傳家翰墨流風在
현숙한 덕 부인의 내칙[24]은 빛났어라 媲德閨門內則光
구십 년 지난 세월 모두가 꿈같으니 九耋光陰渾夢境
백 년 헤어졌다 봉분을 함께 하게 됐네 百年離合一封堂
새 무덤에 청명 절기 다가오면 新阡暗想淸明近

---

21 교도(郊島) : 당(唐)나라 때의 시인인 맹교(孟郊)와 가도(賈島)의 합칭이다. 소식(蘇軾)이 당나라 시인을 평하면서 〈유자옥(柳子玉)에 대한 만사〔祭柳子玉文〕〉에서 "원진(元稹)은 가볍고 백거이(白居易)는 속되며, 맹교의 시는 한산(寒酸)하고 가도(賈島)는 앙상하다.〔元輕白俗, 郊寒島瘦.〕"라고 한 바 있다.

22 이 작품은 신익성(申翊聖)의 《낙전당집(樂全堂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23 신익성(申翊聖) : 1588~1644.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군석(君奭), 호는 낙전당(樂全堂)·동회거사(東淮居士)이다. 아버지는 신흠(申欽)이다.

24 내칙(內則) : 《예기(禮記)》의 편명으로, 가정에서 여성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법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황량한 풀언덕의 밤비에 찬 까마귀 우짖으리　　暮雨寒鴉壟草荒[25]

가선대부(嘉善大夫) 신풍군(新豐君) 장유(張維)[26]

영화 연간의 서법[27]에다 성당 시절의 시　　永和書法盛唐詩
아름다운 명성으로 한 시대 진동했네　　美對聲名震[28]一時
저승에서 몇 년이나 헤어져 원망했던가　　泉下幾年分劍怨
훗날 손바닥에서 떨어진 구슬[29]에 슬퍼했네　　掌中他日隕珠悲
호외에서는 집안의 구업이 전해지는데　　傳家舊業仍湖外
세상 멀리 푸른 산에 또 바닷가라네　　隔世靑山[30]又海涯
멀리서 상상해 보니 귤 숲 한식의 비에　　遙想橘林寒食雨
유거[31]에 서글피 슬픈 노래 부르리라　　柳車悽斷唱哀詞[32,33]

---

25 이 작품은 장유(張維)의 《계곡집(谿谷集)》 권31에 〈玉峯內子挽〉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6 장유(張維) : 1587~1638.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곡(谿谷)·묵소(默所)이다.

27 영화 연간의 서법 : '영화서법(永和書法)'은 영화 연간에 살았던 왕희지(王羲之)의 서법을 말한다.

28 震 : 이명한(李明漢)의 《백주집(白洲集)》 권8 〈挽白玉峯【光勳內】〉에는 '振'으로 되어 있다.

29 손바닥에서 떨어진 구슬 : '장중주(掌中珠)'는 손에 쥔 구슬이란 뜻으로, 전하여 부모로부터 대단히 사랑받는 자식을 가리킨다.

30 靑山 : 이명한의 《백주집》 권8 〈挽白玉峯【光勳內】〉에는 '新阡'으로 되어 있다.

31 유거(柳車) : 장례식에 사용하는 상거(喪車)를 말한다. 여기에서 '유(柳)'는 모은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장식물로 장식한 수레를 말한다.

32 詞 : 이명한의 《백주집》 권8 〈挽白玉峯【光勳內】〉에는 '辭'로 되어 있다.

33 이 작품은 이정귀(李廷龜)의 《월사집(月沙集)》에는 실려 있지 않고 이명한의 《백주집》 권8에 〈挽白玉峯【光勳內】〉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정귀의 작품인지, 이명한의 작품인지 분명하지 않다.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겸예조판서(兼禮曹判書) 지경연(知經筵) 춘추관사(春秋館事)
이정귀(李廷龜)[34]

아내 법도 일찍이 욕됨 없었고　　閨範曾無忝
명문의 옛 풍도 이었다네　　名門紹舊風
손님은 전계[35]의 덕을 말하고　　客談剪髻德
사람들 단기[36]의 공을 안다오　　人識斷機功

묵은 풀은 해마다 자주 바뀌었는데　　宿草歲頻換
새 무덤 자리에 비로소 함께 하네　　新阡穴始同
언제나 어릴 적 일 생각할 때마다　　每思髫齔事

---

34 이정귀(李廷龜) : 1564~1635.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보만당(保晩堂)·치암(癡菴)·추애(秋崖)·습정(習靜),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35 전계(剪髻) : 집안이 가난하여 머리털을 잘라서 손님을 대접하였다는 말이다. 두보(杜甫)의 〈송중표질왕빙평사사남해(送重表姪王砅評事使南海)〉에서 당나라 왕규(王珪)의 아내 두씨(杜氏)가 머리털을 잘라 술을 사서 손님을 대접한 것을 읊어 "집에 들어와 아내의 머리털이 없는 것을 보고 괴이쩍어 오랫동안 탄식하였더니, 아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머리털을 잘라 저자에서 술을 사 왔다 하였지.〔入怪鬢髮空, 吁嗟爲之久, 自陳剪髻鬢, 鬻市充杯酒.〕"라고 했다.

36 단기(斷機) : 베틀을 자른다는 것으로, 가정에서 학부형들이 자제들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뜻이다. 맹자(孟子)가 어려서 공부를 중단하고 집에 돌아오자, 맹자의 어머니가 베틀〔機〕에서 짜던 베를 칼로 자르고는 "네가 공부를 중단한 것은, 내가 이 베를 자른 것과 같다.〔子之廢學, 若吾斷斯織也.〕"라고 했는데, 맹자가 이 말을 듣고 분발하여 대유(大儒)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열녀전(列女傳)·추맹가모(鄒孟軻母)》 이를 단직(斷織) 혹은 단기의 훈계라고 한다.

눈에 눈물 가득한 줄도 모른다오 不覺淚盈瞳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존경(金存敬)[37]

옥봉의 어진 아내 하동 정씨 玉峯賢配河東鄭
훌륭한 자식들과 구십 년의 세월 冀子相依九十霜
두 검이 마침내 서로 만나게 되었노니[38] 雙劍有時終會合
수란산[39]은 바다 남쪽 고을에 있다오 秀蘭山在海南鄕[40]

숭록대부(崇祿大夫)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근(柳根)[41]

군자가 슬픈 만사를 요청하니 君子求哀挽
지금까지 이미 십 년이라오 如今已十年
어찌 알았으랴 묵은 풀은 무덤이 那知宿草墓
칠등[42]의 언덕으로 옮겨질 줄을 移却漆燈阡

---

37 김존경(金存敬) : 1569~1631.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수오(守吾), 호는 죽계(竹溪)이다.

38 두 검이……되었노니 : 진(晉)나라 장화(張華)와 뇌환(雷煥)이 용천(龍泉)과 태아(太阿)의 두 보검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 두 보검이 절로 연평진(延平津) 속으로 날아 들어가서 두 마리 용으로 바뀐 채 유유히 모습을 감췄다는 전설이 있다. 여기에서는 부부가 죽어 합장되었다는 의미이다.

39 수란산(秀蘭山) : 전라남도 해남현(海南縣)에 있는 산으로, 이곳에 옥봉 백광훈과 그의 아내 하동 정씨를 합장했다.

40 이 작품은 유근(柳根)의 《서경집(西坰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41 유근(柳根) : 1549~1627.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회부(晦夫), 호는 서경(西坰)이다.

42 칠등(漆燈) : 무덤 앞에 켜 놓는 등을 말한다. 귀인(貴人)의 무덤 앞에는 커다란 쇠동이를 놓고 그 안에 생옻[生漆] 두어 말을 담은 다음 그 가운데다 심지를 꽂아 불을 켜 놓는데, 심지 불이 푸르게 빛나며 꺼지지 않는다. 칠등장명(漆燈長明)이라

칼이 만난 것은 진실로 다행이지만　　釗合誠爲幸
아내 죽은 것이 가장 애달프구나　　琴亡最可憐
만사를 천 리 밖으로 보내니　　緘辭寄千里
옛일에 느꺼워 홀로 서글퍼라　　感舊獨悽然[43]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근(柳根)

선배인 옥봉 늙은이를 추대하노니　　先輩推峰老
훌륭한 명성은 두남[44]과 같았다오　　高名等斗南
시단의 칠자[45]보다 뛰어났었고　　詩壇七子右
필법은 이왕[46]에 참여할 정도였네　　筆陣二王參
아아 섶나무가 불을 전하였고[47]　　已矣薪傳火
뜻밖에 검이 못으로 들어갔네[48]　　差池釗化潭

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무덤을 의미한다.

43 이 작품은 유근(柳根)의 《서경집(西坰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44 두남(斗南) : 천하제일인(天下第一人)을 뜻하는 말이다. 당(唐)나라 적인걸(狄仁傑)이 "북두 이남에서 오직 그 한 사람뿐이다.〔北斗以南 一人而已〕"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신당서(新唐書)·적인걸열전(狄仁傑列傳)》

45 시단의 칠자 : 건안칠자(建安七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건안(建安)은 한나라 헌제(獻帝)의 연호이다. 이 시기에는 이른바 건안칠자로 불리던 공융(孔融), 진림(陳琳), 왕찬(王粲), 서간(徐幹), 완우(阮瑀), 응창(應瑒), 유정(劉楨)과 조조(曹操), 조비(曹丕) 등이 시명(詩名)이 높았다. 이들은 백성들의 고달픈 삶에 대해 비분강개하는 강건한 시풍을 가지고 있었다. 후대에는 특별히 이들의 문장을 건안체(建安體)라고 칭했다.

46 이왕(二王) : 왕희지(王羲之)와 그의 아들 왕헌지(王獻之)를 합칭한 것이다.

47 섶나무가 불을 전하였고 : 훌륭한 학문이나 가업이 대를 이어 전수됨을 이른다. 《장자(莊子)·양생주(養生主)》에 "손가락으로 땔나무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불이 전해짐에는 다함을 알지 못한다.〔指窮於爲薪, 火傳也, 不知其盡也.〕"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무덤[49]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노니　　佳城移宅兆
바다 달빛이 참으로 맑기만 해라　　海月正澄涵[50]

우의정(右議政) 신흠(申欽)

인간 세상에서 오래 장수[51]하시니　　人世期頤壽
자손들 기쁨과 두려움 함께했지[52]　　兒孫喜懼幷

---

48 검이 못으로 들어갔네 : 부부가 모두 죽어 합장(合葬)할 때 만사(輓詞)에서 흔히 쓰는 말이다. 옛날에 오(吳)나라의 무고(武庫) 안에 두 마리의 토끼가 있어서 무기의 쇠를 모두 먹어치웠는데, 이를 잡아 배를 가르니 쇠로 된 쓸개가 나왔다. 오왕이 검공(劒工)에게 명해서 이 쓸개로 검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간장(干將)으로 수컷이고, 다른 하나는 막야(鏌鋣)로 암컷이었다. 오왕은 이를 돌 상자에 넣어서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 그 뒤 진(晉)나라 때 이르러서 오 땅에 자색 기운이 하늘의 우수(牛宿)와 두수(斗宿) 사이로 뻗침에 장화(張華)가 보물이 있는 것을 안 다음, 뇌환(雷煥)이 천문(天文)과 술수(術數)에 정통하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에게 가서 가르쳐 주기를 청하니, 뇌환이 말하기를, "하늘 위의 우수와 두수 사이에 자색 기운이 있는 것은 보물의 정기이다."라고 했다. 장화가 뇌환을 풍성현(豐城縣)의 현령으로 보내 이 두 검을 얻은 다음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 그 뒤에 장화가 화를 당하자 장화가 가지고 있던 검은 양성(襄城)의 물속으로 날아 들어가고, 뇌환이 가지고 있던 검은 뇌환이 죽고 나서 뇌환의 아들이 검을 차고 연평진(延平津)을 지나갈 때 갑자기 허리춤에서 빠져나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에 잠수부를 시켜서 검을 찾게 하였는데, 물속에는 단지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만 보일 뿐 검은 찾지 못하였다. 《습유기(拾遺記)》

49 무덤 : '가성(佳城)'은 무덤을 뜻한다. 한나라 등공(滕公)이 말을 타고 가다가 동도문(東都門) 밖에 이르자 말이 울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발로 오랫동안 땅을 구르기에 사졸(士卒)을 시켜 땅을 파 보니, 깊이 석 자쯤 들어간 곳에 석곽(石槨)이 있고 거기에 "가성이 울울(鬱鬱)하니, 3천 년 만에 해를 보도다. 아, 등공이여, 이 실(室)에 거처하리라."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한다. 《서경잡기(西京雜記)》

50 이 작품은 신흠(申欽)의 《상촌집(象村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51 장수 : '기이(期頤)'는 백 년의 수명을 누리면서 자손의 봉양을 받는 것을 뜻한다. 《예기(禮記)·곡례 상(曲禮上)》에 "백 년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수명이니, 자손들은 최대한으로 봉양해야 마땅하다.〔百年曰期, 頤.〕"라는 말이 나온다.

청산의 묵을 풀을 열고서는 青山開宿草
백일에 무덤을 닫누나 白日閉佳城
하룻밤 연평진에서 만났으니 一夕延津會
평생도록 영백[53]의 마음일러라 平生令伯情
공연히 내칙의 아름다움 전해질 뿐 空傳內則美
다시 노인성[54] 밝음은 없어라 無復老星明[55]

중훈대부(中訓大夫) 행사간원헌납(行司諫院獻納)
겸춘추관기주관(兼春秋館記注官) 이경석(李景奭)[56]

부인의 선조는 하동에서 나왔으며 夫人高系出河東
아내 법도에 옛 풍모 있다고 모두 칭송했지 閨範咸稱有古風
평생 외론 그림자로 얼마나 슬퍼했던가 隻影平生悲幾許
한평생 뜬세상 꿈인 듯 허망해라 百年浮世夢還空
소 자던 곳[57]으로 이전의 자리를 옮기면서 牛眠改卜移前厝

---

52 기쁨과 두려움 함께했지 : 이 구절은 《논어·이인(里仁)》의 "부모의 연세를 알지 않아서는 안 되니, 한편으로는 오래 사셔서 기쁘기고 또 한편으로는 살아 계실 날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父母之年, 不可不知也, 一則以喜, 一則以懼.〕"라는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53 영백(令伯) : 진(晉)나라 사람 이밀(李密)을 말하는데, 영백은 그의 자이다. 이밀은 〈진정표(陳情表)〉를 지은 바 있는데, 이 글은 무제(武帝)가 조칙을 내려 태자 세마(太子洗馬)로 임명하자, 90세 조모가 홀로 계시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지극한 효심을 구절구절 담아 피력했다.

54 노인성 : 자세한 내용은 217쪽 주3 참조.

55 이 작품은 이경석(李景奭)의 《백헌집(白軒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56 이경석(李景奭) : 1595~1671.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이다.

57 소 자던 곳 : '우면(牛眠)'은 장사 지낼 길지(吉地)를 말한다. 진(晉)나라 도간(陶

말갈기[58]의 새 무덤 한 봉분으로 합쳤네　　馬鬣新封合一宮
듣자니 많은 자손들 모두 빼어나다고 하니　　聞道諸孫多秀朗
큰 복이 다시 끝없음을 바라다본다네　　佇看遐福更無窮[59]

숭록대부(崇祿大夫) 겸도총관(兼都摠管) 김상용(金尙容)[60]

남편 백씨 죽은 지 오십 년　　白氏亡來五十年
부질없이 시문만 세상에 다투듯 전해지네　　空留詞翰世爭傳
아내와 오늘에서야 함께 묻히게 되니　　妻兒今日同歸處
무덤에서 화락하며[61] 즐거움 절로 온전하리라　　大隧融融樂自全[62]

가선대부(嘉善大夫) 행부사직(行副司直) 이춘원(李春元)[63]

집안끼리 교유하며 부덕 온전하다 들었는데　　連閥曾聞婦德全

侃)이 미천했을 때 친상(親喪)을 당하여 장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집에 있던 소를 잃어버려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그때 만난 한 노인이 도간에게 이르기를 "앞 산등성이에서 보니 소 한 마리가 산기슭에서 자고 있는데, 그 땅에 장사를 지내면 대신의 지위에 오를 것이다.〔前岡見一牛眠山汙中, 其地若葬, 位極人臣矣.〕"라고 하므로, 도간이 마침내 그 소를 찾아서 소가 잠자던 곳에 장사를 지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진서(晉書)·주방열전(周訪列傳)》

58 말갈기 : '마렵(馬鬣)'은 말갈기처럼 된 분묘(墳墓) 형태의 하나로, 보통 무덤을 의미한다.

59 이 작품은 김상용(金尙容)의 《선원유고(仙源遺稿)》에는 실려 있지 않다.

60 김상용(金尙容) : 1561~1637.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풍계(楓溪)·계옹(溪翁)이다.

61 화락하며 : 자세한 내용은 220쪽 주17 참조.

62 이 작품은 이춘원(李春元)의 《구원집(九畹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63 이춘원(李春元) : 1571~1634. 본관은 함평(咸平), 초명은 신원(信元)·입지(立之), 자는 원길(元吉), 호는 구원(九畹)이다.

한순간 남쪽 별[64]이 희미해짐을 보았다네　忽看南極晦星躔
옥봉의 시문은 오래되어도 전해지고　峰翁詞翰傳猶久
송호의 혼정신성[65]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라오　湖老晨昏曠幾年
다시 어진 자손이 옛 업을 이으면서　更有賢孫承舊業
도리어 합쳐[66] 새로운 무덤 만들었네　却將連理啓新阡
평생 당에 올라 절하는 것 영원히 막혔으니　平生永阻升堂拜
푸른 바닷가 남쪽 구름 향해 곡을 하누나　哭向蠻雲碧海天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지평(行持平) 이경의(李景義)[67]

길손 관이 남으로 돌아오던 날　旅櫬南歸日
지금 벌써 사십 년 되었네　于今四十年
어진 자손이 그 뜻을 이어[68]　賢孫能繼志

---

64 남쪽 별 : 자세한 내용은 217쪽 주3 참조.

65 혼정신성(昏定晨省) : 어버이를 제대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곡례상(曲禮上)》에 "자식이 된 자는 어버이에 대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드려야 하며,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한다.〔凡爲人子之體, 冬溫而夏凊, 昏定而晨省.〕"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백진남의 아내가 그 시부모님을 잘 봉양한 것을 말한다.

66 합쳐 : '연리(連理)'는 연리지(連理枝)로, 뿌리와 줄기가 서로 다른 두 나무의 가지결이 서로 연해서 하나가 된 것을 이르는 말로, 부부간의 두터운 애정에 비유된다. 여기에서는 백광훈과 백광훈 처를 한 무덤에 합장했다는 의미이다.

67 이경의(李景義) : 1590~1640.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방(子方), 호는 만사(晩沙)이다.

68 뜻을 이어 : 계지술사(繼志述事)이다. '계지'는 어버이의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을 말하며, '술사'는 어버이의 일을 잘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9장에 "효(孝)라는 것은 어버이의 뜻을 잘 계승하며, 어버이의 일을 잘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다.〔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라는 구절이 보인다.

두 검이 비로소 한 연못에 모이었네[69] 雙劍始同淵
바닷가 언덕에 영혼을 옮기면서 海隴遷靈馭
수란산에 좋은 자리 잡았다네 蘭山卜吉阡
집안에는 한묵의 솜씨가 전해지노니 傳家翰墨手
남은 경사[70]는 정말로 연이어지리라 餘慶定綿綿

자헌대부(資憲大夫)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이홍주(李弘胄)[71]

대력[72] 이후에 시로써 명성 높았고 詩名大曆後
필법은 이왕과 가까웠다오 筆法二王親
뛰어난 기예는 부질없이 세상 놀라게 했으나 絶藝空驚世
미관말직에 가난 구제하지 못했다오 微官不救貧
문장은 모두 구슬 같았으며[73] 珠璣留咳唾
푸른 달빛은 정신을 비추어 주었지 璧月照精神
옛 무덤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노니 舊塚移新厝

---

69 두 검이……모이었네 : 자세한 내용은 226쪽 주48 참조.

70 남은 경사 : '여경(餘慶)'은 선(善)을 쌓은 집안에는 자손에게까지 경사가 미친다라는 말이다. 《주역(周易)·곤괘(坤卦)》의 "덕행을 쌓은 집안은 자손에까지 경사가 미친다.〔積善之家, 必有餘慶.〕"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71 이홍주(李弘胄) : 1562~163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윤(伯胤), 호는 이천(梨川),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72 대력(大曆) : 당(唐) 태종(太宗) 연간의 연호이다.

73 문장은……같았으며 : 내뱉는 침 모두가 구슬 같다는 해타성주(咳唾成珠)의 고사를 인용한 말이다. 《장자(莊子)·추수(秋水)》의 "그대는 저 튀어나오는 침들을 보지 못하는가. 한 번 재채기라도 하면 큰 것은 마치 구슬과 같고 작은 것은 안개처럼 부서져 내리는 걸.〔子不見夫唾者乎, 噴則大者如珠, 小者如霧.〕"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참고로 이백(李白)의 〈첩박명(妾薄命)〉에 "그대가 뱉은 침이 구천에 떨어지니, 바람 따라 모두 주옥을 이루도다.〔咳唾落九天, 隨風成珠玉.〕"라는 구절이 나온다.

해마다 풀은 절로 봄 될 걸세 年年草自春[74]

통덕랑(通德郞) 이조정랑(吏曹正郞) 지제교(知製敎)

겸춘추관기주(兼春秋館記注)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

정홍명(鄭弘溟)[75]

선명[76]이 아내[77]를 곡하는 날에 善鳴當日哭卿卿

일찍이 만사 지어 선명 위로했었지 曾寄哀詞慰善鳴

다시 9년 만에 새로 눈물 쏟으며 重把九年新涕淚

흰머리로 눈물 더하며 무덤 바라보네 白頭添洒望佳城[78]

연안(延安) 이정귀(李廷龜)[79]-절하다.-

구름 타고 신선세계 간 지 얼마이던고 仙府雲駢已幾年

아름다운 덕행 생각하면 문득 눈물 흐르네 人思懿德輒潸然

---

74 이 작품은 정홍명(鄭弘溟)의 《기암집(畸庵集)》 권4에 〈白玉峯改葬挽詞〉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75 정홍명(鄭弘溟) : 1582~1650.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자용(子容), 호는 기암(畸庵) 또는 삼치(三癡)이다. 정철(鄭澈)의 아들이다.

76 선명(善鳴) : 백진남의 자(字)이다.

77 아내 : '경경(卿卿)'은 아내를 말한다. 진(晉)나라 왕안풍(王安豊)의 아내가 남편을 보고 늘 자네〔卿〕라고 불렀다. 안풍이 아내에게, "자네가 어찌 나를 자네라 하는가." 라고 하니, 아내는 대답하기를, "자네를 친애하고 자네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자네 보고 자네라 부른다. 내가 자네를 자네라 부르지 아니하면 누가 자네를 자네라 한단 말인가.〔親卿愛卿, 是以卿卿, 我不卿卿, 誰當卿卿.〕"라고 했다.

78 이 작품은 이정귀(李廷龜)의 《월사집(月沙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79 이정귀(李廷龜) : 1564~1635.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보만당(保晩堂)·치암(癡菴)·추애(秋崖)·습정(習靜),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연평진에서 오늘 두 검이 만나게 되었으니[80] 延津有劍今重合
지하에서 화목하며[81] 즐거워하리라 泉下融融樂意專

윤유기(尹唯幾)[82]-멀리서 애도하다.-

왕희지 아내요 왕헌지 모친으로[83] 羲之之婦獻之母
서른 자손들 있는 구십의 나이 三十諸孫九十齡
세상의 하동 정씨는 천제의 자손 世上河東天帝子
여성으로 남쪽에서 노인성이었네 女中南極老人星
외론 난새 거울 앞서 춤추다[84] 늦봄 되자 孤鸞舞鏡臨春暮
두 검이 용처럼 서려 좋은 땅 차지했네[85] 兩劍蟠龍占地靈
거경처럼 닭 기장 약속 못 지켰으니[86] 未赴巨卿鷄黍約

---

80 연평진에서……되었으니 : 자세한 내용은 226쪽 주48 참조.

81 화목하며 : 자세한 내용은 220쪽 주17 참조.

82 윤유기(尹唯幾) : 1544~?. 본관은 해남(海南)이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아버지이다.

83 왕희지……모친으로 : 여기에서는 백광훈을 왕희지(王羲之)에, 백광훈의 아들 백진남을 왕헌지(王獻之)에 견주었다.

84 외론……춤추다 : 계빈국(罽賓國)의 임금이 준기산(峻祁山)에 그물을 쳐서 난조(鸞鳥) 한 마리를 잡아서 애지중지하였는데 3년 동안 울지 않았다. 그 부인이 "일찍이 들으니 새는 자기와 같은 무리를 보면 운다고 하였으니, 어찌 거울을 걸어서 제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여 거울을 걸어 두었더니, 난조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슬피 울더니 하늘로 한 번 날아오르고는 바로 죽었다 한다. 《태평어람(太平御覽)·난조시서(鸞鳥詩序)》

85 두 검이……서려 : 자세한 내용은 226쪽 주48 참조.

86 거경(巨卿)처럼……지켰으니 : '거경'은 후한(後漢) 때 범식(范式)으로, 거경은 그의 자이다. '계서(雞黍)'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주어 죽음도 함께할 수 있는 참다운 벗을 말한다. 범식은 산양(山陽) 금현(金縣) 사람으로, 천 리 먼 곳에 사는 여남(汝南)의 장소(張劭)와 평소 태학(太學)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정이 매우 두터웠다.

초강에서 눈물 떨구니 이처럼[87] 부끄럽구나　　楚江垂淚愧寧馨[88]

이안눌(李安訥)[89]

남쪽 고을 백생은 서한의 문원이었고[90]　　西漢文園楚白生
지금도 아이들 훌륭한 명성 읊조리네　　至今童丱誦高名
종왕에게 어찌 당시의 시체 있으랴　　鍾王豈有唐詩體
심송에게도 진나라 필법의 정수 없었지[91]　　沈宋曾無晉筆精

두 사람이 이별할 때 범식이 장소에게 "2년 뒤 돌아올 때 그대의 집에 들르겠다."라고 했는데, 꼭 2년째가 되는 날인 9월 15일에 장소가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짓고〔殺雞作黍〕 범식을 기다리자, 그 부모가 웃으며 "산양은 여기서 천 리나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가 어찌 기필코 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에 장소가 "범식은 신의 있는 선비이니, 약속 기한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범식이 당도했다. 그 후 장소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 날 상여가 움직이지 않다가 천 리 밖 산양 땅에 있던 범식이 백마(白馬)와 소거(素車)를 타고 이르러 조상하자, 상여가 비로소 움직였다 한다. 《후한서(後漢書)·범식열전(范式列傳)》 여기에서는 범식은 장소를 조문했지만, 자신은 백광훈의 처를 조문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87 이처럼 : '영형(寧馨)'은 이와 같다〔如此〕는 뜻이다. 당(唐)나라 시인 유우석(劉禹錫)의 〈증일본승지장(贈日本僧智藏)〉에서 "묻노니 중국에서 도를 닦는 사람 중에, 이처럼 용맹스러운 이 몇이나 될꼬.〔爲問中華學道者, 幾人雄猛得寧馨.〕"라고 했다.

88 이 작품은 이안눌(李安訥)의 《동악집(東岳集)》 권17에 〈亡友白進士善鳴【振南】母河東鄭氏挽詞【鄭氏, 玉峯白參奉之孺人也, 生四男三女, 內外曾女孫二十九人, 享年九十歲.】〉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89 이안눌(李安訥) : 1571~163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이다.

90 남쪽……문원이었고 : '서한문원(西漢文園)'은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를 말한다. '초백생(楚白生)'은 남쪽 고을에 서는 백생이라는 말로, 백광훈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을 사마상여에 견준 것이다.

91 심송(沈宋)에게도……없었지 : '심송'은 당(唐)나라 시인인 심전기(沈佺期)와 송지문(宋之問)의 합칭이다. 심전기와 송지문은 시에는 탁월했지만, 진나라 왕희지나 왕헌지와 같은 필법은 없었다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백광훈은 심전기와 송지문 같

삼세에 전해져서 부자가 되었노니　三世流傳仍父子
백년도록 마멸되지 않는 공경 몇이나 있나　百年磨滅幾公卿
수란산 아래 소가 자던 곳[92]　秀蘭山下牛眠地
화목한 가풍 영원히 형제에게 미치리라　永利溫家弟及兄[93]

이안눌(李安訥)

은 시명(詩名)과 왕희지나 왕헌지 같은 필법을 모두 갖추었다고 칭송한 것이다.

92 소가 자던 곳 : 자세한 내용은 227쪽 주57 참조.

93 이 작품은 이안눌(李安訥)의 《동악집(東岳集)》 권17에 〈故參奉白玉峯遷葬挽詞【爲生員白尙賓作. 玉峯先葬于靈巖地, 今將改葬, 與鄭氏同窆于海南縣秀蘭山下.】〉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옥천고조[1]시 병술년(1646, 인조24)

玉川高祖時 丙戌年

서로 소식 끊어진 지 몇 년이던가	幾載書相阻
새봄에 부고가 갑자기 전해졌다네	新春訃忽傳
거문과 술 즐기던 바닷가의 집	琴尊海上宅
신세는 술 마시는 신선 되었네	身世飮中仙
다신 연못에서 붓 씻지 못할 테고[2]	不復臨池洗
이에 누룩 베고 자지 못하리라[3]	仍迷枕麴眠

---

1 옥천고조(玉川高祖) : 백상빈(白尙賓, 1592~1645)을 말한다. 자는 경양(景揚), 호는 옥천(玉川)으로, 백광훈의 손자이다.

2 다신……테고 : '임지세(臨池洗)'는 연못에 가서 붓을 씻는다는 것으로, 열심히 글씨를 썼다는 말이다. 후한(後漢) 때 초성(草聖)으로 일컬어졌던 장지(張芝)가 일찍이 글씨를 익힐 적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의백(衣帛)에다 반드시 글씨를 쓴 다음에 다시 빨곤 했으므로, 그를 일러 "못가에서 글씨를 연습하여 못물이 다 검어졌다.〔臨池學書, 池水盡黑.〕"라고 했다. 또 왕희지(王羲之)가 일찍이 어떤 이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장지는 못가에서 글씨를 연습하여 못물이 다 검어졌으니, 누구나 그와 같이 탐닉하기만 한다면 꼭 장지에게 뒤지지만은 않을 것이다.〔張芝臨池學書, 池水盡黑, 使人耽之若是, 未必後之也.〕"라고 했으며, 송(宋)나라 증공(曾鞏)의 〈묵지기(墨池記)〉에 의하면, 왕희지가 일찍이 못가에서 글씨를 연습했던 장지의 일을 사모하여 그 또한 임천(臨川)의 묵지(墨池)에서 글씨를 연습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백상빈 또한 글씨를 열심히 썼는데 죽어 다시는 글씨를 쓸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3 이에……못하리라 : '침국면(枕麴眠)'은 누룩 베고 자는 것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 유령(劉伶)은 술을 좋아하여 지게미를 깔고 누룩을 베고서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살았다. 하인에게 삽을 메고 뒤를 따르게 하면서 자기가 죽으

부질없이 침문의 눈물을 空將寢門淚
일찍 핀 매화꽃 앞에 뿌리노라 洒向早梅前[4]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
겸영경연사감(兼領經筵事監) 춘추관사(春秋館事) 세자부(世子傅)
이경석(李景奭)[5]-절하며 곡하다.-

옥봉의 후예로 세상에서 명성 많았는데 玉峯之後世多聞
남쪽 고을 고사로 다만 몇 사람 있다오 高士南州獨數君
서글퍼라 뜬 인생의 한바탕 꿈에 놀라노니 怊悵浮生驚一夢
인간 세상에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만 넘치누나[6] 人間東逝水沄沄

한 명의 자식이 결코 적은 것 아니요 有子無雙一不少
나이 쉰 지났으니 서둘러 간 것 아니라오 年過半百亦非忙
듣자니 새 무덤이 선조 무덤 가깝다 하니 新阡聞說近先隴
죽어 떠나는 지금 어찌 상심하랴 死去今時何足傷

안동(安東) 김광현(金光炫)[7]-곡하며 애도하다.-

면 그 자리에 바로 묻어 달라고 했다. 《진서(晉書)·유령열전(劉伶列傳)》 여기에서는 백상빈이 죽어 술 마시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다.

4 이 작품은 이경석(李景奭)의 《백헌집(白軒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5 이경석(李景奭) : 1595~1671.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이다.

6 동쪽으로……넘치누나 :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말한다. 참고로 두보(杜甫)의 〈소년행(少年行)〉에 "황삼 입은 소년이여 자주 와서 즐기시오, 동으로 흐르는 물처럼 청춘도 그렇게 지난다오.〔黃衫年少來宜數, 不見堂前東逝波.〕"라고 했다.

7 김광현(金光炫) : 1584~1647.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회여(晦汝), 호는 수북(水北)이다. 김상용(金尙容)의 아들이다.

그대 우리 집안에 일찍이 들어와 君入吾門早
골육의 형제처럼 마음 친했다오 情親骨肉如
재주와 명성으로 연방[8]에 이름 들었고 才名蓮榜裏
필법은 옥봉의 뒤를 이은 것이라오 筆法玉峯餘
저승의 밤에 혼은 녹아내리고 魂鎖泉臺夜
수죽의 거처에는 봄이 돌아왔네 春回水竹居
해마다 서리 내린 뒤의 귤을 年年霜後橘
편지와 함께 보내줄 이 없게 되었네 無復帶緘書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사직(行司直) 홍립(洪霖)[9]-곡하며 애도하다.-

한양과 전라도[10] 자주 왕래하며 秦京麗國往來頻
젊은 시절 친척[11]처럼 서로 친했다오 少日葭莩意轉親
필법 배워 세상에 전해졌는데 본래 예스러웠고 筆學世傳元逼古
시는 조상의 규범 따라 또한 신통하였다오 詩追祖範亦通神
풍진세상에서 이별하여 꿈도 고달팠는데 風塵別恨偏勞夢
술자리에서 회포 푼 일 마치 어제 같아라 樽酒開襟似隔[12]晨

---

8 연방(蓮榜) : 소과(小科), 즉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던 과거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말한다.

9 홍립(洪霖) : 1577~1648.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경시(景時), 독정제(獨靜濟)이다.

10 한양과 전라도 : '진경(秦京)'은 도성인 한양을 말하고 '여국(麗國)'은 백제 땅이라는 말로, 백제에 속해 있었던 전라도를 말한다.

11 친척 : '가부(葭莩)'는 친함이 박한 것을 비유한 것인데, 후세에는 척의(戚誼)가 있음을 표현하는 말로 쓰였다. 《한서(漢書)·중산정왕전(中山靖王傳)》에 "가부(葭莩)는 친(親)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주(注)에 "가(葭)는 갈대요, 부(莩)는 갈대 대롱 속에 있는 지극히 엷은 흰 창이다."라고 했다.

남쪽 하늘에서 혼 끊어져 불러도 볼 수 없고　　魂斷楚天招不得
봄날 연화만이 부질없이 옥봉 감싸고 있으리　　烟花空鎖玉峰春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허계(許啓)[13]-절하며 곡하다.-

게으른 내가 일찍이 낭주[14]에 있을 때　　疎慵曾忝朗州時
늘그막의 회포를 만년의 지우에게 의탁했네　　末路襟懷託晩知
관청의 문서를 오히려 책상 아래 내려놓고　　鈴閣簿書猶下榻
옥천의 꽃과 대나무에 다시 술잔 기울였지　　玉川花竹更傾巵
이십 년 동안 못 만난 채 마음으로 그리워했는데　　卄年違阻情相憶
갑자기 죽고 사니 꿈에서도 의심하네　　一瞥存亡夢亦疑
호해의 풍류가 이제 쓸쓸해졌노니　　湖海風流今寂寞
남쪽 저물녘 구름 바라보니 더욱 서글퍼라　　暮雲南望益悽悲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충무위(行忠武衛) 부사직(副司直) 남두첨(南斗瞻)[15]-절하며 애도하다.-

예전 바닷가에서 함께 놀던 일 기억나니　　海上同遊記昔年
중간에 만나고 헤어지며 흰머리 가득했지　　中間離合雪盈顚
지난날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 흐르는데　　往事思量常涕淚
하물며 그대가 이미 저승 갔다 들음에랴　　況聞君已下重泉

---

12 隔 : 《장춘동수창록》에는 '隔'로 되어 있는데, '隔'의 오자로 보인다.

13 허계(許啓) : 1594~?.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옥여(沃余), 호는 성암(醒菴)이다.

14 낭주(朗州) : 전라남도 영암의 옛 이름이다.

15 남두첨(南斗瞻) : 1590~1656.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여앙(汝昂), 호는 성와(醒窩)이다.

정성스런 세의는 종내 잊기 어렵고　　殷勤世誼終難忘
십 년 세월 서로 떨어져 꿈에서도 그리웠지　　十載相離費夢思
어찌 그리 바빠 가시었는지 통곡하노니　　痛哭存亡何奄忽
그대 가련해 차마 만사 쓰지 못하겠네　　憐君不忍寫哀詞

옥봉의 서법이 삼대를 전해져서　　玉峯書法傳三世
인간 세상에 흩어져 각각 절로 기이해라　　散落人間各自奇
저승에서 재촉하나 그대 한스러워 말게　　紫府催還君莫恨
가업[16]을 오히려 훌륭한 자손[17]이 맡았으니　　靑氈猶托鳳毛兒

통정대부(通政大夫) 전임승정원우부승지(前任承政院右副承旨)
겸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임련(林堜)[18]-곡하며 애도하다.-

필법은 진나라를 종주로 삼고　　筆法人宗晉
시인들은 당나라를 최고로 여긴다네　　騷家衆首唐

---

16 가업(家業) : '청전(靑氈)'은 선대(先代)로부터 전해진 귀한 유물을 가리킨다. 진(晉)나라 왕헌지(王獻之)가 누워 있는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모조리 훔쳐 가려 할 적에, 그가 "도둑아, 푸른 모포는 우리 집안의 유물이니, 그것만은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偸兒, 靑氈我家舊物, 可特置之.〕"라고 하자, 도둑이 질겁하고 도망쳤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진서(晉書)·왕희지열전(王羲之列傳)》

17 훌륭한 자손 : '봉모아(鳳毛兒)'는 봉황의 터럭을 지닌 자식으로, 훌륭한 자손을 말한다. 진(晉)나라 명신(名臣)인 왕도(王導)의 아들 왕소(王劭)의 소자(小字)가 대노(大奴)였는데, 그 풍채가 부친처럼 비범하였기 때문에 환온(桓溫)이 그를 보고는 "대노가 봉의 터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당연하다.〔大奴固自有鳳毛〕"라고 찬탄했다는 고사가 있다. 《세설신어(世說新語)·용지(容止)》

18 임련(林堜) : 1589~1648.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동야(東野), 호는 한호(閑好)이다.

가련토다 삼세의 가업이 可憐三世業
마침내 쉰 조금 넘어서 그쳤나니 終至五旬强
비록 중년의 나이에 인척 되었지만 結婿雖中歲
그 명성은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네 聞聲自上庠
금릉에서 함께 노닐던 일 생각하니 金陵憶同遊
묵은 자취 모두 서글픔 일으키누나 陳跡摠悲凉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
겸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여이재(呂爾載)[19]-절하며 애도하다.-

왕가[20]의 글씨 본떠 절로 드날렸으며 王家效體自紛紛
삼세에 차례대로 그 명성 드러났었지 三世能名次第聞
오십팔 년 동안 팔법[21]을 다했으니 五十三年八法盡
가련하다 의탁한 내가 청운을 잃었노니 獨憐依附失靑雲[22]

통훈대부(通訓大夫) 전행사간원사간(前行司諫院司諫)
신천익(愼天翊)[23]-절하며 애도하다.-

---

19 여이재(呂爾載) : 1600~1665.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자후(子厚)이다.

20 왕가(王家) : 진(晉)나라의 명필이었던 왕희지(王羲之)와 그 아들 왕헌지(王獻之) 집안을 말한다.

21 팔법(八法) : 여덟 가지 필법(筆法)을 말한다. 글씨에 점(點)·횡획(橫劃)·획(直劃) 등 여덟 가지 필법이 있는데, '영(永)' 자가 팔법을 구비했다.

22 이 작품은 신천익(愼天翊)의 《소은유고(素隱遺稿)》 권1에 〈挽白上舍【尙賓】〉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3 신천익(愼天翊) : 1592~1661. 본관은 거창(居昌), 자는 백거(伯擧), 호는 소은(素隱)이다.

사간(司諫) 어른과 아버지께서는 임진년(1592)에 태어나 함께 한 고을에 살았다. 두 집안 간에 삼세에 걸쳐 교유를 했으며 게다가 혼인으로 친족이 되었으니, 그 마음이 더욱 친밀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달 후에, 친한 이들에게 만사(挽詞)를 요청하면서 사간 어른에게 가장 먼지 요청드렸다. 그러나 그때에 사간 어른은 여러 손자들과 전염병을 피해 가산(駕山)의 별업(別業)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했기에 만사를 받지 못해 서글프고 한스러움이 끝이 없었다. 사간 어른이 어느 날 밤에 아버지를 꿈에서 만났다. 아버지께서 사간 어른이 있는 곳을 찾아와 만사를 정성껏 요청했는데, 그 말이 너무도 간절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 곧바로 칠언절구의 시를 지어 불초(不肖)한 나에게 보내온 것이다. 불초한 나는 삼가 받들어 감격스레 울었으니, 그 슬프고 참담함이 어찌 끝이 있으랴. 이에 영원히 매장하는 날에, 무덤 속에 안장하면서 또 그 만사를 기록해 드러내었고 더불어 옮겨 적었다.

모두 취해 한양의 성현은 아니었지만　　皆醉非關中聖賢
위연히 나와 더불어 술로 해를 보냈지　　喟然吾與酒爲年
봄바람 부는 이날 계산 아래에　　春風此日稽山下
어찌 부질없이 이백의 배만 돌아오는가　　郤忍空回李白船[24]

금쇄동(金鎖洞)에 병들어 있는 사람–지평(持平) 윤선도(尹善道)[25]–

삼대의 문장가로　　三代文章子
거문고 책으로 일생을 보냈지　　琴書過一生
가문은 바닷가에서 최고였고　　門闌冠海右
문채는 한양에서도 진동했다오　　符彩動秦城

---

24 이 작품은 윤선도(尹善道)의 《고산유고(孤山遺稿)》에는 실려 있지 않다.

25 윤선도(尹善道) : 1587~1671.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약이(約而), 호는 고산(孤山)·해옹(海翁)이다.

대대로 나이 잊은 사귐 맺었는데　　世世忘年兮
애달프다 마음 다하지 못했노니　　哀哀不盡情
남곽의 길에 봄바람 불어오니　　春風南郭路
늙은이 눈물 다시 갓을 적시누나　　老淚更沾纓

전군수(前郡守) 조행립(曺行立)[26]-애도하다.-

예전에 외람되이 남쪽 고을 길손 되어　　昔忝南州客
이에 북해의 사귐[27]을 입었다오　　仍叨北海交
시문은 능히 봉황을 토해낼 정도였고　　詞華能吐鳳
필법은 봉황이 날아오르는 듯했지　　筆法更騰蛟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되었노니　　會合終無地
생애가 갑자기 물거품 되었어라　　生涯欻似泡
멀리서도 애달프다 옥천의 집에　　遙憐玉泉舍
봄빛이 매화 가지에 올랐으리니　　春色上梅梢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홍문관교리(行弘文館校理) 지제교(知製敎) 겸경연시독관(兼經筵侍讀官)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 남훤(南翬)[28]-절하며 애도하다.-

---

26 조행립(曺行立) : 1580~1663.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백원(百源), 호는 태호(兌湖)이다.

27 북해(北海)의 사귐 : '북해'는 후한(後漢) 말년에 북해 상(北海相)을 지냈던 공융(孔融)을 말한다. 공융은 "자리 위에 손님이 항상 가득하고, 술동이 속에 술이 늘 비지만 않는다면, 내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술과 빈객을 무척이나 사랑했다는 고사가 있다. 《후한서(後漢書)·공융열전(孔融列傳)》

28 남훤(南翬) : 1609~1656.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백원(伯園), 호는 창명(滄溟)이다.

송호의 아들이요 옥봉은 손자로　松湖之子玉峰孫
필법을 이은 집안 명성 대단했다오　藉藉家聲筆法存
죽어 모두 쓸쓸하게 되었노니　臭腐神氣俱寂莫
어찌 만사를 영원[29]으로 보낼 것인가　忍將哀挽寄鴒原

자안[30]이 죽어 화려함 떠나갔기에　子安已矣彬彬逝
이 세상에서 마음 나눌 사람 그대뿐이었지　此世論心獨有君
서글퍼라 저승으로 지금 또 헤어졌노니　怊悵九原今又隔
몇 가닥 이웃집 피리 소리[31] 못 듣겠네　數聲隣笛不堪聞

석포(石浦) 곽성귀(郭聖龜)[32]-곡하며 애도하다.-

부소산의 산 기운이 영웅에게 모이었고　扶蘇山氣鍾豪英
삼세도록 진나라 필법의 정묘함 전해졌네　三世相傳晉筆精

---

29 영원(鴒原) : 우애 있는 형제를 뜻하는 말이다. 《시경(詩經)·상체(常棣)》의 "저 할미새 들판에서 호들갑 떨듯, 급할 때는 형제들이 서로 돕는 법이라오. 항상 좋은 벗이 있다고 해도, 그저 길게 탄식만을 늘어놓을 뿐이라오.〔鶺鴒在原, 兄弟急難. 每有良朋, 況也永歎.〕"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여기에서는 형제와도 같은 백상빈이 묻힌 곳을 말한다.

30 자안(子安) : 곽성귀와 친교가 있었던 사람의 자(字)로 보인다.

31 이웃집 피리 소리 : '인적(隣笛)'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라는 말로, 보통 죽은 옛 친구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이다. 진(晉)나라의 상수(向秀)가 혜강(嵇康)·여안(呂安)과 산양(山陽)이란 곳에서 함께 살며 서로 가까이 지냈는데 두 벗이 죽은 뒤 산양의 옛터를 지나다가 이웃 사람이 부는 처량한 피리 소리를 듣고 옛날에 벗들과 함께 놀던 일을 생각하여 죽은 두 벗을 위하여 〈인적부(隣笛賦)〉를 지었다는 고사가 있다. 《진서(晉書)·상수열전(向秀列傳)》

32 곽성귀(郭聖龜) : 1606~1668. 본관은 해미(海美), 자는 문징(文徵), 호는 현주(玄洲)·저헌(樗軒)·모원재(慕遠齋)이다.

아비에게 이 아들 있었고 그 할아버지도 아니　　父有是兒知有祖
훌륭한 동생[33]과는 난형난제였다오　　季難爲弟又難兄

시서와 꽃 대나무에 주인 없어 놀랐는데　　詩書花竹驚無主
호해의 풍경 속에 이생에 보냈어라　　湖海風煙送此生
아득히 봄날의 술자리 모임 생각해 보니　　遙想長春樽酒會
가련토다 외론 달만 지금도 밝으리라　　可憐孤月至今明

조봉대부(朝奉大夫) 성균관학정(成均館學正) 이극성(李克誠)

-절하며 애도하다.-

남쪽 고을에서 이름난 집안으로 칭송되었고　　南國稱名閥
재주와 호방함 대대로 유지했었지　　才豪世有之
혼인으로 연결돼 비로소 의리 맺었는데　　姻連初結義
죽고 살아 영원히 슬픔 머금네　　存沒永含悲
시와 필법은 가법을 이은 것이요　　詩筆追家法
풍류는 술잔에 부치었다오　　風流屬酒巵
봄 하늘 아래 호해 너머를　　春天湖海外
슬피 바라보니 눈물이 줄줄 흐르네　　悵望淚如絲

전봉사(前奉事) 여이홍(呂爾弘)-절하며 애도하다.-

---

33 동생 : '계난(季難)'은 훌륭한 동생이라는 말이다. 후한(後漢) 진기(陳紀)의 자는 원방(元方)인데, 아우 심(諶)과 함께 지극한 덕으로 일컬어졌다. 그의 아들 군(群)이 심의 아들 충(忠)과 함께 각기 자기 아버지의 공덕을 주장하다가 결정하지 못해 조부 식(寔)에게 물으니, 진식이 말하기를 "원방이 형이 되기 어렵고 계방(季方)이 아우가 되기 어렵다.〔難兄難弟〕"라고 하였다. 계방은 심의 자(字)이다.

쇠 끊듯 날카로웠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채[34] 斷金其利臭如蘭
대를 이어 교유하며 속마음 털어놓았지 繼世交遊吐肺肝
이날 죽고 사니 통곡할 만하노니 此日存亡堪慟哭
당시 만나고 헤어지며 얼마나 기뻐하고 슬퍼했던가 當時離合幾悲歡
호산은 주인 잃어 구름도 참혹해하고 湖山失主雲容慘
술집은 사람 잃은 채 계수나무 그림자만 남았어라 酒肆無人桂影殘
거경[35]이 상여줄 잡지 못함 괴이 여기지 마소 莫怪巨卿違執紼
늙고 병들어 몸을 일으키기 어렵다오 只嬰衰病抽身難

사귐의 도리는 삼세도록 이어졌고 交道連三世
집안끼리 교유함은 이미 백 년이라오 通家已百年
난실에서 향기가 스며들었고 襲薰蘭室裏

---

34 쇠 끊듯……채 : 둘 사이에 금란지교(金蘭之交)의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는 말이다. 《주역(周易)·계사전 상(繫辭傳上)》의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쇠도 자를 수 있고 그들의 말은 난초 향기와 같다.〔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35 거경(巨卿) : 후한(後漢) 때 범식(范式)으로, 거경은 그의 자이다. 범식은 산양(山陽) 금현(金縣) 사람으로, 천 리 먼 곳에 사는 여남(汝南)의 장소(張劭)와 평소 태학(太學)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정이 매우 두터웠다. 두 사람이 이별할 때 범식이 장소에게 "2년 뒤 돌아올 때 그대의 집에 들르겠다."라고 했는데, 꼭 2년째가 되는 날인 9월 15일에 장소가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짓고〔殺雞作黍〕 범식을 기다리자, 그 부모가 웃으며 "산양은 여기서 천 리나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가 어찌 기필코 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에 장소가 "범식은 신의 있는 선비이니, 약속 기한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범식이 당도했다. 그 후 장소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 날 상여가 움직이지 않다가 천 리 밖 산양 땅에 있던 범식이 백마(白馬)와 소거(素車)를 타고 이르러 조상하자, 상여가 비로소 움직였다 한다. 《후한서(後漢書)·범식열전(范式列傳)》 여기에서는 박충렴이 자신을 범식에 견주어, 백상빈과 절친이었음을 말한 것이다.

초당 앞에서 술잔을 들었지 把酒草堂前
늘 영웅의 재주 버려짐 애석해했는데 每惜英才棄
어찌 알았으랴 부고가 갑자기 이를 줄 寧知訃忽傳
백아의 거문고 줄 이로부터 끊어졌노니[36] 牙絃從此絶
바다가 남쪽 하늘 보며 통곡하노라 哭望海南天

살아 있는 벗 박충렴(朴忠廉)-곡하며 애도하다.-

지난해 향기로운 연꽃 핀 밤에 去歲芳荷夜
서로 만났는데 둘 다 백발이었지 相逢共白頭
누가 알았으랴 오늘 밤 이별하여 誰知今夕別
통곡하며 돌아가는 상여 보낼 줄 慟哭送歸輀
옛집은 송산의 아래 있고 舊宅松山下
새 무덤은 옛 성곽 남쪽에 있네 新阡古郭南
유명 간에 한이 많으리니 幽明多少恨
방초와 산 남기도 함께 하네 芳草共山嵐

술 있다 한들 내 누구와 마실까 有酒吾誰酌
그대 생각하니 눈물이 줄줄 흐르네 思君涕泗漣

---

36 백아(伯牙)의……끊어졌노니 : 거문고 줄이 끊어졌다는 말로, 벗을 잃은 슬픔을 의미하는데, 백아절현(伯牙絶絃)의 고사를 활용한 대목이다. 백아와 종자기(鍾子期)는 모두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으로, 종자기는 친구인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잘 이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자기가 죽자 백아가 자신의 음악을 감상할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거문고를 부수어 버리고 종신토록 다시 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기(知己)의 죽음을 애상하는 뜻으로 '백아절현'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여람(呂覽)·본미(本味)》

초당의 꽃에 비 내리는 밤　　草堂花雨夜
들보 달빛[37]에 꿈은 아련하리라　　樑月夢依然

표재종(表再從) 갈부(葛夫)

-곡하며 애도하다. 진사(進士) 양치남(梁致南)[38]-

오직 형과 동생이 서로를 알아주어　　惟兄知弟弟知兄
마음으로 늘 일생을 의탁하려 했다오　　心事常期托一生
술잔 들고 맞이했던 일 옛 자취 되었으니　　樽酒逢迎成舊跡
강가 성에 가득한 봄빛을 못 보겠어라　　忍看春色滿江城

옥천 당악의 집은 멀지 않는데　　玉川棠岳室非遐
돌아보니 한 산봉우리가 막고 있구나　　回首猶嫌一嶺遮
뉘 생각했으랴 유명 간에 오늘 영원히 헤어질 줄　　誰意幽明今永隔
만사 쓰노니 쏟아지는 눈물 가누지 못하겠네　　不堪題挽淚滂沱

살아 있는 척제(戚弟) 윤선계(尹善繼)[39]-곡하며 애도하다.-

부자의 맑은 수양 어찌 말하기 쉬우랴　　夫子淸修豈易言
쉰에 세상 버린 이유 또한 알기 어려워라　　五旬違世亦難原
청산만이 홀로 전 사마를 보호하노니　　靑山獨保前司馬

---

37 들보 달빛 : 친구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이다. 두보(杜甫)가 이백(李白)을 그리워하며 지은 〈몽이백(夢李白)〉의 "지는 달이 지붕을 가득히 비추나니, 그대의 밝은 안색 행여 비추는 듯.〔落月滿屋梁, 猶疑照顔色.〕"이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38 양치남(梁致南) : 1585~?.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기원(期遠)이다.

39 윤선계(尹善繼) : ?~?. 본관은 해남(海南), 호는 쌍정(雙亭)이다. 윤선도(尹善道)의 동생이다.

밝은 달만이 옛 천지의 기운 삼키누나　　明月惟呑古混元

한 자식 이미 하늘로 간 것 알고 있지만　　一子已知天所送
여러 자손 봉황처럼 뒤따라 즐거웠다오　　諸孫可喜鳳將褰
구룡[40]과 눈 놀이 하던 때가 언제였던가　　九龍玩雪何年日
온갖 일 아득하여 눈물만 절로 흐르누나　　萬事悠悠淚自翻

윤인미(尹仁美)-곡하며 애도하다.-

달뜬 밤에 자주 오갔는데　　夜月頻來往
그대 떠나 어찌 오지 않으신가　　吾君去不歸
생각나노니 을축년의 헤어짐　　依然乙丑別
어제처럼 그 모습 그려진다오　　如昨想容輝

심정민(沈廷敏)-곡하며 애도하다.-

백씨 집안 시와 필법은 세상에 전해졌고　　白門詩筆八垓傳
선조 이은 선비의 단아함도 알고 있었지　　儒雅仍知繼祖先
정성껏 제사 받들었으니 큰 복[41]이 마땅한데　　祀事虔誠宜錫類
술병과 고질병 마침내 치료하지 못했다오　　酒痾沉痼竟難痊

깊은 정으로 이미 두루 화목하게 지냈으며　　深情已使諸親睦

---

40 구룡(九龍) : 한 집안의 아홉 자식에 대한 미칭(美稱)인데, 여기에서는 백상빈을 가리킨 표현이다.

41 큰 복 : '석류(錫類)'는 길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효자를 가리킨다. 《시경(詩經)·기취(旣醉)》의 "효자의 효도 다함이 없는지라, 영원히 복을 받으리로다.〔孝子不匱, 永錫爾類.〕"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늙은 나에게 유독 두터운 정의 있었다오　厚意曾於老我偏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니　定想天心終必祐
자손들 이로부터 복 응당 온전하리라　子孫從此福應全

진사(進士) 윤적(尹績)-절하며 곡하다.-

유세차(維歲次) 병술년(丙戌年, 1646) 2월 무인(戊寅) 삭(朔) 16일 계사(癸巳)에, 동생 백상현(白尙賢)은 삼가 술과 과일 및 제철 음식으로 죽은 형 성균관(成均館) 생원(生員) 백공(白公)의 영전에 제사 드립니다.

아아 형이여　吁嗟伯乎
동기간이 몇 사람이나 남았나　同氣幾人
한 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　一姊已逝
통곡하며 쓴 고통 맛보았지요　摧痛酸辛
오직 우리 형제가　惟吾昆季
집을 맞대고 서로 의지했었지요　接室相依
언덕 위에 온화한 바람 불어　和風原上
척령[42]이 함께 날았으며　鶺鴒同飛
형제들[43] 꽃 주변에서　紫荊花邊

---

42 척령(鶺鴒) : 자세한 내용은 243쪽 주29 참조.

43 형제들 : '자형(紫荊)'은 나무 이름인데, 형제간의 우애를 가리킨다. 경조(京兆)의 전진(田眞) 삼 형제가 분가하려고 재산을 분배하다가 당(堂) 앞에 있는 자형수(紫荊樹) 한 그루를 나눌 길이 없어 베어서 세 조각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다음 날 가서 보니 나무가 시들어 있었다. 이에 사람이 나무만 못함을 반성하고 다시 재산을 합치고 나무를 베지 않기로 하자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속제해기(續齊諧記)》

훈지[44]를 함께 불었지요 壎篪共吹
아아 형이여 吁嗟伯乎
시와 술로 한평생 보내면서 詩酒生涯
시 읊조려 회포를 풀고 吟詩遣懷
먼저 읊조리고 화답을 바랐지요 先唱要和
술 좋아하는 것이 고질병 되어 愛酒成癖
늘 술을 마시었지요[45] 靑州督郵
송촌의 작은 다리에서 松村小橋
얼마나 술[46]을 보내왔으며 幾傳郫筒
오계의 꽃과 버들에서 玉溪花柳
술 취한 흥 다하기 어려웠네 醉興難窮
오호라 형이여 嗚呼伯乎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胡至於斯
쉰을 겨우 넘겼는데 五旬纔過
질병을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一疾誰醫
세월은 그리도 빨리 흘러[47] 光陰石火

---

44 훈지(壎篪) : 형제 혹은 친구 사이의 화목과 조화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으로, 《시경(詩經)·하인사(何人斯)》의 "맏형은 훈을 불고 둘째 형은 지를 분다.〔伯氏吹壎, 仲氏吹篪.〕"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45 늘 술을 마시었지요 : '청주독우(靑州督郵)'는 술을 말한다. 진(晉)나라 환온(桓溫)의 주부(主簿)로 있던 사람이 술맛을 잘 감정했는데, 맛 좋은 술은 '청주종사(靑州從事)'라고 부르고 나쁜 술은 '평원독우(平原督郵)'라고 불렀던 고사에서 유래했다. 《세설신어(世說新語)·술해(術解)》

46 술 : '비통(郫筒)'은 대나무로 만든 술통의 이름이다. 비현(郫縣)에 큰 대나무가 많아서 그것을 잘라 술통을 만들었는데, 이를 비통 또는 비통주(郫筒酒)라고 한다.

47 빨리 흘러 : '석화(石火)'는 세월이 재빨리 흐르는 것을 말한다. 당(唐)나라 백거이

풀 위의 이슬이 먼저 말랐습니다[48] 草露先晞
찬 날씨 달 뜬 밤에 寒天夜月
외론 기러기 슬피 울고 獨雁哀鳴
푸른 풀 자란 연못에서 靑草池塘
한바탕 꿈에 도리어 놀랍니다 一夢還驚
오호라 형이여 嗚呼伯乎
내 마음 서글픕니다 余懷之悲
혼령 실은 상여 새벽에 떠나가니 靈輀曉發
상엿소리[49]에 서글프기만 합니다 薤露凄凄
저 새로운 무덤 바라보니 瞻彼新阡
당악의 서쪽에 있습니다 棠岳之西
유명 간에 영원히 이별하나 幽明永隔
그 모습을 어찌 잊겠습니까 眉宇何忘
바람 맞으며 한 번 곡하니 臨風一哭
바닷가 하늘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海天滄茫
오호라 슬프구나 嗚呼哀哉
상향 尙饗

(白居易)는 〈우의(寓意)〉에서 "부귀는 오래 머물지 않으니, 기왓골의 서리처럼 빨리 사라지네. 권세는 더욱 빨리 사라져, 부싯돌이 번쩍하는 것보다 빠르네.〔富貴來不久, 倏如瓦溝霜. 權勢去尤速, 瞥若石火光.〕"라고 했다.

48 풀 위의……말랐습니다 : 사람 목숨이 부추 잎에 맺힌 이슬처럼 쉽게 소멸된다는 말이다. 만가(輓歌)인 〈해로가(薤露歌)〉 1장(章)에 "염교 위 아침 이슬은 어찌 그리 빨리 마르는가.〔薤上朝露何易晞〕"라는 구절이 보인다.

49 상엿소리 : '해로(薤露)'는 만가(挽歌)이다. 해(薤)는 부추 종류인데 사람의 목숨이 부추 잎에 맺힌 이슬처럼 쉽게 소멸된다는 뜻에서 나왔다.

고조모 전주 이씨[1] 장시 을묘년(1615, 광해군7)

高祖母全州李氏葬時 乙卯年

옥봉의 손자가 태산의 손녀 맞이하니 玉峰孫聘泰山孫
두 아름다운 이 사람들 만복의 근원이라 칭송했지 兩美人稱萬福原
아름다운 옥은 쉽게 깨지고 꽃도 쉬 시들었으나 琬琰易殘花易歇
백년도록 호수의 달은 아름다운 혼 비추리라 百年湖月照芳魂[2]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연릉부원군(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3]

옥봉의 손자가 어진 아내 얻었는데 玉峯孫子得賢配
스물 나이에 죽었다니 참으로 불쌍하네 二十云亡眞可憐
잠시 광릉 땅의 야트막한 흙에 묻혔다가 暫向廣陵埋淺土
가을날 매장하려 남쪽으로 돌아간다네 窆徒秋日返南天
세상에서의 뜬 인생 꿈처럼 희미하고 浮生在世迷如夢

---

1 백상빈의 아내인 전주 이씨(全州李氏, 1594~1614)로, 이씨의 아버지는 이경우(李敬佑)이다.

2 이 작품은 이호민(李好閔)의 《오봉집(五峯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3 이호민(李好閔) : 1553~1634.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효언(孝彦), 호는 오봉(五峯)·남곽(南郭)·수와(睡窩)이다.

지금엔 모든 일은 연기처럼 흩어졌네　　萬事于今散若烟
가장 아픈 것은 칠원옹처럼　　最是添園御至痛
동이 두드리며 말없이 두 눈물 흘리는 걸세[4]　　叩盆無語淚雙懸[5]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겸호조판서(兼戶曹判書) 유근(柳根)[6]-애도하다.-

뜬 인생 이제 겨우 스물둘인데　　浮生纔卄二
사람 일 너무도 슬프고 괴롭네　　人事極悲辛
슬하에 자녀는 없지만　　膝下無兒子
집안에는 늙은 부모 계시다네　　堂上有老親
목소리 얼굴은 어제처럼 생생한데　　音容猶昨日
무덤으로 천추 세월 가리었네　　窀穸掩千春
끝없이 흘러내리는 낭군의 눈물로　　不盡郎君淚
물결 더해 광진의 물 불어났네　　添波漲廣津[7]

정헌대부(正憲大夫)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

4 칠원옹(添園翁)처럼……걸세 : '칠원(添園)'은 장자(莊子)를 말한다. 장자가 칠원에서 벼슬했기에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 '고분(叩盆)'은 동이를 두드린다는 것으로, 아내의 상(喪)을 당하여 슬퍼한다는 뜻이다. 장자의 아내가 죽어 혜자(惠子)가 문상(問喪)하러 갔더니, 장자는 다리를 뻗고 앉아서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하고 있었다. 이에 그 까닭을 물으니 "본래 삶이란 것은 형체란 것도 없었는데, 이제 본래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니 슬퍼할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대답했다. 《장자(莊子)·지락(至樂)》

5 이 작품은 유근(柳根)의 《서경집(西坰集)》에 실려 있지 않다.

6 유근(柳根) : 1549~1627.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회부(晦夫), 호는 서경(西坰)이다.

7 이 작품은 김상용(金尙容)의 《선원유고(仙源遺稿)》에는 실려 있지 않다.

겸오위도총부도총관(兼五衛都摠府都摠管) 김상용(金尙容)[8]

-절하며 애도하다.-

합근[9]하며 백년해로 기약했는데	合巹期偕老
꽃다운 기약 일찍 식어 애통하구나	芳盟痛早寒
헛되어 잡패 주는 것에[10] 수고로웠고	徒勤問雜佩
끝내 난초의 꿈[11]도 꾸지 못했다네	竟未夢徵蘭
먼지는 옥 거문고를 뒤덮었고	塵向瑤琴集
향기는 비단 상자에 남았어라	香從錦匣殘
호남으로 돌아가 묻히게 되니	湖南歸葬處
저녁 구름 끝을 끝없이 바라보네	目極暮雲端[12]

---

8 김상용(金尙容) : 1561~1637.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풍계(楓溪)·계옹(溪翁)이다.

9 합근(合巹) : 혼례식 절차의 한 가지로, 신랑 신부가 잔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결혼했다는 의미이다.

10 잡패 주는 것에 : 《시경(詩經)·여왈계명(女曰鷄鳴)》에 "그대가 초대하여 오신 분임을 안다면 잡패를 선물할 것이며, 그대가 사랑하는 분임을 안다면 잡패를 줄 것이며, 그대가 좋아하는 분임을 안다면 잡패로 보답하리라.〔知子之來之, 雜佩以贈之. 知子之順之, 雜佩以問之. 知子之好之, 雜佩以報之.〕"라고 한 부분을 활용했다.

11 난초의 꿈 : 귀한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이다. 춘추 시대에 정(鄭)나라 문공(文公)에게 연길(燕姞)이라는 천첩이 있었는데, 꿈에 천사(天使)가 난초를 주며 "이 난으로 너의 아들을 만들어 줄 것이니, 난은 나라 꽃 중에 향기가 으뜸이므로, 사람들이 그를 난처럼 친애하고 사랑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윽고 문공이 연길에게 난을 주며 잠자리를 하려 하자, 연길이 "제가 재능도 없는 몸으로 다행히 임신하더라도 사람들은 임금의 아이로 믿지 않을 것이니, 감히 이 난을 증거로 삼아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문공이 좋다고 했다. 뒤에 아들을 얻어 난(蘭)이라 이름을 지으니, 바로 목공(穆公)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3년조에 보인다.

12 이 작품은 김현성(金玄成)의 《남창잡고(南窓雜藁)》에는 실려 있지 않다.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김현성(金玄成)[13]-절하며 애도하다.-

풀에 이슬이 어찌 오래 있던가	露草何曾有
바람에 꽃이 갑자기 날아갔구나	風花忽已飛
옥 상자에는 달의 혼백 깃들었고	玉奩藏月魄
상여에 혼령의 옷으로 제사 드리네	圭篆奠靈衣
오리 기러기의 시[14]만 부질없이 남아 있고	鳧雁詩空在
규문의 일은 영원이 끊어졌다네	閨門事永違
선랑은 장지로 보내며 곡을 하노니	仙郎哭送葬
부슬부슬 비가 눈물과 섞여 흐르네	和淚雨霏霏[15]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충무위사직(行忠武衛司直)

김류(金瑬)[16]-절하며 애도하다.-

교남의 화려한 집안 명성이 자자했고	嶠南華閥擅芳聲
초성과 시편은 모두 이름 알려졌다오	草聖詩篇摠有名

---

13 김현성(金玄成) : 1542~1621.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여경(餘慶), 호는 남창(南窓)이다.

14 오리 기러기의 시 : 남편을 잘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시경(詩經)·여왈계명(女曰鷄鳴)》의 "그대는 일어나 밤을 보소서. 계명성(啓明星)이 찬란할 것이니 장차 이리저리 다니면서, 오리와 기러기를 주살로 잡아오시길.〔子興視夜, 明星有爛, 將翱將翔, 弋鳧與雁.〕"이라고 한 구절에서 연유했다.

15 이 작품은 김류(金瑬)의 《북저집(北渚集)》에 실려 있지 않다.

16 김류(金瑬) : 1571~1648.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관옥(冠玉), 호는 북저(北渚)이다.

어진 자녀 낳아 훌륭한 자손 많았고[17] 生得賢郎鸞鵠峙
좋은 아내 취하니 봉황이 노래했다오[18] 娶來佳婦鳳凰鳴
금슬이 합해져서 정 겨우 흡족했는데 琴諧瑟合情纔洽
계수나무 난초 꺾이어[19] 원망에 불평스럽네 桂折蘭摧怨未平
적막하구나 광릉의 언덕 위 땅 寂莫廣陵原上土
옥을 새로운 무덤에 어찌 묻을까 不堪埋玉寓新塋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승정원좌부승지(行承政院左副承旨)
겸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예전부터 집안 끼리 교유하면서 自昔通家分
일찍이 어릴 적부터[20] 보아 왔다오 曾看弄瓦年

---

17 훌륭한 자손 많았고 : '난곡치(鸞鵠峙)'는 가문의 덕업과 명망을 계승할 훌륭한 자손들이 많다는 말이다. 한유(韓愈)의 〈전중소감마군묘명(殿中少監馬君墓銘)〉의 "물러나 소부(少傅)를 뵈니, 푸른 대나무와 푸른 오동나무에 난새와 고니가 우뚝이 멈추어 서 있는 듯했으니, 능히 그 가업을 지킬 수 있는 분이었다.〔退見少傅, 翠竹碧梧, 鸞鵠停峙, 能守其業者也.〕"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18 봉황이 노래했다오 : 《시경(詩經)·권아(卷阿)》에 "봉황새가 울었다, 저 높은 산등성에서. 오동이 났다, 저 산 동쪽에서.〔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았다는 의미이다.

19 계수나무 난초 꺾이어 : '계절란최(桂折蘭摧)'는 난최옥절(蘭摧玉折)과 같은 말로, 현재(賢才)가 요절(夭折)한 것을 의미한다. 《세설신어(世說新語)·언어(言語)》에 "모백성(毛伯成)이 자신의 재기(才氣)를 자부하면서 항상 '차라리 난초로 꺾이고 옥으로 부서질지언정, 쑥부쟁이처럼 더부룩하게 우거지지는 않겠다.〔寧爲蘭摧玉折, 不作蕭敷艾榮.〕' 했다."라는 말이 보인다.

20 어릴 적부터 : '농와(弄瓦)'는 실패를 가지고 논다는 뜻으로, 딸이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시경(詩經)·사간(斯干)》의 "여자를 낳아서는, 방바닥에 잠재우고, 포대기로 덮어 주며, 실패를 갖고 놀게 한다.〔乃生女子, 載寢之地, 載衣之裼, 載弄之瓦.〕"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규문의 법도는 사방 이웃이 칭찬했고　　閨儀四隣說
아내의 덕은 한 집에 전해졌다오　　婦德一門傳
음식을 주관하지도 못했는데　　未及主中饋
어찌 그리 바삐 저승에 가시었나　　何忙歸九原
봄바람 삼십 년의 세월이니　　春風三十載
상여 가는 길도 또한 눈물 흘리네　　道路亦潸然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의흥위사과(行義興衛司果) 지제교(知製敎)
윤유기(尹唯幾)[21]-애도하다.-

일찍이 결혼해[22] 부부 인연 맺을 때 보았는데　　曾見松蘿初結時
달빛 아래 퉁소 불며 봉황 짝지어 날았지[23]　　紫簫吹月鳳雙飛
광릉의 언덕 위에 급히 옥을 묻노니　　廣陵原上催埋玉
해질녘 강남으로 사람 홀로 돌아가네　　日暮江南人獨歸[24]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
지제교(知製敎) 겸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

---

21 윤유기(尹唯幾) : 1544~?. 본관은 해남(海南)이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아버지이다.

22 결혼해 : '송라(松蘿)'는 혼인을 의미한다. 고시(古詩)에 "그대와 새로 혼인을 했으니, 토사가 송라에 부침이로다.〔與君爲新婚, 菟絲附松蘿.〕"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23 달빛……날았지 : '봉소(鳳簫)'는 농옥(弄玉)과 소사(蕭史)가 부는 퉁소를 가리킨다. 진 목공(秦穆公)의 딸 농옥은 음악을 좋아했고, 소사는 퉁소를 잘 불어 봉새가 우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에 목공이 농옥을 그에게 시집보내고 누각을 지어 주었는데, 이들이 퉁소를 불면 봉황이 날아와 모였으며, 뒤에 두 사람은 봉황을 타고 날아갔다고 한다. 《열선전(列仙傳)》

24 이 작품은 이안눌(李安訥)의 《동악집(東岳集)》 권23에 〈白秀才【尙賓】妻李氏挽詞〉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이안눌(李安訥)[25]

-절하며 애도하다.-

멋진 집에서 촛불 밝히던 세월 머지않는데　華堂煎燭歲非遙
강남 땅에서 눈 쉬이 녹는 걸 어이하랴　無奈江南雪易消
옥과 향기 묻힐 곳은 어디인가　藏玉埋香何處所
바다 보배 돌아가는 길 정말로 멀어라　海珍歸路正迢迢[26]

남양(南陽) 홍서봉(洪瑞鳳)[27]

-절하며 애도하다.-

백군은 호우에서 왔는데　白君來湖右
머리 묶어 신부 맞이해 아내 있었다오　結髮迎新婦有室
부모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庶遂親所願
도엽[28]은 무성하고 금슬도 우애로웠지　桃葉蓁蓁琴瑟友
갑자기 들었네 고질병으로 오래 누워 있다　俄聞宿痾久沉綿
거울 속의 난새가 한순간 짝을 잃었다고[29]　鏡裏鸞形奄失偶

---

25 이안눌(李安訥) : 1571~163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이다.

26 이 작품은 홍서봉(洪瑞鳳)의 《학곡집(鶴谷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27 홍서봉(洪瑞鳳) : 1572~1645.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휘세(輝世), 호는 학곡(鶴谷)이다.

28 도엽(桃葉) : 진(晉)나라 때 왕헌지(王獻之)의 애첩(愛妾) 이름이다. 그는 자색이 뛰어났는데, 왕헌지는 그를 매우 사랑하여 〈도엽가(桃葉歌)〉를 짓기도 했다. 여기서는 백상빈의 아내 전주 이씨를 가리킨다.

29 거울……잃었다고 : 계빈국(罽賓國)의 임금이 준기산(峻祁山)에 그물을 쳐서 난조(鸞鳥) 한 마리를 잡아서 애지중지하였는데 3년 동안 울지 않았다. 그 부인이 "일찍

천 리 밖 늙은이 흰머리로 슬퍼하니　千里阿翁白首悲
혼백을 어느 날에나 불러들일 수 있으랴　芳魂幾日招得歸
이날에 청산에 옥과 같은 육신 묻으러　靑山自此葬玉骨
동쪽으로 광릉 나오니 상여 깃발 휘날리네　東出廣陵丹旐飛
대 이은 교유에 마음 친했으나 도움 못 돼 미안하니　連世情親媿無助
아아 그대를 위해 만사를 쓰노라　嗚呼爲爾題哀詞[30]

안동(安東) 김상헌(金尙憲)[31]-절하며 애도하다.-

두 사람 부부 되어 얼마나 세월 지났던가　兩美相合幾經年
혜초 난초 꺾여[32] 하늘을 원망하네　蕙折蘭摧怨老天
호외로 돌아가 지금은 이미 사라졌노니　湖外宜歸今已矣
광릉 주변의 붉은 영정에 서글퍼라　丹旌慘慘廣陵邊

통정대부(通政大夫) 전행봉산현감(前行鳳山縣監) 임서(林惰)[33]

-삼가 애도하다.-

이 들으니 새는 자기와 같은 무리를 보면 운다고 하였으니, 어찌 거울을 걸어서 제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여 거울을 걸어 두었더니, 난조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슬피 울더니 하늘로 한 번 날아오르고는 바로 죽었다 한다. 《태평어람(太平御覽)·난조시서(鸞鳥詩序)》 여기에서는 아내가 죽었다는 의미이다.

30 이 작품은 김상헌(金尙憲)의 《청음집(淸陰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31 김상헌(金尙憲) : 1570~165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서간노인(西磵老人),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32 혜초 난초 꺾여 : 자세한 내용은 256쪽 주19 참조.

33 임서(林惰) : 1570~1624.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신(子愼), 호는 석촌(石村)이다.

예전 내가 내 아내 죽어 통곡할 때　昔我哭我妻
내 나이 스물둘이었다오　我時行年二十二
지금 그대 아내 잃었는데　今君喪君室
듣자니 그대 나이 스물넷이라네　聞君今年二十四
재주 있건 어리석건 곱던 밉던 아내였으니　才愚妍婢各言婦
내 일로 그대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네　以我揣知君心事
푸른 오두막[34]에 막 들어왔는데 흰 수레 나오니　青廬纔入素轜出
부부 해로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누나　琴瑟未諧含贈備
무궁화꽃 피고 지는 것 말할 것도 못되니　槿花開落不可言
일찍 보낸 비통한 마음 무엇에 비하랴　早年摧痛情何比
해로가[35] 한 곡조로 그대 슬픔 위로하니　薤歌一曲助君悲
오히려 지난날 눈물이 다시 줄줄 흐르네　潸然還垂昔日淚[36]

통정대부(通政大夫) 전행양산군수(前行梁山郡守)

허적(許適)[37]-절하며 애도하다.-

부자가 연이어 아내를 잃어　父子迭相逝

---

34 푸른 오두막 : '청려(青廬)'는 푸른 천으로 만든 장막으로 북방 민족들이 혼례를 올릴 때 사용했다. 여기에서는 결혼한 것을 의미한다.

35 해로가(薤露歌) : 만가(輓歌)인 〈해로가(薤露歌)〉 1장(章)에 "염교 위 아침 이슬은 어찌 그리 빨리 마르는가.〔薤上朝露何易晞〕"라는 구절이 보인다. 사람의 목숨이 부추 잎에 맺힌 이슬처럼 쉽게 소멸된다는 의미이다.

36 이 작품은 허적(許適)의 《수색집(水色集)》 권3에 〈白生尙賓妻挽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7 허적(許適) : 1563~1641.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자하(子賀), 호는 수색(水色)이다.

우리들 자주 만사를 짓는다오　吾儕頻有詩
저승 가 일찍이 아픔 품고 있었는데　烏塋曾抱痛
용검[38]이 갑자기 그 암컷을 잃었다네　龍劍忽亡雌
은혜와 애정 어찌 다 말하랴　恩愛寧須道
평생토록 다만 절로 알고 있을 뿐이네　平生祗自知
송추[39]는 응당 멀지 않노니　松楸應不遠
해남의 모퉁이 향해 울지 마소서　莫向海南陲[40]

조희일(趙希逸)[41]-절하며 애도하다.-

백상빈이 어진 아내를 잃었노니　白也失賢配
아름다움 이십 년 만에 시들었다오　韶華二十殘
무슨 마음으로 옥 같은 육신 묻었을까　何心埋玉骨
차마 청산으로 떠나보내지 못했으리　不忍送青山
공작 그려진 병풍은 여전히 펼쳐져 있고　孔雀屛猶展
원앙 그려진 베개에는 온기 남아 있네　鴛鴦枕未寒
가련하다 함께 늙자는 약속을　可憐偕老約

---

38 용검(龍劍) : 용천검(龍泉劍)을 말한다. 진(晉)나라 장화(張華)와 뇌환(雷煥)이 용천(龍泉)과 태아(太阿)의 두 보검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 두 보검이 절로 연평진(延平津) 속으로 날아 들어가서 두 마리 용으로 바뀐 채 유유히 모습을 감췄다는 전설이 있다. 여기에서는 아내가 죽은 것을 의미한다.

39 송추(松楸) :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말하는데, 예전 무덤 가에 심었던 나무이다. 전하여 무덤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40 이 작품은 조희일(趙希逸)의 《죽음집(竹陰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41 조희일(趙希逸) : 1575~1638.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이숙(怡叔), 호는 죽음(竹陰) 또는 팔봉(八峰)이다.

거울 속의 난새가 저버리었으니[42] 辜負鏡中鸞[43]

현곡(玄谷) 조위한(趙緯韓)[44]-애도하다.-

아름답고 맑은 모습은 무리에서 뛰어났고 懿淑姿超衆
유순하고 아름다운 덕은 하늘에서 타고났지 柔嘉德出天
규중에서 빼어나다고 칭송했으며 猗歟閨裏秀
어진 여자라고 명성이 자자했다오 籍甚女中賢
머리 묶으며 천 리 멀다 여기지 않고 結髮輕千里
거안제미[45]하며 백 년 지낼 생각했다오 齊眉擬百年
원앙의 꿈이 갑자기 싸늘해졌고 鴛鴦夢忽冷
앵무새 울음소리만 헛되어 들리누나 鸚鵡語空傳
저승까지도 전해질 한스러움 있고 有恨通泉下
슬하에는 자식도 없었다오 無兒在膝前
새로운 무덤은 어느 곳에 있나 新阡何處是
바다 구름 주변이 적막하여라 寂莫海雲邊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사헌부지평(行司憲府持平)

---

42 거울……저버리었으니 : 자세한 내용은 258쪽 주29 참조.

43 이 작품은 조위한(趙緯韓)의 《현곡집(玄谷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44 조위한(趙緯韓) : 1567~1649.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지세(持世), 호는 현곡(玄谷)이다.

45 거안제미(擧案齊眉) : '제미(齊眉)'는 밥상을 들어 올려 눈썹과 가지런히 한다는 뜻으로, 남편을 공경하는 아내를 말한다. 후한(後漢)의 현사(賢士)인 양홍(梁鴻)의 처 맹광(孟光)이 밥상을 들고 올 때에도 양홍을 감히 마주 보지 못하고 이마 위에까지 들어 올렸다는 거안제미의 고사에서 유래했다. 《후한서(後漢書)·양홍열전(梁鴻列傳)》

양시진(楊時晉)[46]-절하며 애도하다.-

아득히 꿈같기고 하고 먼지 같노니	冥冥如夢又如塵
애석하구나 한평생이 단지 이순이었으니	可惜生平只二旬
한 시대 새 짝으로 좋은 인연을 맺어	一世良緣新伉儷
온 집안에서 제사[47]의 중임을 맡았었네	全家重寄在蘩蘋
사흘 밤 이슬에 난초 싹 갑자기 떨어졌고[48]	蘭芽忽隕三宵露
오동잎의 나무 절반은 부질없이 봄이어라[49]	桐葉空餘半樹春
이번 떠남은 종래 백 년의 거처 아닐러니	此去終非百年宅
훗날 해산으로 영혼 실은 상여 옮겨 가리	海山他日導靈輴[50]

통정대부(通政大夫) 행교서관교리(行校書館校理)

양경우(梁慶遇)[51]-절하며 애도하다.-

자신의 부모 섬기던 행실을	所以事父母

---

46 양시진(楊時晉) : 1573~1615.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자승(子昇), 호는 구음(龜陰)이다.

47 제사(祭祀) : 《시경(詩經)·채빈(采蘋)》에 "마름 풀 뜯으러 남쪽 시냇가로 가네. 마름 풀 뜯으러 저 개울가로 가네.〔于以采蘋, 南澗之濱. 于以采藻, 于彼行潦.〕"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시는 법도에 따라 제사 음식을 정결하게 마련하려는 주부(主婦)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록한 것이다.

48 난초……떨어졌고 : 자세한 내용은 256쪽 주19 참조.

49 오동잎의……봄이어라 : 이 구절은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양국혜강공주만가(梁國惠康公主挽歌)〉의 "하한은 지하의 깜깜한 밤이지만 오동나무 반쪽은 춘색이 여전하네.〔河漢重泉夜 梧桐半樹春.〕"라는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50 이 작품은 양경우(梁慶遇)의 《제호집(霽湖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51 양경우(梁慶遇) : 1568~?.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자점(子漸), 호는 제호(霽湖)·점역재(點易齋)·요정(蓼汀)·태암(泰巖)이다.

그대로 시부모님께도 했다오 移於舅姑前
이로 인해 아녀자 도리 다했는데 故然盡婦道
홀로 오래 살지 못했다오 獨不享千年
쓸쓸해라 노래자의 채색 옷[52] 집이여 寂莫老萊室
황량해라 원씨의 무덤이여[53] 荒涼袁氏阡
호남 한쪽의 땅에 湖南一片土
남긴 한은 저승까지 가득해라 遺恨滿窮泉[54]

전승문원박사(前承文院博士) 임숙영(任叔英)[55]-절하며 애도하다.-

하늘이 내린 배필로 서로 잘 맞았는데 天生配耦正相宜
믿음 맹세가 어이해 휘날리는 꽃잎 따랐나 信誓如何浪蘂隨

---

52 노래자(老萊子)의 채색 옷 : 초(楚)나라의 은사(隱士)인 노래자는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70세가 되었는데도 일부러 색동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떨었다는 고사가 있다. 《초학기(初學記)·효자전(孝子傳)》

53 원씨(袁氏)의 무덤이여 : '원씨'는 원자(袁滋)를 가리킨다. 원자의 증조인 원륜(袁倫)은 당양 현령(當陽縣令)을 지냈고, 조고인 원지현(袁知玄)은 석주 사마(石州司馬)를 지냈으며, 선고인 원엽(袁曄)은 함녕 현령(咸寧縣令)을 지내 3대가 미관말직에 있었는데, 원자는 크게 등용되어 간의대부(諫議大夫) 상서우승(尙書右丞)을 거쳐 금오대장군(金吾大將軍)과 절도사를 역임하고 재상에 이르렀다. 이에 한유(韓愈)는 "증조는 경학을 달통한 학자였으나 벼슬이 현령에 그쳤고, 조고는 《춘추》의 대의(大義)로 몸을 다스리고 일을 처리했으나 주(州)의 사마(司馬)를 지내고 별세했으며, 선고는 학문을 구비하여 문무를 겸전했으나 조정에서 벼슬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3대가 마땅히 영달해야 하는데 막혀서 성공을 후인들에게 돌려주었는데, 원공(袁公)이 그 운수를 당했다."라고 했다. 《한창려문집(韓昌黎文集)·원씨선묘비(袁氏先廟碑)》

54 이 작품은 임숙영(任叔英)의 《소암집(疎菴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55 임숙영(任叔英) : 1576~1623. 본관은 풍천(豊川), 초명은 상(湘), 자는 무숙(茂淑), 호는 소암(疎庵) 또는 동해산인(東海散人)이다.

헤어진 지 삼 년 동안 옥 같은 혼 시들었고　一別三秋消玉魄
겨우 만난 지 반 개월 만에 기약을 저버렸다오　纔逢半月訣貞期
호남의 송롱으로 돌아가신 시부모 따르고　湖南松壟追姑逝
낙북의 훤당에 계시는 어머니와 이별했다오　洛北萱堂謝母慈
백상빈은 우리 집과 교유한 지 오래이니　白也於吾世交久
그대 위해 만사 지어 보내니 너무도 슬프구려　爲君挽送不堪悲

진사(進士) 민여안(閔與顔)[56]-절하며 애도하다.-

모두들 백거이[57] 홀로 마음 아픔 불쌍타 하니　共憐居易獨傷神
금슬의 세월이 십 년도 되지 못했다오　友瑟光陰未十春
흰 휘장의 상 앞에는 제사 드리는 자식 없고　素幔床前無奠子
당상에서는 흰머리의 어머니가 울고 계시네　白頭堂上泣慈親
황량한 산 광릉의 땅에서 초빈했다가　荒山草殯廣陵土
남해 가의 고향으로 상여 돌아가누나　故國歸旌南海濱
내가 예전 팔뚝 부러져[58] 이 한을 아노니　我昔折肱知此恨
눈물과 먹물이 뒤섞여 절로 두건을 적시네　淚和殘墨自霑巾[59]

---

56 민여안(閔與顔) : 1565～1637.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귤주(橘洲)이다.

57 백거이(白居易) : '거이(居易)'는 당(唐)나라 시인인 백거이를 가리킨다. 백상빈과 백거이의 성씨가 모두 '백(白)'이기에, 백상빈을 백거이에게 견준 듯하다.

58 팔뚝 부러져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정공(定公) 13년에, 범씨(范氏)와 중항씨(中行氏)가 군주를 치려 하자, 제(齊)나라의 고강(高彊)이 "세 차례 팔뚝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 나서야 좋은 의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三折肱, 知爲良醫.〕"고 말했다는 고사가 있다. 팔뚝이 부러졌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고부천(高傅川) 또한 먼저 아내를 잃었기에 그 아픔을 안다는 의미로 쓰였다.

59 이 작품은 고부천의 《월봉집(月峯集)》에는 실려 있지 않다.

진사(進士) 고부천(高傅川)[60]-절하며 애도하다.-

모든 일 꽃처럼 일정하지 않지만	萬事如花不可常
아내의 어진 덕으로 홀로 향기로웠지	婦中賢德獨留芳
원앙은 봄 연못에서 익숙히 잠들지도 못한 채	鴛鴦未慣春唐睡
견우직녀는 가을 긴 밤에 부질없이 시름하네	牛女空愁秋夜長
누가 곧은 자태를 꿈처럼 돌아가게 했는가	誰遣貞姿歸似夢
가련하구나 난초 혜초 일찍 서리에 시들어	可憐蘭蕙早凋霜
외론 혼은 푸른 상수 못 풀에서 한하리니	孤魂恨碧湘潭草
이날 하늘 끝에서 눈물이 옷에 가득해라	此日天涯淚滿裳

족인(族人) 성균진사(成均進士) 나무송(羅茂松)[61]

-곡하며 애도하다.-

---

60 고부천(高傅川) : 1578~1636.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군섭(君涉), 호는 월봉(月峯)이다. 고경명(高敬命)의 손자이다.

61 나무송(羅茂松) : 1577~1653.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수부(秀夫), 호는 창주(滄州)이다.

조부시[1] 계해년(1683, 숙종9) 祖父時 癸亥年

얼굴 알고부터 덕의 훌륭한 흠모했었고 識面曾欽德義尊
집안 교유로 다시금 옛정 돈독함 알았다오 連家更覺舊情敦
늘 남북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 아쉬웠으니 每憐南北貽相阻
어찌 살고 죽어 저승으로 떨어질 줄 알았으랴 豈料存亡隔九原
지난겨울날 초대해 준 편지를 어찌 볼거나 忍見前冬邀我札
올여름 방문한다는 그대 말이 가장 마음 아프네 最傷今夏訪君言
고질병에 어찌 나귀 울음의 객보다 뒤졌나[2] 沉痾敢後驢鳴客
돌아가는 구름 서글피 바라보며 눈물 자국 닦노라 悵望歸雲拭淚痕

금성후인(錦城後人) 오군석(吳君錫)-곡하며 애도하다.-

어찌 만사 지으며 사람 슬프게 하나 何來挽幅使人悲
그대 생각에 눈물이 붓을 이미 적시누나 淚到思君筆已滋

---

1 조부시(祖父時) : 백몽삼(白夢參, 1638~1683)을 말한다.

2 나귀……뒤졌나 : 벗의 죽음을 슬퍼하여 목 놓아 운다는 표현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상서(傷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왕무자(王武子)가 죽었을 때 당시 명사들이 모두 모여 조문을 했다. 자형(子荊) 즉 손초(孫楚)가 뒤늦게 와서 시체 앞에서 통곡을 하더니, 통곡이 끝나자 영궤(靈几)를 향해 "그대가 평소 나를 위해 나귀 울음소리를 잘 내더니, 오늘은 내가 그대를 위해 나귀 울음소리를 내는구려."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이 먼저 죽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헤어짐에 어찌 한씨의 그리움[3] 감당하랴　　臨別可堪漢氏慕
다행히 집안에는 훌륭한 사씨의 자녀[4] 있네　　傳家幸有謝兒奇
아침 이슬 마르는 해가 소리[5] 원망하는 듯　　露晞朝薤歌如怨
빈 들보에 달빛 가득하니[6] 꿈인 듯해라　　月滿空樑夢乍疑
친한 벗들 날로 저승으로 감을 깨닫노니　　親朋日覺凋零盡
이로부터 시단(詩壇)에서 다시 뉘와 함께 할까　　從此騷壇更對誰

우인(友人) 창녕(昌寧) 조일회(曺一會)-곡하며 애도하다.-

옥봉에게 어진 자손 있는데　　玉峯賢孫在
풍운에 표범의 무늬[7]가 있었지　　風韻豹有斑

---

3 한씨의 그리움 : 미상(未詳).

4 훌륭한 사씨의 자녀 : '사아(謝兒)'는 진(晉)나라 사안(謝安)의 자녀라는 말로, 가문을 빛낼 훌륭한 자손을 이르는 말이다. 사안이 자질들에게 "자제(子弟)가 인사(人事)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사람들은 자제가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느냐."라고 묻자, 그 조카 사현(謝玄)이 "비유하자면 지란옥수(芝蘭玉樹)가 자기 집 정원에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진서(晉書)·사현열전(謝玄列傳)》

5 아침……소리 : 해(薤)는 부추 종류인데 사람의 목숨이 부추 잎에 맺힌 이슬처럼 쉽게 소멸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6 빈 들보에……가득하니 : 친구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이다. 두보(杜甫)가 이백(李白)을 그리워하며 지은 〈몽이백(夢李白)〉의 "지는 달이 지붕을 가득히 비추나니, 그대의 밝은 안색 행여 비추는 듯.〔落月滿屋梁, 猶疑照顔色.〕"이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7 표범의 무늬 :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은거하여 수신(修身)하면서 세상의 해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 답자(答子)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옹기장이 노릇을 했는데, 명예는 얻지 못하고 집안만 부유해졌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남산에 현표(玄豹)가 있는데, 안개비가 내릴 적에는 7일이 지나도록 산 아래로 내려와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은 털을 윤택하게 하여 무늬를 이루고자 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숨어 있으면서 해(害)를 멀리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열녀전(列女傳)·도답자처(陶答子妻)》

선비의 우아함은 타고난 것이며 儒雅出天性
한묵으로 시단에서 이름 날렸네 翰墨擅騷壇
대대로 쇠도 자를 교유 맺어[8] 連世斷金契
일찍부터 형 동생으로 의탁했다오 早托伯仲間
만날 때에 형식적인 의례 제거했었고[9] 逢迎去毛皮
참으로 지초 난초 향기에 젖은 듯했지[10] 正如襲芝蘭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別離未云幾
죽고 살아 슬픔만이 가득하여라 存沒多悲酸
황량의 한 꿈[11]에서 깨어났고 黃粱一夢罷
옥수[12]가 서리에 꺾이었구나[13] 玉樹霜摧殘

---

8 쇠도……맺어 : 둘 사이에 금란지교(金蘭之交)의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는 말이다. 《주역(周易)·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쇠도 자를 수 있고 그들의 말은 난초 향기와 같다.〔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9 형식적인 의례 제거했었고 : 허례(虛禮)에서 벗어났다는 말이다. 한유(韓愈)의 〈귀팽성(歸彭城)〉에 "모피를 제거하지 못하였다.〔未能去毛皮〕"라는 말이 보이는데, 그 주에 "모피는 허례이다."라고 했다.

10 지초……듯했지 : 《공자가어(孔子家語)·육본(六本)》에 "선인과 거처하는 것은 난초 향기 가득한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라고 했다.

11 황량의 한 꿈 : '황량일몽(黃粱一夢)'은 황량몽(黃粱夢)과 같은 말로, 한단몽(邯鄲夢)이라고도 한다. 덧없는 인생을 형용한 말이다. 당(唐)나라 개원(開元) 연간에 도사(道士) 여옹(呂翁)이 한단(邯鄲)에서 소년 노생(盧生)을 만났는데, 노생이 여옹에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자, 여옹은 노생에게 베개를 주면서 "이것을 베면 부귀영화를 뜻대로 누릴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여옹은 기장〔粱〕으로 밥을 짓고, 노생은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일평생의 부귀영화를 실컷 누리고 그 꿈을 깨어 보니 아직 기장밥이 익지 않았었다는 고사이다.

12 옥수(玉樹) : 풍채가 준수한 사람, 옥으로 빚은 듯 준수한 풍모를 형용한 말이다. 두보(杜甫)의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에 "종지는 씻은 듯 맑은 풍모의 미소년이라, 환하기가 마치 옥으로 된 나무가 바람 앞에 선 듯해라.〔宗之瀟洒美少年, 皎如玉

아버지[14]는 지금 백발이시고　嚴君今白髮
젊은 아내는 아직도 고운 얼굴이네　孀婦尙紅顔
어찌할까 훌륭한 두 어린 자식　寧馨兩稚兒
홀로 남겨져 형체 그림자 하나인 걸　孑孑形影單
두루 사랑했던 이들도 오히려 애도하니　泛愛猶嗟悼
친지들은 어떻게 차마 보겠는가　親知何忍看
만장을 눈물 떨구며 쓰노니　哀章和淚題
남쪽 바라보매 애간장이 끊어지노라　南望摧心肝

광릉후인(廣陵後人) 이한귀(李漢龜)-곡하며 애도하다.-

옥봉의 손자가 또한 저승에 갔노니　玉峯孫子又重泉
남국의 시인들 더욱 서글퍼 하노라　南國騷人倍愴然
깊이 감춰 둔 한묵을 누구에게 맡길까　翰墨深藏托何處
이름난 사람의 자취 누구에게 물어볼까　詞林名跡問誰邊
영춘[15]의 어두운 얼굴빛 어찌 볼거나　靈椿晦色郤堪見
형수[16]의 품은 마음이 가장 불쌍하여라　荊樹含情最可憐

樹臨風前.〕"라고 했다.

13 옥수가 서리에 꺾이었구나 : 현재(賢才)가 요절(夭折)한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언어(言語)》에 "모백성(毛伯成)이 자신의 재기(才氣)를 자부하면서 항상 '차라리 난초로 꺾이고 옥으로 부서질지언정, 쑥부쟁이처럼 더부룩하게 우거지지는 않겠다.〔寧爲蘭摧玉折, 不作蕭敷艾榮.〕' 했다."라는 말이 보인다.

14 아버지 : '엄군(嚴君)'은 남의 아버지에 대한 존칭이다.

15 영춘(靈椿) : 장수를 누리고 있는 어버이를 말한다. '영춘'은 신령스러운 대춘(大椿) 나무라는 뜻으로, 《장자·소요유(逍遙遊)》에 "태고 시대에 대춘이 있었는데, 이 나무는 봄이 8천 년이요 가을이 8천 년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백몽삼의 아버지인 백상빈을 말하는데, 백몽삼은 죽었지만, 아버지인 백상빈은 살아 있었다.

아 나는 백발인데 사귐을 생각하면서　　嗟我白頭思識契
봄바람에 홀로 서니 혜초의 탄식[17]만 이누나　　春風獨立蕙嘆偏

남주(南州) 서봉령(徐鳳翎)-곡하며 애도하다.-

옥봉이 처음으로 성당의 시를 배워　　玉峯初學盛唐詩
한 시대 밝힌 집안 명성 사람들 추종했지　　燁世家聲人共推
서적으로 전해져 가업을 볼 수 있고　　書籍傳來看緖業
귤 숲 한가한 곳에서 한평생 충분했다오　　橘林閑處足生涯
얼굴에 스치는 가을바람은 그 옛날과 같고　　秋風會面還如舊
봄날 혼 부르며 홀로 이별 노래한다오　　春日招魂獨詠辭
늙은 부모님 계시고 아이는 포대기에 있노니　　親老高堂兒在褓
응당 지하에서도 깊은 슬픔 안고 있으리　　祗應泉下抱深悲

척제(戚弟) 완산(完山) 이홍명(李弘命)-곡하며 애도하다.-

그대 곡하니 다른 벗 곡보다 더 슬프노니　　哭君悲深哭他友
친하고 두터운 인연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리　　直緣親厚自先曾
저승에서도 끝없는 아픔 품고 있으리니　　泉臺想抱無窮痛
백발의 아버지를 누가 받들 것인가　　白髮嚴顔有孰承

---

16 형수(荊樹) : 경조(京兆)의 전진(田眞) 삼 형제가 분가하려고 재산을 분배하다가 당(堂) 앞에 있는 자형수(紫荊樹) 한 그루를 나눌 길이 없어 베어서 세 조각으로 나누기로 하였는데, 다음 날 가서 보니 나무가 시들어 있었다. 이에 사람이 나무만 못함을 반성하고 다시 재산을 합치고 나무를 베지 않기로 하자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속제해기(續齊諧記)》 여기에서는 백몽삼의 형제를 말한다.

17 혜초의 탄식 : '혜탄(蕙嘆)'은 동류(同類)의 불행을 슬퍼하는 탄식이다. 육기(陸機)의 〈탄서부(歎逝賦)〉에 "참으로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하고, 아, 지초가 불타면 혜초가 탄식하도다.〔信松茂而栢悅, 嗟芝焚而蕙歎.〕"라고 한 데서 연유했다.

아득한 하늘의 뜻은 진실로 알기 어렵나니　　茫茫天意信難知
우리 형이 갑자기 이 지경 될 줄 뉘 알았으랴　　誰謂吾兄遽至斯
이로부터 유명지간으로 헤어짐 통곡하니　　痛哭幽明從此隔
어찌 만사 쓰랴 눈물이 뺨에 줄줄 흐르네　　忍題哀挽涕交頤

척제(戚弟) 양우주(梁禹疇)-곡하며 애도하다.-

세교에다 사귐의 도도 대단하여　　世誼兼將交道重
한평생 서로 따르기를 절로 기약했었지　　自期百歲共追隨
그대 갑자기 고질병에 걸려 불쌍하더니　　憐君忽值膏盲疾
나로 하여금 조화옹을 미워하게 했구려　　使我偏憎造化兒
백발의 홀론 남긴 아버지 어찌 아픔 참으랴　　白髮孤親那忍痛
젊은 청상과부도 슬픔 참지 못하리라　　靑年孀婦不堪悲
처량하게도 연못 가 연꽃 시들해졌노니　　凄涼澤畔荷花古
고개 돌려 송산 보니 눈물이 줄줄 흐르네　　回首松山涕淚洟

세제(世弟) 윤천후(尹天厚)-곡하며 애도하다.-

집안에 전해지는 구업으로 시도 능했고　　傳家舊業是能詩
우뚝한 그대 재주 보건대 더욱 기이했네　　卓犖君才看更奇
강해의 호방한 마음은 백 척 누대에 있었고　　江海豪情樓百尺
원림의 한가로운 정취 귤 천 가지에 있었지　　園林閑趣橘千枝
가련하다 서로 헤어진 지[18] 삼 년 되었노니　　可憐雲樹三年別

---

18 서로 헤어진 지 : '운수(雲樹)'는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다. 두보(杜甫)의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의 "위수 북쪽엔 봄 하늘에 우뚝 선 나무, 강 동쪽엔 저문 날 구름.〔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이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안개 꽃의 이월의 봄날을 어이 견디랴　　叵耐烟花二月時
서글퍼라 청산에 옥 같은 육신 묻노니　　怊悵青山埋玉處
지는 해가 엄자산[19]에 들어가는 걸 어찌 보랴　　忍看西日迫崦嵫

완산후인(完山後人) 이홍기(李弘基)-곡하며 애도하다.-

처량해라 가통에서 이내 덮인 것 근심하고　　凄涼可洞愁烟鎖
적막해라 송산에서 찬 달을 조문하노니　　寂莫松山弔月寒
한 시절 친한 벗들 줄줄이 떠나가노니　　一代親朋相繼逝
저승이 인간 세상보다 더 나겠구려　　九原無乃勝人間

족말(族末) 박환(朴奐)-곡하며 애도하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니　　死生元是天
잗다란 생각으로 희비할 필요 없네　　細思無喜悲
장수와 요절이 진실로 가지런할 수 없노니　　彭殤固不齊
길고 짧은 것 또한 어찌 따질 수 있으랴　　脩短亦何推
다만 그대는 부모님이 지금 일흔이고　　惟爾親年今七十
또한 두 자식도 모두 어리기만 하네　　且有二子皆稚兒
죽어 혼백도 응당 울리라는 것 알겠으니　　死且有知魂應泣
길 가는 이도 듣고서 또한 눈물 흐르네　　行路聞之亦涕洏
오호라 그대는[20] 지금 어디로 갔는가　　嗚呼也魯今何之

---

19 엄자산(崦嵫山) : 옛날에 해가 들어가는 곳으로 여겼던 산 이름이다.

20 그대는 : '노(魯)'는 본래 공자의 제자인 증삼(曾參)을 말한다. 《논어·선진(先進)》에 "시는 어리석고 증삼은 노둔하고, 자장(子張)은 치우치고, 자로(子路)는 거칠다.〔柴也愚, 參也魯, 師也辟, 由也喭.〕"라는 제자에 대한 공자의 평가가 나온다.

병 속에 봄 맞이하여 그대 생각나노니　病裏逢春方憶子
달마산에 매장될 줄 어찌 알았으랴　豈知將葬達摩山
살아 서로 따르지 못했고 죽어서도 전송 못 하니　生未相隨死未送
세의를 돌아보매 눈물만 줄줄 흐르네　回思世義淚潸潸
멋진 누대에서의 술자리　杯酒華軒會
임자년의 봄이 가물거리네　依俙壬子春
인간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人間難再得
남쪽 바라보며 다시금 옷깃 적시네　南望更沾巾

세제(世弟) 광주후인(光州後人) 김진우(金震羽)

-곡하며 애도하다.-

급난지붕[21]의 깊은 마음에 예전부터 감동했고　急難深情感自曾
온화하고 어짊으로 본래 당상[22]의 칭송 있었지　溫良元有黨庠稱
두남에서 누가 표범 무늬 숨길 줄 알았으랴[23]　斗南誰識藏文豹

여기에서 공자는 증삼을 노둔하다고 평가했다. 증삼의 '삼(參)'을 백몽삼의 '삼(參)'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21 급난지붕(急難之朋) :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술이 있고 고기가 있으면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가 있지만, 위급하고 어려우면 언제 일찍이 한 사람인들 찾아볼 수 있던가.〔酒食兄弟, 千個有, 急難之朋, 一個無.〕"라는 구절이 보인다.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라는 의미이다.

22 당상(黨庠) : 중국 고대의 지방 학교 제도이다. 《예기(禮記)·학기(學記)》에 "옛날에 교육하던 곳으로 마을에는 숙이 있었고 당에는 상이 있었다.〔古之敎者, 家有塾, 黨有庠.〕"라고 했다. 주석에 의하면, 25가(家) 규모의 마을마다 숙(塾)을 두어 마을 사람을 가르쳤고, 500가를 당(黨)으로 삼아 상(庠)을 두어서 가숙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23 표범……알았으랴 : 자세한 내용은 268쪽 주7 참조.

명북에서 갑자기 채색 붕새 잃어 놀랐다오　　溟北俄驚失彩鵬
거북 학이 장수하는 것을 오래도록 보았노니　　龜鶴遙齡嗟久視
고니 난새[24]의 남은 경사[25]가 앞으로 있으리라　　鵠鸞餘慶佇前徵
가장 슬픈 것은 부모님 밤새워 곡하며　　最哀堂上連宵哭
흰머리 어지러운 가운데 피눈물 맺히는 것　　白髮蕭森淚血凝

족형(族兄) 윤이석(尹爾錫)-곡하며 애도하다.-

아아 내 벗이 떠났으니　　嗟哉吾友逝
호해에 다시 어진 이 누구런가　　湖海更誰賢
세의는 삼대를 이어 왔고　　世誼連三代
사귄 정은 이십 년이나 되었지　　交情近卄年
흰머리로 얼마나 그리웠는데　　幾多思白首
오늘 갑자기 저승으로 가시었나　　今忽隔黃泉
일흔의 늙으신 아버지　　七十春堂暮
인간 세상에 지극한 한 이어지리　　人間至恨綿

우인(友人) 오영석(吳永錫)-멀리서 바라보며 통곡하다.-

---

24 고니 난새 : '곡란(鵠鸞)'은 고니와 난새라는 뜻으로, 타인의 자제를 일컫는 미칭(美稱)이다. 한유(韓愈)의 〈전중소감마군묘명(殿中少監馬君墓銘)〉에 "내가 물러 나와 소부를 보건대, 푸른 대와 벽오동에 난새와 고니가 우뚝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으니, 그는 부조(父祖)의 업(業)을 제대로 지킬 만한 사람이었다.〔退見少傅, 翠竹碧梧, 鸞鵠停峙, 能守其業者也.〕"라는 말이 나온다.

25 남은 경사 : '여경(餘慶)'은 선(善)을 쌓은 집안에는 자손에게까지 경사가 미친다라는 말이다. 《주역(周易)·곤괘(坤卦)》의 "덕행을 쌓은 집안은 자손에까지 경사가 미친다.〔積善之家, 必有餘慶.〕"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근래 만사를 얼마나 썼던가 年來幾度題人挽
그대 만사 쓰게 되니 차마 못 쓰겠어라 挽到吾君未忍題
백발의 부친 가슴 치며 자식 생각에 한스러워하고 白髮椎胸思子恨
어린 아내는 눈물 닦으며 우는 아이 안고 있네 靑孀抆血抱兒啼
지난가을 좋은 약속을 봄 되자 잃어버렸고 前秋佳約逢春失
어젯밤 꿈속에 청아한 모습 희미했었네 昨夜淸儀入夢迷
사십 년 세월이 풀 위의 이슬[26] 같노니 四十光陰如草露
한 가닥 이웃 피리 소리[27] 너무도 슬프구려 一聲隣笛不勝悽

선배의 풍류로 백옥봉이 있노니 前輩風流白玉峯
시는 두보 같았고 필법은 종요[28] 같았지 詩如老杜筆如鍾
후손이 이어받아 다시 집안 명성 이어 雲仍更得家聲繼
고을에선 모두 자식의 직분 받들었다 칭송했네 鄕里皆稱子職供
지난겨울 술자리에서 함께 웃었는데 盃酒去冬同笑語
오늘 저승으로 그 모습 멀어졌다오 泉臺此日隔儀容
인간 세상 사물은 부질없이 옛 그대로인데 人間底物空依舊
지는 달 처량하게 옛 소나무 비추고 있네 落月凄涼鎖古松

---

26 풀 위의 이슬 : 자세한 내용은 268쪽 주5 참조.

27 이웃 피리 소리 : '인적(隣笛)'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라는 말로, 보통 죽은 옛 친구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이다. 진(晉)나라의 상수(向秀)가 혜강(嵇康)·여안(呂安)과 산양(山陽)이란 곳에서 함께 살며 서로 가까이 지냈는데 두 벗이 죽은 뒤 산양의 옛터를 지나다가 이웃 사람이 부는 처량한 피리 소리를 듣고, 옛날에 벗들과 함께 놀던 일을 생각하여 죽은 두 벗을 위하여 〈인적부(隣笛賦)〉를 지었다는 고사가 있다. 《진서(晉書)·상수열전(向秀列傳)》

28 종요(鍾繇) : 위(魏)나라 사람으로 명필이었다.

족인(族人) 창녕(昌寧) 조일준(曺一遵)-곡하며 애도하다.-

지난해 호해에서	昔年湖海上
그대 만나 술을 마시었다네	盃酒卽相逢
사람됨은 쇠 단련한 자질이었고	人物精金質
백옥봉의 집안 자손이었지	家門白玉峯
지초와 난초[29] 뜰 주변에 싹 틔우고	芝蘭庭畔茁
맛 좋은 음식으로 효성스레 부모 봉양했지	甘旨孝廚供
그런데 무슨 일이 나보다 먼저 죽어	何事身先死
병든 내가 만사를 짓게 하는가	哀章索病儂

장택(長澤) 고세대(高世大)

객중에서 부고 들으니 꿈인가 생시인가	客中凶問夢耶眞
갑자기 이 상(喪)[30]에 다시금 마음 아프네	忽此襄期更愴神
지난해 하룻밤 모여 마음 털어놓았는데	一夜心談纔去歲
반평생의 정의가 금년 봄에 끊어졌다오	半生情義絶今春
현하[31] 같은 청아한 음성 다시 들을 수 없는데	懸河不復聞淸語
지는 달에 오히려 그대 모습 본 듯해라[32]	落月猶疑見故人

---

29 지초와 난초 : 자세한 내용은 268쪽 주4 참조.

30 상(喪) : '양기(襄期)'는 상기(喪期)를 말한다.

31 현하(懸河) : 위에 걸려 떨어지는 물줄기, 즉 폭포수를 뜻하는 말인데, 진(晉)나라 곽상(郭象)이 도도(滔滔)하게 담론을 전개하자 태위(太尉) 왕연(王衍)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마를 줄을 모른다.〔如懸河瀉水, 注而不竭.〕"라고 칭찬했던 고사가 있다. 《세설신어(世說新語)·상예(賞譽)》

32 지는……듯해라 : 자세한 내용은 268쪽 주6 참조.

훗날 산양을 지나면서　　他日山陽經過處
남쪽 이웃의 슬픈 피리 소리 어찌 들을까[33]　　可堪哀笛送南隣

우인(友人) 성산(星山) 현징(玄徵)-통곡하며 애도하다.-

명가에서 옥봉의 어짊 이어받고 태어나　　名家系出玉峰賢
시와 술의 풍류 또한 어여뻤다오　　詩酒風流亦可憐
반가움[34] 속에 서로 본 것이 어제 같고　　青眼相看纔昨日
유생으로 아픔 함께한 것 작년이었다오　　白袍同苦已去年
아침저녁 부모님 봉양한 일[35] 처량해졌고　　凄涼定省春幃側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낸 일도[36] 적막해졌네　　寂莫壎篪棣萼邊
어지러운 머리털은 죽은 뒤의 일이니　　累累髮毛身後事

---

33 훗날……들을까 : 자세한 내용은 276쪽 주27 참조.

34 반가움 : '청안(青眼)'은 상대를 반갑게 맞이한다는 말이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 완적(阮籍)이 속된 사람을 만나면 백안(白眼) 즉 흰 눈자위를 드러내어 경멸하는 뜻을 보이고, 의기투합하는 사람을 만나면 청안 즉 검은 눈동자로 대하여 반가운 뜻을 드러낸 고사가 전한다. 《세설신어(世說新語)·간오(簡傲)》

35 아침저녁……일 : '정성(定省)'은 혼정신성(昏定晨省)으로, 어버이를 제대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곡례 상(曲禮上)》에 "자식이 된 자는 어버이에 대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드려야 하며,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한다.〔凡爲人子之體, 冬溫而夏凊, 昏定而晨省.〕"라는 말이 나온다. '춘위(春幃)'는 봄날의 휘장으로, 여기에서는 부모님을 가리킨다.

36 형제와……일도 : '훈지(壎篪)'는 형제 혹은 친구 사이의 화목과 조화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으로, 《시경(詩經)·하인사(何人斯)》의 "맏형은 훈을 불고 둘째 형은 지를 분다.〔伯氏吹壎, 仲氏吹篪.〕"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체악(棣萼)'은 아가위나무로, 《시경·상체(常棣)》에 "활짝 핀 아가위꽃,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 누구라 해도, 형제만 한 이가 없나니.〔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형제의 우애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길 가는 이들도 오히려 눈물 흘리네　　在於行路尙潸然

척말(戚末) 여흥후인(驪興後人) 민효지(閔孝祉)

-통곡하며 애도하다.-

성원이 먼저 떠났고 그대 따라 떠났으니　　聖源先去君從逝
손꼽아 세어 보니 벗 몇이나 남았나　　屈指親朋有幾人
쓸쓸한 남은 생에 와서 상여줄 잡으니　　牢落餘生來執紼
봄바람 기운 해에 두건이 눈물에 젖네　　東風斜日淚沾巾

살아 있는 벗 당악(棠岳) 윤징귀(尹徵龜)

-곡하며 애도하다.-

고을 성 모퉁이에서 헤어진 일 생각나니　　憶曾分手郡城隈
살아 이별이 한순간 사별의 애통함 되었구나　　生別翻成死別哀
훗날 송산의 산 아래 집에서　　他日松山山下宅
다시 반가운 눈빛[37]으로 누굴 맞이할거나　　更將靑眼向誰開

전주후인(全州後人) 최선석(崔宣錫)-곡하며 애도하다.-

그대 보내니 어떻게 만사를 쓰리오　　送公何以寫我辭
지난 일 회억하려 하니 마음 찢어진다오　　欲記平昔心如剖
남쪽으로 가는 공의 상여 잡지 못한 채　　南奔不自攀公轜
북쪽에서 술잔을 올리노니[38] 오히려 부끄럽네　　北壟還慙絮我酒

---

37 반가운 눈빛 : 자세한 내용은 278쪽 주34 참조.

38 술잔을 올리노니 : '서주(絮酒)'는 솜뭉치에 적신 술로, 조촐한 제물을 뜻하는 말이다. 후한(後漢)의 서치(徐穉)가 먼 곳에 조문하러 갈 때 솜에 술을 적셔 볕에 말리고

서툰 글로 긴 종이에 만사를 쓰노니 爲將荒詞寫長牋
슬픈 마음 만에 하나라도 그대를 아는가 悲懷萬一公知否
공을 어느 해에 그리 늦게 보았던가 與公何年見何晩
한형보다 뒤에 있지 않기를 원했다오[39] 願識不在韓荊後
한 번 만난 정은 곧 옛 친구 같았고 一面之情便如舊
품은 마음은 그리움에 백발 기약했지 懷抱依然期白首
집안 교유의 두터운 의리는 산악보다 중했고 通家厚義重山岳
금석의 벗 사귐[40]은 논할 것도 없었다오 不但金石論朋友
조각 마음도 서로 알아 둘 사이 틈 없었고 寸心相知兩無隔
하물며 평생 술 가운데 흥취 함께 함에랴 況同平生酒中趣
수레 타고 서로 따르는 것 드물어 追隨命駕縱云稀
사오 년 전에 한 번 손을 잡았었지 四五年前一握手
공은 그때 날 위해 돌아가길 만류하여 公時爲我苦挽歸
며칠 머물며 아버지[41] 축수 함께 했지 數日留與椿堂壽

닭을 구워 종이에 싼 다음, 무덤에 이르면 물에 적셔서 술기운이 나오게 하고 백모(白茅)를 깔아 닭을 차려 사용했다 한다. 《후한서(後漢書)·서치열전(徐穉列傳)》

39 한형(韓荊)보다……원했다오 : '한형'은 당(唐)나라 원종(元宗) 때 사람인 한조종(韓朝宗)을 말한다. 한조종이 형주 자사(荊州刺史)일 때 이백(李白)이 그에게 보낸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호후에 봉해지기보다는, 그저 한 형주를 한번 알기만을 바랄 뿐이다.〔生不用封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이 구절은 이백의 작품을 활용한 것으로, 백몽삼을 좀 더 일찍 만나 보기를 원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40 금석(金石)의 벗 사귐 : '금석'은 금석지교(金石之交)로, 금석처럼 변치 않는 사귐을 말한다. 당(唐)나라 맹교(孟郊)의 〈심교(審交)〉에 "오직 금석처럼 굳은 교분이 있어야 지혜롭다 말할 수 있으리.〔唯當金石交, 可以賢達論.〕"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1 아버지 : '춘당(椿堂)'은 남의 아버지에 대한 존칭이다.

술잔 잡고 글 논하며 밤을 새었노니　　把酒論文日繼夜
아내는 새로운 술 빚으려 얼마나 수고로웠나[42]　　幾勞新釀謀諸婦
돌아와 다시 한 번 찾아갈 것 계획하며　　歸來一計擬重尋
늘 남쪽 구름 향해 홀로 중얼거리었지　　每向南雲獨語口
어찌 알았으랴 우리 공이 돌아가실 줄　　郎知我公歸也未
내 생애 묵은 계획 오래되었구나　　▨際吾生宿計久
마음 놀라 흩어져 마치 잃음이 있는 듯　　心魂驚散若有失
술도 아픈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네　　盃酒無功寸腸朽
공은 효도하다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以公誠孝遽至斯
비록 저승으로 갔지만 혼백 응당 괴로우리　　縱歸泉下魂應疚
인간 세상에 이 같은 사귐 있으랴　　人間有友情如許
술통 술에 무심히 꽃 버들 즐기었지　　樽酒無心賞花柳
만사 한 곡조로 영원한 이별 이루니　　挽歌一曲成永訣
아픈 마음 열여섯 구절에 다 담기 어려워라　　痛懷難盡十六句

우인(友人) 오수석(吳壽錫)-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월출산은 어찌 그리 맑고 수려하나　　月出何淸秀
이따금 호걸들이 이곳에서 태어난다오　　往往生豪傑
옥봉은 천지에 이름났으며　　玉峰鳴天地
송호가 이어 세상에 드러났다오　　松湖間世出

---

42 아내는……수고로웠나 : 이 구절은 소식(蘇軾)의 〈후적벽부(後赤壁賦)〉의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한 말의 술을 보관해 두고 그대가 불시에 찾을 때를 대비해 왔소.'라고 하였다.〔歸而謀諸婦, 婦曰我有斗酒, 藏之久矣, 以待子不時之需.〕"라는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공이 능히 그 세업을 이어　公能繼世業
젊은 시절부터 명성이 자자했다네　妙年聲價赫
효도와 우애는 타고난 것이었고　孝友仍天性
시와 필법은 가법을 전수받은 것이라네　詩筆傳家法
의기는 드높게 휘날렸으며　昂昂意氣高
풍채는 충분히 온화하였다오　溫溫風味足
예전 내가 그대 집에 들어서자　昔我入君門
한 번 보고 막역지우[43] 되었었지　一視心莫逆
옛 우애는 선대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舊誼自先世
혼인[44]으로 인한 새로운 정도 생겼다오　新情兼瓜葛
시 논하면서 서로 수창했었고　論詩卽唱酬
술 대하고선 즐거움 끝이 없었지　對酒窮懽謔
멋진 산과 고운 물　佳山與佳水
몇 곳이나 서로 함께 다니었던가　幾處共追逐
만경에서 봄꽃을 즐기었고　萬景賞春花

---

43 막역지우(莫逆之友) : 마음이 서로 통하여 거스름이 없는 친한 벗이라는 뜻이다. 《장자(莊子)·대종사(大宗師)》에 "자사(子祀), 자여(子輿), 자리(子犁), 자래(子來) 네 사람이 함께 말하기를, '누가 무(無)를 머리〔首〕로 삼고, 생(生)을 등골뼈〔脊〕로 삼고, 죽음〔死〕을 엉덩이〔尻〕로 삼을 수 있겠는가. 생사존망이 한 몸인 것을 누가 알겠는가? 나는 그런 사람과 사귀겠노라.'라고 했다. 네 명이 서로 바라보며 웃으니, 마음에 거슬림이 없고 마침내 함께 벗이 되었다.〔子祀子輿子犁子來四人相與語曰, 孰能以無爲首, 以生爲脊, 以死爲尻, 孰知生死存亡之一體者, 吾與之友矣. 四人相視而笑, 莫逆於心, 遂相與爲友.〕"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44 혼인 : '과갈(瓜葛)'은 덩굴이 뻗어서 서로 얽힌 외와 칡으로, 집안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한다. 한(漢)나라 채옹(蔡邕)의 〈독단(獨斷)〉이란 글에 "무릇 선제(先帝) 및 선후(先后)와 과갈의 관계가 있는 이들은 모두 모였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두륜에서 가을 달을 노래했었지 頭輪詠秋月
세상일에 이끌리는 것 괴로웠고 世故苦牽挽
헤어짐 많고 만난 건 드물었지 別多少會合
지난겨울 편지를 보내와서 前冬寄書來
옛 병이 지금 다시 도졌다 말했지 舊疾今又發
비록 시간이 촉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縱非時月危
근심스런 생각 마음에 맺히었지 隱憂心中結
봄 오면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春來有訪約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다오 屈指待幾日
대들보 꺾여 갑자기 부고 전해지니 樑摧忽報凶
죽어 가시는 것[45]이 어찌 그리 급하시나 楹夢何匆劇
죽었다는 말 마치 거짓말 같은데 此語若虛報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다오 不覺心魂失
어찌 알았으랴 지난해 절한 것이 那知去歲拜
갑자기 천고의 이별이 될 줄을 遽作千古別
선한 사람 복 받는다는 것 믿지 못하겠으니 福善不可恃
하늘의 뜻은 아득해 예측하기 어렵구려 天意窅難測
가생은 재주 있는데 애석하게 되었고[46] 賈生惜有才

---

45 죽어 가시는 것 : '영몽(楹夢)'은 죽었다는 말이다. '영(楹)'은 양영(兩楹)의 준말로 천자의 어전(御殿)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이다. 공자(孔子)가 양영의 사이에 앉는 꿈을 꾼 뒤에 죽었다 한다. 《예기(禮記)·단궁 상(檀弓上)》

46 가생(賈生)은……되었고 : '가생'은 한(漢)나라 가의(賈誼)를 가리킨다. 그는 불과 스무 살의 어린 나이로 문제(文帝)의 깊은 신임을 얻어 태중대부(太中大夫)로 발탁되어 복색(服色), 제도(制度), 관명(官名) 등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하다가 당시 대신이었던 주발(周勃), 관영(灌嬰) 등의 참소를 입었다. 그리하여 문제의 신임을

안회는 결국 젊은 나이에 죽었다오[47] 顔回竟短折
가련하도다 붉은 명정이여 可憐丹旐上
▨을 배웠는데 어찌 그리 적막한가 學▨何寂莫
백발의 부모님 살아 계시노니 鶴髮在高堂
하늘 향해 울부짖으며 피눈물 흘리네 呼天淚成血
남은 두 자식은 아직도 어린데 二孤尙幼稚
아비 잃고도 전혀 알지 못하누나 失怙渾不識
형제들[48]의 한은 끝이 없고 鴒原恨無窮
아내의 아픔도 끝이 없다오 鸞閨痛不極
혼령이 만약 앎이 있다면 精靈如有識
저승에서도 혼 응당 울부짖으리라 九原魂應泣
모든 일이 기왓장 깨진 것[49] 같고 萬事同瓦解
한평생 일도 묵은 자취가 되었어라 百年成陳跡
나는 지금 상여가 오는데 我今素車來

잃고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로 좌천되어 서른셋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한서(漢書)·가의전(賈誼傳)》

47 안회(顔回)는……죽었다오 : '안회'는 공자(孔子)의 제자인데, 서른둘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48 형제들 : '영원(鴒原)'은 우애 있는 형제를 뜻하는 말이다. 《시경(詩經)·상체(常棣)》에 "저 할미새 들판에서 호들갑 떨듯, 급할 때는 형제들이 서로 돕는 법이라오. 항상 좋은 벗이 있다고 해도, 그저 길게 탄식만을 늘어놓을 뿐이라오.〔鶺鴒在原, 兄弟急難, 每有良朋, 況也永歎.〕"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했다.

49 기왓장 깨진 것 : '와해(瓦解)'는 토붕와해(土崩瓦解)의 준말로, 일의 상황이 수습할 수 없는 혼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사기(史記)·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반고(班固)의 논평에 "진나라는 이미 오랫동안 쇠퇴하여 흙더미가 무너지는 듯하고, 기왓장이 풀어지는 듯하였다.〔秦之積衰, 天下土崩瓦解.〕"라는 표현이 나온다.

통곡하며 볼 수가 없었네 痛哭無所覩
옛집에는 풀빛이 새롭고 舊堂草色新
빈 뜰엔 꽃 절로 떨어지누나 空庭花自落
서성이니 풍경에 마음 아프고 徘徊愴物是
부앙하니 옛일에 슬프기만 해라 俯仰悲宿昔
거문고 줄이 이미 끊어졌노니[50] 峩絃已斷絶
이 마음 장차 어디에 의탁할까 我懷將安托
외로워라 두 형제들[51]이여 孑孑兩惠連
근래 병에 많아 쇠약해졌다오 年來多病弱
이로부터 송산의 땅과 從此松山地
집안 명성이 더욱 쓸쓸해졌도다 家聲倍蕭索
영원한 이별이 지금이로니 永訣知幾時
오호라 무덤으로 들어가네 嗚呼就窀穸
어찌 차마 저 누런 언덕 위에 忍彼黃崗上
우리 백군 옥 같은 몸 묻으랴 埋我白玉質
상여 잡고 차마 헤어지지 못하겠고 攀輀不忍別
길게 울부짖으니 마음이 찢어지려는 듯 長號心欲裂

---

50 거문고……끊어졌노니 : '아현(峩絃)'은 백아(伯牙)와 종자기(鍾子期)의 고사와 관련된 언급이다. 《열자(列子)·탕문(湯問)》에 "백아는 금(琴)을 잘 탔고 종자기는 소리를 잘 들었다. 백아가 금을 타면서 뜻이 높은 산에 있으면 종자기가 말하기를, '좋구나 아아(峨峨)하기 태산(泰山)과 같구나.'라고 하고, 뜻이 흐르는 물에 있으면 종자기가 말하기를, '좋구나 양양(洋洋)하기 강하(江河)와 같구나.'라고 했다. 그 뒤에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자신이 타던 거문고 줄을 끊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지음(知音)을 잃었다는 의미이다.

51 형제들 : '혜련(惠連)'은 송(宋)의 시인 사령운(謝靈運)의 집안 아우인 사혜련(謝惠連)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백몽삼의 두 형제를 가리킨다.

인간 세상에 슬픔 얼마나 많은가　　人間幾多悲
저승에서 서로 만나 즐겨 보세나　　泉下會相樂
눈물 속에 이 노래를 부르노니　　和淚歌此曲
참담함에 산 해도 어둑해라　　慘憺山日黑

금성후인(錦城後人) 오정석(吳禎錫)-통곡하며 애도하다.-

우리 형의 일을 통곡하노니　　痛哭吾兄事
말하려 해도 눈물이 먼저 솟구치네　　欲言淚先揮
반백 년도 살지 못했는데　　行年未半百
풀 위 이슬처럼 사라졌구나[52]　　草露還爲晞
춘당께서는 흰머리로 살아 계시고　　春堂白髮長
어린 아내는 봄꽃이 아직 이르네　　少閨春華早
탄식하노니 혼정신성[53] 없어졌노니　　堪嗟曠定省
끝났구나 집안의 도리 무너졌노니　　已矣壞家道
병든 동생과 어린 자식들　　病弟與雉兒
외로우니 마침내 누구 돌보랴　　孑孑竟誰保
우리 형의 일을 통곡하노니　　痛哭吾兄事
말하려 하니 눈물 두 줄기 쏟아지네　　欲言淚雙垂
평생 옛책만을 읽으면서　　平生讀古書
올곧게 마침내 무얼 했던가　　兀兀竟何爲
여러 차례 고을에서 천거되었으나　　累登郡國選

---

52 풀 위……사라졌구나 : 자세한 내용은 268쪽 주5 참조.

53 혼정신성(昏定晨省) : 자세한 내용은 278쪽 주35 참조.

끝내 안탑에 이름 적지는[54] 못했다오 終違雁塔題
시에 힘쓰느라 어긋났노니 蹉跎坐詩工
천리마 발굽 움츠리게 되어 근심스러웠지 悒悒蹜驥蹄
누가 알랴 나라 빛낼 재주 있으면서 誰知華國才
끝내 먼 지방의 선비 된 것을 竟作遐荒儒
통곡하고 또다시 통곡하노니 痛哭復痛哭
형은 지금도 나를 기억할 걸세 兄今倘記吾
아 내 나이 열일곱에 嗟吾年十七
형과 인척의 관계 되었지 與兄作姻親
형과 나 나이는 비록 차이 나지만 年齡縱差池
교유 맺어 진실로 마음 주고받았지 托契信有神
시 모임에서 함께 시 수창했었고 詞場共唱酬
글 모임에서 함께 서성거렸다오 藝苑同逡巡
재주야 비록 같지 않았지만 才調雖不同
취미는 얼마나 서로 같았던가 臭味何竝均
산에서 시 읊던 밤 생각해 보니 却憶詩山夜
새벽 달빛 비추는 것이 싱그러웠지 曉月流光新
우리 두 사람 서로 함께 하며 聯裾吾二人
서로 이어 장단구의 시 지었지 續成長短章
시 읊조리던 소리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詩聲尙在耳
그때의 자취 일장춘몽[55] 되어 놀랍구나 事跡驚黃粱

---

54 안탑(雁塔)에 이름 적지는 : '안탑'은 중국의 섬서성 장안현 남쪽 자은사(慈恩寺)에 있는 탑이다. 당(唐)나라 때 진사가 이 탑 위에 이름을 적었다는 고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여 후대에 진사에 급제하는 것을 '안탑제명(雁塔題名)'이라고 한다.

통곡하고 또다시 통곡하노니 痛哭復痛哭
말이 이에 미치자 뼈가 먼저 시리다네 語到骨先酸
서로 술잔을 잡고 있을 때 相携酒盃間
취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던가 取醉幾作歡
나는 일찍이 큰 술잔 두려워했노니 吾嘗恐巨卮
난간 밖에서 먼저 쓰러졌었지 檻外先成倒
형은 술에 강함을 과시하면서 而兄誇剛壯
취한 뒤에도 호기롭게 노래 불렀지 醉後歌浩浩
지난해 팔월 저녁에도 前秋八月夕
성의 서쪽에서 함께 술 취했지 共作城西醉
주막으로 서로 옷깃 끌면서 携裾酒壚上
밤이 될 때까지 서로 즐거워했다오 入夜相歡喜
술 취한 흥을 서로 다투었고 爭將醉裏興
마음속의 일을 토로하였다오 討論心中事
두 곳으로 한 번 헤어진 뒤에 一別隔兩地
강의 달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오 江月三成絃
한 해 저물 때 내가 형 방문하니 歲暮我過兄
기뻐 웃으며 서로 맞이했다오 歡笑來相延
머물며 너무도 즐거웠는데 留連蒙歡洽
나에게 술 한 병을 권하였네 勸我一壺酒
등불 돋으며 서로 육박[56]을 즐겼고 挑燈賭六博

---

55 일장춘몽 : 자세한 내용은 269쪽 주11 참조.

56 육박(六博) : 주사위 놀이나 골패 노름을 말한다.

한밤중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들었지 枕籍夜分後
배를 타고 바다 섬을 돌아다녔고 連帆海嶼路
서로 손을 잡고 산마루에도 올랐지 陟崗同携手
달산 아래로 돌아와서는 歸來達山下
즐겁게 술 마시며 긴 밤을 지샜지 飮歡終永夕
어찌 알았으랴 문 앞에서 이별한 것이 豈識門前別
끝내 저승으로의 영원한 이별 될 줄 終爲泉下訣
나는 지금 세상일에 어려움 당해 我今困於世
온 집안 식구들 떠돌고 있었지 擧家仍流落
우리 형은 이때에 吾兄當此時
편지 보내어 늘 탄식했다오 抵書每嘆惜
하루는 두 번이나 편지가 이르렀는데 一日書再至
모두 형이 손수 쓴 것이라오 盡是兄手跡
편지 속에서 무슨 말을 했던가 書中道何事
종이 가득 나를 위한 걱정이었다오 滿紙爲我恤
형이 "병들어 침상에 있노니 自云病在床
언제쯤 서로 볼 수 있을까."라고 했지 相見何時日
나는 생각했었지 형의 병은 吾謂此兄病
약 쓰지 않아도 절로 나을 것이라고 自爾當勿藥
그런데 어찌 알았으랴 얼마 지나지 않아 那知未云幾
형의 부고가 갑자기 이르게 될 줄 凶聞遽來至
통곡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으랴 痛哭情何極
뼈 시리고 눈물이 물처럼 흐르네 骨酸淚作水
어찌 없었으랴 달려가서 豈無馳進去

관 어루만지며 영원히 이별할 마음 憑棺永訣意
오호라 다시 무슨 말을 하리오 嗚呼更何道
이 몸 재앙에 얽혀 도망쳤노니 此身逃禍累
조그마한 정성도 펼치기 어려우니 難將寸誠赤
마침내 한 번 가서 곡을 해야만 하네 竟作一就哭
그러나 떠돌다 이 땅에 이르렀으니 流轉到此地
곤궁함을 오히려 말하기도 어렵다네 困頓尙難說
상여가 남쪽으로 떠나간다는 걸 듣고 纔聞素帷南
밤낮으로 마음이 끊어지려 한다오 日夕魂欲絶
많은 날 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累日臥枕褥
신음하며 괴로움에 내 몸 지탱 못 하네 呻吟苦不支
누가 불쌍타 할까 병든 이의 마음을 誰憐病裏懷
절로 탄식하며 기이한 운명 읊네 自嘆賦命奇
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力疾難作勢
상여줄 잡는 정성 어기게 되었네 孤負執紼誠
부질없이 한 편의 작품을 지어 空將一篇詩
다만 하인에게 보낸다오 只憑蒼頭行
탄식하고 또다시 탄식하노니 嗟嗟復嗟嗟
이로부터 유명 사이로 떨어지게 되었네 從此隔幽明
붓 잡자 마음이 흩어지려 하여 把筆心魂散
내 마음을 다 담지 못하겠네 不能倒胸臆
통곡하고 또다시 통곡하노니 痛哭復痛哭
영혼께서는 혹시나 알려나 惟靈倘可識
저승에서 형은 내 생각해 주오 地下兄思我

인간 세상에서 나 또한 형 기억하리니 人間我憶兄
천 년 세월 변함없는 달만이 千秋無限月
응당 고금의 마음을 알리라 應識古今情

신성구(愼聖矩)-통곡하며 애도하다.-

아아 나의 큰 조카여 嗚呼我姪主
우리 집안의 종백이었지 我家之宗伯
나이 쉰도 되지 못했는데 行年未五十
어찌 저승에 갔는가 胡至此冥漠
내가 오늘 만사를 쓰고 있노니 我有今日詞
혼령은 알고 있는지 精靈庶可識
집안에 늙은 아버님 계시니 堂上嚴親老
자식 잃은 슬픔[57] 어찌 끝이 있으랴 喪明情何極
규중의 병든 젊은 아내는 閨中少婦病
슬퍼하며 성이 무너질 듯 곡하네 痛迫崩城哭
영전 앞의 장녀는 床前一長女
울부짖으며 발을 구르네 叫號謾頓足
슬하의 두 예쁜 자식들은 膝下兩嬌兒
놀면서 대나무 말 다투어 타노라 遊戲爭騎竹
아아 나의 큰 조카여 嗚呼我姪主
아마도 슬픈 마음이 있으리라 其有心感惻

57 자식 잃은 슬픔 : '상명(喪明)'은 상명지통(喪明之痛)의 준말로, 자식 잃은 슬픔을 말한다. 공자(孔子)의 제자인 자하(子夏)가 하나뿐인 아들이 먼저 죽자 지나치게 슬퍼한 나머지 실명(失明)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예기(禮記)·단궁 상(檀弓上)》

고택은 완연히 그대로 있으니 故宅宛然處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不忍看物色
뜰 앞의 매화 귤은 너무 좋고 庭前好梅橘
시렁 위엔 옛 시책이 쌓여 있네 架上舊詩冊
좋은 말은 마구간에서 울어대고 名駒憑櫪嘶
맛 좋은 술은 잔 가득 푸르구나 美酒盈尊綠
마을 사람도 또한 슬피 우는데 里巷亦嗚咽
하물며 친척과 형제들은 말해 무엇하랴 況親戚骨肉
아아 나의 큰 조카여 嗚呼我姪主
운명이니 누가 불쌍타 하랴 命耶誰能惻
죽은 것 하느님이 한 것 아니랴 得非天公爲
저승 간 것 애석해할 필요 없다네 無乃冥司惜
흉함에 먼저 집안이 무너지는 법 凶必先頹屋
큰 병에 끝내 이 비극 이르렀네 大病終至劇
헤어지며 하는 말 너무도 서글프니 惻惻臨絶語
최군[58]이 꿈에 역력하여라 崔君夢歷歷
이 죽음이 어찌 저곳에 있으랴 此死寧在彼
운명 거스른 것 인록에도 드러났네 橫命現印錄
지금도 남은 한이 있노니 到今有遺恨

---

58 최군(崔君) : 당 현종(唐玄宗) 때 풍류 문인 최종지(崔宗之)를 말한다. 두보(杜甫)의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에 "우리 최종지는 티 없이 맑은 미소년, 잔을 들고 푸른 하늘을 흘겨볼 때면, 깨끗하기가 바람 앞에 선 옥수와 같다 할까.〔宗之蕭灑美少年, 擧觴白眼望靑天, 皎如玉樹臨風前.〕"라고 했다. 옥수(玉樹)는 옥(玉) 같은 나무로, 준수한 자태를 지닌 인물을 표현한 말이다. 여기에서는 백몽삼을 최종지에 견준 것이다.

진 시황의 대약[59]을 얻지 못한 것일세 不得晉大藥
우리 집안의 사당을 돌아다보니 顧我之祀廟
누가 첫 잔을 올리려나[60] 何人初薦酌
먼지와 거미줄 속에서 塵埃網絲中
누가 선대의 유묵을 지키려나 誰護先翰墨
오직 바라는 것은 두 자식들[61]이 惟冀兩庭玉
선대의 자취 잇는 것이라오 將就繼前躅
이 마음 토해 낼 길이 없노니 無由吐此懷
이 글에 감개함을 담노라 感慨有斯作
통곡하고 또다시 통곡하노니 痛哭復痛哭
슬픈 눈물만 헛되이 가슴에 가득하네 哀淚徒盈臆

서종숙(庶從叔) 백양헌(白良憲)-통곡하며 두 번 절하다.-

어릴 때 어머니 잃고 형에게 의지했는데 少喪慈親倚舍兄
또 형을 잃으니 눈물이 줄줄 쏟아지네 又逢兄喪淚如傾
술 마시며 담소 나누던 일 옛일이 되었고 杯樽談笑成今昔
마음 나누던 우애는 생사로 떨어지게 되었네 友愛心情隔死生
세상의 슬픔 기쁨을 이제 뉘와 함께할거나 世上悲歡誰與共
마음속에 원한만이 가득 차게 되었어라 胸中怨恨轉紆縈
병으로 무덤에 가서 곡하지 못하노니 沉痾不得臨塋哭

---

59 진 시황(秦始皇)의 대약(大藥) : 진 시황이 구하려고 했던 불로장생의 선약(仙藥)을 말한다. 여기에서 원문의 '晉'은 '秦'의 오자로 보인다.

60 누가……올리려나 : 백몽삼이 장손이었기에 한 말이다.

61 자식들 : 자세한 내용은 268쪽 주4 참조.

뒷날 저승 가서 이 마음 하소연하리라　　他日九原訴此誠

어머니 잃고 병들어 거의 죽은 몸인데　　喪母沉痾半死身
형에 기대어 삼십삼 년을 지내 왔네　　倚兄三十又三春
마음에 형제의 의리 있어 즐거웠는데　　心中擬樂同胞誼
오늘 다른 길의 사람 되어 탄식만 하네　　今日嗟成異路人
목소리와 모습 어디에서 다시 볼거나　　更接音容何處所
형의 모습 생각하니 더욱 슬퍼지누나　　追思眉宇倍悲辛
맘껏 소리 높여 곡하지 못하고 숨죽이는 건　　呑聲不敢高聲哭
백발의 부친이 집에 계시기 때문이라오　　爲是高堂白髮親

상엿소리[62] 붉은 명정 아래　　薤歌丹旐下
자취 거두어 마침내 어디로 가시었나　　倦跡竟何歸
비록 죽어 어머니 따르는 것은 좋지만　　縱喜隨慈母
응당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은 깊으리라　　應深念雉兒
형제 사이가 이로부터 끊겨 탄식하고　　雁行嗟自斷
홀로 나는 난새[63] 그림자에 서글퍼라　　鸞影愴孤飛

---

62 상엿소리 : 자세한 내용은 268쪽 주5 참조.

63 홀로 나는 난새 : 계빈국(罽賓國)의 임금이 준기산(峻祁山)에 그물을 쳐서 난조(鸞鳥) 한 마리를 잡아서 애지중지하였는데 3년 동안 울지 않았다. 그 부인이 "일찍이 들으니 새는 자기와 같은 무리를 보면 운다고 하였으니, 어찌 거울을 걸어서 제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여 거울을 걸어 두었더니, 난조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슬피 울더니 하늘로 한 번 날아오르고는 바로 죽었다 한다. 《태평어람(太平御覽)·난조시서(鸞鳥詩序)》 일반적으로 남편을 잃은 부인의 슬픔을 뜻한다.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길 없노니 此世逢無路
저승에서 다시 보길 기약할 수밖에 泉臺再面期

동생인 내가 병들어 먼저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弟病料先死
생각지도 못하게 형이 돌아가셨구나 兄亡自未期
늙은 부친을 누가 봉양할 것이며 老親知孰養
집안 제사를 끝내 누가 맡을 것인가 家廟竟何依
적막하구나 선인의 첩이여 寂莫先人帖
처량하여라 전날의 시여 凄涼囊日詩
목소리와 모습 길이 기억하리니 音容長憶處
흐르는 눈물이 부질없이 옷깃 적시네 流淚謾沾衣

집안 동생 백몽류(白夢柳) 병으로 매장할 때 가지 못한 채 통곡하면서 마음을 담아 쓰다.

증조부[1]시 을축년(1685, 숙종11) 曾祖父時 乙丑年

명가의 집안 명성이 이 늙은이에게 있었노니　　名世家聲屬此老
넓은 회포와 아정한 자태는 평범하지 않았네　　曠懷雅度出尋常
평생 대단한 복 누렸다고 사람들 다투어 말하지만　平生勝福人爭說
늘그막의 슬픔과 처량함에 나는 마음 아프다네　　晩節悲凉我實傷
지하에서 부모 만나면 옛 모습에 기쁘겠지만　　地下逢迎歡舊彩
인간 세상에 홀로 남은 자식은 눈물 흘린다오　　人間單孑泣孤郎
깊은 정으로 삼세 동안 사귄 정 있노니　　情深三世論交義
홀로 남쪽 하늘 향하니 눈물이 눈에 가득해라　　獨向南天淚滿眶

금성후인(錦城後人) 오영석(吳永錫)[2]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청고한 인품은 들 학과 같았으며　　標格淸孤野鶴如
옥봉이 남긴 전형이 있었다네　　典刑知是玉峯餘
유거에서 솔과 대에 한가로운 정취 붙였고　　幽居閑趣松兼竹

---

1 증조부(曾祖父) : 백명헌(白明憲, 1618~1684)으로, 자는 사을(士乙)이다.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左承旨)·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역임했다.

2 오영석(吳永錫) : 오시만(吳始萬, 1647~?)으로, 본관은 동복(同福), 자는 영석, 호는 춘헌(春軒)이다.

그림과 글씨에는 선조들의 유풍 있었지　　先輩遺風畵與書
높다란 의리는 하문(下問)한 뒤 보았었고　　高義正看垂問後
옛 마음은 대면할 때부터 느끼었다네　　舊情偏感拜顔初
남극의 노인성[3]이 갑자기 빛을 잃었으니　　老人南極驚沉彩
오직 뜬구름만이 절로 모였다 흩어지누나　　惟見浮雲自卷舒

시생(侍生) 고세형(高世亨)-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늘그막에 불러 주고 찾아 주는 공뿐이었고　　垂老招尋獨有公
날듯 한 문채는 선조의 유풍 이은 것이었네　　飄然文彩繼先風
한가롭게 지내며 공명에 대한 마음 끊었었고　　耽閑志絶功名上
취하는 것 좋아해 몸을 주막에 두었다오　　愛醉身藏酒肆中
어진 아들 일찍 죽은 것도 애석하지만　　賢子早亡猶可惜
지금 그대 또 떠나니 아픔 끝이 있으랴　　今君又逝痛何窮
인간 세상 서글피 바라보니 지기 누가 있던가　　人間悵望誰知己
흰머리의 병든 이 늙은이만 헛되어 남았어라　　白首空餘此病翁

당악후인(棠岳後人) 윤선오(尹善五)-곡하며 애도하다.-

훌륭한 집안에 재앙이 어찌 한꺼번에 닥쳤나　　高門喪禍一何遽
어진 자손 잃자마자 또 공을 곡하게 되었네　　纔失賢郎又哭公
옥봉 노인이 남긴 빛은 이제 적막해졌고　　玉老遺徽今已寂
송호 노인의 문채 또한 공허해졌구나　　松翁文彩更成空

---

3 남극의 노인성 : 노인성은 장수의 상징으로, 이 별이 비치는 지방에 사는 사람은 장수한다는 전설이 있다.

가련토다 호해에서 호방한 기운 걷어 가서　　可憐湖海收豪氣
다시 선조를 이을 신선 풍채가 없노니　　無復尊前接仙風
세의와 이웃하며 산 정 모두 친밀했노니　　世誼連家情具密
만사 쓰며 가슴에 눈물 떨어지는 것 어이 견디랴　不堪題挽淚沾胸

시생(侍生) 금성후인(錦城後人) 오형석(吳亨錫)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인척[4]의 정에다가 세의도 돈독했노니　　秦晉情兼世誼敦
이응의 등용문[5] 아래 몇 사람이나 있었던가　登龍幾人李膺門
꿈같은 예순의 삶이 묵은 자취 되었으나　　六旬如夢空陳跡
지난해 헤어지며 한 말씀 여전히 기억나네　　一別經年尙記言
지하에선 아버지와 자식의 혼령이 함께 하겠지만　地下幽魂同父子
인간 세상의 지극한 아픔에 어린 손자 곡하누나　人間至痛哭兒孫
어찌 지난해 오늘 아침의 눈물을　　忍將去歲今朝淚
슬픈 만사 마치고 저승으로 차마 보내랴　　題罷哀詞寄九原

시생(侍生) 문성(文城) 유만(柳槾)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남쪽 지방 이름난 집안의 종손　　南國名家胄

---

4 인척(姻戚) : '진진(秦晉)'은 춘추 시대 때 진(秦)나라와 진(晉)나라 두 나라가 대대로 혼인한 것을 말한다. 전하여 양성(兩姓) 간에 대대로 혼인한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

5 이응(李膺)의 등용문 : 후한 환제(桓帝) 때에 이응을 경모하는 선비들이 그의 집 마루에 올라가기만 해도 '용문에 올랐다〔登龍門〕'면서 영광으로 알았던 고사가 있다. 《세설신어(世說新語)·덕행(德行)》 여기에서는 백명헌을 이응에 견준 것이다.

산림 속에서 몸과 마음 길렀다오　林泉養性靈
어찌 《고사전》에 부끄러우랴　何慙高士傳
절로 노인성 있었노니　自有老人星
자하는 곡하다 시력을 잃었고[6]　子夏明喪哭
평원의 병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네[7]　平原病不醒
천년 세월의 옥전마을　千年玉田里
적막한 채 귤 솔만 푸르구나　寂莫橘松青

금성후인(錦城後人) 오현석(吳玄錫)

-두 번 절하고 통곡하며 애도하다.-

천하에서 마음 아픈 것은　天下傷心處
슬픔 속에 장사 지내는 것　哀哀送葬時
저승에서 부자가 울부짖을 것이고　泉臺泣父子
인간 세상에서 친지들이 곡을 하누나　人世哭親知
칠십 년의 인간사　七十年間事
한바탕 꿈처럼 슬프기만 해라　一場夢裏悲
송산은 이젠 적막해졌노니　松山今寂莫
돌아보매 두 줄기 눈물만 흐르네　回首淚雙垂

---

6 자하는……잃었고 : 상명지통(喪明之痛)과 관련된 말로, 자식 잃은 슬픔을 말한다. 공자(孔子)의 제자인 자하(子夏)가 하나뿐인 아들이 먼저 죽자 지나치게 슬퍼한 나머지 실명(失明)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예기(禮記)·단궁 상(檀弓上)》

7 평원의……못했다네 : 늘상 술을 마셨다는 말이다. 진(晉)나라 환온(桓溫)의 주부(主簿)로 있던 사람이 술맛을 잘 감정했는데, 맛 좋은 술은 '청주종사(靑州從事)'라고 부르고 나쁜 술은 '평원독우(平原督郵)'라고 불렀던 고사가 전한다. 《세설신어(世說新語)·술해(術解)》

척소생(戚小生) 당악(棠岳) 윤치미(尹致美)

-곡하며 애도하다.-

예전 두 집안 혼인한 후로	昔自連姻後
온 집안의 정의가 새로웠지	一家情意新
맑은 회포는 막힘이 없었고	淸懷無滯已
고답한 의리는 남보다 뛰어났네	高義更加人
병 신음하다 도리어 헤어짐 아파하노니	吟病還吟阻
자식 잃고 갑자기 정신 혼미해졌지	喪明奄喪神
가련토다 술잔 속의 달이여	可憐盃裏月
적막하구나 꽃 핀 봄날이여	寂莫鎖花春

녹문(鹿門) 고두춘(高斗春)-곡하며 애도하다.-

예전 우리 선조께서 시종이 되셨는데	昔年吾祖作詩宗
한때 마음으로 교유했던 옥봉이 계시었네	一代神交有玉峰
세상 놀라게 한 것 어찌 다만 신율 때문이랴	驚世豈徒新律細
집안 교유로 지금도 옛 정 두텁다는 걸 아네	通家今覺故情隆
한가로움 속 사업에 천 축의 글을 썼고	閑中事業書千軸
고요함 속에 한평생 몇 동이의 술 마시었나	靜裏生涯酒數鍾
절하지 못한 채 뉘 영원히 이별할 줄 알았으랴	阻拜誰知終永訣
슬픈 만사 쓰고자 하니 눈물이 줄줄 흐르네	欲題哀挽涕無從

금성후인(錦城後人) 임형(林炯)-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반생애 동안 공과 부자처럼 노닐면서	半世遊公父子間

청년이 흰머리 난 늙은이 되었다네　　青年交到鬢毛斑
가련토다 이제까지 많은 만사 썼지만　　可憐前後緘辭日
어찌 남의 생애 복잡한 마음 다 말하랴　　忍說餘生意萬般

완산후생(完山後生) 최선석(崔宣錫)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옥봉 공의 후손들에 어진 이 많았지만　　玉峰公後世多賢
우리 형이 그 가업을 이어 좋았다오　　爲愛吾兄緖業傳
귤나무 사이의 전원이요 꽃 속의 집　　橘裏田園花裏宅
술병 속의 천지요 음중의 신선이라　　壺中天地飮中仙
서산에 해 질 때 원숭이 창자 끊어지고[8]　　西山日暮猿腸斷
먼 바다의 가벼운 바람에 학 그림자 펄럭이네[9]　　遼海風輕鶴影翩
서글퍼라 지난 노닒이 한바탕 꿈 되었노니　　怊悵舊遊成一夢
초당은 주인 없이 찬 안개에 뒤덮여 있네　　草堂無主鎖寒烟

척제(戚弟) 완산(完山) 이가징(李嘉徵)

-통곡하고 절하며 애도하다.-

---

8 원숭이 창자 끊어지고 : 진(晉)나라 환온(桓溫)이 군사를 거느리고 장강(長江)을 거슬러 올라가 촉(蜀)의 이세(李勢)를 공격할 당시, 삼협(三峽)에 이르렀을 때 어떤 군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았다. 그 어미가 슬피 울며 강기슭으로 백여 리를 따라오다가 배 위로 뛰어올라 와서는 그만 죽고 말았는데, 배를 갈라 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겨져 있었다 한다. 《세설신어(世說新語)·출면(黜免)》 여기에서는 백명헌이 먼저 저세상으로 떠나 그 어머니의 애끊는 심경을 말한다.

9 학 그림자 펄럭이네 : 주 영왕(周靈王)의 태자 왕자진(王子晉)이 7월 7일 흰 학을 타고 가족과 작별한 뒤 날아갔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열선전(列仙傳)》 여기에서는 백명헌이 죽어 학을 타고 저승으로 갔다는 의미이다.

자식[10] 위해 곡하다가 또 형을 위해 곡하니　　曾哭庭蘭又哭兄
유정한 하늘의 도리 또한 무정하여라　　有情天道亦無情
가련토다 흰머리로 인간 세상에 있노니　　可憐白首人間在
슬픈 만사 지금 쓰니 눈물이 갓끈에 가득해라　　哀挽今題淚滿纓

거창후인(居昌後人) 신정익(愼廷翊)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송호의 손자요 옥봉의 증손으로　　松湖孫子玉峯曾
남쪽 지방에서 명가로 대대로 칭송받았네　　南國名家世所稱
몸 밖의 영화는 허상인 듯 보았고　　身外榮華看似幻
눈앞의 술을 민수[11]처럼 좋아했다오　　眼前樽酒愛如澠
지난해 자식 죽음[12]에 탄식 끝없는데　　去年嬴博嗟何及
오늘 저승으로 가니 슬픔 가누지 못하겠네　　今日泉臺慟不勝
늙고 병든 이 몸이 상여줄 잡지 못한 채　　衰病此生違執紼
흰머리로 만사 쓰며 눈물만 흐르누나　　白頭題挽涕垂膺

성산후인(星山後人) 현징(玄徵)-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

10 자식 : '정란(庭蘭)'은 뜰의 난초라는 말로, 남의 훌륭한 자식을 비유한 것이다. 진(晉)나라 사현(謝玄)이 숙부인 사안(謝安)에게 "비유하자면 지란 옥수가 집안 섬돌에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게 하겠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庭階耳.〕"라고 자신의 소망을 밝힌 고사에서 유래했다. 《진서(晉書)·사안열전(謝安列傳)》

11 민수(澠水) : 전국 시대 제(齊)나라에 속했던 강물 이름으로, 제후(齊侯)가 연회를 베풀고서 "민수처럼 술도 많고 산처럼 고기도 쌓였다.〔有酒如澠 有肉如陵〕"라고 말한 기록이 보인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0년조에 보인다.

12 자식 죽음 : '영박(嬴博)'은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지명이다. 오(吳)나라 계찰(季札)이 제나라에서 돌아오다가 아들이 죽자 이곳에 장사 지냈다. 《예기(禮記)·단궁(檀弓)》 여기서는 백명헌의 아들이 죽었다는 의미이다.

옥봉은 후손이요 송호의 손자로　玉峰之後松湖孫
용모는 뛰어났고 기미는 온화했지　卓落容姿氣味溫
자식 가르치는 방도 있어 가업을 이었고　訓子有方家業繼
재물에 구차함 없이 형제 우애[13] 돈독했지　臨財無苟友于敦
빠른 세월이 삼극[14]을 재촉함에 깜짝 놀랐고　忽驚石火催三極
자식들과 저승으로 떨어져 애석하기만 해라　可惜芝蘭隔九原
새벽에 나부끼는 붉은 영정 어찌 견딜까　那堪丹旐飄曉日
봄바람 부는 바닷가에서 홀로 마음 아파하네　春風海上獨傷魂

시생(侍生) 윤천후(尹天厚)-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지난해 중추에 잠깐 뵈었는데　去歲仲秋乍拜床
오늘 슬픈 만사 쓸 줄 뉘 알았으랴　誰知此日寫哀章
인간 세상에선 어진 자식들 피눈물 흘리지만　人間血泣諸賢子
지하에선 큰형님과 반의[15]를 입었겠지　地下斑衣伯兄郎
만 권의 책들은 옛 책상에 버려졌고　萬軸圖書拋舊案
매화와 달빛만이 빈집을 에워싸네　一輪梅月鎖虛堂
상심하다 도리어 풍류 사라져 한스러우니　傷心却恨風流盡

---

13 형제 우애 : '우우(友于)'는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것을 말한다. 《논어 · 위정(爲政)》에 "《서경》에서 효에 대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여 정사에 베푼다.'라고 했으니, 이 또한 정사를 하는 것이니, 어찌하여 벼슬해서 정사하는 것만이 정사이겠는가.〔書云孝乎, 惟孝, 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爲政, 奚其爲爲政.〕"라고 했다.

14 삼극(三極) : 천(天), 지(地), 인(人)으로, 삼재(三才)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천지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5 반의(斑衣) : 색동옷을 말한다. 춘추(春秋) 시대 초(楚)나라의 은사(隱士)인 노래자(老萊子)가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70세가 되었지만 일부러 색동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떨었다는 고사가 있다. 《초학기(初學記) · 효자전(孝子傳)》

홀로 천지 사이에 서서 눈물만 흘린다오　　獨立乾坤淚滿裳

남쪽 고을 고사의 늙은이로　　南州高士老
옥봉의 손자를 말하곤 했지　　云是玉峰孫
지난해 먼저 자식을 잃고　　去歲先亡子
금년에 또 자신도 떠났다오　　今年又鎖魂
풍류가 이로부터 사라졌노니　　風流從此盡
도서는 누굴 위해 남겨 두었나　　圖籍爲誰存
서글퍼라 송산의 달빛 아래　　怊悵松山月
다시 술자리 열기 어려우니　　難開酒一樽

세말(世末) 창녕(昌寧) 조일회(曹一會)-곡하며 애도하다.-

해동의 《고사전》에서　　海東高士傳
옥봉 노인 특히나 청영하다오　　玉老特淸英
공도 오히려 뜻이 훌륭하여　　夫公還倜儻
가풍의 옛 명성 이었다오　　家風繼舊聲
분분했던 젊은 시절에　　紛紛少年場
오직 이 노성한 이 보았다오　　惟見此老成
어찌하리오 운명이 순탄치 못해　　柰何命不偶
한평생 갑자기 중간에 끊어졌노니　　百年奄中傾
지난해 큰형님이 돌아가시어　　往歲哭伯兄
이미 애간장이 모두 끊어졌었지　　已極摧心腸
어찌 알았으랴 형님 무덤 풀 마르기도 전에　　那知塚未乾
공이 또한 갑자기 이 지경 될 줄을　　公又遽至斯

향기로운 난초 쓸쓸히 꽃 못 피운 채　　芳蘭寂無秀
상엿소리[16]만이 부질없이 처연해라　　薤歌空悽其
서글퍼라 늙은이들 모두 떠나고　　怊悵耆舊盡
지금 살아 있는 이 누구런가　　如今存者誰
저승에서 다시 살아올 수 없노니　　九原不可作
곡 마쳤지만 슬픔은 여전하여라　　哭罷有餘悲

척질(戚姪) 영주후인(瀛洲後人) 양우주(梁禹疇)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두 집안 옥봉공을 선조로 하면서　　兩家同祖玉峯公
혼인관계 맺은 후 대대로 교유했지　　姻愛由來世世窮
소나무 언덕에서 지난해 모시고 노닐 적에　　松塢昔年陪笑語
귤 숲의 가을빛이 창문에 가득했었지　　橘林秋色滿窓櫳
술독의 새로운 술을 나를 위해 열었고　　樽罍爲我開新綠
책 쌓여 있는 상자를 아이 불러 열었다오　　書籍呼兒啓舊筒
이제부턴 뵈올 일 다시 얻기 어려우니　　從此拜床難再得
멀리 주작산[17] 바라보며 춘풍에 눈물 흘리네　　遙瞻朱雀泣春風

척질(戚姪) 완산후인(完山後人) 이홍명(李弘命)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

16 상엿소리 : '해가(薤歌)'는 만가(挽歌)이다. 해(薤)는 부추 종류인데, 사람의 목숨이 부추 잎에 맺힌 이슬처럼 쉽게 소멸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17 주작산(朱雀山) : 전남 해남에 있는 산 이름이다. 백명헌의 무덤이 있던 산으로 보인다.

외종공 어른 外宗公是長
어찌 그리 급히 세상 버리셨나요 謝世何太忙
다행히 자손들 남아 있지만 幸賴兒孫在
큰아들 죽은 것 탄식할 만해라 堪嗟胄子亡
처량하여라 선조의 사당이여 凄涼先朝廟
적막하여라 취옹의 집이여 寂莫醉翁堂
주작산 앞의 길에서 朱雀山前路
봄바람에 눈물 절로 흐르네 春風涕自滂

표종질(表從姪) 안형상(安衡相)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옥봉의 재주는 범상하지 않았노니 玉峯才格出尋常
백년토록 맑은 풍모 사방에 진동했네 百世淸風動四方
굳건한 필체는 모서리 감춘 채 옛 진나라 따랐고[18] 健筆藏稜追古晉
새로운 시는 탁월하여 중당을 본받았지[19] 新詞激越效中唐
청렴결백한 가풍은 삼대로 전해졌고 家遺淸白傳三世
공이 곧음 유지한 채 가업을 이었네[20] 公保幽貞肯一堂

---

18 굳건한……따랐고 : 옥봉 백광훈의 필체가 진(晉)나라 명필(名筆)이었던 왕희지(王羲之)와 왕헌지(王獻之)의 필법을 따랐다는 말이다.

19 새로운……본받았지 : 옥봉 백광훈의 시가 당(唐)나라 시풍을 본받았다는 의미이다.

20 가업을 이었네 : '긍일당(肯一堂)'은 선조의 유업(遺業)을 이어 다시 건물을 세운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대고(大誥)》의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 놓았는데 아들이 집터를 닦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나아가 집을 얽어 만들 수가 있겠는가.〔若考作室, 旣底法, 厥子乃不肯堂, 矧肯構.〕"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여기에서는 백명헌이 집안의 가풍을 이었다는 의미이다.

습씨의 정원[21]에서 봄날 함께 노닐었고　　習氏園林春作伴
정장의 풍월[22]에 술 취해 고향 삼았지　　鄭莊風月醉爲鄕

지난밤 남극성[23]의 별빛 희미해지더니　　前宵南極星光晦
오늘 동쪽 언덕에 채색 상여 황망해라　　此日東丘彩駕忙
한 자식 먼저 죽어 비록 불행하지만　　一子先亡雖不幸
세 아들 남아 있어 경사 오히려 유장하리　　三男有後慶還長
누가 알았으랴 10월에 고당에 절하고서　　誰知十月高軒拜
마침내 봄날에 영원한 이별 술잔 올릴 줄　　竟尊三春永訣觴
늙은이들 지금 거의 다 떠나갔노니　　長老如今殆盡逝
슬픈 눈물이 옷 적시는 걸 어이 견디랴　　可堪哀淚滿衣裳

척시생(戚侍生) 윤징귀(尹徵龜)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아직도 기억나네 자주 외씨의 집에 가서　　尙憶頻臨外氏宅

---

21 습씨(習氏)의 정원 :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산도(山濤)의 아들 산간(山簡)이 형양(荊襄)을 진무할 때 호족(豪族)이었던 습씨들은 그곳에 아름다운 동산과 못을 가지고 있었다. 산간이 양양을 진무할 때 늘 그곳에 나가 노닐며 술을 마셔 취하곤 했다는 고사가 있다. 《진서(晉書) · 산간열전(山簡列傳)》

22 정장(鄭莊)의 풍월(風月) : '정장'은 전한(前漢)의 정당시(鄭當時)를 말한다. 장(莊)은 그의 자(字)이다. 양(梁)과 초(楚) 사이에서 임협(任俠)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사람들을 사귀기 좋아하여 장안(長安)의 사방 교외에다 역마(驛馬)를 비치하고는 귀천을 막론하고 손님들을 맞아들여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 모두가 천하의 명사(名士)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사기(史記) · 정당시열전(鄭當時列傳)》

23 남극성(南極星) : 자세한 내용은 297쪽 주3 참조.

어릴 적부터 외람되어 따라다녔던 것　　自余童稚猥追陪
집에 전해진 묘법은 왕희지의 필법이었고　　傳家妙法羲之筆
세상에 남긴 한가로움은 이태백의 술잔이었네　　遺世閑情太白盃
복 심어 일찍이 많은 경사 이름 보았는데　　種福曾看多慶至
누가 자식 잃는[24] 재앙 올 줄 알았으랴　　喪明誰識有殃來
붉은 여정 길 나서고 상엿소리에 오열하니　　丹旌啓路薤歌咽
칠십 년의 세월이 한바탕 꿈이 되었구나　　七十年光一夢迴

척손(戚孫) 여강후인(驪江後人) 민효지(閔孝祉)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삼한의 선비를 압도한　　倒壓三韓士
옥봉과 송호는 양 세대에 이름났지　　峰湖兩世名
수장한 것 이에 집안의 필법이니　　收藏乃家筆
예전 그 손자도 힘쓴 바였다오　　平昔厥孫誠
시원스레 술 마시는 기백 있었고　　氣用銜盃爽
말들은 옛 청아함 그대로 이었지　　談因說古清
자식 죽고 자신도 이어 죽었노니　　兒亡身繼逝
길 가는 이도 또한 슬퍼한다오　　行路亦傷情

족제(族弟) 박환(朴奐)-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계해 갑자[25]의 봄 겨울 일을 어이 말하랴　　亥子春冬不忍言

---

24 자식 잃은 : 자세한 내용은 299쪽 주6 참조.

25 계해 갑자 : '해자(亥子)'는 계해년(癸亥年, 1683)과 갑자년(甲子年, 1684)을 말한다. 계해년에는 백명헌의 형이 죽은 해이고, 갑자년은 백명헌의 아들이 죽은 해이다.

하늘이 내린 재앙이 우리 집안에 가득했네　于天降禍最吾門
묵장산의 시든 풀에 부모 그리는 한 있고　墨庄衰草思親恨
주작산의 새 무덤에 자식 생각하는 혼 있네　朱雀新阡戀子魂
누가 옛 집안 이어 세덕을 닦을거나　誰繼故家修世德
부질없이 남긴 자취를 어린 자손에게 주네　謾將遺蹟付兒孫
취옹당 아래 띠풀의 주위에서　醉翁堂下茅茨畔
때때로 홀로 돌아보며 눈물 자국 닦누나　時獨回頭拭淚痕

척종제(戚從弟) 백양헌(白良憲)-통곡하며 두 번 절하다.-

내 벗은 평생도록　吾友生平日
쓸쓸히 이곳에 살았다오　蕭然任所居
삼세의 필법을 깊숙이 감춰 두고　深藏三世筆
길이 백가의 서적을 대했다오　長對百家書
뜬구름 밖에 세상 일 버려두고　俗事浮雲外
한가롭게 반쯤은 취해 지냈다오　閑情半醉餘
지금은 형체와 그림자 외로워졌노니　如今形影單
높은 촛불이 마을에 흐릿하구나　高燭混鄉閭

같은 고향에서 함께 늙어 가며 나이도 같았으며　同鄉同老又同庚
게다가 집안 교유하며 의리도 가볍지 않았지　況復連家義不輕
그대 죽었는데 수레 잡고 통곡 못해 한스러우니　君歸恨未挽車哭
한평생 반갑게 맞이해 주던 마음 저버리게 되었네　孤負生平倒瞻情

거창후인(居昌後人) 신홍익(愼弘翊)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애도하다.-

묵동의 외론 무덤 땅도 마르지 않았는데　墨洞孤墳土未乾
다시 주작산에 새 무덤 들어서는 걸 보네　又看朱雀起新阡
뭇사람 죽음에도 오히려 마음 찢어지려 하는데　凡人尙欲心腸爛
하물며 내가 일찍이 유독 돌아봄을 입었음에랴　況我曾蒙眷戀偏
작은형님의 필법에는 세업이 남아 있었고　少兄筆鋒存世業
손자의 모습에서 이전 현인 떠올렸다오　阿孫眉宇記前賢
가련토다 이백의 술 잔 속 달만이　可憐李白盃中月
푸른 산 사택[26] 주변을 비추고 있노니　留照靑山謝宅邊

남쪽 지방 명가로 필법으로 이름났고　南國名家筆以鳴
벽 사이 서첩에 평생의 일 깃들어 있네　壁間書帖寓平生
알겠어라 병든 것 그 이유가 있나니　從知一疾非無祟
자식 죽던 해 곡하느라 시력 잃었지　卜子當年哭喪明

광산후인(光山後人) 김연장(金鍊長)

-두 번 절하며 통곡하다.-

옥봉은 우뚝했었고　玉峰崔嵬
송호는 청아했다오　松湖澄淸
대대로 아름다움 이어　世躋其美
아득히 소문 자자했다오　逖有風聲
아아 우리 공께서　於休我公

---

26 사택(謝宅) : 진(晉)나라의 명사(名士)인 사안(謝安)의 집안을 말한다. 사씨 집안이 오의항(烏衣巷)에 살며 부귀를 누렸지만 세월이 흘러 쇠퇴했다. 《진서(晉書)·사현열전(謝玄列傳)》 여기에서는 백명헌의 집안을 사안의 집안에 견준 것이다.

이를 이어받았었지 式爲後承
어머님[27]의 가르침을 받았고 聖善是訓
효성과 우애는 하늘로부터 타고났지 孝友出天
집안에서 아름다운 행실 있어 家有懿行
마을에서 선인이라 칭송했었지 鄕稱善人
그 밖의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不慕其外
분수에 따라 편안하게 살았지 隨分而安
한 집안 맑고도 깨끗한 채 一室淸淨
모든 일에 마음 한가로웠지 萬事心閑
술은 마음을 즐겁게 했노니 酒所怡情
취한 듯 꿈꾸듯 살았었지 醉夢乾坤
사물과 사람 중에 於物於人
누가 자황[28]이던가 孰黃孰雌
모두들 말했지 뛰어나 咸曰賢哉
하늘이 반드시 도울 것이라고 天必佑之
슬하의 자식 때문에 슬픔 맺히었고 慟結膝下
참혹함을 눈앞에서 보았다오 慘在目前
슬픔과 병이 온몸을 에워싼 채 悲疚纏身
늘그막을 보내었다오 衰暮之年

---

27 어머님 : '성선(聖善)'은 모친을 뜻하는 말이다. 《시경(詩經)·개풍(凱風)》의 "어머님은 성스럽고 선하신데, 우리 중에는 괜찮은 자식이 없도다.〔母氏聖善, 我無令人.〕"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28 자황(雌黃) : 본디 황색(黃色)의 안료(顔料)인데, 옛날 시문의 자구(字句)를 첨삭할 때에 이것을 사용했던 데서, 전하여 시문을 잘하는 식견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백명헌이 시문을 잘 지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갑자기 돌아가시었으니[29] 遽然易簀
어찌 하늘을 허물하랴 何辜于天
답답하여라 선한 이에게 보답하는 것 蔑蔑報善
아득해라 그 이치여 茫茫其理
자식과 손자들 있는데 有子若孫
이미 어질고도 빼어나구나 旣賢且秀
비록 앞 시대 사람에게 인색했지만 雖嗇于前
뒤 시대 사람에게 반드시 넉넉하리라 必豊於後
은혜 베푼 일은 사라지지 않노니 施在不泯
끝내 어찌 없어지리오 終豈沒沒
한 번 통곡하고 위안하지만 一痛而慰
말로 어찌 다 채울 수 있으랴 言不旣實

광산후인(光山後人) 김주한(金胄翰)

-두 번 절하고 통곡하며 애도하다.-

여윈 모습에도 참으로 즐거워했노니 癯癯風骨正欣欣
군자이자 어른의 풍채 있었다오 君子人兼長者儀
세상에 떨친 명성은 대대로 전해 온 것이요 振世聲名傳有自
범상치 않은 풍모는 하늘에서 타고난 것일세 出群高標得天姿

---

29 돌아가시었으니 : '역책(易簀)'은 스승이나 현인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책(簀)은 와상(臥床)의 깔개로 증자(曾子)가 병환 중에 대부(大夫)의 신분에 걸맞은 화려한 깔개를 깔고 있었는데, 임종(臨終)할 당시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깔개를 바꾸게 하고 죽은 데서 유래했다. 《예기(禮記)·단궁 상(檀弓上)》

맹호연[30]처럼 박복한 것은 재주가 컸기 때문이요　浩然無命緣才大
상처럼 시력 잃은 것[31] 또한 기구한 운수일세　商也喪明亦數奇
늙고 병들어 상여줄 직접 잡지 못한 채　衰病未能參執紼
남쪽 보며 눈물 닦노니 도리어 서글퍼지네　望南抆淚轉悽悲

오주에서 일찍이 십 년 세월 떨어져 있었는데　吳洲曾隔十年月
오늘 부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네　此日凶聞本不期
풍진세상에 이제 한 늙은이 남았노니　末路風塵有一老
살아 이별할 일 별로 없으니 어찌 슬프랴　生離無幾亦何悲

송연(宋演)-곡하며 애도하다.-

세상 쇠하여 기운 더욱 박해졌으니　世衰氣澆薄
예순이면 빨리 죽은 것 아니다 하겠네　六十未云促
하물며 형님은 몇 년을 더 사셨으니　況兄加數年
장수했다고 하기에도 충분하다오　於壽非不足
다만 한스러운 것은 하늘 이치 아득하여　只恨天杳茫
선인이 복록을 누리지 못한 것일세　善人不得祿
얼마나 칠원에서 동이를 두드렸던가[32]　幾扣漆園盆

---

30 맹호연(孟浩然) : '호연(浩然)'은 당(唐)나라 시인인 맹호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1 상처럼……것 : '상(商)'은 공자(孔子)의 제자인 자하(子夏)를 말한다. '상명(喪明)'은 상명지통(喪明之痛)의 준말로, 자식 잃은 슬픔을 말한다. 위 7번 각주 참조.

32 칠원(漆園)에서 동이를 두드렸던가 : '칠원'은 장자(莊子)를 말한다. 장자가 칠원에서 벼슬했기에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 장자의 아내가 죽어 혜자(惠子)가 문상(問喪)하러 갔더니, 장자는 다리를 뻗고 앉아서 동이를 두드리며〔叩盆〕 노래하고 있었

서하에서 시력을 한 번 잃었다오[33] 一喪西河目
가련토다 한평생 동안 可憐百年內
신세 고달팠고 외로웠다오 身世苦幽獨
하물며 명성도 이루지 못한 채 況復名不成
골짜기에서 서성였다네 栖遲在丘壑
일찍이 명성을 구하지도 않았노니 未曾求聞達
세상 사람 어찌 능히 알리오 世人安能識
자진처럼 늙어 가는 것만 보았지[34] 徒見老子眞
한복처럼 불러 올림[35]을 듣진 못했네 不聞徵韓福
뜬 명성에 또한 무얼 상심하리오 浮名亦何傷
몸 편안히 윤택한 집에 있었노니 安身有潤屋
거문고 술이면 흥취가 충분했고 琴樽足淸致
하루가 다 가도록 기쁘게 즐기었지 歡娛窮日夕
뜬 인생 진실로 얼마 되지 않노니 浮生誠無幾

다. 이에 그 까닭을 물으니 "본래 삶이란 것은 형체란 것도 없었는데, 이제 본래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니 슬퍼할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대답했다. 《장자(莊子)·지락(至樂)》

33 서하에서……잃었다오 : 자세한 내용은 299쪽 주6 참조.

34 자진(子眞)처럼……보았지 : '자진'은 한(漢)나라 정박(鄭樸)의 자(字)이다. 정박은 성제(成帝) 때 대장군 왕봉(王鳳)의 초빙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곡구(谷口)에 집을 짓고 살면서 곡구자진(谷口子眞)이라고 호를 지은 뒤 수묵(守默)하며 수도(修道)했다. 《한서(漢書)·왕공양공포전(王貢兩龔鮑傳)》 여기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쓰이지 못한 채 숨어 살았다는 의미이다.

35 한복(韓福)처럼 불러 올림 : '한복'은 한나라의 탁인(涿人)으로 행실이 아주 뛰어나다는 소문이 있어 소제(昭帝)가 조정으로 불러들였는데, 경조(京兆)에 이르러 병이 나 대궐에 들어가지 못하자 비단을 하사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한복은 종신토록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채 일생을 마쳤다. 《한서·왕공양공포전》

이처럼 절로 즐길 만했다오 如此自可樂
늘 중표[36]의 의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常存重表義
나에게는 정이 더욱 돈독했다오 向我情彌篤
내가 공의 문하에 들어가길 청했노니 我請說公門
공의 문하는 예전부터 빛났었다오 公門昔輝赫
옥봉과 송호께서는 玉峰與松湖
서로 이어 명성이 자자했다오 相繼名籍籍
시인으로 또 필법으로 詩家兼筆勢
화려한 명성 한양에도 진동했지 聲華動京洛
남은 유풍을 누가 다시 이을까 遺風誰復繼
후손들은 탄식할 만하여라 後來堪嘆息
예전 젊은 시절 생각해 보니 憶昔少年日
불러 서로 따랐었지 招呼兩相逐
대둔산에서 봄바람에 취했었고 春風醉大屯
만덕산에서 겨울에 눈 구경했지 冬雪遊萬德
어느새 세월 흘러 함께 늙어 가면서 居然共衰謝
얼굴 보는 것 다시 하지 못했네 會面更不得
서글피 바라보며 얼마나 그리워했나 悵望幾相思
내 마음 주름치마와 같았다오 我懷如襞積
한 번 방문하고서 方擬一相過
책상 마주한 채 옛일 말하고자 했었네 連床話宿昔

---

36 중표(重表) : 같은 고조부 또는 증조부의 자손으로, 내외종(內外從)의 친척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사립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未及叩紫衡
부고가 빈 계곡에 들어왔다오 幽聞傳空谷
남쪽 보며 한 번 길게 통곡하니 南望一長號
눈물만이 부질없이 가슴 적시네 有淚空沾臆
남은 생애 다시 누굴 본받을까 餘生更安倣
흰머리로 쓸쓸해져 서글프구나 白首悲牢落
병으로 영령의 자리에 못 가니 病未瀉虛位
이 사람 절로 부끄럽구나 令人轉自忸
세월이 일찍이 얼마이던가 日月曾幾何
무덤[37]이 지금 이미 정해졌다오 佳城今已卜
내 듣건대 저승으로 갔다 하니 吾聞黃泉下
모든 일 이젠 적막하게 되었네 萬事具冥莫
푸른 산은 주위 두른 병풍이요 靑山作屛障
밝은 달은 등불이 될 것일세 明月爲燈燭
단지 남쪽 보는 즐거움[38] 있을 것이니 但有南面樂
누가 만년 길이 잠들 무덤 다투랴 誰爭萬年宅

---

37 무덤 : '가성(佳城)'은 무덤을 뜻한다. 한나라 등공(滕公)이 말을 타고 가다가 동도문(東都門) 밖에 이르자 말이 울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발로 오랫동안 땅을 구르기에 사졸(士卒)을 시켜 땅을 파 보니, 깊이 석 자쯤 들어간 곳에 석곽(石槨)이 있고 거기에 "가성이 울울(鬱鬱)하니, 3천 년 만에 해를 보도다. 아, 등공이여, 이 실(室)에 거처하리라."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한다. 《서경잡기(西京雜記)》

38 남쪽 보는 즐거움 : 굶주림과 병이 없는 죽음의 세계가 고통으로 가득한 이승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이다. 《장자(莊子)·지락(至樂)》에 두개골이 "죽음의 세계에는 위에 군주도 없고 아래에 신하도 없지. 또 사철의 변화도 없다네. 편안하게 몸을 맡긴 채 천지와 함께 수명을 누린다네. 인간 세상의 제왕의 즐거움〔南面王樂〕인들 이에 미치지는 못할 걸세."라고 했다.

이것으로 가는 그대 전송하노니　　以此送公歸
슬픈 노래 통곡으로 바뀌어지네　　哀歌易痛哭

중표제(重表弟) 정원(靖原) 이담로(李聃老)

-곡하며 애도하다.-

유세차(維歲次) 을축년(乙丑年, 1685) 3월 신사(辛酉) 삭(朔) 초9일 기사(己巳)에 송연(宋演)은 삼가 자식 인서(麟瑞)를 보내 멀리서 간소한 제수를 마련해 백공(白公)의 영전에 다음과 같이 고하노라.

오호라, 재주 있는 인간을 하늘은 어찌하여 미워하고 행실이 있는 군자를 하늘은 어찌하여 힘들게 하는가. 총명하고 강인함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주인데 하늘은 도리어 그 장수함을 미워하고, 정직하고 중화함은 덕을 닦은 행실인데 하늘은 반드시 그 몸을 힘들게 하네. 더없이 공정한 것은 하늘인데 하늘이 이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더 없이 명철한 것이 하늘인데 하늘이 이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니, 그렇다면 어찌 하늘에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바가 없을 수 있겠는가.

오호라, 죽는다는 것은 이치로, 천고 세월 이래로 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지는 못했노니, 그렇다면 내가 형의 죽음에 대해 또한 유독 슬퍼할 필요가 있겠는가. 세상이 말세로 들어서서 욕심 많고 어리석은 자들이 모두 존귀해졌고, 세상이 더러움으로 휩쓸려 들어가 음험하고 표독한 자들이 모두 장수를 누리네. 그러나 형은 하나의 작은 관직도 얻지 못했고 일흔까지 사는 장수도 이루지 못한 채, 평생 마음속에 품은 것이 끝내 모두 사라져 드러나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정직함을 닦았으나 하늘의 미워함을 당하고 인의를 좋아했지만 하늘의 시기를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삶을 달게 여기고 지키면서 성품 기르는 것을 군자는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빛을 감추고 자신의 빛나는 재주를 숨기는 것은 뜻있는 선비에게도 어려운 바이네. 속이는 것 없이 늘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 빈천(貧賤) 때문에 옮겨 가지 않고 부귀(富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확고하며 더욱이 함양하는 공부를 고수하여 진실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지가 있었으니,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그 사이에 논할 필요조차 없다네. 게다가 훌륭한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고 스스로 가업을 이었으며, 높은 명망이 한 시대에 진동하여 남쪽 지방에서 우뚝이 솟아, 사해에서 그 명성을 이미 짝할 이가 없었으며 하늘로부터 타고난 효성과 우애 또한 견줄 이가 드물었네. 아득히 드넓은 업(業)은 이미 그 토대가 있었고 뿌리처럼 견고한 근본의 도리를 끝내 어기는 바가 없었다네.

강산의 바람과 달이 이 사람에게 있었으며, 주변에 있던 거문고와 책들이 세상에 헛되이 전해지지 않았네. 소나무와 국화를 벗처럼 여기었으니 그 쇄락한 기상은 숭상할 만하고, 지팡이와 짚신으로 봄날 노닐었으니 그 진실된 흥취는 여전히 남아 있네. 그런데 하늘은 어찌하여 유독 그 집안에는 두텁게 하면서 그 사람의 몸을 싫어했는가, 또한 하늘은 어찌하여 유독 그 사람에게는 두텁게 하면서 그 운명을 힘들게 했는가.

부귀를 흘러가는 구름처럼 보고 공명을 지푸라기처럼 여기면서, 떠들썩한 즐거움에 홀로 호리병 속의 세월을 즐기었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늘 술 속의 세상으로 들어갔다네. 올곧게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세속에서 단절되지 않았고 숨어 살면서도 평소의 마음 간직한 채 부모님을 어기지 않았었지. 인간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초연히 세속의 일에 마음

을 두지 않았으며, 세속 밖에서 노닐면서 유연히 공후처럼 누리는 즐거움이 있었다네. 그렇다면 하늘이 그 몸을 싫어하고 그 운명을 힘겹게 한 것이 도리어 영화롭지 않겠는가.

애통한 것은 품은 뜻을 실행하지 못했고 공(功)을 베풀지 못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교화를 입지 못했고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이네. 만약 그 사람이 천자에게 등용되어 제후에 그쳤더라도, 그 천자도 신하로 삼지 못했을 것이네.[39] 말이 여기에까지 미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네.

나는 보잘것없는데도 요행히 두 집안이 혼인을 맺은 이후, 외람되게도 알아줌을 입은 지가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상에서 누웠으며, 아프면 서로 아픔을 나누고 하고픈 말이 있으면 함께 토로했으며, 형이 품은 마음을 내가 반드시 알아주었고 내게 일이 있으면 형이 반드시 기억해 준 것이 또한 10년의 세월이었네. 명칭은 비록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의 명분[40]이 있었지만, 마음만은 마치 연(燕)나라와 노(魯)나라 같은 의리[41]가 있었지. 풍진세상의

---

39 천자에게……것이네 : 《후한서(後漢書)·곽태열전(郭泰列傳)》에 "혹자가 '곽임종(郭林宗)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자, 범방(范滂)이 '그는 세상을 피해 숨어도 개지추(介之推)처럼 어버이의 뜻을 어기지 않고, 절조가 곧아도 유하혜(柳下惠)처럼 속세와 단절하지 않으며, 천자도 신하로 삼을 수 없고, 제후도 벗으로 삼을 수 없다. 나는 그 밖의 것은 알지 못한다.〔隱不違親, 貞不絶俗, 天子不得臣, 諸侯不得友, 吾不知其他.〕'라고 대답했다."라는 구절을 활용한 대목이다.

40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의 명분 : 원문의 '진진(秦晉)'은 춘추 시대 때 진(秦)나라와 진(晉)나라 두 나라가 대대로 혼인한 것을 말한다. 전하여 양성(兩姓) 간에 대대로 혼인하는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

41 연(燕)나라와……의리 : 연나라와 노나라가 마치 형제의 나라처럼 서로 도왔다는 의미로 보인다.

말세에 늙도록 아양(峩洋)[42]의 기약을 했었고 봄 나무의 저녁 구름에 서로 쇠와 돌 같은 마음을 품었었지. 하늘 끝 외진 땅에서 한갓 서로 꿈에서만 그리워했노니, 누가 형이 이 세상에 다시 뜻이 없어져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길게 통곡하고 끝없는 슬픔에 빠지게 하리라 생각이나 했겠는가. 나와 형은 모두 노쇠해졌고 나는 이미 병들었으며 외떨어진 곳에 있어 끝내 손을 부여잡고 속마음을 토로하지 못한 채 죽고 말았으니, 형에게도 반드시 평생의 한으로 남았을 것이네. 오호라, 어찌하여 병든 내가 형을 위해 곡하게 될 줄 알았으랴.

갑인년(1674, 현종15) 봄, 내가 아내를 잃자 형이 와서 나를 위문해 주었지. 그해 가을 송종(送終)의 의식을 행할 때, 형이 또 와서 만났었네. 그때 형의 모습은 의젓했었고 오히려 예전 서로 주고받던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네. 하늘이 이 사람에게 부여했지만 당시에 쓰이지 못한 것은 끝내 반드시 인수지역(仁壽之域)[43]에서 증험됨이 있을 줄 알았네. 그러니 오늘 형을 위해 곡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바라네. 진실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비록 병들고 늙었지만 어찌 직접 형의 집에 가서 손을 붙잡고 애통해하지 않았겠는가.

---

42 아양(峩洋) : 지음(知音)의 의미로, 지기(知己)를 말한다. 거문고의 명인(名人)인 백아(伯牙)가 고산(高山)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그의 지음(知音)인 종자기(鍾子期)가 "좋구나, 아아(峨峨)하여 태산(泰山)과 같도다."라고 했고 유수(流水)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좋구나, 양양(洋洋)하여 강하(江河)와 같도다."라고 평했다는 일화가 전하다. 《열자(列子)·탕문(湯問)》

43 인수지역(仁壽之域) : 천수(天壽)를 다하며 오래도록 살 수 있는 태평성대를 뜻한다. 《한서(漢書)·예악지(禮樂志)》에 "한세상의 백성들을 몰아서 인수의 영역으로 인도한다면, 풍속이 어찌 성강 때처럼 되지 않을 것이며, 수명이 어찌 고종 때처럼 되지 않겠는가.〔驅一世之民, 濟之仁壽之域, 則俗何以不若成康, 壽何以不若高宗.〕"라는 말이 나온다.

오호라, 계해년(1683, 숙종9) 풍성(豊城)에서의 곡을 말하려니 참담하네. 아름다운 덕을 지닌 형 아래에 또한 훌륭한 자식이 있었는데, 기린(麒麟)과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 가업을 이을 만했지. 그런데 벽오동나무가 서리에 시들해졌으니, 하늘의 재앙이 너무도 혹독했네. 하늘이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자신뿐만이 아니었으니, 아마도 이른바 운수가 있다는 것에 해당할 걸세.

하늘의 도리는 아득히 어두워졌고 이치 또한 밝히기가 어렵네. 천년 세월 돌아가는 한 마리 말만이 대단히 바쁘구나. 공자(孔子)와 안회(顔回)도 이미 곤욕을 당했고 자하(子夏)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었으니, 운명이 이르는 바에 있어서는 성현이라도 면하기 어렵구나. 그러한 것은 하늘이 한 것인가, 인간이 한 것인가, 때가 한 것인가, 운수가 한 것인가.

남쪽 지방의 안개 달에 이미 천리 밖의 모습이 막히었고 방성(方城)의 밤비에 또한 새벽에 상여가 출발한다고 들었네. 그러니 비록 살아 있다고 하지만 그 뜻은 이미 죽은 것이라네. 바람결에 한 번 통곡하니 모든 일이 이제 끝났구나. 한 시대를 돌아보니, 내 마음 알아주는 이 몇이나 있는가. 나그네처럼 흐르는 세월 속에, 이 생애는 얼마나 남았는가. 죽어서도 앎이 있다면 헤어짐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호라, 염(斂)을 하는데도 관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것을 옛사람들이 서글퍼했던 바라네. 하관을 하는데 무덤에 가 보지 못하니 이 마음 찢어지려 하네. 힘겹게 병 속에 허덕거리며 홀로 남은 목숨 부지하고 있으니, 반은 귀신이요 반은 사람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의 몸이 아니라네. 정의(情義)를 돌아보니, 그 저버린 것이 이와 같으니, 말을 하고자 하여도 슬픔만이

가득하여 나도 모르게 목이 메이네. 창망히 믿음도 없으며, 아득히 신령도 없구나. 비록 호소하려고 한들 누가 알아주겠는가.

유명의 길은 서로 달라 이 한을 다하기 어렵고, 천지는 무궁하여 이 마음 달래기 어렵도다. 한잔 술에 한 해의 가을이니 혼령은 있을 것이네. 근래에 나 또한 세상에 뜻이 없다네. 마른 나무에 봄의 생기를 하늘이 혹 부여한다면, 한 번 영전에 나아가 오늘의 아픔을 다하고자 하니, 오직 바라는 것이 이뿐이라네. 종이를 펼치고 길게 통곡하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천 리 밖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슬픔을 부치누나. 혼령이 만약 앎이 있다면 부디 이르러 흠향하소서. 오호라, 슬프구나.

뇌문(誄文)은 다음과 같다.

산에 오르고 물가에 이르면서도	登山臨水
옛사람들 오히려 슬퍼했다오	古人猶悲
살아서는 이별하고 죽어서는 헤어지니	生離死別
이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으랴	此心何持
살아서는 베푼 것이 없었지만	生無所施
죽어서는 반드시 이룸 있으리라	死必有遂
지금 형이 이렇게 떠난 것은	今兄此去
도리어 뜻하는 바가 있어서리	抑將有意
몸 깨끗이 영원히 떠났으니	潔身永逝
형에게는 아무런 아쉬움 없으리	在兄何損
형의 덕을 상고할 바가 없다면	無所考德
후손들 중에 누가 믿으랴	後儕疇信

슬픈 눈물 한 움큼 쥐고서 一掬哀淚
슬픔 속에 형을 위해 곡을 하네 悲哭吾私
세상에 머물다 죽어 돌아갔노니[44] 生寄死歸
크게 화하기를 기약한다오 大化有期
끝내 같이 돌아갈 것이니 畢竟同歸
나 또한 어찌 슬퍼하리오 我又何悲
상향 尙饗

---

44 세상에……돌아갔노니 : '생기사귀(生寄死歸)'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 머무는 것이고, 죽는 것은 원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십팔사략(十八史略)》 권1에 나오는 말이다. 우(禹) 임금이 제후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강을 건너려는 순간 갑자기 황룡이 배를 등에 지고 물 위에 올리니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우 임금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 백성들을 위해 온 힘을 전부 바쳤다. 삶은 부쳐 사는 것이며,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라 하였으니 하늘의 뜻에 따를 것이니라.〔禹仰天嘆曰, 吾受命於天, 竭力以勞萬民, 生寄也, 死歸也.〕"라고 했다. 우 임금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태연하며 흔들림이 없이 또한 위엄 있게 대응하자, 황룡은 기가 꺾여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한다.

선고[1]시 계축년(1733, 영조9) 先考時 癸丑年

집안에 전해진 시례로 옛 명성 이었고	詩禮傳家襲舊聲
본성에 맡기고 분수에 따라 한평생 살았네	任眞隨分度平生
벽에 걸린 심도에는 정밀한 공부 담겨 있고	心圖揭壁存工密
태(泰) 자 걸린 암자[2]에서 의리의 밝음 취했지	泰字扁庵取義明
학자로 자처하지 않았지만 더욱 얻음 있었고	不自學居彌有得
사람들이 알까 두려웠지만 끝내 명성 없었지	恐爲人識竟無名
오히려 죽은 뒤에 다투어 만사 짓는 걸 보니	猶看身後爭題挽
유림에서 통곡하는 마음 억누르지 못하겠네	未抑儒林痛悼情

유림에서의 아름다운 칭송 하남에 이어졌고	儒林美譽續河南
한 집안에서 형제들[3] 연이어 빛을 발했다오	棣萼聯輝共一庵
죽은 후에도 집안 명성 오히려 그대로이리니	身後家聲猶不墜
훌륭한 동생[4]으로 옛사람에게 부끄럼 없다오	季方難弟古無慙

---

1 선고(先考) : 백수형(白受珩, 1675~1733)으로, 자는 중온(仲溫), 호는 태암(泰庵)이다.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2 태(泰) 자 걸린 암자 : 백수형의 호가 태암이기에 한 말이다.

3 형제들 : '체악(棣萼)'은 형제의 우애를 뜻하는 말이다. 《시경(詩經)·상체(常棣)》의 "활짝 핀 아가위꽃,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 누구라 해도, 형제만 한 이가 없나니.〔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4 훌륭한 동생 : '계방(季方)'은 후한(後漢) 때의 인물인 진심(陳諶)의 자(字)로, 보통

아비 어질더라도 훌륭한 아들 얻기 어렵나니　父賢難必有佳兒
이 두 가지 우리 공은 모두 있었지　二者我公兼得之
집 가득 향기로운 난초[5]가 시례의 숲 이루었으니　滿室芳蘭詩禮藪
그 당시에 가르침이 마땅했음을 볼 수 있네　政看當日敎方宜

삼종제(三從弟) 생원(生員) 이징규(李徵奎)

-절하며 애도하다.-

고을에 옛 친구 몇 명이나 살아 있나　鄕隣故舊幾人存
송산의 백중온[6]이 가장 애석하구나　最惜松山白仲溫
물에 비친 달 같은 마음엔 한 점 더러움 없었고　水月胸襟無點汚
옥봉의 유술을 연원으로 삼았었지　玉峯儒術有淵源
집안에서의 행실 마땅해 고을에서 칭송했고　居家行誼稱州里
책상 가득 시서로 자손들을 가르쳤네　滿案詩書敎子孫
서글퍼라 저승으로 이제 영원히 떨어졌으니　怊悵九原今永隔
늙은이는 어느 곳에서 다시 문 두드릴까　老夫何處更鼓門

형만큼 훌륭한 동생을 말할 때 애용된다. 후한(後漢)의 명사(名士)인 진식(陳寔)의 아들 진기(陳紀)와 진심(陳諶)이 총명하고 효성스럽기로 유명했는데, "원방은 아우처럼 되기 어렵고, 계방은 형님처럼 되기 어렵다.〔元方難爲弟, 季方難爲兄.〕"라는 난형난제(難兄難弟)의 고사가 전한다. 원방은 진기의 자(字)이고, 계방은 진심의 자이다. 《후한서(後漢書)·진식열전(陳寔列傳)》

5 향기로운 난초 : 보통 난초는 남의 훌륭한 자식을 비유할 때 쓰인다. 진(晉)나라 사현(謝玄)이 숙부인 사안(謝安)에게 "비유하자면 지란 옥수가 집안 섬돌에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게 하겠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庭階耳.〕"라고 자신의 소망을 밝힌 고사에서 유래했다. 《진서(晉書)·사안열전(謝安列傳)》

6 백중온(白仲溫) : 백수형(白受珩)을 말한다. 백수형의 자가 중온이다.

옥봉의 이름난 가문에 멋진 풍도 있어　玉峰名閥好風標
시례의 집안 명성 적막해지지 않았네　詩禮家聲不寂寥
나에게 마음 씀이 교칠[7]처럼 견고했었고　許我用情膠漆固
멋진 그대의 흉금은 해와 별처럼 빛났다오　愛君襟抱日星昭
흉년으로 헤어진 지 이에 삼 년이었는데　灾荒隔面仍三載
하루아침에 죽고 살아 마음이 아프다네　存沒傷心奄一朝
전혀 저승에 갈 것이라 생각 못 했노니　寸志未曾泉壤間
책상에서 늘 맞이해 주던 일에 가슴 아프네　怳然床席每相邀

당악후인(棠岳後人) 윤창(尹倡)-절하며 애도하다.-

어릴 적부터 따르며 백발에 이르기까지　少小追隨至白首
정다운 마음을 얼마나 서로 쏟았던가　慇懃心膽幾相傾
높은 풍모로 고요함 지키며 어찌 속세 따랐으랴　高標守靜寧循俗
유업의 가풍 이어받아 명성 실추시키지 않았지　儒業傳家不墜聲
훌륭한 모습 도리어 저승에 가 애석하고　可惜魁形還造化
어른이 어진 명성 남긴 것 가련하여라　只憐長者留賢名
갑자기 죽고 살아 유독 슬픔이 많노니　無端存沒偏多感
세모에 창주에서 뉘 서로 맞이할거나　歲暮滄洲誰共迎

나이 예순도 되지 않아 저승으로 갔노니　年未六旬卽夜臺

---

7 교칠(膠漆) : 옻나무의 칠처럼 뗄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후한(後漢)의 진중(陳重)과 뇌의(雷義)가 돈독한 우정을 발휘하자, 사람들이 "교칠이 굳다고 하지만, 진중과 뇌의의 우정만은 못하다.〔膠漆自謂堅, 不如雷與陳.〕"라고 칭찬했던 고사가 전한다. 《후한서(後漢書)·독행열전(獨行列傳)》

어진 사람 예로부터 귀신이 시기했다오　仁人自古鬼神猜
한 동네에서 태어나 친밀한 정 돈독했는데　生同鄕里親情密
죽어 유명 간에 떨어지니 이 이별 슬프구나　死隔幽明此別哀
들보에 달빛 가득해[8] 맑은 모습 보이는 듯　淸貌依俙樑月滿
귓가에 낭랑한 목소리 들리는 듯　琅言悄怳耳邊來
지난 일이 모두 옛 자취 되어 서글프고　凄涼往事成陳迹
눈물 속에 만사 지으니 애간장 찢어지려는 듯　和淚題詞膽欲摧

온화한 나의 유익한 벗　溫溫吾益友
마음속 얘기 몇 번이나 함께 했던가　情話幾回同
학업은 선조의 뜻 뒤따랐었고　學業追先志
아정한 풍모는 집안 유풍 이은 것이네　雅標繼遺風
어진 사람이 반드시 장수하는 것 아니니　仁人未必壽
하늘의 도리는 어찌 그리 어두운가　天道其何矇
서글프구나 평생의 일이여　惆悵平生事
송추가 밤 달빛에 덮여 있어라　松楸夜月籠

높은 풍격은 절로 사람들과 달랐고　高標自與衆人異
옥봉의 멋진 작품도 볼 수 있었네　可見玉爺徽韻存
선을 쌓은 것은 뒤에 반드시 나타나니[9]　積善由來必徵後

---

8 들보에 달빛 가득해 : 친구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이다. 두보(杜甫)가 이백(李白)을 그리워하며 지은 〈몽이백(夢李白)〉의 "지는 달이 지붕을 가득히 비추나니, 그대의 밝은 안색 행여 비추는 듯.〔落月滿屋梁, 猶疑照顔色.〕"이라는 구절에서 연유했다.

9 선을……나타나니 : 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다. 《주역

뜰 가득한 난옥[10]이 모두 무리에서 빼어나네　滿庭蘭玉盡超倫

마을에 옛 친구들 많이 있지 않고　鄉隣親舊在無多
오늘 그대 곡하니 아픔 어떠하겠는가　今日哭君痛若何
고상한 풍격과 맑은 모습 다시 보기 어렵나니　高標淸儀難復見
눈물 흘리며 슬픈 만사 어찌 쓸거나　那堪揮淚寫哀歌

척(戚) 영주후인(瀛洲後人) 양영중(梁瑩中)

-절하며 애도하다.-

집안에 전해진 시와 예가 공에게 있었고　詩禮傳家有我公
대 이은 교유에 좋은 이웃으로 함께 했지　世交兼得德隣同
책상머리 책들로 현인 자취 논했고　床頭簡帙論賢蹟
벽 위의 심도로 성인 공부 했었다오　壁上心圖講聖工
장곡리의 그윽한 난초 얼마나 애석해했던가　幾惜幽蘭莊谷里
갑자기 저승으로 가서 곡하며 놀라누나　忽驚宏哭閎泉中
강가의 외론 봉분에 가서 곡하고 싶은데　吾思江上孤墳哭
말세에 누가 마구간 말을 빌려 주겠는가　衰世何人借櫪驄

이후 일실(逸失)

(周易)·곤괘(坤卦)》의 "덕행을 쌓은 집안은 자손에까지 경사가 미친다.〔積善之家, 必有餘慶.〕"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10 난옥(蘭玉) : 자세한 내용은 325쪽 주5 참조.

원문

原文

龍城唱酬集

青春餘幾日，明月似相期。楚塞人將發，秦山去自知。風神元散朗，氣格愧寒卑。有酒誰饒我，年年此別離。

_貞海後人

仙樓此會世應稀，佳節清談與好詩。銀燭欄邊花影前，玉欄高處月輪移。平生痛飲狂歌地，今夜逢君惜別時。遙憶長亭有長恨，席邊垂柳慇相思。

_松巖

賓主交懽俗物稀，一樓除我摠能詩。晚山當檻雲初斂，清景撩人席屢移。半醉半醒深夜後，相逢相別落花時。橋邊楊柳和煙綠，欲折長條贈所思。

_碧山

長恨南來故舊稀，相逢一笑共吟詩。溪雲初合天將暝，春夜方闌月欲移。憐子得全千頃外，杷杯遙憶十年時。明朝攀折東門柳，細雨斜陽有遠思。

_村老

數月離家音信稀，惜春還賦送春詩。杯尊坐久南樓好，河漢更深北斗移。飛絮落花無定處，倦遊良會亦同時。相逢各自東西去，芳草萋萋無限思。

_李達

幾年南北信音稀，把酒春城又此詩。欹枕水聲風暗轉，捲簾花影月初移。醉來雲物渾如夢，老去情懷解惜時。莫怪夜深重起坐，別離何事不相思。

_玉峯

烏鵲橋頭春水波，廣寒樓外柳絲斜。風煙千古勝區在，詩酒一場歡意多。誰向離筵怨芳草，行看歸騎踏殘花。天涯去住愁如織，强把狂言替浩歌。

_梁大樸

南浦微風生晚波，晴煙低柳碧斜斜。山分仙府樓居好，路入平蕪野色多。千里更成京國夢，一春空負故園花。淸尊話別新篇在，却勝驪駒數曲歌。

_碧洞

淸溪雨後起微波，楊柳陰陰水岸斜。南陌一樽須盡醉，東風三月已無多。離程處處王孫草，門巷家家枳殼花。流落天涯爲客久，不堪中夜聽吳歌。

_蓀谷山人

雲天西望眼寒波，殘日依依已夕斜。樹影參差當檻亂，山光迢遞上樓多。一春離恨粘衰鬢，千里歸心怨落花。浣女不知時事異，隔溪猶唱數聲歌。

_村老

畫欄西畔綠蘋波，無限離情日欲斜。芳草幾時行路盡，青山何處白雲多。孤舟夢裡滄溟事，三月煙中上苑花。樽酒易空人易散，野禽如怨又如歌。

_玉峯

帶方古國也，樓館甲湖南。戊寅春悌自耽羅歸洛，歷訪孫明府於牙門時，玉峯白光勳彰卿蓀谷李達益之客遊在座。纔敍寒暄，乃移席于廣寒樓，又致松巖梁大樸于西村。四美二難，不期而同。或詠或觴，爲眞率之會，留連數日，悵然而散，一樓清致俱在詩篇。玉峯兒振南深有乃父風，今其絶句在錄中，比之阿買，亦云遠矣。

碧山林子順識。

大苞山酬唱錄

大苪山酬唱詩【幷序】

歲辛丑九月，余承命，往眈羅，候風于海南之公館。善鳴聞余之行，卽來相見。時伯胤，亦以體府從事，自嶺南巡海邊到縣。日於望遠樓上，成鼎足之會，善鳴忽提起大屯長春之景。明日余與伯胤，携善鳴，各屛導從而往，臨溪觴詠，終日暢敍。仍屬善鳴分書所賦諸篇以記之。高才雅韻，雖未知孰優，於永和之群賢，而茂林脩竹之勝，殆不下於蘭亭，是亦一時之勝事也。奧四年甲辰秋，善鳴從海上入洛，與余同宿幾數月之久。山齋淸燕之暇，因憶曩世之遊，乃搜出篋中舊藏詩句，點檢吟諷，醒然如昨。善鳴又要余手書兼敍顚末，以弁其首。嗚呼，當辛丑之歲，余從仕于京都，伯胤佐幕於嶺南，善鳴遙在海之南一曲，三人之相望，不啻若曉星之落落，而一夕邂逅，遂成佳會，似有夙約而趨期，不知此時造物者何心而使之聚也。旣而余入島中，伯胤還幕，彼長春之賞，雖不改於前後。善鳴方獨抱離索之憂，悄然有心飛夢越之思，其不能往來於淸流激湍之間，以臨陳跡也，審矣。不知此時造物者，何心使而之散也。今善鳴，雖與余同息於一室之內，伯胤窟遊西關千里之外。大屯之相去，杳然如蓬瀛玄圃之不可躡，雖欲致身於山中重成鼎之會足，又安可得也。 此吾兩人之所以經心怊悵感舊， 而不能忘者也。 雖然，浮生百歲，有若輕漚之汎，水聚則必散，散則必聚，悲歡舒慘之迭侵，而老隨以至焉。此又人事之常，誠不足慨也。以此慰善鳴，且以自解云。”歲辛丑九月，余承命，往眈羅，候風于海南之公館。善鳴聞余之行，卽來相見。時伯胤，亦以體府從事，自嶺南巡海邊到縣。日於望遠樓上，成鼎足之會，善鳴忽提起大屯長春之景。

頭輪寺吟呈伯胤叔度兩學士

一山秋色錦城堆，暫許仙曺學士來。殘衲亦知供好事，夕陽移席水東臺。

_右善鳴

亂甶雲嵐濕欲堆，海風將雨送詩來。行人不作留連意，日暮摳衣又下臺。

_右叔度

聞說雲山紅葉堆，偶牽幽興此中來。沿溪盡日忘歸去，爲愛寒聲繞石臺。

_右伯胤

吟贈善鳴世兄，兼要伯胤行教。

約伴向何處，大芚山裏遊。霜輕秋餤薄，樹老洞門幽。遠勢參無等，危峯眺濟州。還同隱君子，埋沒海南陬。

_右叔度

暇日抽身出，仍成物外遊。秋深山意晚，雨過水聲幽。絶過登千丈，回頭隘九州。明朝各分手，相望海天陬。

_右伯胤

天外相逢處，山中偶此遊。千巖紅葉晚，一路白雲幽。孤櫂耽羅國，歸旌古錦州。臨分多少意，落日小溪陬。

_右善鳴

再呈兩兄求和

一入長春洞，溪樓已夕暉。松潭路非遠，乘月且同歸。

_善鳴

日下無來雁，天涯怨落暉。秋風多少思，寄與故人歸。

_伯胤

海雨鳴山竹，重雲掩薄暉。居僧苦相挽，路濕不須歸。

_叔度

萬曆紀元甲辰十月上澣，清陰居士書于寂樂齋。

松湖白公，玉峯之嗣子也。玉峯公以詩清筆妙，擅名藝苑，而松湖又能趾美續聞，某詩與筆，猶顧況之非熊，右軍之子敬也。自我先曾祖已與玉峯有交好，而至王父之與松湖，則世講其好益密。既同升上庠矣而及松湖買宅漢都，則又與王父居比隣也。每松湖自南入都也，王父必同榻以處，聯枕以宿，招呼諸名勝以共文酒之會，見於詩篇書疏

者，可考而知也。王父嘗祗役耽羅，路由海南，松湖舊業在焉。時梨川李公以體府幕僚適過此，李公於松湖，亦久要也。王父間携二公，訪大芚山之頭輪寺，探詩水石之勝，各有詩以詠其事，後松湖請王父手書其詩，幷敍始末爲一通，以備後觀，又以其摹本，付山僧刻以揭之寺壁。其眞蹟則至今藏于白氏，而其副之在吾家者，逸於兵燹，嘗求之寺僧，只一見其搨紙矣。去歲，余受玦落南，松湖之孫明憲氏亟來相訪，以此帖見視，奉以展玩，手澤宛然，閱未竟紙，而淚已不可收矣。嗚呼，此書之作，去今七十有三禩，而自王父辭世，亦已踰二紀矣。追想聲容，日遠日杳，其間世道之變，又不翅百端，已足悲惋，而況余不肖無狀，顚頓至此，去大芚莽蒼之地，無由一致身於長春洞裏，以躡王父杖屨之遺跡，豈不重可悲也。玉峯松湖所與交，皆當世賢豪，其往還札翰，無不裒聚成帙，雖赫蹄靡遺，而我王父筆蹟十居六七，此帖特其一也。夫傳四世歷百年之久，而能保而不失，若白氏子孫，可謂善於嗣守者矣。觀乎此則吾兩家世好之誼，亦可不待勉而無怠矣。然自今以往，年愈久而世愈遠，則懼其後生者之或怠也，遂略述先故，且志余所感，以書于下方云。

崇禎紀元後丙辰中冬，不肖孫壽恒，敬書于朗州之纍舍。

大芚松潭記遊

大芚海南之名山也，中有寺觀之盛水石之好。又多奇花異樹，雖窮冬大雪，而丹葩翠葉，交映於一山，如春無異。名其洞以長春，盖以此也。自長春，循大川，而下至十里許，有所謂松潭者，卽松湖白公之菟裘，

而今爲其外孫所有者也。潭之爲勝，據湖海溪山之會，帶陂池，水竹之繞，橘柚之實，蓴鱸之味，亦無所不有，居然有吳越間風氣云。由是，大苪松潭，益擅勝於南國，人多遊賞者，然其間騷人墨客之往來者，前後何限而皆蔑蔑乎無聞。獨我先曾祖文正公，嘗以御使入耽羅也，路由海南，乃與松湖公及梨川李公，聯翩往來于大苪松潭之間，窮海山之勝 極觴詠之樂，至今傳之爲勝事。其酬唱諸什，尙傳于世，吁其盛哉。余每從先祖集中，讀其詩，想其事，欲一致身於其地，而海山千里之外，顧無所因以至焉。及我家君受玦來朗州，朗之去大苪松潭卽一莽蒼地耳。松湖之曾孫白君夢參甫，每來見余，輒爲余道其勝，亹亹不已。余益欲往一觀，以償所願焉，而人事之所推奪，造物之所魔戲，有約而不成者，已四載矣，未嘗不悵想也。今歲中夏，與舍弟昌翕昌緝，携一二同志，始往游焉。歷訪白君於玉川村，要與之偕，則白君昆季，欣然從之，遂至所謂大苪山者。其寺觀之盛，水石之好，及其花樹之奇異者，一寓目而盡之已。又出大苪而至松潭，潭之上有亭，翼然出乎梅竹橘柚之間。一登其上，則溪山湖海之勝，盡在於此矣。余於是，與諸君眺望而樂之，仍戲欷而語曰，此皆吾先祖與松湖所共遊之地，而向余之所嘗欲致身而不得者也。今我家君之南，爲固非幸也，而余能因此而得躡先祖杖屨之迹，乃於海山千里之外，始償其平生之願，則豈非不幸中之幸也耶，況先祖之與松湖遊者，今已七十有八禩矣。其間世道人事之嬗變，固不翅百端，而獨有海山之勝，宛然如昔日，能使其兩家子孫，又同其遊，以續其遺事，則尤豈非難得之會乎。嗚呼，吾與白君，累世之交也。世好之誼，固不待於今日之遊而已深矣。然兩家子孫，復會於兩家先祖所共遊之地，其想像追慕之懷，有倍於平日，則吾與白君，益勉其世好者，其不由於今日之遊耶。是

固不可無一語，聊書此以識之，仍與舍弟輩，各賦詩數章，而又追步先祖酬唱諸韻，誠知僭猥之甚，而只欲其記一時之迹，寓小子之感也。非謂敢風流文雅之盛，追先輩之萬一也。安東金昌集記。

大芚山感舊

吾曹乘槎到海濱，暫從湖老入長春。紗籠壁上詩猶在，蠟屐山中迹已陳。勝景卽看同昔日，風流敢道繼前人。依然古樹斜陽裏，怊悵携君躡舊塵。

_昌集

次

江南奇樹澗之濱，蒼翠山茶春復春。但見雲霞長窈窕，不知巖谷變新陳。丹靑寶殿誰題壁，山水淸音古有人。携子遠來登望意，並從此地訪遺塵。

_昌翕

伏次先祖酬唱韻

寺門松柏白雲堆，想見前人樹裏來。愛是川流猶九曲，徘徊且欲坐

香臺。

齊出長春谷，漁城眺夕輝。山遊接湖海，可復採蓮歸。

松湖及我祖，歌有大茝遊。宿昔梅花贈，佳期桂樹幽。古隣聞北嶽，奇迹見南州。卽事招提會，携君又海陬。

_昌翕

洞天松檜翠成堆，度盡淸溪九曲來。暫向高樓爲少憩，夕陽山色滿前臺。

老僧挽客道，山日欲西暉。已掃溪邊榻，何妨一宿歸。

五月長春洞，綠陰佳可遊。山回溪有曲，樹密徑通幽。僧出頭輪寺，人從古朗州。高樓飽淸賞，忘却在遐陬。

_昌集

松潭書贈主人李君

平湖東納大茝川，川夾長松十里連。始至八窓浮遠海，忽排千竹坐南天。主人飯有吳中茆，遊子歌成魚戲蓮。北客徘徊稀到此，尙思吾祖賦詩年。

橋下漁城自有川，碧波島嶼迴相連。商帆入浦通千里，海雨隨風散四天。李老平泉無改石，白翁廬嶽尙生蓮。湖居好是前人樂，君但優遊可忘年。

_昌翕

次

長春洞裡出長川，流到漁城與海連。山繞野頭看似畵，樓臨樹杪坐如天。驚風盡亞千竿竹，急雨齋鳴萬柄蓮。吾祖昔曾來此地，勝遊今復續當年。

_昌集

危樓出樹對長川，川水悠悠滄海連。漁浦西廻無外地，頭輪東起極天高。巖開一面皆生竹，池俯千尋盡泛蓮。形勝江南看欲遍，壯遊還少子長年。

_昌緝

伏次先祖次人韻

漁城接湖海，快閣俯溪山。菜茆香盈筥，綸魚膾滿盤。人間無此勝，物外笑高官。游客時相訪，開樽語夜闌。

策馬出春洞，松潭入望來。樓從深樹起，潮帶夕陽回。曲逕行穿竹，危巖坐佛苔。沙鷗欲相近，却恐見人咍。

_昌集

白翁昔高臥，開鑿是丘山。遠意聊觀海，酣歌或考槃。池荷思製服，鱸膾愛休官。所植園中木，猶看青且闌。

_昌翕

江南可訪舊，行傍大芚山。深澤蓮千葉，長橋水九盤。尙思文祖過，云自繡衣冠。撫迹偏多感，憑軒意未闌。

_昌緝

大芚山次韻

頭輪秀出海南濱，琪樹瓊花四節春。物外雲煙猶未改，壁間詩筆摠成陳。同來訪水尋山客，俱是傷時感舊人。手把兎毫題數句，百年今日續淸塵。

千年山岳半空堆，九曲溪流一派來。往事蒼茫雲水白，夕陽愁倚古禪臺。

石古苔生逕，林深不見暉。溪樓尋舊蹟，日夕浪吟歸。

詩酒頭輪話，慇懃繼昔遊。峰巒依舊秀，洞壑至今幽。東北金陵縣，西南古沃州。他年京洛去，須憶會山陬。

_夢參

松潭次韻

劃野橫流一帶川，滔滔千古海門連。池邊松竹圍平地，檻外峰巒聳半天。詩酒生涯傳白屋，文章家世自青蓮。東南賓主今宵會，遠續皇明萬曆年。

門臨漁浦水，簷接大茫山。喚枸春生面，割鮮海入盤。江湖知有樂，時世不求官。幸得吾君至，挑燈到夜闌。

多君探勝概，連袂此中來。野樹蒼蒼遠，行舟歷歷回。川明皆白水，石老半有苔。舊墅今爲客，人間事可咍。

戊午中夏上澣金昌集書。

北歸之後，便信莫憑，懸懷與日俱深。伏惟至寒僉侍履萬安，馳傃無已。弟往來峽裏，僅免疾患，親庭亦姑安穩，是爲幸矣。但一落京洛，海山渺然，回首舊遊，有同隔世事，令人翹首南望，未嘗不懸懸也。 大茫酬唱詩中貴作， 今始寫呈， 而但本以拙筆， 又用惡毫，僅得成字，可媿可媿。萬萬非遠書可旣，只冀僉以時加愛。伏惟僉照亮，謹上狀尊丈前。忙未書候，罪恨罪恨。酬唱詩追書者，與前

去者，連付如何。

戊午至月初七日世弟昌集頓。

余聞金君白君，同遊於大芚松潭之間，而惜余未從焉。今者，白君遠訪窮峽，仍示余記遊諸作，余想其勝槩，誦其佳作，尤不覺此心之飛越也。遂次其韻，以攄鄙懷，續貂之譏，烏得免乎。

南國名區說玉川，大芚流水海門連。邇來魂夢松潭月，歲暮棲遲赤壁天。未伴王喬雙跨鶴，空思太乙竝浮蓮。逢君聽得湖山勝，忘却殊方夜抵年。

歲在戊午中冬下浣，世弟嘉林趙正萬定而，書于福川書齋。

余閒居江樓，一日湖南白生徹源季深，携大芚酬唱一卷以示余。余謹閱之，蓋生之先祖松湖公，吾先祖文正公，各爲詩幾首，吾先祖手寫一通，而曾祖文忠公後自題跋語以附之。至松湖公孫，與吾伯祖忠獻公兄弟，復續當日之遊，所唱和諸作，又用文正公故事，手寫以歸白公。噫，兩家祖孫，先後邂逅於海山千里之外，跌宕名區，相與賦詩爲樂，文雅風流，照耀一世，可謂盛矣。而至今百有六十餘年之間，滄桑屢遷，而篇翰無恙，墨光如新，使萬死餘生，得以摩挲咨嗟，非白氏諸賢勤於世守，又何能如是哉。兩家交好之篤，於是亦可見矣。繼今以往，雖百世無相忘可也。余老矣，念無以自致於長春洞中，以訪遺跡，則只書此而歸之而已。悲夫。

崇禎百三十五年壬午仲夏初吉，

文正公五世孫元行謹書于渼湖之秋水軒。

右大苧酬唱錄，藏[1]于淳昌白君師健家。君之先祖松湖公，與先祖文正公相善，嘗同遊于海南之大苧山，而有此作。逮我伯曾祖忠獻公兄弟，又與松湖之孫遊此地，兩世詩文，合爲一卷，而其筆則皆文正忠獻手蹟也。卷中又有高祖文忠公暨先君所爲題跋。白君袖來示余，盥手敬玩，怳如躬陪杖屨于長春洞裏，仰覩先輩風流文雅之盛，而有兩家世好之篤，於此亦可徵矣。惟是歲月悠邈，人事屢變，孤生僅存，自不勝俯仰傷感，而白君亦已棄其筆硯，赳然爲跗注之君子。噫，一盛一衰，亦理之常。惟百世無相忘之義，先君跋語存焉。此則吾後人之所共勉也，旣以告白君，仍題卷尾，以風來者。

崇禎三周戊申季春下澣，文正公孫履安，謹書。

白君師健氏，訪余安洞之居。袖一帖而示曰，子與吾有世好，卽此帖可知也。仍求余題末。蓋吾先祖淸陰先生與白君先祖松湖公，相酬唱於大苧山，繼有吾家四世筆蹟以記其實。當時雅契之篤，風流之盛，一展卷如獲躬陪者。於是，與白君俯仰感歎曰，君與吾，其有不可忘之誼也。然非有此帖，吾何以知之有是好，而不能講其好，則是棄舊好也。棄舊好，可乎。是帖之見於今日，恨其晩也。白君能護遺墨於百變之餘，尋舊誼於千里之外者，亦足以見白君世傳忠厚之風，而至君身，又克紹不替，如是也。將以是益垂戒於吾兩人者之子孫，而亦可矣。臨歸遂書以相勉。

戊申季夏金履度。

---

1 藏：《장춘동수창록》에는 '答'으로 되어 있는데, 김이안(金履安)의 《삼산재(三山齋)》에는 '藏'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번역했다.

輓詞

玉峯先祖時 壬午年

雅度澄壺月，淸詩脫轡銜。命窮違素志，官薄困靑衫。旅舍驚辭世，秋風未掛帆。靈輀明日發，老淚灑天南。

_吏曹判書李珥【原輓所書官爵減而書】

不見紫芝面，先知白玉峯。筆蹤追晉法，詩律襲唐風。雅潔元離俗，迂疏不諱窮。誰言欠知命，一疾遽云終。

_礪城君宋寅

海內悠悠知己少，惟君與我夙心親。湖山未遂連墻約，幽顯飜成隔路人。紫陌風埃歌激烈，錦城煙雨淚酸辛。遺孤受托非無事，奈乏劉家德義新。

_全羅觀察使鄭澈

半生長夢水雲閑，槐却歸心到玉山。灑落精神元不死，詩聲筆跡滿人間。

_刑曹佐郎丁景達

殘書破硯隨孤櫬，迢遞羈魂渡漢津。從古有才多命薄，謾敎奇寶委荒塵。

_領議政朴淳

絶藝沖襟世共知，旅游潦倒一官縻。關心阻隔鄉園日，復魄淒涼邸舍時。遺墨靜看疑邂逅，孤蘭忍對宛容儀。偏傷廿載論交地，哭送江南白盡髭。

_敦寧直長李義健

筆得鍾王妙，詩羞魏晉卑。家貧事遊宦，身老憶妻兒。旅櫬南歸日，戎旌北去時。人間便永訣，泉下是交期。

_鍾城府使崔慶昌

近代論才子，徵君獨出羣。有誰追古調，無復覓遺文。玉樹終黃土，青山但白雲。惟餘祭淸酒，寂莫瀉孤墳。

_海南縣監林悌

子年十四我十六，誓言相好南海濱。負笈尋師與子同，博山煙月經三春。骨法迥然氷照霜，逸才超騰猜與獜。筆敵右軍詩孟郊，詞壇高步第一人。浮雲富貴樂天放，藥田閑日甘頤神。湖山風景領瀟灑，怡怡林下羲皇民。 玉韞珠藏自難掩，一官非是名利身。 朱門高戶掉臂過，野性不合超風塵。落落奇懷付長嘯，靑衫十載空輪囷。大荒借留韓昌黎，上界應思王子晉。孤魂一夕駕風昇，爲欲挽之嗟無因。不但朋儕慟私情，朝端從此無良臣。鄉關千里杳何許，寂莫草廬三逕陳。爲作悲歌送子柩，獨立天末增酸辛。

_鐵原縣監尹箕

每擬輿桑契，相傳幾首詩。爲貧雖或仕，知命不隨時。慟哭終何及，

傷心殊未持。空餘玉峯月，猶照舊松枝。

_梁山逈

浮沈傷末俗，君獨任淸眞。屬語詩驚世，揮毫妙入神。命刊蘭稧事，天促玉樓新。惆悵知音少，論文有幾人。

_延曙察訪李忠元

玉峯標格何瀟灑，祕閣論文滌我襟。底事飄然遺世慮，最憐湖外未歸心。

_著作李一元

祭文

湖海相聞，天月盈盈。塵中邂逅，茝蘭之馨。蓮翁門下，歲暮交情。薄宦消沈，可憐芳名。仙遊何遽，千里孤旌。形緣詩瘦，命被才憎。郊寒未尉，島窮非僧。彷徨秦楚，蘗泉漫漫。食薺腸苦，强歌無懽。一哀蒼茫，江漢何極。來陳蕉荔，庶歆衷曲。嗚呼哀哉。

_安李好閔

惟靈，煙霞性癖。湖海詩情，秋水精神，野鶴癯形。外秀淸溫，內植忠貞。吐詞蘭芬，玉振金聲，聘于南服，卓爾其名。庶幾大鳴，闊步雲程。詩窮爲祟，白首相隨。末路風埃，素心多違。酸寒何說。斗祿爲欺。十年爲郎，兩鬢如絲。凍臥賃屋，詠夜何其。豈子素志，貧

實爲之。半世相知，肝膽炯炯。共沒塵臼，歸思雲迥。相見無幾，城市多營。一旬不見，遽隔幽明。臥病經旬，久稽奔哭。黃汚一勺，詎盡心曲。嗚呼哀哉。

_監察安敏學

岐山秀汭水明，惟子之氣。詩歌淸筆法妙，惟子之才。樽酒論文，肝膽古劍。廿載同襟，南到錦城。靈輴不發，神遲巨卿耶否。嗚呼哀哉。

_全羅觀察使鄭澈

淸淑之氣，英澈之材，羣鷄一鶴。迥出塵埃。書法鍾王，詩追甫白。片言隻字，惟金惟玉。挺出淸時，聲譽夙彰。命官登朝，錫以寵光。婆娑都下，客枕凄涼。嘯懷歌志，鄉夢屢驚。樊籠雖縶，山野其情。膏火自煎，疾病是嬰。如何一夕，蘭摧玉折。崎嶇旅櫬，千里南國。顧余菲質，早自從遊。錦水秋淸，與共逍遙。追惟舊別，宛然春夢。車過此日，激我傷慟。臨奠撫孤，悲號熱中。儀形雖隔，神氣則通。不亡者存，歆此微衷。

_淳昌郡守金千鎰

松湖先祖時 己未年

江海棲遲四十秋，孤雲獨鶴共悠悠。源流家學工詞翰，迎送皇華困置郵。入孝出恭人不間，有才無命理難求。耋親將養慈孫代，寃結重泉慟未休。

樂天亡後有賢才，兩世交情倚老萊。渭水江雲常望遠，春氷臘雪永含哀。三年陳跡清詩在，十幅新牋絶筆來。金鐵精剛何遽損，應知越女禍成胎。【金鐵精剛何遽損，作豈弟平生神所勞。應或作誰。】

_世交青松老累【沈喜壽】痛哭【遙挽】

蓮翁門下聯崔白，崔白連亡古意荒。今日天涯君又去，新春郊外我偏傷。典刑最想鍾王法，基業能存橘柚鄉。向得留書多喜懼，此心何忍背萱堂。

_南郭老人【李好閔】哭

玉峯之子傳箕業，二絶皆言冠海東。今世鮮能知筆訣，昔人多是坐時窮。西行袂接煙花裏，南極書來氣槩中。鶴髮在堂蘭奄折，獨將衰淚洒春風。【氣槩當作瘴雨。鶴髮在堂蘭奄折當作鶴髮堂前誰戲綵。獨將衰淚洒春風當作天邊老淚洒春風。】

_晉原柳根【拜挽】

晉筆唐詩父子專，瓊琚一出萬人傳。青雲路隔難通籍，白玉樓成促上仙。毫管謾留王氏塚，星虹應炤米家船。年年橘柚秋霜後，無復清香帶錦牋。

待罪南郊月沙病友李廷龜【哭】

右軍本瀟洒，大令有遺致。道存目擊間，千里心相委。尙憶鷺江別，危途見高義。窮峽與世隔，悵望徽音閟。浮生無根蔕，幽問吾何忍。江海失嘉遯，少微精光隕。空餘水竹居，表此徵君迹。雪涕洒南雲，萬事付冥漠。

_東陽申欽【哭挽】

南國名家裔，英聲動洛師。風流傳父子，翰墨繼箕裘。未遂烏哺願，纏鶴髮悲情。青氈幸有托，雅望屬賢兒。

_資憲大夫戶曹判書崔瓘【拜挽】

仙山遊賞十經春，不道君爲泉下人。湖外未能參執紼，謾將雙淚獨沾巾。

_資憲大夫刑曹判書張晩【拜挽】

華國高才惜，辭官隱德加。煙霞曾遯跡，詞翰卽傳家。萬事都歸幻，浮生便有涯。幽音自湖海，擧世共咨嗟。

_東陽申翊聖端拜題挽

吾君湖海士，襟韻苦超越。長我五年多，同方又連閥。鄉解少年時，

追遊比鶼鰈。高才邁家風，壯懷隘溟渤。大鵬搏扶搖，天馬蹴月窟。詩名動鰈域，筆法擅版碣。平生致君策，只欲獻金闕。齊門幾操瑟，楚璧三逢刖。落拓世不羈，棲遲老耕岱。松湖靜散地，綠竹間清樾。左右擁琴書，蹤跡絶參謁。豈知采薪憂，一夕成奄忽，前冬掃先壟，邀君郵使發。未達訃先至，慟哭酸我骨。縱思撫棺呼，柰如行倉卒。幽明永相負，此恨未應歇。吾衰纔半百，執友俱淪沒。斯人又至斯，浮世何卒卒。壽福固難必，天理堪嗟咄。謝庭二玉樹，高堂一鶴髮。春雲罷遠望，屋樑餘寒月。新阡杳海曲，南紀阻歸筏。遙將數行淚，添送春波滑。

_資憲大夫知中樞副使金存敬【哭挽】

暮年青眼漢城春，玉節氷操洗耳人。落月屋樑顔色隔，薤歌一曲淚如泉。

_海南舊倅鷺潭居士辛景行【哭挽】

羲之家法獻之傳，幾處虹光夜燭天。垂淚今朝披故篋，不堪從此斷朱絃。

當年聯騎逐東槎，共賞龍灣館裡花。今日存亡俱一夢，天涯回首淚橫斜。

雲濤杳杳南天遠，千里音書待雁傳。叵奈不傳安穩字，只傳哀怨挽詩聯。

人生脩短同歸盡，況是君過半百年。惟恨慈闈鶴髮在，彩衣無復舞華筵。

_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玄成【拜挽】

家在海南地，生丁甲子年。愛親常愛日，思孝卽思先。敦睦人誰間。才華世有傳。多貲非所尙，能散是爲賢。歲暮梅將發，天寒病與纏。遐方終不救，哀淚自無邊。男女痛何極。兒孫啼滿前。萱堂八十壽，君去轉凄然。

_宋英耉題

孝子深知父執悲，一封千里乞哀詞。江南水竹今無主，海上琴樽已斷詩。內史家傳推妙筆，襄陽自棄枉明時。凄凉三十年前事，二百人中幾箇遺。

_海興尹暄【哭挽】

曾聞消息慰相思，豈料斯人遽至斯。燭下論文如昨日，篋中遺跡尙平時。淸姿拔俗林園穩，雅禮傳家士友推。惟有重泉無限慟，萱堂誰作戲斑兒。

_嘉善大夫行龍驤衛上護軍曺倬【哭挽】

觀國頻隨計吏遊，一時傾蓋盡名流。存亡忽隔那今日，札翰重尋是去秋。詩逐南船過碧海，墨留東絹散靑丘。江潭草色還春意，獨立天涯淚未收。

_友人順天金鎏【哭挽】【尋一作披】

萬事人間雙涕垂，哭君今日更天涯。誰知壽命偏相促，每恨功名獨自遲。翰墨遺風長已矣，丘園淸趣忽悽其。春來不見梅花信，只有音容夢裏思。

有才無命欲誰隣，虛擲名聲半百年。蓮榜同升曾忝竊，星槎獨步早聯翩。汭陽高會長歌裏，洛北淸遊痛飮前。欲撫稽孤報知己，更堪陶姥鬢皤然。

_前監司李春元【哭挽】

鍾王筆法盛唐詩，玉老天才絶代奇。從事白衣聲早繼，書名黃紙計終違。

每年陸橘遙投我，今日江梅靜對誰。鶴髮兩家俱八十，不堪南望涕頻揮。

_嘉善大夫江華府尹李安訥【拜挽】

憶昨揩靑眼，雙溪石洞春。音容纔隔歲，哀挽忽沾巾。海內人誰在，湘南跡已陳。平生右軍筆，不復見傳眞。

_嘉善大夫兵曹參判李弘胄【拜哭】

兩世交情膠漆幷，中年聚散雨雲同。天涯病裏聞凶耗，楸月淸宵淚曷窮。

_地上老友西浦遷客尹惟幾【抱病泣挽】

五十六年同甲子，每憑樑月慰相思。可憐無病先多病，安得新知似舊知。羲獻風流餘寶墨，海山松竹鎖臨池。茫茫天道胡寧忍，朝夕門閭鶴髮垂。

_南郭病友朴東說【哭題】

千載鍾王法，君家父子傳。凌雲人未老，脫帽世驚顚。幾惜江湖落，偏知孝友全。孤墳連筆塚，花竹又新年。

_年弟鶴谷洪瑞鳳【哭拜】

悠悠往復三生石，命福皆書七寶堂。八耋較來年莫促，一名高處壽還長。門庭孝友通人膜，簡牘絲鱗動鬼方。千里旒旗攀不及，老夫和淚寫哀章。

_通政大夫行廣州牧使廣州鎭兵馬僉節制使全有亨【拜挽】

戀嫽何曾釋，關河歲月遙。承凶驚玉折，隔遠但魂消。世路多貽阻，泉閭有可招。青山與流水，從此爲誰調。

_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韓懷【奉挽】

草聖淸癯作世規，新聲籍籍豈惟詩。掃除變化浮雲亂，模得森嚴鐵索奇。與子家尊爲甲乙，較鍾王後莫何誰。可憐風雨今應歇，無復蛟龍紙上馳。

曾佩銅魚宰朗州，玉泉山下得遨遊。已知筆法承家世，更覺詞華出輩流。才不登名元是命，仁無遐壽竟誰尤。老天好管多人死，可忍

慈闈哭白頭。

_通政大夫分承政院承旨知製教趙纘韓【拜哭】

美珠生海價連城，筆陣詩壇第一名。半世論交心莫逆，今朝題挽涕先橫。荒山何處安眞宅，餘慶應知在後生。最是九原難暝目，八旬慈母隔幽明。

_前行安東大都護府使高用厚【哭拜】

平生行義玉山高，詞翰承家氣勢豪。才命不諧天奪速，報施吾欲問仙曺。

松湖亭上醉花前，回首淸遊已五年。世事卽今成一夢，故人南望哭臨川。

_通訓大夫軍資監正知製教南以雄【哭挽】

湖海曾聞白玉峯，淸詩妙墨繼高蹤。君無寸祿霑科第，人各盈箱玩筆鋒。家學尙留傳緖業，親闈寧復接聲容。松湖泠落誰相問，怊悵春山馬鬣封。

_滄洲道士車雲輅【拜哭】

八十親年最可悲，庭萱無主樹風危。蕙蘭一女閨中秀，鸞鵠雙男世上奇。荷浦烟霞已寂莫，松湖鷗鷺亦携離。襟期却笑雷陳薄，衰疾從今與子悲。

少日壎篪結弟兄，曾將意氣兩知名。狂吟橘屋時催鉢，細酌松村屢促觥。病裏可尋鷄黍約，老來徒切淅膠情。寸心若變有如日，會向靈帷寫此誠。

_朝散大夫前行成均館直講知製教尹光啓【哭挽】

詞華墨妙舊弓裘，玉樹淸標迥絶儔。千里神交勞夢想，一宵來訪共衾裯。仍嗟音問違江渭，寧識生涯付壑舟。怊悵松湖餘物色，祗今誰復管風流。

_同庚友前成均館直講玄德升【遙哭】

世道日交喪，汩汩趨末俗。孰竝古人交，纔看君我獨。懽好自故先，款愛彌悃愊。疇昔處北巷，君廬比我屋。軒階咫尺地，窄甚不容足。君能廢其宅，供我栽花木。我乃感其意，貸地仁王麓。名園本爽塏，深谷喧湍瀑。追從亦便近，杖屨可往復。年前忽被譴，塞路阻鄉國。尺札枉千里，苦語不堪讀。東遷幸相望，眉宇在我目。寄書訴離懷，方將待回覆。一病亦未聞，如何遽無祿。久矣天理乖，善者不以福。我齒尙未老，良朋相繼哭。子當半百年，厭世胡大速。兩孤乞哀詞，悲號走一僕。眞知不死親，意及幽明篤。一句淚一行，字濕不成畫。鶴髮在高堂，念此腸逾毒。勁筆折金節，淸詩削昆玉。遺跡賁人寰，孤墳邈海曲。餘生免葬魚，枯抱寫賦鵬。故園儘蕪沒，春深冤葵綠。蕭條作隣計，更待他生卜。

_歲己未二月十五日，書于淸河縣河東城西栴棘中，名氏【趙希逸】。不足煩英靈，必有知，痛哭拜題。

邂逅輝陽館【光陽】，論詩共醉眠。他鄉逢故友，一別隔重泉。忍見鍾

王字，休彈山水絃。平生珍重意，痛哭望南天。

進士聲名重，翩翩濁世賢。人間傳草聖，天上促詩仙。高義層雲薄，清標玉鏡懸。從今詞翰絶，寂寞此朝鮮。

_漢陽玄谷後人趙緯韓【哭挽】

江湖前夜望，月犯少微星。存沒傷吾道，文章憶典刑。草生埋筆塚，塵暗換鵝經。獨有山陽淚，新霑遶座屏。【書于南利，卽海南地驛名。適公墨蹟在屏，尤難爲懷。】

_行司直李敏求【拜挽】

泯接香山瀉性情，家傳翰墨繼名聲。世間瓊樹雖連出，天上玉樓何處成。不忍庭闈鶴髮在，那堪屛障鳳毛明。佳期幾負秋鷄黍，白馬今慙范巨卿。

_通訓大夫光州提督官洪千璟【哭挽】

在世翻如夢，斯人又至斯。飄零爲客處，悽愴哭君時。尙忍題哀挽，尤感憶舊儀。蘭亭繭紙帖，何路更看之。

_任叔英【哭挽】

家世淸眞等右軍，綵毫揮處落烟雲。紅蓮綠水吟詩幕，玉檢金泥頌德文。酒肆人間成一夢，舞衣堂上迫西曛。緘辭千里臨江哭，淚濕羊欣白練裙。

_禦侮將軍行忠佐衛司果文兼宣傳官高傳川【哭挽】

南極文星動紫垣，大爺詞翰萬人喧。驊騮墮地能千里，鸞鶴昂霄已九原。玉版金書懸日月，落花飛雪滿乾坤。休誇羲獻傳神妙，爭似君家祖子孫。

_延安李明漢【拜哭】

白子埋南郭，泉程入海斜。江湖志士涕，風雨故人嗟。大器終無命，浮生正有涯。軒昂高意氣，洒落盛文華。妙筆追先業，清風屬乃家。麒麟仍好子，蘭蕙有芳芽。南國聲名擅，東山逸趣賒。平生良友是，此日棄余遐。篋笥餘遺草，池臺自落花。影寒新乳鷰，聲愴舊慈鴉。地府脩文遠，　高堂色養差。凄涼身後事，孤塚帶殘霞。

_咸平後人盈陽李敬元，在金陵，痛哭書送。

秀士生南紀，魁梧廊廟姿。清詩眞白也，妙筆小羲之。丹穴雛皆好，斑衣舞亦奇。無端摧玉樹，千里哭緘辭。

_寧城後人嚴惺【拜挽】

國朝炳靈，詞匠輩英。有崔有白，鉥心鉤情。爭以詩鳴，春金撼玉。郊島齊聲，鍾王傳芳。稱家鸞鵠，筆陣墨兵。蛟躍鳳蹌，散在金石。敗素古藤，價越金嬴。人重珙璧，娛嬉半生。富貴雲輕，杜門湖曲。一名未成，二竪交嬰。年纔半百，西日將傾。舊筍空青，存亡悽惻。塵埋短檠，草沒脩庭。圖書寂莫，雨濕丹旌。晝閉佳城，幽明永隔。顧此乖慵，登龍間瓊。粤自誰昔，聞訃魂驚。短詞寫誠，用代葯束。

_烏川鄭弘溟【拜書】

白玉峯名胤，青蓮去後姿。頭輪元氣返，滄海幾人悲。蕪絶鍾王筆，凄涼孟賈詞。窮天有遺痛，慈母倚門時。

家韻梧兼竹，仙風鳳帶鸞。孤魂已天上，餘響落人間。夜雨何堪聽，春雲不忍看。途窮白髮短，淚盡暮江灣。

_驪陽後生剡湖陳景文【奉挽】

累弟書來至，公亡此夕聞。銷魂向落日，慟哭望歸雲。二妙應傳筆，偏慈斷倚門。傷心茂陵月，虛照舊文君。

_龍溪李榮元【謹挽】

愛我惟兄耳，知兄孰我同。箕裘眞筆法，孝友乃家風。生死幽明隔，音容夢寐中。想應泉下恨，曾養未能終。

_通家弟鄭韸【哭挽】

少日登門忝受知，慣承佳誨去毛皮。傳家筆法通神妙，耀世詞華絶等夷。千里海山芝宇隔，一場梁夢壑舟移。新阡無計遶茅酒，目送南雲淚自垂。

天遣英豪出海隈，風聲獨擅古今來。人間縱欠攀蟾桂，物外猶能管竹梅。詩禮有傳庭玉潤，已辰居歲隙駒催。林園遙想春無主，忍見高堂鶴髮哀。

_安東金光爀【再拜哭挽】

公年一歲少於吾，迨老衰强略不殊。杜櫟殘春餘幾日，文星明彩惜先枯。芳傳謝樹聯雙寶，哺反烏枝欠一雛。吳下陳蹤詩句在，夢魂從此阻松湖。

_幼學李元胄

詞翰傳家業，羲之有獻之。寶書有琬琰，佳句動京師。湖甸三年別，泉臺萬古悲。篋中遺墨在，披閱淚雙垂。

_金城後人李碩基【哭挽】

却把青氈付白眉，浮生半白夢依俙。家家屛障從今貴，世世清修振古稀。松浦風煙餘釣艇，玉泉花月掩苔扉。高堂鶴髮誰溫情，應有孤魂寂莫歸。

_承議郎全州敎授兼提督屬校官梁亨遇【哭挽】

祭文

維萬曆四十七年歲次己未四月甲寅朔十八日辛未，朝散大夫前行成均舘直講知製敎尹光啓，謹遣從弟繕，敬祭于亡友成均進士白君之靈。

嗚呼哀哉。我之與子，相知幾年，子總其角，我冠其顚。昔爲雷陳，後又潘楊。邂逅一飮，身世兩忘。昨往今返，城東郭西。逮子結茅，長伴鳧鷖。或騎或輿，每訪幽棲。荷浦之蟹，松江之魚。朝醉君家，

暮還吾廬。白首相從，歲晚爲期。如何此日，奄至於斯。嗚呼哀哉。萱庭已矣，鶴髮垂垂，晨甘夕旨，孰主張尸。追惟曩昔，伏臘歲時，烹羔獻酒，鼓瑟吹笙。鄉黨稱孝，里閈謂榮。以志養志，安用三牲。薤露溘晞，何日瞑目。徒虛語耳，爲善者福。嗚呼哀哉。有弟在鄰。有妾在房，鴒原寂莫，鸞鏡悲凉。所可幸者，繼志二人。玉樹謝庭，天上麒麟。死而不死，袞袞家聲。嗚呼哀哉。筆法之勁，句律之精。鍾王北面，李杜爲兄。爲人必忠，待物以誠。耻言過失，父母其名。酒量恢恢，終日無疵。夫我何言。口口皆碑。嗚呼哀哉。吾年已老，今已再甲。志氣凋耗，毛血枯涸。其在于世，而能幾何。况復耽酒，今已成痾。一月三十，數日纔醒。自此追隨，庶指冥冥。聞君之訃，泣涕交零。遷延時日，未哭靈筵。旣駕中止，衰老所牽。幽明兩負，彼蒼者天。嗚呼哀哉。斂不憑屍，窆不臨穴。所祟伊他，半世心疾。聞跡則驚，聽語若失。可憐人世，永爲棄物。寸心若變，白日照之。褰子之帷，進我之巵。秋風病蘇，萬一可期。玆遣從繡，往奠一觴。靈乎來哉，歆我衷腸。尙饗。

維萬曆四十七年歲次己未三月甲申朔十七日庚子，通政大夫行平海郡守權啓，謹以緜漬之菲薄，遙奠于故成均進士白君之靈。

嗚呼哀哉。人惜其才，我惜其人。人悲其死，我悲其親。千里晚聞，眞耶夢耶。敬致微禮，以哀以慟。嗚呼哀哉。尙饗。

萬曆四十七年四月八日，友人咸平李敬元，祭于亡友白君之靈。

嗚呼白君。靈豈不知。海內親朋，非我其誰。豈惟故先。風期可論，
文章交契，神道具存。漢北詩壇，湖南酒樓，快意花月，三十餘秩。
昔在丙戌，國光初覲。君頤始鬚，我顚纔冠。隸業城西，連床共被。
緇磷既去，膠漆自比。我友之交，宜古人求。誰能末路，終是悠悠。
嗚呼白君。天不以祜。白君有志，非不如古。白君有才，豈不如今。
善而無位，天理難諶。飛騰逸趣，卓絶高義。放情丘園，遺外聲利。
詩兼陶謝，筆凌鍾王。浪跡蕭散，長謌激昂。嗚呼若人，寔我高友。
每揖清芬，終期白首。風霜難保，我作秋葉。一謫萬里，關塞重疊。
羈魂迷路，雪嶺難越。骨肉阻隔，音書斷絶。舊友參商，邈矣雲樹。
惟君高義，不以禍懼。尺札頻傳，遠問窮愁。深情耶重，厚意綢繆。
一柄圓扇，數行悲辭，開緘三復，有淚盈腮。殊方得此，入懷昆玉。
路遠人稀，一字難復。白足南歸，詩篇幸付。報章雖遲，中情以吐。
去年十月，虜窺北陬。朝家量移，我得此州。所喜何事。適近君家。
懷君涉遠，望君來遐。長途苦險，雪暗如沙。隆寒月餘，始到南涯。
玉山在眼，金陵不隔。東西相望，路貫支石。朝馳夕返，君不厭頻。
初非擇就，幸此依仁，又非偶然。天實所與。殘骸有托，涸魚得所。
樂矣茲土，庶免窮獨，令子來慰，初審泣竹，吾弟往候，後諦負薪。
如何一疾，卒至無因。愛客臨門，劇不能迎。我聞此語，旣憂且驚。
不浹五日，凶訃遽至。嗚呼白君。是何天意。胡爲以君，與奪於我。
使我來南，與之何果。來卽喪君，奪之何易。何其與奪，於我獨異。
我來君去，速如避仇。嗚呼天乎。何不上尤。青眸未接，良覿終乖。
地下長恨，人間永懷。嗚呼白君。人事良嗟。我幸不死，哭君何耶。
我死宜早，君哭當先，捐軀之日，鍛翮之年，萬死無惜，全生未料。
邊沙埋骨，旅魂應招。其無此時，君哭我屍。吾君靜養，理宜延期。

我經刑囚，筋力全衰。孰謂餘生，反哭吾君，康君尙然，病我奚云。未幾相隨，泉下爲群。牙絃先絶，陳榻未解。往事如昨，山河不改。蓮社望月，龍峰觀海探梅汭上，蔭松湖曲。南國之遊，于今難續。我墜三途，君歸九原。嗚呼已矣，庶卜他生，身羈草澤，哭阻新阡。歸魂未復，去紼難牽。嗚呼白君。寧不悲憐。孝盡萱堂，恩絶蘭閨。老母摧痛，幼妾號啼。琴書廖落，筆硯長抛。悲凉逝水，冥漠神交。嗚呼白君。我將安適。空令舊事，只付隣笛。尙饗。

竹窓當日郭家村，君唱篪邊我和壎。禪榻幾期同負笈，梅窓頻占對芳樽。

湖山每擬連墻宅，泉路忽驚隔彩軒。斷雁飛鳴何處去，最憐鶴髮倚閭門。

天何奪我弟之忙，白首難禁淚滿眶，自此松湖應寂莫，酒壚空側舊華堂。

_表從梁禮容【哭挽】

松湖先祖夫人葬時 辛亥年

南方有一士，玉峯之賢嗣。有婦善養姑，以姑志爲志。一女與二男，左右迭相侍。宗族稱孝婦，湖右一人耳。云胡嬰沉痾，半歲終不起。天乎其有知，何忍至於此。九原長已矣，寫此慰君子。

_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臣輔國崇祿大夫晉原府院君柳根【拜挽】

白玉峯名閥，詩書奕世華。傳芳有此子，擇婦稱其家。琴瑟韶光短，巾箑淑範多。丹旌入秋草，萬事一長嗟。

_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同知經筵事李廷龜【拜挽】

綵縷當時結，蘭閨此日空。夜臺人自玉，閨範管堪彤。衣篋猶聞響，蠶筐已能工。遙知悼亡賦，唱咽海雲重。

_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知春秋館事同知經筵成均館事藝文館大提學申欽【拜挽】

松湖喪賢配，沈痛若爲心。無復齊眉案，空餘在御琴。泉深珠已隕，波闊釗難尋。遠寄哀詞去，南雲隔萬岑。

_嘉善大夫同知敦寧府事金玄成【遙挽】

有敬齊眉存婦道，無違主饋著閨儀。結縭不改初歡約，同穴終乖晚

歲期。芳澤凄涼在巾袂，幽陰蕭瑟入屛帷。最憐孤鳳離凰意，地久天長何限悲。

_堂從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果知製敎尹唯幾【哭挽】

傳芳橘亭老，竝美玉川兒。擧案垂三紀，甘心共五噫。奈何天不弔，畢竟病難爲。君子糟糠痛，應深富貴時。

_通政大夫行羅州牧使朴東說【拜題】

南國名家婦，幽閨四十春。承顔半世色，臥病隔年身。寢席裳帷罷，丘園草露新。傷心荀奉倩，情感叩盆人。

_通政大夫禮曹參議知製敎尹暉【拜挽】

早識香山老，常聞德耀賢。鮑家提甕日，陶室劈薪年。作黍淹千里，埋香忽九泉。淸秋滿菊淚，洒向海雲邊。劉郎傷往賦，潘令悼亡詩。曠世猶相感，通家況素知。鳳簫秋引儷，龍釵夜騰雌。王母三桃實，千年慰短期。

_通政大夫前行潭陽府使李安訥【拜挽】

松湖居士我年兄，曾說糟糠婦德貞。鞠子辛勤家道立，奉親誠孝軌儀成。重泉埋玉三秋暮，人世炊粱一夢驚。凶問北來千里外，題詞淚向海雲傾。

_通政大夫行廣州牧使金尙憲【拜挽】

婺女潛輝南斗間，空遺閨範在人寰。忍看塵垢生刀尺，無復晨昏響

佩環。露冷梧栖留二鳳，月寒蘭幌宿孤鰥。芳姿惠德聞曾慣，題罷哀詞涕淚潸。

_通政大夫行司憲府執義知製教金止男【拜挽】

內職曾無曠，閨儀且不虧。一堂琴瑟樂，滿室玉蘭枝。遐福靳終享，眞游未少遲。霜風丹旐擧，揮淚寫哀詞。

_堂從通訓大夫前行長湍都護府使尹唯深【哭挽】

競贊溫溫惠，爭稱棣棣儀。青春未全老，碧蕙奄先萎。旨蓄經冬計，寒衣卒歲資。如今萬念息，悽惻只郎知。

_通訓大夫行世子侍講院文學知製教兼春秋館記注官趙希逸【再拜】

婉孌蘭姿婦德宜，及姑承奉最怡怡。采蘋中饋儀寧忒，竊藥騎蟾夢亦疑。禹錫可感傷往賦，安仁不耐悼亡詩。情生自是以文重，莊叟扣盆空爾爲。

_通訓大夫行奉常寺僉正車天輅【拜挽】

玉峰佳婦稱佳兒，閨範家風世共知。常曰上堂善下氣，半生中饋與齊眉。翻成別鶴離鸞去，不復聞鷄宜雁詩。誰托張林傳悃則，豊碑將溢外孫辭。

早繼中郎業，于歸國士家。賓筵精酒醴，廚饌薦柔嘉。鏡匣收殘黛，塗宮暗碧紗。傷心閨裏月，却向隴頭斜。

_通訓大夫行靈光郡守尹煌【拜挽】

天賦聰明脫等夷，豊端姿貌可期頤。誰知値此膏盲疾，使我憎玆造化兒。百歲自期琴瑟好，一生人道室家宜。堪憐中夜孤鸞舞，獨向庭前無限悲。

登堂早覺意相親，況復仁醇出天性。款款儀容偏友愛，琅琅言語最精神。已將教誨同鄒母，還把溫恭對冀賓。玉樹謝庭餘慶在，佇看麟趾詠振振。

_堂從朝奉大夫前行工曹正郎知製教尹光啓【慟哭再拜挽】

婉娩承庭訓，于歸婦道勤。賓筵精酒醴，祀事潔蘋蘩。一病醫無術，孤鸞鏡獨存。綿綿餘慶在，蘭玉殷盈門。

_通訓大夫前行弘文館校理洪霧

上舍吾年伯，曾知內有人。宜家稱琴瑟，奉祭薦蘋蘩。仙馭催歸路，幽蘭委壑塵。無窮韋老恨，生死詎敢論。

_全羅左道敬差官禦侮將軍行忠武衛司果兼司憲府持平林惇【拜挽】

寢地幽貞毓，移天德禮彰。梁鴻纔好合，潘岳遽哀傷。芳樹愁韋鬢，青燈斷李腸。誰言賢必壽，天理信難詳。

_全羅右道敬差官中訓大夫行禮曹正郎兼司憲府持平崔蒓【哭挽】

有美白氏婦，宜家自于歸。終溫讀內則，且惠修中圍。如今三十載，養姑志無違。一疾遽如許，世事朝露晞。客來誰主饋，天寒誰縫衣。靈輀向槐里，白日慘無輝。吾聞仁者壽，此言是耶非。

_通訓大夫行禮曹正郎知製教趙緯韓【拜挽】

瑤琴絃絶足堪嗟，夢裏光陰壑面蛇。氷玉自然生盛閥，幽閑端合適名家。鯉庭尙有連城璧，桂殿應擧一朶花。泉路悲凉鸞已去，鏡臺寥落月初斜。

自家名韻藉南端，雄閥由來擅馬韓。聲價剩傳雙玉樹，風霜偏折一叢蘭。雲深丹穴愁孤鳳，月冷靑山怨隻鸞。想見泉臺含淚處，兎絲花影竟成單。

_通訓大夫行綾城縣令尹燧【拜挽】

貞靜幽閑德，于歸三十冬。事乖偕老計，愁滯未亡客。玉樹猶看秀，榮衣忽罷縫。傷心浮世促，憂樂摠無蹤。

_漢平趙維韓【哭挽】

不見謫仙今五年，江南迢遞路三千。籠鵝文彩尋常慕，炊臼凶音遽爾傳。孺子生葛嗟未致，凉州交契愧歉然。遙知淑德徵餘慶，庭畔芝蘭摠蔚芊。

_中直大夫行弘文館副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朴鼎吉【拜挽】

有美嬋媛系，生茲窈窕姿。奉誠身主饋，持敬案齊眉。婦道何如也，門闌歎服之。胡爲未五十，奄忽至於斯。

_前司果趙纘韓【再拜】

幽閨生長橘亭門，得對終聞婦禮敦。五夜明星相警戒，幾年甘毳奉晨昏。霞屛縹緲無回日，紼翣交橫引去魂。萬古靑山埋士女，石章誰動白雲根。

_菁州姜沆【拜挽】

系出斯文閥，于歸翰墨家。專心治酒醬，篤業務絲麻。壺範常由儉，賓筵動致奢。方期婚嫁畢，大暮經長嗟。

_前典籍洪千璟【拜哭】

曾讀張林婦德碑，千年閨範可同垂。無違有順齊眉日，和氣承顔養志時。潤屋倉箱由內相，滿庭蘭玉摠佳兒。人間壽福難兼至，四十春秋一爲悲。

_承訓郎前刑曹佐郎金克寧【拜挽】

窈窕宜君子，平生契闊心。肅雍閨壺正，慈孝里閭欽。祖道風旌亂，歸魂月殿深。豐碑在人口，不用借張林。

_前敎官權韠【挽】

媲德門闌靜，持家詩禮優。起居從女訓，甘旨盡珍羞。四十悲脩短，幽明痛去留。松風與草露，寂寞閟千秋。

_及第林檜【拜挽】

炊臼中宵一夢愁，紫蘭催處曉霜稠。黃壚已隔雙飛影，碧海難逢比目遊。玉樹爭稱懷國寶，香山嬴得藉風流。平生相敬猶如客，宜室

空傳婦道優。

_將仕郎尹頊【哭挽】

爲夫爲婦兮出糟糠，結髮結縭兮不下堂，胡不百年兮先我亡。【先我亡一作中道亡】

離其子女兮去閨房，遵彼松楸兮山之岡，狐兎爲隣兮蒿里傍。

御哀永訣兮但遑遑，孤鳳驚飛兮呼其凰，我欲訴之兮天蒼蒼。

_生員陳景文【謹悼】

壽其仁者天也，而或有不可必之時。福其善者亦天也，而固有不可必之事。二者，將安取衷哉，而天意實未可知也。松湖室尹氏，人焉而眞賢者也。孝事舅姑，人言不間於昆弟。順奉君子，壺儀可範於鄉閭，而年未五十經，棄人世，謂之壽則未也。趨庭兩賢，竝稱千里之駒，坦腹佳郎，可接青蓮之緒，萬事以足一家多慶，所謂福則享矣。何天之已定於其善，而報之慶甚厚，未定於其仁而賜之壽未終耶。江湖老傖聞訃，是日卽作匍匐之曲焉。觀其親戚之哀婢僕之痛，固其所也，而至於村媼野叟，多歎息泣下曰，某婦人之賢而至斯也，某婦人之賢而至斯也。嗚呼哀哉，深閨淑範，幾何其素著於平日，而至今遠者近者，無不歎其賢，而悼其死也，則其仁其善，非止稱一鄉名一世，而誠不愧於古之賢婦女也歟。乃謹題哀章一絶曰。

三淸曾是舊仙儔，一下人間歲幾迺。鶴馭秋來歸縹緲，空留寒月照丹丘。

_萬曆三十九年十月日，鄕人生員金安邦【拜挽】

一自于歸問幾年，子孫連袂儘英賢。家風雍睦閨儀整，至性溫醇婦德全。遺澤永留僮僕慕，丹旌今向海山遷。浮生四十還如夢，哀此遑遑大小連。

_鄕人生員金安宇【再拜】

雅善松湖老，曾知閨範賢。禮緣鍾郝受，風自顧王傳。馬鬣封新土，鸞膠失故絃。尙餘雙鳳角，世世業靑氈。

_生員吳挺男【悼】

四十五年眞一夢，追惟往事倍潸然。德流庭戶恩僮僕，誠薦蘋蘩孝祖先。冀缺妻如賓主饋，崔門人道婦姑賢。精靈永托泉臺夜，仁壽終難必老天。

_進士尹綽【再拜哭挽】

惟萬曆三十九辛亥十月丁卯朔二十九日乙未，堂從兄朝奉大夫前行工曹正郎知製敎尹光啓，謹遣男逈，以淸酌庶羞之奠，敬祭于白氏妹之靈而告之曰。

嗚呼賢妹，而至是耶。相門之系，儒素之家，幼而穎悟，長益老成。旣相夫子，洵美且貞。蘋蘩孔時，事死如生。旨甘無缺，養姑以誠。

琅琅笑語，親戚喜之，亹亹酒食，賓客稱之。柔順之道，塞淵之心，體易載物，師詩德音。閨門井井，治內有法，婢僕欣欣，御下有則。趨機孟母，擧案鴻妻。兼而有之，展如人乎。嗚呼哀哉，樹風難靜，薤露易乾。皐魚之慟，荀粲之悲，光啓昔嘗升堂，得奉樽卮，家人禮畢，顔色怡怡。命矣斯人，而至於斯，嗚呼哀哉。幽明途殊，靈車曉發。疾病間之，未往執紼。玆遣家豚，敬陳菲薄。詞以薦之，欽我悃愊。尚饗。

玉峯先祖夫人後位改葬時 丁卯年

共傳斗極壽星尊，俄看天南婺彩昏。千里題詩遙作挽，聊將世好慰賢孫。

_右議政申欽【拜挽】

筆自鍾王法，詩能正始音。高才傾八斗，隻字重千金。碧海文星落，詩阡古劍尋。傳家舊業在，春雨橘林深。

_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知製教李明漢

半世讀遺藁，語驚淸且新。海東喧絶調，天下恐無倫。舊兆今移卜，重泉忽暫晨。楷書法逾正，吐篇二王眞。

_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趙希逸

鬱鬱乎埋香，深深乎瘞玉。逝彼乎九載，寂寥乎空曲。日望乎夫君，乃今乎相從。旣生乎同室，胡死乎異封。乃移乎新阡，乃慰乎孤魂。洩洩乎融融，聊樂乎我員。累然乎雙孝，盡禮乎盡誠。旣同乎旣安，無憾乎幽明。南山乎峩峩，林木乎莽莽。春秋乎蘋蘩，無絶乎終古。

_李春元

筆法鍾王妙，詩羞郊島寒。風流宛如昨，緖業未應殘。象緯婺晶損，泉途紫氣盈。平生景慕地，題挽藏衣冠。

_崇德大夫東陽尉申翊聖

明月珠胎出海鄉，玉峯聲價擅詞場。傳家翰墨流風在，媲德閨門內則光。九耋光陰渾夢境，百年離合一封堂。新阡暗想清明近，暮雨寒鴉壟草荒。

_嘉善大夫新豐君張維

永和書法盛唐詩，美對聲名震一時。泉下幾年分劍怨，掌中他日隕珠悲。傳家舊業仍湖外，隔世青山又海涯。遙想橘林寒食雨，柳車悽斷唱哀詞。

_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兼禮曹判書知經筵春秋館事李廷龜

閨範曾無忝，名門紹舊風。客談剪髻德，人識斷機功。

宿草歲頻換，新阡穴始同。每思髫齔事，不覺淚盈瞳。

_資憲大夫知中樞府事金存敬

玉峯賢配河東鄭，冀子相依九十霜，雙劍有時終會合，秀蘭山在海南鄉。

_崇祿大夫晉原府院君柳根

君子求哀挽，如今已十年。那知宿草墓，移却漆燈阡，釦合誠爲幸，琴亡最可憐。緘辭寄千里，感舊獨悽然。

_晉原府院君柳根

先輩推峰老，高名等斗南。詩壇七子右，筆陣二王參。已矣薪傳火，

差池釰化潭。佳城移宅兆，海月正澄涵。

_右議政申欽

人世期頤壽，兒孫喜懼幷。青山開宿草，白日閉佳城。一夕延津會，平生令伯情。空傳內則美，卄無復老星明。

_中訓大夫行司諫院獻納兼春秋館記注官李景奭

夫人高系出河東，閨範咸稱有古風。隻影平生悲幾許，百年浮世夢還空。牛眠改卜移前厝，馬鬣新封合一宮。聞道諸孫多秀朗，佇看遐福更無窮。

_崇祿大夫兼都摠管金尙容

白氏亡來五十年，空留詞翰世爭傳。妻兒今日同歸處，大隧融融樂自全。

_嘉善大夫行副司直李春元

連閥曾聞婦德全，忽看南極晦星躔。峰翁詞翰傳猶久，湖老晨昏曠幾年。更有賢孫承舊業，却將連理啓新阡。平生永阻升堂拜，哭向蠻雲碧海天。

_通訓大夫行持平李景義

旅櫬南歸日，于今四十年。賢孫能繼志，雙劍始同淵。海隴遷靈馭，蘭山卜吉阡。傳家翰墨手，餘慶定綿綿。

_資憲大夫知敦寧府事李弘胄

詩名大曆後，筆法二王親。絶藝空驚世，微官不救貧。珠璣留咳唾，璧月照精神。舊塚移新厝，年年草自春。

_通德郎吏曹正郎知製敎兼春秋館記注世子侍講院司書鄭弘溟

善鳴當日哭卿卿，曾寄哀詞慰善鳴。重把九年新涕淚，白頭添洒望佳城。

_延安李廷龜【拜】

仙府雲駢已幾年，人思懿德輒潸然。延津有劍今重合，泉下融融樂意專。

_尹唯幾【遙挽】

羲之之婦獻之母，三十諸孫九十齡。世上河東天帝子，女中南極老人星。孤鸞舞鏡臨春暮，兩劍蟠龍占地靈。未赴巨卿鷄黍約，楚江垂淚愧寧馨。

_李安訥

西漢文園楚白生，至今童丱誦高名。鍾王豈有唐詩體，沈宋曾無晉筆精。三世流傳仍父子，百年磨滅幾公卿。秀蘭山下牛眠地，永利溫家弟及兄。

_李安訥

玉川高祖時 丙戌年

幾載書相阻，新春訃忽傳。琴尊海上宅，身世飮中仙。不復臨池洗，仍迷枕麴眠。空將寢門淚，洒向早梅前。

_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

李景奭【拜哭】

玉峯之後世多聞，高士南州獨數君。怊悵浮生驚一夢，人間東逝水沄沄。

有子無雙一不少，年過半百亦非忙。新阡聞說近先隴，死去今時何足傷。

_安東金光炫【哭挽】

君入吾門早，情親骨肉如。才名蓮榜裏，筆法玉峯餘。魂鎖泉臺夜，春回水竹居。年年霜後橘，無復帶緘書。

_嘉善大夫行司直洪霊【哭挽】

秦京麗國往來頻，少日葭莩意轉親。筆學世傳元逼古，詩追祖範亦通神。風塵別恨偏勞夢，樽酒開襟似隔晨。魂斷楚天招不得，烟花空鎖玉峰春。

_嘉善大夫兵曹參判許啓【拜哭】

疎慵曾忝朗州時，末路襟懷託晩知。鈴閣簿書猶下榻，玉川花竹更傾巵。卄年違阻情相憶，一瞥存亡夢亦疑。湖海風流今寂寞，暮雲南望益悽悲。

_折衝將軍行忠武衛副司直南斗瞻【拜挽】

海上同遊記昔年，中間離合雪盈顚。往事思量常涕淚，況聞君已下重泉。

殷勤世誼終難忘，十載相離費夢思。痛哭存亡何奄忽，憐君不忍寫哀詞。

玉峯書法傳三世，散落人間各自奇。紫府催還君莫恨，青氈猶托鳳毛兒。

_通政大夫前任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林塜【哭挽】

筆法人宗晉，騷家衆首唐。可憐三世業，終至五旬强。結褵雖中歲，聞聲自上庠。金陵憶同遊，陳跡摠悲凉。

_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呂爾載【拜挽】

王家效體自紛紛，三世能名次第聞。五十三年八法盡，獨憐依附失青雲。

_通訓大夫前行司諫院司諫愼天翊【拜挽】

【司諫丈與先人，生同壬辰，居同一郡，交誼三世，兼有結媾，情事尤密。先人沒後一月，求挽幅於諸所親，故將首求之，而其時司諫丈以諸孫避疫，駐駕山庄，方忌他人，故未得受來，痛恨無涯。司諫丈一夜夢先人，親往其地，懇求挽語，言意丁寧，覺卽書諸七言小詩，以送于不肖。不肖伏奉感泣，悲愴何極。玆以永厝之日，因藏穴中又記其辭而表之，竝爲移謄。】

皆醉非關中聖賢，喟然吾與酒爲年。春風此日稽山下，郎忍空回李白船。

_金鎭洞病儂【尹持平善道】

三代文章子，琴書過一生。門闌冠海右，符彩動秦城。世世忘年兮，哀哀不盡情。春風南郭路，老淚更沾纓。

_前郡守曺行立【挽】

昔忝南州客，仍叨北海交。詞華能吐鳳，筆法更騰蛟。會合終無地，生涯欻似泡。遙憐玉泉舍，春色上梅梢。

_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南翊【拜挽】

松湖之子玉峰孫，藉藉家聲筆法存。臭腐神氣俱寂莫，忍將哀挽寄鴿原。

子安已矣彬彬逝，此世論心獨有君。怊悵九原今又隔，數聲隣笛不堪聞。

_石浦郭聖龜【哭挽】

扶蘇山氣鍾豪英，三世相傳晉筆精。父有是兒知有祖，季難爲弟又難兄。

詩書花竹驚無主，湖海風煙送此生。遙想長春樽酒會，可憐孤月至今明。

_朝奉大夫成均館學正李克誠【拜挽】

南國稱名閥，才豪世有之。姻連初結義，存沒永含悲。詩筆追家法，風流屬酒巵。春天湖海外，悵望淚如絲。

_前奉事呂爾弘【拜挽】

斷金其利臭如蘭，繼世交遊吐肺肝。此日存亡堪慟哭，當時離合幾悲歡。湖山失主雲容慘，酒肆無人桂影殘。莫怪巨卿違執紼，只嬰衰病抽身難。

交道連三世，通家已百年。襲薰蘭室裏，把酒草堂前。每惜英才棄，寧知訃忽傳。牙絃從此絶，哭望海南天。

_地上友朴忠廉【哭挽】

去歲芳荷夜，相逢共白頭。誰知今夕別，慟哭送歸輈。舊宅松山下，新阡古郭南。幽明多少恨，芳草共山嵐。

有酒吾誰酌，思君涕泗漣。草堂花雨夜，楑月夢依然。

_表再從葛夫【哭挽，梁進士致南。】

惟兄知弟弟知兄，心事常期托一生。樽酒逢迎成舊跡，忍看春色滿江城。

玉川棠岳室非遐，回首猶嫌一嶺遮。誰意幽明今永隔，不堪題挽淚滂沱。

_在世戚弟尹善繼【哭挽】

夫子淸修豈易言，五旬違世亦難原。靑山獨保前司馬，明月惟呑古混元。

一子已知天所送，諸孫可喜鳳將褰。九龍玩雪何年日，萬事悠悠淚自翻。

_尹仁美【哭挽】

夜月頻來往，吾君去不歸。依然乙丑別，如昨想容輝。

_沈廷敏【哭挽】

白門詩筆八垓傳，儒雅仍知繼祖先。祀事虔誠宜錫類，酒痾沉痼竟難痊。

深情已使諸親睦，厚意曾於老我偏。定想天心終必祐，子孫從此福應全。

_進士尹績【拜哭】

維歲次丙戌二月戊寅朔十六日癸巳，舍弟尚賢謹以酒果時羞之奠，祭于亡兄成均生員白公之靈。

吁嗟伯乎，同氣幾人。一姊已逝，摧痛酸辛。惟吾昆季，接室相依。和風原上，鶺鴒同飛，紫荊花邊，壎篪共吹。吁嗟伯乎，詩酒生涯，吟詩遣懷，先唱要和。愛酒成癖，青州督郵。松村小橋，幾傳郵筒，玉溪花柳，醉興難窮。嗚呼伯乎，胡至於斯。五旬纔過，一疾誰醫。光陰石火，草露先晞。寒天夜月，獨雁哀鳴，青草池塘，一夢還驚。嗚呼伯乎，余懷之悲。靈輀曉發，薤露凄凄。瞻彼新阡，棠岳之西。幽明永隔，眉宇何忘。臨風一哭，海天滄茫。嗚呼哀哉，尚饗。

高祖母全州李氏葬時 乙卯年

玉峰孫聘泰山孫，兩美人稱萬福原。琬琰易殘花易歇，百年湖月照芳魂。

_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陵府院君李好閔

玉峯孫子得賢配，二十云亡眞可憐。暫向廣陵埋淺土，竚徒秋日返南天。浮生在世迷如夢，萬事于今散若烟。最是添園御至痛，叩盆無語淚雙懸。

_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輔國崇祿大夫晉原府院君兼戶曹判書柳根【挽】

浮生纔卄二，人事極悲辛。膝下無兒子，堂上有老親。音容猶昨日，窀穸掩千春。不盡郎君淚，添波漲廣津。

_正憲大夫知敦寧府事兼五衛都摠府都摠管金尙容【拜挽】

合巹期偕老，芳盟痛早寒。徒勤問雜佩，竟未夢徵蘭。塵向瑤琴集，香從錦匣殘。湖南歸葬處，目極暮雲端。

_嘉善大夫同知敦寧府事金玄成【拜挽】

露草何曾有，風花忽已飛。玉奩藏月魄，圭窆奠靈衣。鳧雁詩空在，閨門事永違。仙郎哭送葬，和淚雨霏霏。

_嘉善大夫行忠武衛司直金墐【拜挽】

嶠南華閥擅芳聲，草聖詩篇摠有名。生得賢郎鸞鵠峙，娶來佳婦鳳凰鳴。琴諧瑟合情纔洽，桂折蘭摧怨未平。寂莫廣陵原上土，不堪埋玉寓新塋。

_嘉善大夫行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自昔通家分，曾看弄瓦年。閨儀四隣說，婦德一門傳。未及主中饋，何忙歸九原。春風三十載，道路亦潸然。

_折衝將軍行義興衛司果知製教尹唯幾【挽】

曾見松蘿初結時，紫簫吹月鳳雙飛。廣陵原上催埋玉，日暮江南人獨歸。

_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李安訥【拜挽】

華堂煎燭歲非遙，無奈江南雪易消。藏玉埋香何處所，海珍歸路正迢迢。

_南陽洪瑞鳳【拜挽】

白君來湖右，結髮迎新婦有室。庶遂親所願，桃葉蓁蓁琴瑟友。俄聞宿痾久沉綿，鏡裏鸞形奄失偶。千里阿翁白首悲，芳魂幾日招得歸。青山自此葬玉骨，東出廣陵丹旐飛。連世情親媿無助，嗚呼爲爾題哀詞。

_安東金尙憲【拜挽】

兩美相合幾經年，蕙折蘭摧怨老天。湖外宜歸今已矣，丹旌慘慘廣陵邊。

_通政大夫前行鳳山縣監林惛【謹挽】

昔我哭我妻，我時行年二十二。今君喪君室，聞君今年二十四。才愚妍婢各言婦，以我揣知君心事。青廬纔入素韐出，琴瑟未鼓含贈備。槿花開落不可言，早年摧痛情何比。薤歌一曲助君悲，潸然還垂昔日淚。

_通政大夫前行梁山郡守許樀【拜挽】

父子迭相逝，吾儕頻有詩。烏塋曾抱痛，龍劍忽亡雌。恩愛寧須道，平生祇自知。松楸應不遠，莫向海南陲。

_趙希逸【拜挽】

白也失賢配，韶華二十殘。何心埋玉骨，不忍送青山。孔雀屛猶展，鴛鴦枕未寒。可憐偕老約，辜負鏡中鸞。

_玄谷趙緯韓【挽】

懿淑姿超衆，柔嘉德出天。猗歟閨裏秀，籍甚女中賢。結髮輕千里，齊眉擬百年。鴛鴦夢忽冷，鸚鵡語空傳。有恨通泉下，無兒在膝前。新阡何處是，寂莫海雲邊。

_通政大夫行司憲府持平楊時晉【拜挽】

冥冥如夢又如塵，可惜生平只二旬。一世良緣新伉儷，全家重寄在蘩蘋。蘭芽忽隕三宵露，桐葉空餘半樹春。此去終非百年宅，海山他日導靈輴。

_通政大夫行校書館校理梁慶遇【拜挽】

所以事父母，移於舅姑前。故然盡婦道，獨不享千年。寂莫老棻室，荒涼袁氏阡。湖南一片土，遺恨滿窮泉。

_前承文院博士任叔英【拜挽】

天生配耦正相宜，信誓如何浪藥隨。一別三秋消玉魄，纔逢半月訣貞期。湖南松壟追姑逝，洛北萱堂謝母慈。白也於吾世交久，爲君挽送不堪悲。

_進士閔與顔【拜挽】

共憐居易獨傷神，友瑟光陰未十春。素幔床前無奠子，白頭堂上泣慈親。荒山草殯廣陵土，故國歸旌南海濱。我昔折肱知此恨，淚和殘墨自霑巾。

_進士高傅川【拜挽】

萬事如花不可常，婦中賢德獨留芳。鴛鴦未慣春唐睡，牛女空愁秋夜長。誰遣貞姿歸似夢，可憐蘭蕙早凋霜。孤魂恨碧湘潭草，此日天涯淚滿裳。

_族人成均進士羅茂松【哭挽】

祖父時 癸亥年

識面曾欽德義尊，連家更覺舊情敦。每憐南北貽相阻，豈料存亡隔九原。忍見前冬邀我札，最傷今夏訪君言。沉痾敢後驢鳴客，悵望歸雲拭淚痕。

_錦城後人吳君錫【哭挽】

何來挽幅使人悲，淚到思君筆已滋。臨別可堪漢氏慕，傳家幸有謝兒奇。露晞朝薤歌如怨，月滿空樑夢乍疑。親朋日覺凋零盡，從此騷壇更對誰。

_友人昌寧曹一會【哭挽】

玉峯賢孫在，風韻豹有斑。儒雅出天性，翰墨擅騷壇。連世斷金契，早托伯仲間。逢迎去毛皮，正如襲芝蘭。別離未云幾，存沒多悲酸。黃粱一夢罷，玉樹霜摧殘。嚴君今白髮，孀婦尚紅顏。寧馨兩稚兒，孑孑形影單。泛愛猶嗟悼，親知何忍看。哀章和淚題，南望摧心肝。

_廣陵後人李漢龜【哭挽】

玉峯孫子又重泉，南國騷人倍愴然。翰墨深藏托何處，詞林名跡問誰邊。靈椿晦色郁堪見，荊樹含情最可憐。嗟我白頭思識契，春風獨立蕙嘆偏。

_南州徐鳳翊【哭挽】

玉峯初學盛唐詩，嫲世家聲人共推。書籍傳來看緒業，橘林閑處足生涯。秋風會面還如舊，春日招魂獨詠辭。親老高堂兒在褓，祗應泉下抱深悲。

_戚弟完山李弘命【哭挽】

哭君悲深哭他友，直緣親厚自先曾。泉臺想抱無窮痛，白髮嚴顏有孰承。茫茫天意信難知，誰謂吾兄遽至斯。痛哭幽明從此隔，忍題哀挽涕交頤。

_戚弟梁禹疇【哭挽】

世誼兼將交道重，自期百歲共追隨。憐君忽値膏盲疾，使我偏憎造化兒。白髮孤親那忍痛，青年孀婦不堪悲。凄涼澤畔荷花古，回首松山涕淚洟。

_世弟尹天厚【哭挽】

傳家舊業是能詩，卓犖君才看更奇。江海豪情樓百尺，園林閑趣橘千枝。可憐雲樹三年別，叵耐烟花二月時。怊悵青山埋玉處，忍看西日迫崦嵫。

_完山後人李弘基【哭挽】

凄涼可洞愁烟鎖，寂莫松山弔月寒。一代親朋相繼逝，九原無乃勝人間。

_族末朴寘【哭挽】

死生元是天，細思無喜悲。彭殤固不齊，脩短亦何推。惟爾親年今七十，且有二子皆稚兒。死且有知魂應泣，行路聞之亦涕洏。嗚呼也魯今何之，病裏逢春方憶子，豈知將葬達摩山。生未相隨死未送，回思世義淚潸潸。杯酒華軒會，依俙壬子春，人間難再得，南望更沾巾。

_世弟光州後人金震羽【哭挽】

急難深情感自曾，溫良元有黨庠稱。斗南誰識藏文豹，溟北俄驚失彩鵬。龜鶴遙齡嗟久視，鵠鸞餘慶佇前徵。最哀堂上連宵哭，白髮蕭森淚血凝。

_族兄尹爾錫【哭挽】

嗟哉吾友逝，湖海更誰賢。世誼連三代，交情近卄年。幾多思白首，今忽隔黃泉。七十春堂暮，人間至恨綿。

_友人吳永錫【遙瞻痛哭】

年來幾度題人挽，挽到吾君未忍題。白髮椎胸思子恨，青孀扙血抱兒啼。前秋佳約逢春失，昨夜淸儀入夢迷。四十光陰如草露，一聲隣笛不勝悽。

前輩風流白玉峯，詩如老杜筆如鍾。雲仍更得家聲繼，鄉里皆稱子職供。盃酒去冬同笑語，泉臺此日隔儀容。人間底物空依舊，落月凄涼鎖古松。

_族人昌寧曺一遵【哭挽】

昔年湖海上，盃酒卽相逢。人物精金質，家門白玉峯。芝蘭庭畔茁，甘旨孝廚供。何事身先死，哀章索病儂。

_長澤高世大

客中凶問夢耶眞，忽此襄期更愴神。一夜心談纔去歲，半生情義絶今春。懸河不復聞淸語，落月猶疑見故人。他日山陽經過處，可堪哀笛送南隣。

_友人星山玄徵【痛哭挽】

名家系出玉峰賢，詩酒風流亦可憐。靑眼相看纔昨日，白袍同苦已去年。凄涼定省春幃側，寂莫壎篪棣萼邊。累累髮毛身後事，在於行路尙潸然。

_戚末驪興後人閔孝祉【痛哭挽】

聖源先去君從逝，屈指親朋有幾人。牢落餘生來執紼，東風斜日淚沾巾。

_地上友棠岳尹徵龜【哭挽】

憶曾分手郡城隈，生別翻成死別哀。他日松山山下宅，更將靑眼向誰開。

_全州後人崔宣錫【哭挽】

送公何以寫我辭，欲記平昔心如剖。南奔不自攀公轜，北轔還慙絮我酒。爲將荒詞寫長牋，悲懷萬一公知否。與公何年見何晚，願識不在韓荊後。一面之情便如舊，懷抱依然期白首。通家厚義重山岳，不但金石論朋友。寸心相知兩無隔，況同平生酒中趣。追隨命駕縱

云稀，四五年前一握手。公時爲我苦挽歸，數日留與椿堂壽。把酒論文日繼夜，幾勞新釀謀諸婦。歸來一計擬重尋，每向南雲獨語口郍知我公歸也未，〼際吾生宿計久。心魂驚散若有失，盃酒無功寸腸朽。以公誠孝遽至斯，縱歸泉下魂應疚。人間有友情如許，樽酒無心賞花柳。挽歌一曲成永訣，痛懷難盡十六句。

_友人吳壽錫【再拜哭挽】

月出何清秀，往往生豪傑。玉峰鳴天地，松湖間世出。公能繼世業，妙年聲價赫。孝友仍天性，詩筆傳家法。昂昂意氣高，溫溫風味足。昔我入君門，一視心莫逆。舊誼自先世，新情兼瓜葛。論詩卽唱酬，對酒窮懽謔。佳山與佳水，幾處共追逐。萬景賞春花，頭輪詠秋月。世故苦牽挽，別多少會合。前冬寄書來，舊疾今又發。縱非時月危，隱憂心中結。春來有訪約，屈指待幾日。樑摧忽報凶，楹夢何匆劇。此語若虛報，不覺心魂失。那知去歲拜，遽作千古別。福善不可恃，天意窅難測。賈生惜有才，顔回竟短折。可憐丹旐上，學〼何寂莫。鶴髮在高堂，呼天淚成血。二孤尙幼稚，失怙渾不識。鴒原恨無窮，鸞闈痛不極。精靈如有識，九原魂應泣。萬事同瓦解，百年成陳跡。我今素車來，痛哭無所覿。舊堂草色新，空庭花自落。徘徊愴物是，俯仰悲宿昔。峩絃已斷絶，我懷將安托。孑孑兩惠連，年來多病弱。從此松山地，家聲倍蕭索。永訣知幾時，嗚呼就窀穸。忍彼黃崗上，埋我白玉質。攀輀不忍別，長號心欲裂。人間幾多悲，泉下會相樂。和淚歌此曲，慘憺山日黑。

_錦城後人吳禎錫【痛哭挽】

痛哭吾兄事，欲言淚先揮。行年未半百，草露還爲晞。春堂白髮長，
少閨春華早。堪嗟曠定省，已矣壞家道，病弟與雉兒，孑孑竟誰保。
痛哭吾兄事，欲言淚雙垂。平生讀古書，兀兀竟何爲。累登郡國選，
終違雁塔題。蹉跎坐詩工，悒悒蹜驥蹄。誰知華國才，竟作遐荒儒，
痛哭復痛哭，兄今倘記吾。嗟吾年十七，與兄作姻親。年齡縱差池，
托契信有神。詞場共唱酬，藝苑同逡巡。才調雖不同，臭味何竝均。
却憶詩山夜，曉月流光新。聯裾吾二人，續成長短章。詩聲尚在耳，
事跡驚黃粱。痛哭復痛哭，語到骨先酸。相携酒盃間，取醉幾作歡。
吾嘗恐巨卮，檻外先成倒。而兄誇剛壯，醉後歌浩浩。前秋八月夕，
共作城西醉。携裾酒壚上，入夜相歡喜。爭將醉裏興，討論心中事。
一別隔兩地，江月三成絃。歲暮我過兄，歡笑來相延。留連蒙歡洽，
勸我一壺酒。挑燈賭六博，枕籍夜分後。連帆海嶼路，陟崗同携手。
歸來達山下，飲歡終永夕。豈識門前別，終爲泉下訣，我今困於世，
擧家仍流落。吾兄當此時，抵書每嘆惜。一日書再至，盡是兄手跡。
書中道何事，滿紙爲我恤。自云病在床，相見何時日。吾謂此兄病，
自爾當勿藥。那知未云幾，凶聞遽來至，痛哭情何極。骨酸淚作水。
豈無馳進去，憑棺永訣意，嗚呼更何道。此身逃禍累，難將寸誠赤，
竟作一就哭。流轉到此地，困頓尚難說。纔聞素帷南，日夕魂欲絶。
累日臥枕褥，呻吟苦不支。誰憐病裏懷，自嘆賦命奇。力疾難作勢，
孤負執紼誠。空將一篇詩，只憑蒼頭行。嗟嗟復嗟嗟，從此隔幽明。
把筆心魂散，不能倒胸臆。痛哭復痛哭，惟靈倘可識。地下兄思我，
人間我憶兄。千秋無限月，應識古今情。

_愼聖矩【痛哭挽】

嗚呼我姪主，我家之宗伯。行年未五十，胡至此冥漠。我有今日詞，精靈庶可識。堂上嚴親老，喪明情何極。閨中少婦病，痛迫崩城哭。床前一長女，叫號謾頓足。膝下兩嬌兒，遊戲爭騎竹。嗚呼我姪主，其有心感惻。故宅宛然處，不忍看物色。庭前好梅橘，架上舊詩冊。名駒憑櫪嘶，美酒盈尊綠。里巷亦嗚咽，況親戚骨肉。嗚呼我姪主，命耶誰能惻。得非天公爲，無乃冥司惜。凶必先頹屋，大病終至劇。惻惻臨絶語，崔君夢歷歷。此死寧在彼，橫命現印錄。到今有遺恨，不得晉大藥。顧我之祀廟，何人初薦酌。塵埃網絲中，誰護先翰墨。惟冀兩庭玉，將就繼前躅。無由吐此懷，感慨有斯作。痛哭復痛哭，哀淚徒盈臆。

_庶從叔良憲【痛哭再拜】

少喪慈親倚舍兄，又逢兄喪淚如傾。杯樽談笑成今昔，友愛心情隔死生。世上悲歡誰與共，胸中怨恨轉紆縈。沉痾不得臨塋哭，他日九原訴此誠。

喪母沉痾半死身，倚兄三十又三春。心中擬樂同胞誼，今日嗟成異路人。更接音容何處所，追思眉宇倍悲辛。吞聲不敢高聲哭，爲是高堂白髮親。

薤歌丹旐下，倦跡竟何歸。縱喜隨慈母，應深念雉兒。雁行嗟自斷，鸞影愴孤飛。此世逢無路，泉臺再面期。

弟病料先死，兄亡自未期。老親知孰養，家廟竟何依。寂莫先人帖，

凄涼囊日詩。音容長憶處，流淚謾沾衣。

_舍弟夢柳病不得臨穴，痛哭寫情。

曾祖父時 乙丑年

名世家聲屬此老，曠懷雅度出尋常。平生勝福人爭說，晚節悲凉我實傷。地下逢迎歡舊彩，人間單孑泣孤郎。情深三世論交義，獨向南天淚滿眶。

_錦城後人吳永錫【再拜哭挽】

標格清孤野鶴如，典刑知是玉峯餘。幽居閑趣松兼竹，先輩遺風畵與書。高義正看垂問後，舊情偏感拜顔初。老人南極驚沉彩，惟見浮雲自卷舒。

_侍生高世亨【再拜哭挽】

垂老招尋獨有公，飄然文彩繼先風。耽閑志絶功名上，愛醉身藏酒肆中。賢子早亡猶可惜，今君又逝痛何窮。人間悵望誰知己，白首空餘此病翁。

_棠岳後人尹善五【哭挽】

高門喪禍一何遽，纔失賢郎又哭公。玉老遺徽今已寂，松翁文彩更成空。可憐湖海收豪氣，無復尊前接仙風。世誼連家情具密，不堪題挽淚沾胸。

_侍生錦城後人吳亨錫【再拜哭挽】

秦晉情兼世誼敦，登龍幾人李膺門。六旬如夢空陳跡，一別經年尙記言。地下幽魂同父子，人間至痛哭兒孫。忍將去歲今朝淚，題罷哀詞寄九原。

_侍生文城柳榎【再拜哭挽】

南國名家胄，林泉養性靈。何慙高士傳，自有老人星。子夏明喪哭，平原病不醒。千年玉田里，寂莫橘松青。

_錦城後人吳玄錫【再拜痛哭挽】

天下傷心處，哀哀送葬時。泉臺泣父子，人世哭親知。七十年間事，一場夢裏悲。松山今寂莫，回首淚雙垂。

_戚小生棠岳尹致美【哭挽】

昔自連姻後，一家情意新。淸懷無滯已，高義更加人。吟病還吟阻，喪明奄喪神。可憐盃裏月，寂莫鎖花春。

_鹿門高斗春【哭挽】

昔年吾祖作詩宗，一代神交有玉峰。驚世豈徒新律細，通家今覺故情隆。閑中事業書千軸，靜裏生涯酒數鍾。阻拜誰知終永訣，欲題哀挽涕無從。

_錦城後人林炯【再拜哭挽】

半世遊公父子間，靑年交到鬢毛斑。可憐前後緘辭日，忍說餘生意萬般。

_完山後生崔宣錫【再拜哭挽】

玉峰公後世多賢，爲愛吾兄緒業傳。橘裏田園花裏宅，壺中天地飮中仙。西山日暮猿腸斷，遼海風輕鶴影翩。怊悵舊遊成一夢，草堂無主鎖寒烟。

_戚弟完山李嘉徵【痛哭拜挽】

曾哭庭蘭又哭兄，有情天道亦無情。可憐白首人間在，哀挽今題淚滿纓。

_居昌後人愼廷翊【再拜哭挽】

松湖孫子玉峯曾，南國名家世所稱。身外榮華看似幻，眼前樽酒愛如澠。去年嬴博嗟何及，今日泉臺慟不勝。衰病此生違執紼，白頭題挽涕垂膺。

_星山後人玄徵【再拜哭挽】

玉峰之後松湖孫，卓落容姿氣味溫。訓子有方家業繼，臨財無苟友于敦。忽驚石火催三極，可惜芝蘭隔九原。那堪丹旐飄曉日，春風海上獨傷魂。

_侍生尹天厚【再拜哭挽】

去歲仲秋乍拜床，誰知此日寫哀章。人間血泣諸賢子，地下斑衣伯兄郎。萬軸圖書抛舊案，一輪梅月鎖虛堂。傷心却恨風流盡，獨立乾坤淚滿裳。

南州高士老，云是玉峰孫。去歲先亡子，今年又鎖魂。風流從此盡，

圖籍爲誰存。怊悵松山月，難開酒一樽。

_世末昌寧曹一會【哭挽】

海東高士傳，玉老特淸英。夫公還倜儻，家風繼舊聲。紛紛少年場，惟見此老成。柰何命不偶，百年奄中僵。往歲哭伯兄，已極摧心腸。那知塚未乾，公又遽至斯，芳蘭寂無秀，薤歌空悽其。怊悵耆舊盡，如今存者誰。九原不可作，哭罷有餘悲。

_戚姪瀛洲後人梁禹疇【再拜哭挽】

兩家同祖玉峯公，姻愛由來世世窮。松塢昔年陪笑語，橘林秋色滿窓櫳。樽罍爲我開新綠，書籍呼兒啓舊筒。從此拜床難再得，遙瞻朱雀泣春風。

_戚姪完山後人李弘命【再拜哭挽】

外宗公是長，謝世何太忙。幸賴兒孫在，堪嗟胄子亡。凄涼先朝廟，寂莫醉翁堂。朱雀山前路，春風涕自滂。

_表從姪安衡相【再拜哭挽】

玉峯才格出尋常，百世淸風動四方。健筆藏稜追古晉，新詞激越效中唐。家遺淸白傳三世，公保幽貞肯一堂。習氏園林春作伴，鄭莊風月醉爲鄉。

前宵南極星光晦，此日東丘彩駕忙。一子先亡雖不幸，三男有後慶還長。誰知十月高軒拜，竟尊三春永訣觴。長老如今殆盡逝，可堪

哀淚滿衣裳。

_戚侍生尹徵龜【再拜哭挽】

尙憶頻臨外氏宅，自余童稚猥追陪，傳家妙法羲之筆，遺世閑情太白盃。種福曾看多慶至，喪明誰識有殃來。丹旌啓路薤歌咽，七十年光一夢迴。

_戚孫驪江後人閔孝祉【再拜哭挽】

倒壓三韓士，峰湖兩世名。收藏乃家筆，平昔厥孫誠。氣用銜盃爽，談因說古淸。兒亡身繼逝，行路亦傷情。

_族弟朴寘【再拜哭挽】

亥子春冬不忍言，于天降禍最吾門。墨庄衰草思親恨，朱雀新阡戀子魂。誰繼故家修世德，謾將遺蹟付兒孫。醉翁堂下茅茨畔，時獨回頭拭淚痕。

_戚從弟白良憲【痛哭再拜】

吾友生平日，蕭然任所居。深藏三世筆，長對百家書。俗事浮雲外，閑情半醉餘。如今形影單，高燭混鄕閭。

同鄕同老又同庚，況復連家義不輕。君歸恨未挽車哭，孤負生平倒瞻情。

_居昌後人愼弘翊【再拜哭挽】

墨洞孤墳土未乾，又看朱雀起新阡。凡人尙欲心腸爛，況我曾蒙眷戀偏。少兄筆鋒存世業，阿孫眉宇記前賢。可憐李白盃中月，留照靑山謝宅邊。

南國名家筆以鳴，壁間書帖寓平生。從知一疾非無祟，卜子當年哭喪明。

_光山後人金鍊長【再拜痛哭】

玉峰崔嵬，松湖澄淸。世躋其美，遡有風聲。於休我公，式爲後承。聖善是訓，孝友出天。家有懿行，鄕稱善人。不慕其外，隨分而安。一室淸淨，萬事心閑。酒所怡情，醉夢乾坤。於物於人，孰黃孰雌。咸曰賢哉，天必佑之。慟結膝下，慘在目前。悲疚纏身，衰暮之年。遽然易簀，何辜于天。蔑蔑報善，茫茫其理，有子若孫，旣賢且秀。雖嗇于前，必豊於後。施在不泯，終豈沒沒。一痛而慰，言不旣實。

_光山後人金胄翰【再拜痛哭挽】

癯癯風骨正欣欣，君子人兼長者儀。振世聲名傳有自，出群高標得天姿。浩然無命緣才大，商也喪明亦數奇。衰病未能參執紼，望南抆淚轉悽悲。

吳洲曾隔十年月，此日凶聞本不期。末路風塵有一老，生離無幾亦何悲。

_宋演【哭挽】

世衰氣澆薄，六十未云促。況兄加數年，於壽非不足。只恨天杳茫，善人不得祿。幾扣漆園盆，一喪西河目。可憐百年內，身世苦幽獨。況復名不成，栖遲在丘壑。未曾求聞達，世人安能識。徒見老子眞，不聞徵韓福。浮名亦何傷。安身有潤屋，琴樽足清致，歡娛窮日夕。浮生誠無幾，如此自可樂。常存重表義，向我情彌篤。我請說公門，公門昔輝赫。玉峰與松湖，相繼名籍籍。詩家兼筆勢，聲華動京洛。遺風誰復繼，後來堪嘆息。憶昔少年日，招呼兩相逐。春風醉大屯，冬雪遊萬德。居然共衰謝，會面更不得。悵望幾相思，我懷如襞積。方擬一相過，連床話宿昔。未及叩紫衡，幽聞傳空谷。南望一長號，有淚空沾臆。餘生更安倣，白首悲牢落。病未瀉虛位，令人轉自忸。日月曾幾何，佳城今已卜。吾聞黃泉下，萬事具冥莫。青山作屏障，明月爲燈燭。但有南面樂，誰爭萬年宅。以此送公歸，哀歌易痛哭。

_重表弟靖原李聃老【哭挽】

維歲次乙丑三月辛酉朔初九日己巳，宋演謹遣子麟瑞，遠具菲薄之尊，告于白公之靈。嗚呼，人之有才，天胡忌之，君子有行，天胡厲之。聰明剛毅，人之稟得者才，而天則反忌其命，正直中和，德之有修者行，而天則必厲其身。莫公者天，而天之忌人如此，莫明者天，而天之厲人如此，則安得不爲之號天而有所云云哉。嗚呼，死者理之，常自千古以來，人所不免，則吾於兄之歿也，亦獨何悲，而世入叔季，貪愚皆貴，俗流靡汚，⿰犭良皆老，而命不得一官，壽不至稀年，平生所緼於中者，終歸泯泯不立之地，則此豈非修正直而遇忌於天，好仁義而獲戾於天者耶。守甘養性，君子所貴，韜光晦彩，志士攸難。 勿欺一定心， 自確於不移不淫之中， 而特守涵養之功，

誠有難拔之致，則外人之知不知，非所與論於其間也。況其出人嘉行，得自家傳，振世高名，卓冠南國，四海文聲，旣無其儔，出天孝友，罕有其侶。漫漫淵淵之業，已有其基，植根固本之道，終無所違。江山風月，屬有其人，左右琴書，世不虛傳。寄友松菊，灑然之氣像可尙，藏春杖屨，一般之眞趣有猶存，則天何獨厚於其家，而忌於其身，天何獨厚於其人，而厲於其命耶。至如雲晛富貴，芥視功名。囂囂之樂，獨保壺中之日月，怡怡之容，恒入醉裏之乾坤。貞而自保，不絶於俗，隱而有素，無違於親。脫落人世，超然有不事之志，嘯傲象外，悠然有公侯之樂，則天之忌於其身，厲於其命者，反不榮歟。所痛者，志不得行，功不得施，虫虫之民，不被其化，庸庸之俗，不知其心。使其人有得於天者，止於諸侯，不得臣而已，則言之及此，不覺隕淚。以余無似，幸忝姻婭之後，辱蒙見知者，餘四十歲月矣。食同床，臥同榻，有疾同憐，有懷同吐，兄之有心，余必知之，余之有事，兄必記之者，亦至十年春秋。名雖有秦晉之分，情則若燕魯之義。風塵末路，晚托裁洋之期，春樹暮雲，相懷金石之情。天涯地角，徒勞夢想而已，誰謂兄無復有意於斯世也，奄一去，而使余有此長慟無涯之慽耶。吾與兄俱以衰老，以謂吾旣病，地且左矣，終不得握手吐款而死，則兄必有平生之恨矣。嗚呼，安知以病者而反哭兄耶。甲寅春，因余有內喪，兄來問吾。其年秋仍送終，兄又來會，儼然毛髮，尙保昔日之意者。天所畀與於斯人，而不得致用於世者，終必有驗於仁壽之域矣。今日之哭，非所慮矣。誠知其如此，吾雖病且老，豈不躬詣牖下以陳執手之痛耶。嗚呼，癸亥，豊城之哭，言之慘矣。令德之下，又有嶷嶷之人，麒麟之質，庶可紹述其業，而霜殘碧梧，天禍孔毒，天之忌而厲之，

不獨其身，則倘所謂有數存焉者耶。天道茫昧，理亦難昭，千載歸來，一馬甚忙。孔顏旣厄，子夏喪明，命之所至，聖賢難免，則天耶人耶時耶數耶。吳洲煙月，旣阻千里之顏面，方城夜雨，又聞曉發之輜車。雖其存者，志則死矣，臨風一哭，萬事已矣。顧諸一世，知音幾人，逆旅光陰，此生無幾，死而有知，其幾何離。嗚呼，斂不憑棺，昔人所悲，窆不臨穴，此心如裂。愕然病喘，獨遺殘命，半鬼半人，惟不自力。形骸雖完，已非此世之身。揆情顧義，有負至此，欲言悲塡，不覺失聲。蒼蒼無信，漠漠無神，雖欲號訴，有誰知者。幽明路殊，此恨難盡，天地無窮，此意難憑。一杯一秋，不昧者存。自數年以來，吾亦無意於世。枯木生春，天或有假，則一造靈座之前，以盡此日之痛，惟其所願，此而已矣。臨紙長慟，夫復何言。緘辭千里，以寓一哀。魂若有知，庶垂歆格。嗚呼哀哉。誄曰，登山臨水，古人猶悲。生離死別，此心何持。生無所施，死必有遂。今兄此去，抑將有意。潔身永逝，在兄何損。無所考德，後儕疇信。一掬哀淚，悲哭吾私。生寄死歸，大化有期。畢竟同歸，我又何悲。尙饗。

先考時 癸丑年

詩禮傳家襲舊聲，任眞隨分度平生。心圖揭壁存工密，泰字扁庵取義明。不自學居彌有得，恐爲人識竟無名。猶看身後爭題挽，未抑儒林痛悼情。

儒林美譽續河南，棣萼聯輝共一庵。身後家聲猶不墜，季方難弟古無慙。父賢難必有佳兒，二者我公兼得之。滿室芳蘭詩禮藪，政看當日教方宜。

_三從弟生員李徵奎【拜挽】

鄉隣故舊幾人存，最惜松山白仲溫。水月胸襟無點汚，玉峯儒術有淵源。居家行誼稱州里，滿案詩書教子孫。怊悵九原今永隔，老夫何處更鼓門。

玉峰名閥好風標，詩禮家聲不寂寥。許我用情膠漆固，愛君襟抱日星昭。灾荒隔面仍三載，存沒傷心奄一朝。寸志未曾泉壤間，怳然床席每相邀。

_棠岳後人尹琩【拜挽】

少小追隨至白首，慇懃心膽幾相傾。高標守靜寧循俗，儒業傳家不墜聲。可惜魁形還造化，只憐長者留賢名。無端存沒偏多感，歲暮

滄洲誰共迎。

年未六旬卽夜臺，仁人自古鬼神猜。生同鄉里親情密，死隔幽明此別哀。淸貌依俙樑月滿，琅言悄悅耳邊來，凄涼往事成陳迹，和淚題詞膽欲摧。

溫溫吾益友，情話幾回同。學業追先志，雅標繼遺風。仁人未必壽，天道其何矇。惆悵平生事，松楸夜月籠。

高標自與衆人異，可見玉爺徽韻存。積善由來必徵後，滿庭蘭玉盡超倫。

鄉隣親舊在無多，今日哭君痛若何。高標淸儀難復見，那堪揮淚寫哀歌。

_戚瀛洲後人梁瑩中【拜挽】

詩禮傳家有我公，世交兼得德隣同。床頭簡帙論賢蹟，壁上心圖講聖工。幾惜幽蘭莊谷里，忽驚宏哭閟泉中。吾思江上孤墳哭，衰世何人借櫪驄。

以後 逸失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1

장춘동수창록 長春洞酬唱錄

인쇄_2022년 9월 10일
발행_2022년 9월 20일

옮긴이_박종훈
발행인_천득염
발행처_(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_062-603-9600 팩스_062-941-6705
홈페이지_http://hiks.or.kr

편집제작_흐름(www.heureum.com)

비매품
ISBN 979-11-90608-29-9 94910
979-11-90608-28-2 (세트)